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Excavation Report of the Kiln Sites of Sadang-ri, Gangjin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발간사

고려시대에 전라남도 강진 지역에는 우리나라 공예문화를 대표하는 청자를 제작한 많은 도자기 가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진 사당리는 고려 왕실의 청자를 생산한 곳으로 전성기 고려청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강진 사당리 도요지는 1914년 처음 그 존재가 알려진 후,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64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4년 봄 강진 대구면 사당리에서 청자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1977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도요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가마의 구조를 확인하고 10만 여점이 넘는 청자편 등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에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발굴 경과와 도요지의 특징, 사당리 도자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토품 1,000여점의 사진과 실측도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전성기 순청자에서부터 간지干支를 새긴 후기 상감청자에 이르는 다양한 발굴품은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지로서 강진 사당리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작지가 확실하지 않았던 명품 청자들이 사당리 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앞으로 고려청자 연구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간 한국의 도자 역사를 실증할 수 있는 주요 유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도자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도자사 연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밝힐 수 있는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학계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장
김 영 나

Foreword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numerous kilns operated in Gangjin, South Jeolla Province, producing the magnificent Goryeo celadon that has come to embody the beauty and artistry of Korean craft culture. In particular, kilns in Sadang-ri, Gangjin, produced many of the finest works of celadon exclusively for the royal court, demonstrating the advanced skills of Goryeo ceramists and the refined sensibility of the Goryeo people.

The kiln sites of Sadang-ri were first discovered in 1914, but full-scale excavations and research of the site did not begin until fifty years later. In the sp ring of 1964, various celadon roof tiles were discovered in the area, serving as the impetus f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carry out a total of nine excavations between 1964 and 1977. Through the course of these excavations, researchers uncovered the structure of Goryeo kilns and exhumed more than 100,000 celadon artifacts and shards. The museum is now publish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of these excavations in *Excavation Report of the Kiln Sites of Sadang-ri, Gangjin*.

This report includes details of the excav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iln sites, as well as photos, actual measurement diagrams, and scientific analyses of about 1,000 artifacts that represent the features of Sadang-ri ceramics. The excavated artifacts range from monochrome celadon of the peak period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y) to inlaid celadon with *ganji* inscriptions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us demonstrating the long tenure of Sadang-ri as the center of Goryeo celadon production. In addition, the report has allowed researchers to confirm that several Goryeo celadon masterpieces with an unclear provenance were in fact produced in Sadang-ri. These results will certainly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Goryeo celadon.

For decad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worked to define and solidify the history of Korean ceramics by excavating and researching important sites across the country and publishing the results. In this manner, the museum has played a key role in providing a wealth of materials and resource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eramics and in guid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Korean ceramics history. In line with its mission to explore and uphold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museum will continue to carry out such research and to transmit the results not only to academics, but also to the general public with interest in this topic.

December 2015
Kim Youngna
Director, National Museum of Korea

일러두기

1

이 책은 1964~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 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부장 이수미)에서 발간하였다.

2

본문의 수록된 유물은 일련번호, 명칭, 유형, 분류기호, 크기, 출토 위치 순으로 기재하였다.

3

독음이 같은 한자는 한글 옆에 병기하였고, 독음이 다른 경우에는 [ ] 안에 넣었다. 명문은 한글 독음 없이 표기하였다.

4

유물은 개별 정보와 도면 · 사진을 함께 배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5

장식기법 중 도범을 이용하여 문양이나 형태를 나타낸 것은 압출양각으로 분류하였다. 단, 문양 없이 형태만 표현된 경우, 유물 명칭에서 장식기법을 생략하였다.

6

유물 도면은 파손된 유물의 경우 도상복원하였고 각 유물 도면에 Scale bar와 함께 수록하였다. 유물 도면의 축소비는 1/4를 기준으로 하였고 일부 유물은 크기에 따라 축척을 달리하였다. (1:1 3cm Scale Bar, 1:3 5cm Scale Bar, 1:4 10cm Scale Bar, 1:6 20cm Scale Bar, 1:8 25cm Scale Bar, 1:10 30cm Scale Bar)

목차

발간사 02

Ⅰ 조사 개요 06

Ⅱ 유구 012

1. ‘가’구역 015
2. ‘나’구역 025

Ⅲ 출토 유물 030

1. 현황 및 분류방법 032
2. ‘가’구역 출토 유물 034
   1) 청자 034
   2) 백자 344
   3) 흑자 349
   4) 철채청자 359
   5) 요도구 362
   6) 도기 366
   7) 기와 369
3. ‘나’구역 출토 유물 370
   1) 청자 370
   2) 요도구 456

Ⅳ 조사 내용과 출토 유물에 대한 고찰 460

참고 도판 478

강진 사당리 청자의 과학적 분석 524

Abstract 548

조사 개요

I

1

조사 개요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알려진 전라남도의 강진康津은 북쪽으로 크고 작은 산이 가깝고, 남쪽으로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을 통한 수송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주원료인 고령토, 규석 등과 물, 연료가 풍부하여 도자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겸비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강진의 도자기는 청자를 비롯하여 백자, 흑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한국도자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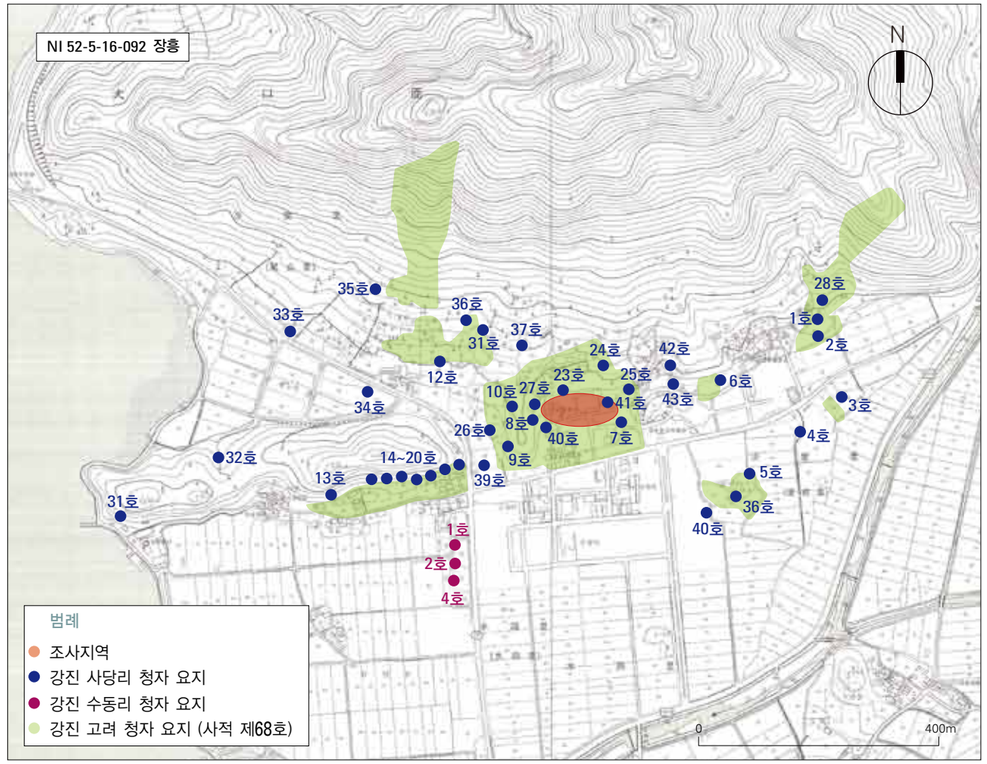
강진의 고려청자는 도요지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지금까지 한국도자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지는 대구면大口面(사적 제68호)의 용운리龍雲里 · 계율리桂栗里 · 사당리沙堂里 · 수동리水洞里와 칠량면七良面의 삼흥리三興里(전라남도 기념물 제81호) 등지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대구면의 도요지는 용문천龍門川을 중심으로 상류의 용운리에서부터 중류의 계율리를 지나 바다와 인접한 하류의 사당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분포한다. 이 지역에서 파악된 도요지는 거의 183개소에 이르며,[1] 고려청자의 발생과 완성, 확산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시기와 종류의 청자가 확인된다.

도면 01.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1 海剛陶磁美術館 · 全羅南道 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1992); 民族文化遺産硏究院 · 康津郡, 「康津 沙堂里 43號 高麗 靑瓷窯址 發掘調査報告書」(2015), pp. 36~41.

1964~1977년 국립중앙박물관(舊 국립박물관)이 조사한 도요지는 전라남도 강진 대구면 사당리 117 · 126 · 127번지 일원으로 북쪽에는 여계산女鷄山(표고점標高點 311.3)이, 동쪽에는 일명 대계산大鷄山이라고 하는 만경대萬景臺(표고점 391.2)가 자리잡고 있다.도면 01 서쪽에는 강진만康津灣이 있으며 남쪽에는 대구천大口川과 넓은 평야가 있다. 청자기와를 비롯하여 중요한 청자가 대량으로 발견된 지점인 117번지는 사당리 도요지 8호와 23 · 27 · 40호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에 고려청자박물관(舊 강진청자박물관)이 인접해있다. 청자가마 1기가 발굴된 127번지는 제41호 도요지가 자리한 곳으로 주변에 7호와 24 · 25호가 있고 서쪽에 고려청자박물관이 자리한다.사진 01 · 도면 02 현재 41호 청자가마는 발굴된 원형을 그대로 보존 중이다.

사진 01. 강진 대구면 사당리 전경(2014년 촬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도면 02. 조사지역 주변 도요지 분포지도(1:25,000)

국내 최대 규모의 청자 생산유적인 강진의 도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고故 최순우(당시 국립박물관 미술과장,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청자기와에 대한 학문적 흥미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2] 그는 1964년 봄 대구면 사당리 117번지 일대에서 청자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3] 같은 해 가을부터 정양모(당시 국립박물관 학예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와 더불어 그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64년 이후 거의 매년 사당리 126번지 및 127번지 일대를 발굴조사하고,[4] 1973 · 1974 · 1977년에는 조사지와 인접한 127번지 및 104-1번지 일대의 제41호 도요지 발굴조사를 병행하였다. 1964년에 실시한 1차 조사는 117번지 일원에 대한 것으로 퇴적층과 다량의 청자를 확인하였다. 특히 〈청자압출양각당초문압막새〉를 비롯한 청자기와편들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1965~1966년의 2 · 3차 조사는 1차에 이어 126 · 127번지에 대한 퇴적층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66년의 3차 조사에서는 건물지의 초석과 적심이 확인되었다. 1968년에 실시한 4차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확인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는데, 청자자판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1969~1970년에 실시한 5 · 6차 조사에서는 건물지 조사와 더불어 부속시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14세기에 제작된 상감청자가 주로 확인되었다. 1973~1974년에 실시한 7 · 8차 조사는 41호 도요지인 127 · 104-1번지에 대한 것으로 반지하식 등요登窯 1기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인 1977년의 9차 조사는 41호 가마의 정리단계로, 가마벽의 보호를 위해 모래부대를 만들어 벽면을 받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사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 崔淳雨, 「康津沙堂里窯址出土靑磁瓦」, 『미술자료』 제9호(국립박물관, 1964), pp. 25~26.
3 崔淳雨, 「高麗靑磁瓦」, 『미술자료』 제13호(국립박물관, 1969), p. 1.
4 鄭良謨,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 요상 발굴조사」, 『박물관신문』 제35호(1974년 1월).

구분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1차	1964.09.22. ~10.12.(26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1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김동현
2차	1965.09.22. ~10.05.(15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6 · 12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3차	1966.10.22. ~11.04.(15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4차	1968.10.25. ~11.15.(20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5차	1969.11.10. ~12.02.(23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6차	1970.10.22. ~11.05.(15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권영필
7차	1973.10.26. ~11.09.(15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 104-1	최순우, 정양모, 이준구, 이상수, 박영규
8차	1974.06.08. ~06.22.(15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 104-1	정양모, 이준구, 임영주, 이상수, 박영규
9차	1977.11.23. ~12.02.(10일간)	전남 강진 대구면 사당리 127 · 104-1	정양모 외 6인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양모와 구일회(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현 국립부여박물관장)의 주관 하에,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출토품에 대한 기초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작업은 나무 상자와 포대에 보관중인 출토품을 세척하여 정리용 상자에 옮겨 담고, 조사 당시 작성한 발굴일지와 연도별 조사 시굴갱의 명칭 등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출토품 중 일부를 선별하여 조사연도별, 출토지별로 분류하고 유물카드를 작성하였다. 2014~2015년 강대규(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와 장성욱(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은 1960~1970년대의 발굴성과와 1990년대 정리 작업을 기초로, 전체 유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종별 정리와 세부 형식 분류, 접합 복원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정한 중요 출토품에 대해 실측 및 도면 작성,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유구遺構와 유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유구

Ⅱ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단은 1964년 9월의 제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77년 12월에 마무리 된 제9차까지 총 154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사당리 117번지에 위치한 가옥의 내부조사를 시작으로 그 북쪽과 동쪽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여계산의 끝자락 사면에 위치한 조사지역은 당시에 가옥과 계단식 경작지로 사용되어 원 지형이 다소 훼손된 상태였다.사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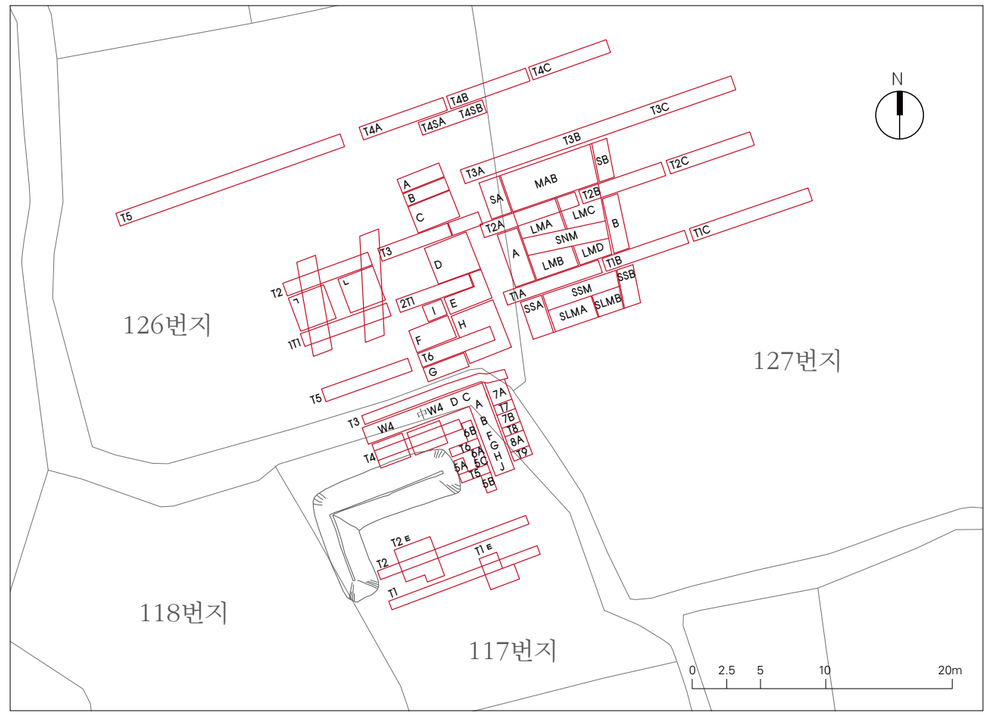
사진 02. 조사지역 항공사진(1948년 촬영, 국토지리정보원)

보고서의 내용은 당시에 작성된 발굴일지와 사진, 부분적으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사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고려청자박물관을 기점으로 서쪽 조사지역을 '가'구역으로, 동쪽 대상지역을 '나'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사진 03 '가'구역은 다시 3지점으로 세분하여 서술하였다. 조사지역의 시굴갱, 층위에 대한 명칭은 발굴일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가'구역에서 수혈 1기, 유물 퇴적층, 석렬石列 1기, 2동의 건물지, 출입시설이 확인되었고, '나'구역에서는 청자가마 1기가 조사되어 41호 도요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진 03. 연도별 조사지역(2013년 촬영, 국토지리정보원)

1

'가'구역



도면 03. '가'구역 시굴갱 배치 복원도(1/300)5

| 1 | 1지점

1지점은 1964년의 조사지역으로 사당리 117번지 일대의 가옥 주변이다. 가옥의 앞마당과 뒷담의 동쪽 주변에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중심 시굴갱을 설정하고, 조사 중 유구의 징후가 확보된 구간을 중심으로 확장 시굴갱을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앞마당에 길이 1m 40cm, 폭 60cm 크기의 시굴갱 2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각각 T1, T2로 명명하였다.사진 07 지표에서 5~10cm 정도의 깊이에서 발, 잔, 접시, 기와 등의 청자와 갑발이 포함된 퇴적층이 확인되었다.사진 04 유물이 포함된 부식토층은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얕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청자가 집중되었던 T1의 동쪽, T2의 서쪽을 확장하여 T1ㅌ, T2ㅌ를 설치하였다. T1ㅌ, T2ㅌ에서 다수의 유물이 밀집된 퇴적층이 조사되었으며,사진 05 T1ㅌ에서는 석렬도 확인되었다. 확인된 석렬 부근에서 한 개의 수혈이 발견되었는데,사진 06 굴광된 상면이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였다. 조사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해당지역은 공방지 등 가마와 관련된 제반시설이 자리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 조사현장 촬영사진과 발굴일지에 기록된 스케치 등을 참고하여 조사지역의 시굴갱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사진 04. T1 북벽 토층 모습

사진 05. T1ㅌ 유물 노출 모습

사진 06. T1ㅌ 부근 수혈 조사 모습

사진 07. 사당리 117번지 마당 조사 후 전경(북동→남서)

사당리 117번지의 북쪽인 가옥의 담장 주변에도 시굴갱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주변은 담장의 조성과 경작 등으로 인해 퇴적층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를 위해 가옥의 북쪽 담장 너머에 동-서방향으로 길이 1m 80cm, 폭 30cm의 시굴갱인 T3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청자상감매병 등과 함께 〈청자상감여의두문지정(至正)명접시〉가 출토되었다.사진 08 조사 당시 T3의 북쪽은 길과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사자는 유물의 퇴적층이 북쪽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담장 안팎에는 동-서방향의 시굴갱 T4, T5, T6, T7, T8, T9를 설치하였다. 북쪽 담장의 동-서방향으로 설정된 시굴갱 조사를 통해 담장 아래의 유물 퇴적층을 확인하였다.사진 09~13 유물은 담장 하부에서 간지명 상감청자를 중심시기로 하는 14세기경의 상감청자들이 출토되었고, 그 아래의 토층을 걷어내자 12~13세기경의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을 받친 무문, 음각, 압출양각의 청자들이 다수 포함된 유물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사진 08. T3 〈청자상감여의두문지정(至正)명접시〉

사진 09. 담장 하부(中W4B)의 유물 퇴적 모습

사진 10. 동-서방향 담장 제거 후 북벽 토층 모습

사진 11. T5 동벽 담장 하부의 유물 퇴적 모습

사진 12. T6 북벽 토층 모습(T6A→T6)

사진 13. T7, T8 전경(북→남)

담장 안쪽에 구획된 시굴갱 T4, T5, T6과 외부에 자리한 T3, T7, T8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 사이를 가르고 있던 담장 일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연장 시굴갱을 추가로 설치한 후 A, B, C, D, E, F, G, H, I, J로 명명하고 구분하였다. 담장을 제거하고 설치한 시굴갱은 북쪽 가장자리 부근으로부터 알파벳순으로 조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 당시 작성된 관련 기록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남-북방향 담장 하부에서 확인된 유물이 포함된 부식토층은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양상이다. 유물의 퇴적이 북동쪽 담장의 가장자리 부근과 담장 석렬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해당 유물포함퇴적층은 담을 조성할 당시에 주변에 산재한 자기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4 그러나 담장 내부 이외에도 담장의 지정시설의 하부와 그 주변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인근에 청자요업과 연관된 유물폐기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쪽 담장의 모퉁이 부근의 유물이 포함된 퇴적층을 제거하자 도기 저부편 2점이 나란히 놓인 채로 출토되었다.사진 15

사진 14. 담장 부근 조사 후 전경(북→남)

사진 15. 담장 하부 퇴적층 제거 후 도기 저부편 노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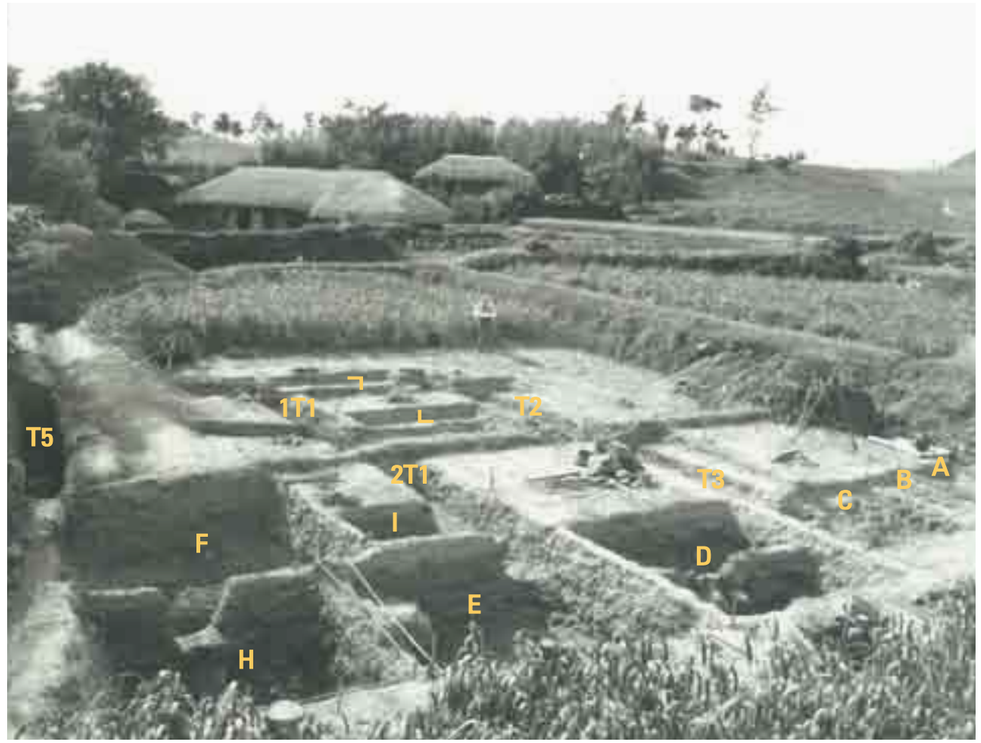


사진 16. 2지점 시굴갱 배치 모습(추정)

2지점은 1965년의 조사대상지역인 사당리 126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발굴조사 당시 계단식 경작지가 있던 곳이다. 1964년 조사 때, 담장 북쪽으로 유물퇴적층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여 가옥의 북쪽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역의 중앙에 등고선과 직교하는 동-서방향의 중심 시굴갱 4기를 설정하고, 남쪽부터 1T1, 2T1, T2, T3로 명명하였다.사진 16 전반적으로 표토를 포함한 상부 부식토층에서는 14세기경의 청자가 소량 출토되었고, 그 아래의 퇴적에서는 12~13세기경의 청자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서쪽에 해당하는 1T1에서는 기와편과 함께 남-북방향의 미상석렬 1기가 확인되었고, T2에서는 '계묘癸卯'명이 타날된 암키와편이 출토되었다. 조사지역의 동쪽에 해당하는 T4, T3, 2T1, T6에서는 남-북방향으로 연결되는 다량의 유물 퇴적층이 확인되어, 트렌치 사이에 세부 시굴갱을 설치하여 그 주변에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갱의 이름은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A로 시작하여 남쪽까지 알파벳순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식토로 이루어진 표토가 20~25cm 두께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아래에 굳게 다져진 풍화암토층이 깔려 있었다. 시굴갱 A부터 시작된 퇴적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퇴적폭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퇴적 내에서는 청자 막새와 기와를 비롯하여 무문 매병, 정형 향로 등의 유물들이 대량 확인되었다.사진 17 유물퇴적층의 깊이는 시굴갱 A의 경우 표토에서 10cm 내외에서 확인이 되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깊어져 H에 이르면 85cm 내외의 깊이까지 유물퇴적층이 확인된다. 퇴적의 단면형태는 넓은 'V'자형이며, 유물의 퇴적은 C, D, E가 가장 깊고 유물의 출토량도 많다.사진 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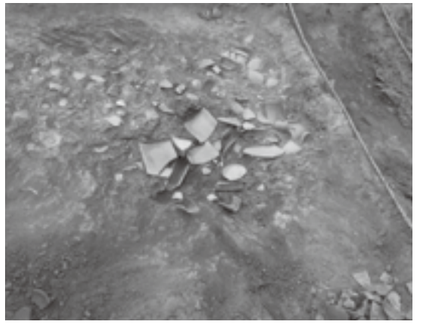


사진 17. 시굴갱 C 퇴적 유물 노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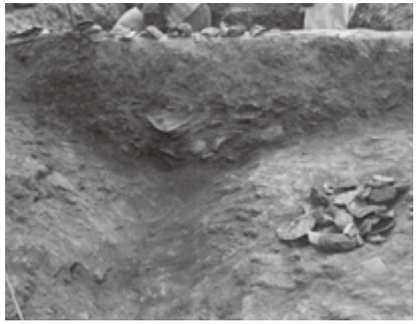


사진 18. 시굴갱 C, D 토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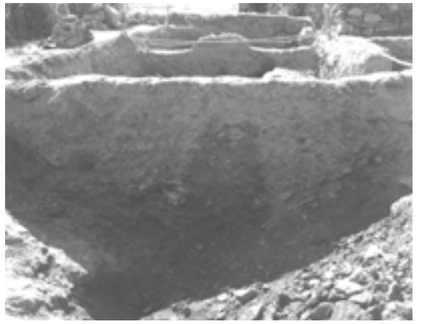


사진 19. 시굴갱 D, E 토층 모습

사진 20. 시굴갱 E, H 퇴적 유물 노출 모습

사진 21. 조사지역 동쪽 유물퇴적층 1차 노출 모습(북→남)

사진 22. 조사지역 동쪽 유물퇴적층 조사 후 모습(북→남)

조사지역의 서쪽에 설치한 1T1에서는 남-북방향의 석렬을 확인하기 위해 1T1과 T2를 연결하는 추가 시굴갱 2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각각 ㉠, ㉡으로 칭하였다. ㉠과 ㉡의 내부에서 남-북방향의 석렬이 각 1기씩 확인되었으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연장되지는 않았다.사진 23~24

사진 23. 조사지역 서쪽 미상석렬 노출 모습(북→남)

사진 24. 조사 완료 후 전경(북동→남서)

| 3 | 3지점

1966~1970년의 조사대상지역인 3지점은 사당리 127번지의 서쪽과 126번지의 북쪽으로, 당시에는 계단식 경작지였으며, 1965년에 조사된 남-북방향 퇴적이 위치하는 지점의 동쪽과 북쪽 일대이다.사진 25 1966년 조사에서는 T1, T2, T3, T4, T5로 명명한 동-서방향의 시굴갱 5기를 설정하여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사진 26 T1, T2, T3에서 기단석렬 및 적심 등을 확인하고 이 일대를 확장조사하여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확인된 건물지를 Building A(이하 B.A)로 명명하였다. 당시 지표면의 부식토층을 걷어내자 간지명이 상감된 청자편과 초벌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T3의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설치된 T4와 T5에서는 12~13세기경의 청자와 14세기경에 제작된 청자, 그리고 기와들이 혼재되어 확인되나 유구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진 25. 3지점 조사 전 전경(서→동)

사진 26. T1, T2, T3 전경(북→남)

1968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건물지인 B.A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였던 유물퇴적구를 조사하였다. 이 유물퇴적구는 주변 경작지에 있던 유물들을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퇴적구의 절개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자는 퇴적구를 SM이라 지칭하고 유물을 수습하였다.사진 27~28

사진 27. SM 조사 전 모습

사진 28. SM 퇴적 양상

1968년에 이루어진 B.A에 대한 전면조사는 1966년에 확인된 건물지 내부에 격자 토층둑을 남기고 위에서부터 걷어내는 방식의 세부조사로 진행되었다. 유구 상부에 있던 표토와 부식토층을 걷어내자 간지가 새겨진 상감청자를 포함하여 다량의 초벌구이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노출되었다. 초벌구이 퇴적층은 건물지의 전면에서 확인되며, 적심이나 기단석렬 등의 유구가 유물퇴적층에 덮여 있는 양상이다.사진 29~32 그리고 건물지의 남쪽에서 확인된 아궁이 안에서는 재를 발견하였다.

사진 29. B.A 유물퇴적층(초벌구이편 위주) 노출 전경

사진 30. B.A 북벽 토층

사진 31. 초벌구이 퇴적 노출 모습

사진 32. 상감청자류 출토 모습

1969년에는 B.A와 B.A의 동쪽에 대한 전면적인 세부조사가 실시되었다. B.A 상부에 퇴적된 초벌구이 퇴적층을 걷어내자 건물지의 기초 석렬들이 노출되었다. 건물지는 동향이고, 평면은 정면 3칸에 앞 · 뒤 칸에 각각 1칸씩 덧붙여 측면 3칸인 '一'자의 형태이다. 전체규모는 배연시설을 포함하여 남-북방향 길이가 약 13.8m, 동-서방향 길이가 8.8m이었다. 정면의 적심간 거리는 3m이었으며, 측면의 앞 · 뒤 적심간 거리는 1.5m이었다.사진 35 건물지의 남쪽에서 'ㄷ'자 형태의 아궁이가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아궁이에서 서북쪽으로 휘어지는 연도煙道의 흔적이 조사되었다.사진 33 조사지역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배연부로 추정되는 방형의 시설이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는 기와가 폐기되어 있었다. 건물지의 서측으로는 배수로가 조성되었다.사진 34 기단석은 기초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석을 다듬은 석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33. B.A 아궁이 조사 후 모습(남→북)

사진 34. B.A 배연부 내부 기와 폐기 모습

B.A의 북동쪽에는 동-서방향의 석렬 등이 확인되어 Building B(이하 B.B)라 칭하고 조사하였다. 동-서방향의 석렬은 북쪽으로 꺾여 연장되나, 북쪽의 대지는 조사지역에서 제외되어 전체규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동-서방향의 석렬은 2열로 조성되었으며, 단이 져 있었다. 확인된 동-서방향 석렬의 길이는 약 12.2m이다.사진 36

사진 35. B.A 조사 후 전경(북→남)

사진 36. B.B 조사 후 전경(동남→서북)

B.B 건물지의 남쪽은 완만한 사면을 이루었으며, 표토층을 걷어내자 폐기와가 넓게 깔린 구간이 확인되어 Building C(이하 B.C)라 칭하고 1968년에서 1970년에 걸쳐 세부조사를 실시하였다. B.C에는 기와파편을 세로로 2줄씩 나란히 세워 '山'형의 윤곽을 이룬 구간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와 주변에 기와를 넓게 깔아서 보도步道를 마련했던 것이 조사되었다. 세 줄의 남-북방향의 기와열 중 서쪽의 두 줄 끝에는 판석 2매가 각각 확인되었는데,사진 37 동쪽의 1열은 잔존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B.B 남측에서 시작되는 기와열은 B.A의 남쪽 기단열까지 이어졌다.사진 38~40 따라서 해당유구는 B.B로 진입하는 출입시설로 추정할 수 있었다. 출입시설의 동쪽 상부에 남동-북서방향의 용도미상 석렬이 확인되었다.도면 04

사진 37. B.C 중앙부 북쪽

사진 38. B.C 서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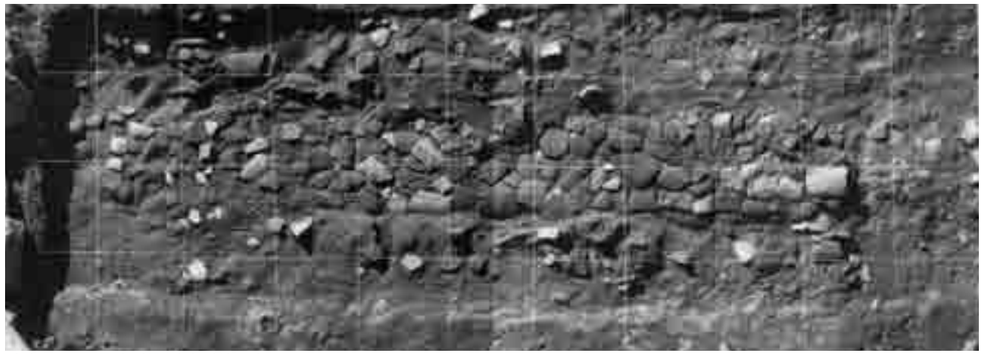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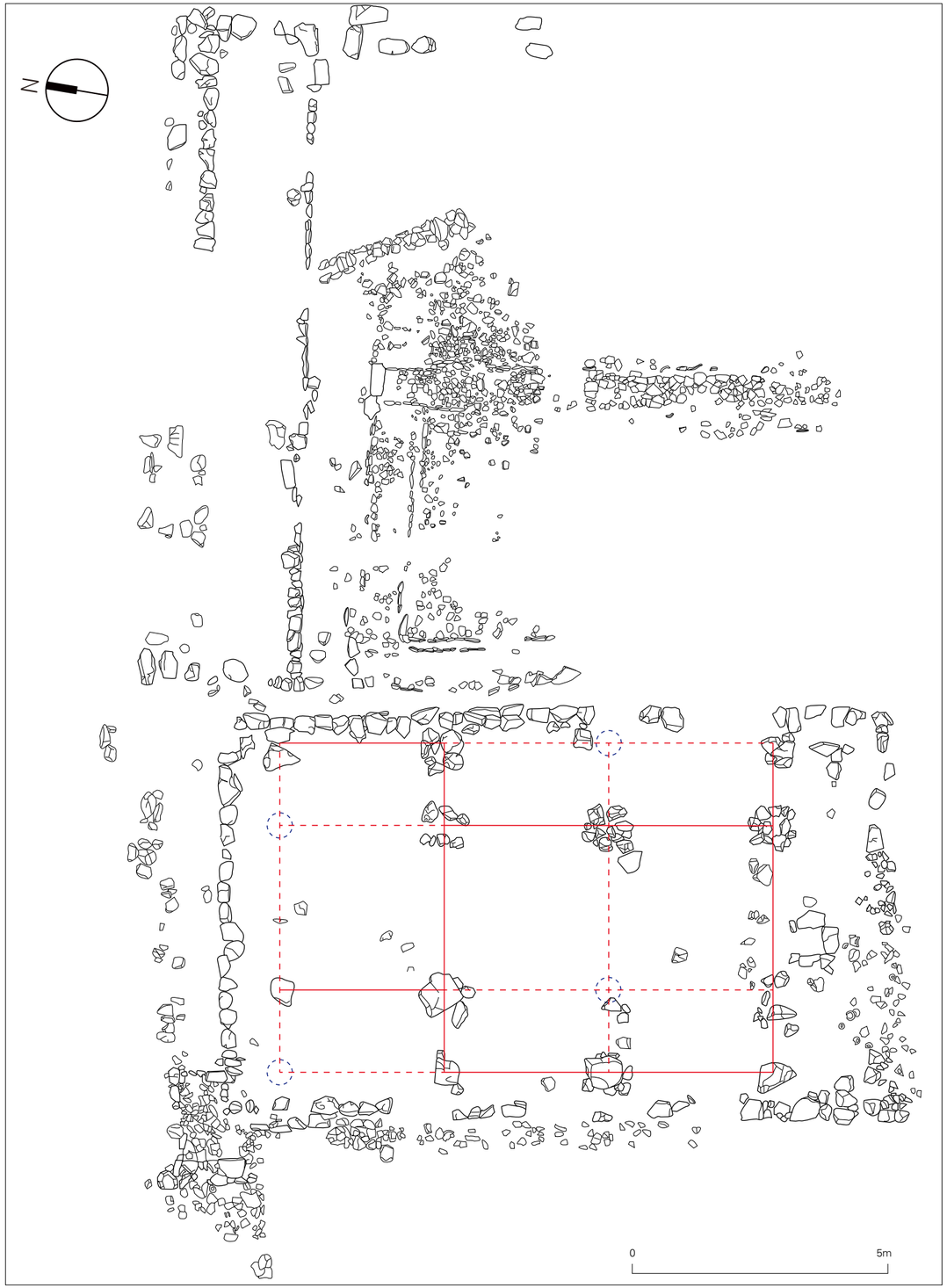


사진 39. B.C 중앙 남쪽 기와 시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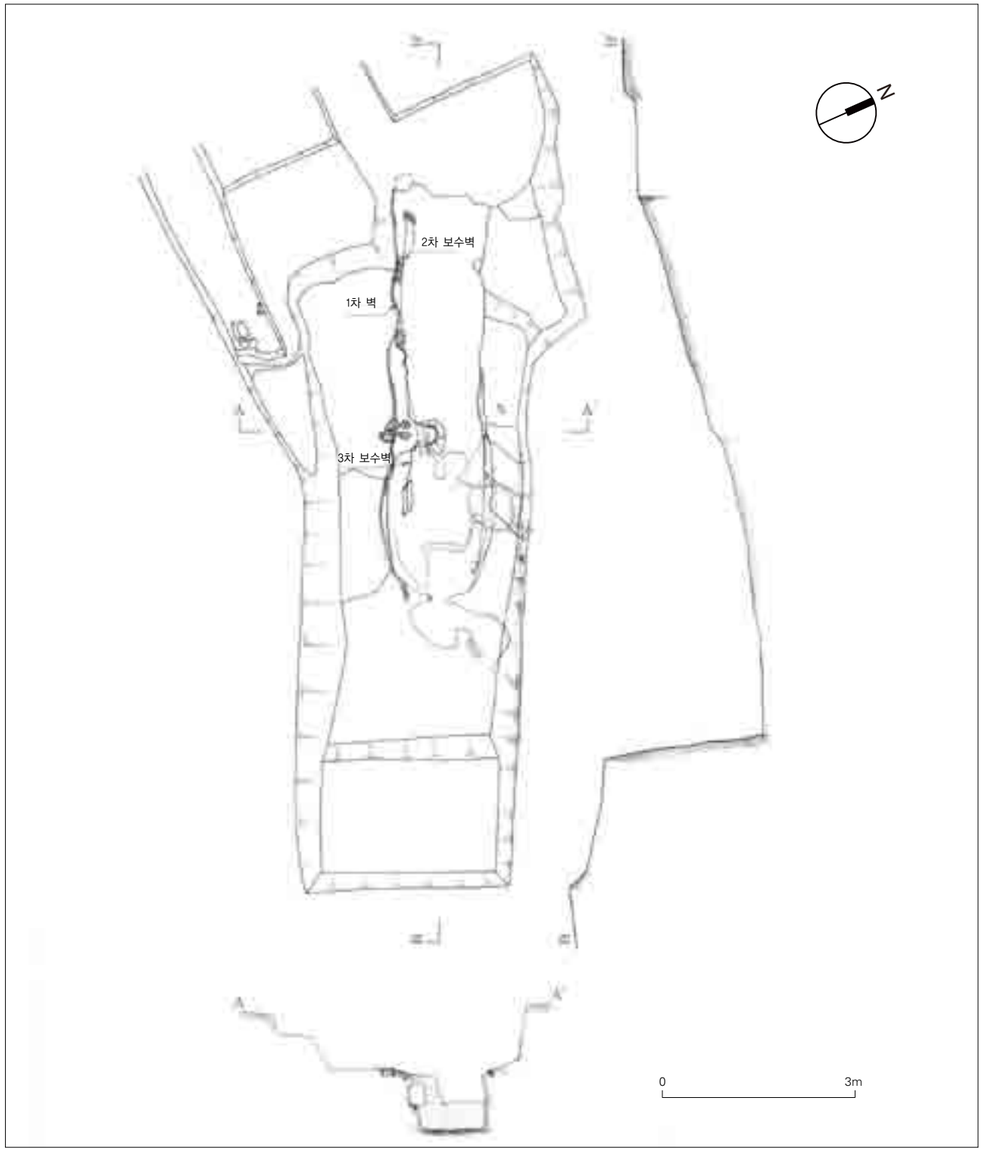
사진 40. B.C 조사 후 전경(동→서)



도면 04. B.A, B.B, B.C 평면도(1/100)

2
‘나’구역

‘나’구역은 41호 도요지로 알려진 곳으로 사당리 127번지의 동쪽과 104-1번지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시굴갱 3기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T1, T2, T3) 석렬 및 재층, 소토층 등이 확인되었고, 보다 입체적인 조사를 위해 주변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T2에서 가마 유구의 윤곽선이 노출되어 이를 따라 가마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도면 05. 41호 가마 평면도 및 단면도(1/80)

확인된 가마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방향으로 나지막한 구릉의 종단부에 입지한다.사진 41 가마는 아궁이 부분을 굴광하여 축조하고 번조실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굴뚝부에 이를수록 서서히 지상으로 노출되는 반지하식의 등요이다.사진 50 가마벽은 갑발을 먼저 포개어 쌓아올려 뼈대구조를 만든 다음, 진흙을 발라 틈새를 메우는 방식으로 벽을 조성하였다.사진 49 배연부는 경작지의 개간으로 삭평되어 완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잔존하는 가마의 규모는 길이 8m, 폭 1m 10cm~1m 50cm 내외이다. 가마는 아궁이, 번조실, 불기둥 등이 남아있다. 좌측 벽에서는 판석 1매가 잔존하는 것이 확인되어 가마의 구축을 위해 석재도 부분적으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43 우측 상단 가마바닥에서는 불기둥 1기가 확인되었는데, 크기로 보아 2개로 추정된다.사진 44 가마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고, 부분적으로 갑발이 남아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사자는 가마가 5차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사진 45 개축은 1차에서부터 4차까지는 가마벽이 차츰 좁아지다가 5차 때에는 다시 약간 넓어졌다고 판단하였다.사진 48 즉 1차 벽면의 최대폭은 1m 50cm에서 차츰 좁아들어 2차, 3차를 거쳐 4차 벽면의 최대폭 1m 10cm까지 좁아졌다가 다시 가마바닥을 약 40cm 높이고 3차 벽면까지 약 1m 30cm로 넓어졌다.[6] 1~2차 가마의 아궁이 우측에서 각각의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폐기장은 가마의 좌우와 연소실 아래에 가마의 주축방향과 동일하게 조성되었다.사진 46~47

사진 41. 41호 도요지 조사 전 전경(서남→동북)

사진 42. 가마바닥 절개 모습

사진 43. 가마 조사 모습

6 김득풍, 「제9차 康津고려청자요지 발굴조사」, 『박물관신문』 제78호(1978년 2월 1일).

사진 44. 불기둥 모습

사진 45. 가마벽 보축 모습

사진 46. 가마 좌측 퇴적 모습

사진 47. 가마 우측 퇴적 모습

사진 48. 3차 요상 조사 중 모습

사진 49. 가마 개보축 모습

사진 50. 조사 완료 후 모습

1

현황 및 분류방법

다양한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가'구역 유구는 층위가 대부분 교란된 상태이며 유물의 잔존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 1964년부터 기록된 발굴일지와 사진 자료에 의하면 집터 조성과 농경지 개간 등으로 유구가 훼손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청자를 비롯하여 상감청자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품질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나'구역의 출토 유물은 '가'구역에 비해 종류도 단순하고 수량도 현저히 적다. 출토 유물은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한 발 · 접시 등이 대부분으로 일반기一般器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포개구이의 비중이 높은 것도 '나'구역 출토 유물의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유물의 잔존 상태는 '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편이다.

'가' · '나'구역의 출토 유물 현황은 〈표1〉과 같다. '가'구역의 출토 유물 종류는 청자靑磁 · 백자白磁 · 흑자黑磁 · 초벌구이 · 요도구窯道具 · 도기陶器 · 기와[瓦] 등으로 구분된다. 전체 출토품 가운데 청자는 83.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흑자는 0.7%, 백자는 0.1%의 비율로 확인되어, 사당리 가마가 청자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구역의 출토 유물은 청자 · 초벌구이 · 요도구로 구분된다. 전체 출토품 가운데 청자는 97.5%, 초벌구이는 0.5%, 요도구는 1.9%의 비율을 보인다.

〈표1〉 출토 유물 현황

구분		청자	백자	흑자	초벌구이	요도구	도기	기와
'가'구역	수량(점)	14,090	21	127	2,547	89	54	10
	비율(%)	83.18	0.12	0.75	15.04	0.53	0.32	0.06
	소계	16,938(100%)						
'나'구역	수량(점)	1,025	-	-	6	20	-	-
	비율(%)	97.53			0.57	1.9		
	소계	1,051(100%)						
총계		17,989(100%)						

출토 유물의 분류는 우선 출토지의 성격에 따라 '가'구역과 '나'구역으로 구분하고, 청자 · 백자 · 흑자 · 요도구 · 도기 등으로 종류를 나눈 후, 출토량이 가장 많은 발 · 완 · 잔 · 접시를 기준으로 하여 종種 · 류類 · 형形 · 식式으로 세분하였다. 분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부底部의 잔존율이 50.0% 이상인 것을 하나의 개체로 파악하였고, 일반기와 매병 등의 일부 특수기特殊器가 이에 해당한다. 유물 가운데 파손이 심각하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분류에서 제외하였지만, 구연부口緣部와 저부 모두가 잔존하는 예가 적은 일부 특수기는 작은 단서라도 기형 파악이 가능하면 대상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가령 병 · 주자와 같이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일부 유물은 기종별 특징 또는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임의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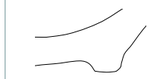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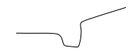
종種은 발 · 완 · 잔 · 접시 등의 기종器種을 의미한다. '가'구역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자를 중심으로 백자, 흑자, 요도구와 도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출토량이 가장 많은 청자는 발 · 완 · 잔 · 접시 · 매병 · 병 · 주자 · 호 · 편호 · 대발 · 발우 · 합신 · 개蓋 · 탁托 · 승반 · 기대器臺 · 투합套盒 · 향완 · 향로 · 향로개 · 자침磁枕 · 촉대 · 연硯 · 타호 · 약연(봉) · 반 · 화분 · 돈墩 · 자판磁板 · 기와 · 막새[瓦當]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나'구역에서는 발 · 완 · 잔 · 접시 · 매병 · 병 · 주자 · 호 · 편호 · 대발 · 발우 · 합신 · 개 · 탁 · 승반 · 향로 · 향로개 · 화분 · 자판 · 기와 등의 청자와 요도구가 확인된다.

류類는 번조받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옅은 베이지색 또는 백색내화토빛음(이하 백색내화토빛음), 모래 섞인 내화토빛음(이하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 등 크게 5가지가 있다. 특히 일부 대형 기종에서는 모래내화토빛음과 규석 받침을 혼용한 경우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규석 받침으로 분류하였다.

형形은 그릇 형태의 외형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릇의 기측선과 구연부의 형태, 그리고 그릇 안쪽의 원각의 존재 여부를 반영하였다. 출토 유물 가운데 기측선이나 구연부가 확인되지 않는 일부 유물은 동일 류의 유물에서 기준을 찾아 분류를 시도하였다.

식式은 굽의 형태와 문양의 시문기법施文技法에 기준한 것이다. 우선 굽의 형태는 크게 햇무리굽, 다리굽, 안굽, 평굽 등으로 구분하였다.〈표2〉 이 가운데 고족배를 포함한 다리굽은 굽과 접지면의 형태, 굽의 높이 등에 따라 다시 6가지로 세분하였다.

〈표2〉 굽의 형태

구분	도면	특징	구분		도면	특징
A		접지면의 넓이가 0.8cm 이상이고 굽의 높이가 낮은 형태	F	1		단면이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큼
B		접지면을 다소 넓고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		2		단면이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큼
C		접지면이 좁고 'U'자 또는 'V'자형에 가까운 형태	G			굽다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형태
D		굽이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	H			굽다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접지면은 편평하게 마무리한 형태
E		B굽이나 C굽의 형태이고 높이가 1cm 내외로 다소 높은 굽	I			굽의 높이가 2cm 이상인 높은 굽

문양의 시문기법은 음각陰刻, 양각陽刻, 압출양각壓出陽刻, 철화鐵畫 · 철채鐵彩, 퇴화堆花, 투각透刻, 상감象嵌 등 모두 7가지가 있다. 특히 시문기법 가운데 조각칼을 눕혀 넓게 음각하여 마치 양각과 같은 느낌을 나타낸 반양각半陽刻 기법은 음각 기법에 포함하였다. 일부 그릇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법을 혼용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중심이 되는 문양의 시문기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발 · 완 · 잔 · 접시 등 일부 그릇의 안쪽과 바깥쪽의 시문기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 기준은 〈표3〉과 같으며, 발 · 완 · 잔 · 접시에 적용하였다.

〈표3〉 출토 유물 분류 기준

類	形		式		
번조받침	기측선×구연부(조합 숫자)		원각	굽	시문기법(내③)
백색내화토빛음(Ⅰ)	곡선	직립	有(①)	햇무리굽(A)	음각(가㉮)
모래내화토빛음(Ⅱ)	사선	외반	無(②)	다리굽(B)	양각(나㉯)
규석(Ⅲ)	꺾임	꺾임		다리굽(C)	압출양각(다㉰)
모래(Ⅳ)	반구형半球形	말림		다리굽(D)	철화(라㉱)
태토빛음(Ⅴ)	미상	내만		다리굽(E)	퇴화(마㉲)
미상(Ⅵ)				다리굽(F)	투각(바㉳)
				안굽(G)	상감(사㉴)
				평굽(H)	
				높은 다리굽(I)	

2

‘가’구역 출토 유물

1) 청자青磁

청자는 전체 출토 유물 가운데 83.1%이상인 14,090점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음식문화와 관련된 발 · 완 · 잔 · 접시 등 일반기를 비롯하여 매병 · 병 · 주자 등의 비율이 높다. 이 외에도 자판 · 기와 · 벼루 · 돈 등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용도의 기종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청자문화의 다양한 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다.〈표4〉

〈표4〉 ‘가’구역 출토 청자 기종별 출토 현황

구분	무문	음각	양각	음각 +양각	압출 양각	압출양각 +음 · 양각	압출양각 +상감	철화 철채	퇴화	투각	상감	합계	
												수량(점)	비율(%)
발	1,019	727	369	2	280	31	2	0	0	0	781	3,211	22.79
완	190	361	0	0	318	9	3	0	0	0	52	933	6.623
잔	725	486	78	0	46	25	11	0	0	0	156	1,527	10.84
접시	1,852	780	425	1	1,036	41	207	0	2	5	1,206	5,555	39.43
매병	68	45	0	0	0	0	0	1	0	0	66	180	1.28
병	84	33	13	0	0	0	0	4	0	0	118	252	1.79
주자	26	20	0	0	0	0	0	0	0	0	27	73	0.52
호	33	6	0	0	0	0	0	5	0	0	37	81	0.57
편호	0	0	0	0	0	0	0	0	0	0	25	25	0.18
대발	27	7	0	0	0	0	0	0	0	0	10	44	0.31
발우	48	2	0	11	0	0	0	0	0	0	0	61	0.43
합신	22	12	0	0	0	0	0	0	0	0	25	59	0.42
개	167	165	6	0	1	0	0	2	0	0	253	594	4.22
탁	41	23	0	41	0	0	0	0	0	0	62	167	1.19
승반	8	13	0	0	0	0	0	0	0	0	18	39	0.28
기대	0	1	87	0	0	0	0	0	0	0	13	101	0.72
투합	10	0	2	0	0	0	0	0	0	0	0	12	0.09
향완	7	1	11	0	0	0	0	0	0	0	4	23	0.16
향로	2	36	14	0	42	0	0	0	0	0	32	126	0.89
향로개	0	14	11	0	0	0	0	0	0	1	0	26	0.18
자침	0	13	0	0	0	0	0	0	0	2	0	15	0.11
촉대	2	0	0	0	0	0	0	0	0	0	0	2	0.01
연	0	1	0	0	0	0	0	0	0	0	1	2	0.01
타호	14	2	0	0	0	0	0	0	0	0	2	18	0.13
약연	12	0	0	0	0	0	0	0	0	0	0	12	0.09
봉	5	0	0	0	0	0	0	0	0	0	0	5	0.03
반	33	22	0	0	0	0	0	1	0	0	65	121	0.86
화분	0	0	0	0	0	0	0	1	0	0	57	58	0.41
돈	0	0	0	0	0	0	0	0	0	40	0	40	0.28
자판	0	34	0	0	0	0	0	0	0	0	117	151	1.07
기와	243	54	0	0	0	0	0	0	0	0	0	297	2.10
막새	0	0	0	0	48	12	0	0	0	0	0	60	0.43
기타	115	14	4	0	25	0	0	7	0	2	53	220	1.56
합계	4,753	2,872	1,020	55	1,796	118	223	21	2	50	3,180	14,090	100%
	33.73%	20.38%	7.24%	0.39%	12.75%	0.84%	1.58%	0.15%	0.01%	0.36%	22.57%	100%	

기종별로 출토 비율을 살펴보면 접시는 39.4%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 아래로 발 22.7%, 잔 10.8%, 완 6.6%의 점유율을 보여 일반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만큼 유형과 크기 면에서도 다른 기종에 비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1964년 ‘가’구역의 동일 층위에서 출토된 〈청자상감국화문정해(丁亥)명접시〉와 〈청자상감여의두문지정(至正)명접시〉는 정해년丁亥年의 연대를 1347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출토 유물의 제작시기를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일반기 외에 매병 · 병 · 주자 · 기대 · 호 · 탁 · 향로 등은 특수기로 분류하였다. 총 2,852점이 확인되어 20.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기의 경우 유물의 잔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정밀한 유형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접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복원하여 원래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수기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량으로 출토된 기와라고 할 수 있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 막새 등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고려사高麗史』의 “양이정養怡亭에 청자 기와를 덮었다”라는 기록을 입증하는 동시에 고려 건축의 화려한 면모와 고려청자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7]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자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표5〉 ‘가’구역 출토 청자 발 · 완 · 잔 · 접시의 출토지별 시문기법 현황

구분	무문	음각	양각	음각 +양각	압출 양각	압출양각 +음 · 양각	압출양각 +상감	퇴화	투각	상감	합계
1지점	2,075	1,052	533	1	669	44	11	1	0	199	4,585
2지점	892	658	266	2	418	43	10	1	1	94	2,385
3지점	819	644	73	0	593	19	202	0	4	1,902	4,256
합계	3,786	2,354	872	3	1,680	106	223	2	5	2,195	11,226

시문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투각, 철화, 퇴화, 상감 등 다양한 기법이 확인된다. 사당리 고려청자의 장식 가운데 상감은 ‘가’구역이 여러 가마의 생산품으로 구성된 만큼 약 22.5%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동시에 발 · 완 · 잔 · 접시 · 향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에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음각은 20.3%, 압출양각은 12.7%의 비율을 보인다. 이 가운데 발 · 완 · 잔 · 접시 등 일반기의 시문기법을 통해 청자의 출토지별 양상을 살펴보면 ‘가’구역 1지점은 유물의 양상이 다양하고 시기 폭도 넓어 다른 구역에 비해 심하게 교란된 것을 알 수 있다.〈표5〉 1지점과 2지점은 무문을 비롯하여 음각이나 압출양각 등 순청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3지점은 순청자와 더불어 시기가 내려가는 상감청자의 출토량이 매우 높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을 비롯하여 태토빚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일반기의 번조받침을 통해 청자의 출토지별 양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규석과 백색내화토빚음, 그리고 모래 받침의 비중이 높다.〈표6〉 이를 구역별로 좀더 세분해보면 ‘가’구역 1지점에서는 규석 받침의 비중이 가장 높고 백색내화토빚음도 상당수 확인된다. 2지점에서는 규석 받침의 비중이 높으며, 3지점에서는 규석 받침을 중심으로 모래 받침도 많은 수가 확인된다.

〈표6〉 ‘가’구역 출토 청자 발 · 완 · 잔 · 접시의 출토지별 번조받침 현황

구분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	미상	합계	초벌
1지점	1,095	231	2,608	275	6	370	4,585	734
2지점	614	19	1,544	77	1	130	2,385	249
3지점	244	113	2,181	1,383	7	328	4,256	1,338
합계	1,953	363	6,333	1,735	14	828	11,226	2,321

7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 11年, 丁丑, “又毁民家五十餘區作太平亭命太子書額旁植名花異果奇麗珍玩之物布列左右 亭南鑿池作觀瀾亭 其北構養怡亭盖以靑瓷 南構養和亭盖以椶”

기종별로 살펴본 번조받침의 전체적인 양상은 규석 받침의 비중이 가장 높다.<표7> 그러나 일반기와 특수기를 구분해보면 일반기 가운데 순청자에서는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 받침이, 상감청자에서는 모래 받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순청자 특수기(매병 등)는 규석 외에도 백색내화토빛음이나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한 예가 많고, 상감청자 특수기는 모래 받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7〉 '가'구역 출토 청자 기종별 번조받침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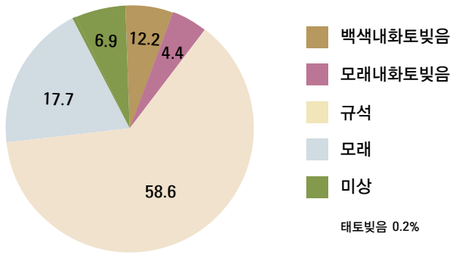
구분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	미상	합계	초벌
발	390	141	1,883	567	8	222	3,211	765
완	382	25	428	28	0	70	933	113
잔	618	58	617	91	0	143	1,527	168
접시	563	139	3,405	1,049	6	393	5,555	1,275
매병	79	16	0	54	0	31	180	33
병	21	10	19	14	0	188	252	23
주자	11	1	1	9	0	51	73	5
호	0	1	4	17	0	59	81	3
편호	0	0	0	13	0	12	25	0
대발	6	1	1	16	0	20	44	5
발우	29	0	27	2	0	3	61	0
합신	3	11	16	5	0	24	59	0
개	28	0	237	9	5	315	594	29
탁	15	3	54	43	6	46	167	34
승반	7	0	11	14	0	7	39	6
기대	0	0	2	27	0	72	101	2
투합	3	0	2	0	0	7	12	3
향완	0	0	2	2	0	19	23	5
향로	4	0	41	0	0	81	126	13
향로개	0	0	9	0	0	17	26	1
자침	1	0	6	0	0	8	15	5
촉대	1	0	0	0	0	1	2	0
연	0	0	1	0	0	1	2	0
타호	2	0	1	3	0	12	18	0
약연	8	1	1	1	0	1	12	4
봉	0	0	0	0	0	5	5	2
반	4	3	26	26	0	62	121	8
화분	0	0	0	20	0	38	58	9
돈	0	0	0	31	0	9	40	6
자판	2	24	0	0	0	125	151	6
기와	14	2	0	0	0	281	297	16
막새	0	0	3	0	0	57	60	2
기타	24	6	35	25	0	130	220	6
합계	2,215	442	6,832	2,066	25	2,510	14,090	2,547
	15.72%	3.14%	48.49%	14.66%	0.18%	17.81%	100%	100%

| 1 | 발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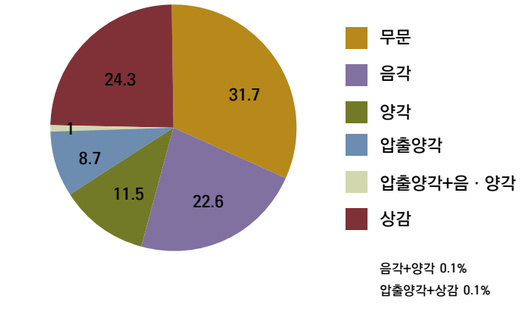
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모두 확인된다.〈그래프1〉 형은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7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6가지로 나누었다.〈표8〉 우선 '발1~4'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과 'V'자형 또는 'U'자형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 그리고 다소 높은 다리굽인 E형이 확인되는데 C형의 비율이 높다. 무문無文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양각 · 압출양각 · 상감 등이 있고,〈그래프2〉 문양은 화당초문 · 모란문 · 봉황문 · 연당초문 등이 있다.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인 '발5~6'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시문기법은 음각 · 양각이 있고, 문양은 앵무문 · 연판문이 있다. '발7~9'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C형과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D형이 확인된다. 문양은 음각으로 장식한 봉황문이 있다. '발10'은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높은 다리굽인 E형이다. 기측선이 반구형半球形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 또는 외반하는 형태인 '발11~13'은 C형 또는 B형이나 C형의 크고 넓적한 형태인 F형이 확인된다.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 · 상감이 있고, 문양은 모란문 · 연화이룡문 · 운학문 등이 대표적이다. '발14~1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로, 음각 · 압출양각 · 상감으로 국화문과 운학문 등이 시문되었다. '발16'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에 이른다. 굽은 F형이며 주로 상감으로 운학문이나 포류수금문을 나타낸 것이 많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 발은 '발1~2', '발5~8', '발10~11', '발16'의 총 9개의 형식이 확인되며, 이 가운데 '발6'의 수량이 가장 많다. 원각의 지름은 5.0~6.5cm 정도가 일반적이며, 일부 원각은 7.0cm 이상의 대형 또는 3.0~4.0cm 내외의 소형인 경우도 있다. 원각이 있는 발의 높이는 약 6.0~9.0cm, 구경은 약 16.0~21.0cm 정도가 보편적이다. 원각이 없는 발은 대체로 내저가 편평하면서 기벽의 높이가 낮다. '발3~4', '발9', '발12~15'의 총 7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가장 많은 수량은 '발15'이다. 전체 높이는 약 4.5~6.0cm, 구경은 약 14.0~17.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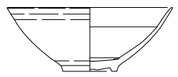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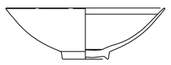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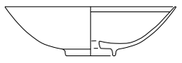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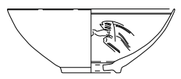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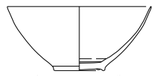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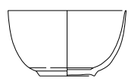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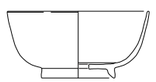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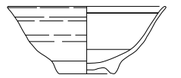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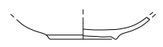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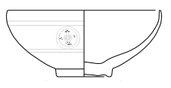
〈그래프1〉 발 번조받침 비율



〈그래프2〉 발 시문기법 비율



〈표8〉 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발 1		Ⅰ-1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당초문, 모란문 등	115	280 (8.72)
		Ⅱ-1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모란문	78	
		Ⅳ-1①-B	모래	무문		44	
		Ⅵ-1①-B	미상	무문		43	
발 2		Ⅰ-1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엽문, 모란문 등	113	556 (17.32)
		Ⅱ-1①-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황촉규문, 포도동자문 등	12	
		Ⅲ-1①-C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엽문, 모란문 등	397	
		Ⅵ-1①-C	미상	무문,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화문 등	34	
발 3		Ⅰ-1②-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봉황문	3	11 (0.34)
		Ⅲ-1②-C	규석	압출양각	봉황문	8	
발 4		Ⅵ-1②-E	미상	음각	연당초문	1	1 (0.03)
발 5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3	21 (0.65)
		Ⅱ-2①-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17	
		Ⅵ-2①-B	미상	음각	앵무문	1	
발 6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음각+양각	앵무문, 연판문 등	116	789 (24.58)
		Ⅱ-2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12	
		Ⅲ-2①-C	규석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등	642	
		Ⅵ-2①-C	미상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19	
발 7		Ⅰ-3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0	71 (2.21)
		Ⅱ-3①-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	
		Ⅲ-3①-C	규석	무문		58	
		Ⅵ-3①-C	미상	무문		2	
발 8		Ⅰ-3①-D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봉황문	2	3 (0.09)
		Ⅵ-3①-D	미상	음각	봉황문	1	
발 9		Ⅰ-3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2	12 (0.37)
		Ⅲ-3②-C	규석	무문		10	
발 10		Ⅰ-4①-E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6	35 (1.09)
		Ⅱ-4①-E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6	
		Ⅵ-4①-E	미상	무문		13	
발 11		Ⅰ-5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모란문	2	22 (0.69)
		Ⅲ-5①-C	규석	무문, 음각	모란문	20	
발 12		Ⅰ-5②-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2	24 (0.75)
		Ⅲ-5②-C	규석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21	
		Ⅵ-5②-C	미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1	
발 13		Ⅳ-5②-F	모래	상감	운학문, 포류수금문 등	29	30 (0.93)
		Ⅵ-5②-F	미상	상감	국화문	1	
발 14		Ⅲ-6②-C	규석	상감	국화문 등	1	1 (0.03)
발 15		Ⅲ-6②-F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운학문 등	377	722 (22.49)
		Ⅳ-6②-F	모래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선문, 운학문 등	287	
		Ⅵ-6②-F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선문, 여지문 등	58	
발 16		Ⅲ-7①-F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운학문 등	305	547 (17.03)
		Ⅳ-7①-F	모래	무문, 음각, 상감	선문, 운학문 등	197	
		Ⅴ-7①-F	태토빛음	무문, 상감	선문, 포류수금문 등	8	
		Ⅵ-7①-F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앵무문, 운학문 등	37	
기타						86	86 (2.68)
출토 현황	1지점	1,313	2지점	567	3지점	1,331	3,211	100%

발 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하거나 큰 원각이 있고, 내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발 2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6.4cm 정도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발 3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면에 봉황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5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발 4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면에 연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 5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4.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문양은 내면에 앵무문을 음각하거나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기도 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발 6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4.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문양은 내면에 앵무문을 음각하거나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발 7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발 8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저면에 봉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이며 크기는 8.3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발 9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은 틀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은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7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발 10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7.1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로 높이가 1.0cm 내외의 다소 높은 굽이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발 11 기측선이 반구형半球形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외면에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발 12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이룡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7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발 13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 운학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형태이며 크기는 6.0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발 14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9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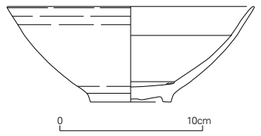
발 15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이 없다. 문양은 음각, 압출양각, 상감 등의 다양한 시문기법을 사용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발 16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운학문 등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있다.

1 | 청자발 靑磁鉢

발1 | Ⅰ-1①-B | 높이 7.0cm 저경 5.7cm | A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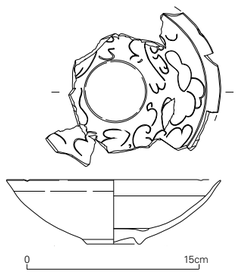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 | 청자음각화당초문발 靑磁陰刻花唐草文鉢

발1 | Ⅰ-1①-B-가 | 높이 5.7cm 저경 4.7cm | 4I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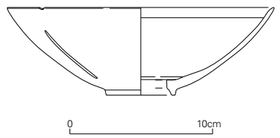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 | 청자압출양각화형발 靑磁壓出陽刻花形鉢

발1 | Ⅰ-1①-B-㉮ | 높이 6.7cm | 1차ㄹ-6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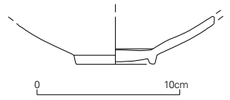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으며,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고 외면은 세로방향으로 눌러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 | 청자발 靑磁鉢

발2 | Ⅰ-1①-C | 잔존높이 3.2cm 저경 5.6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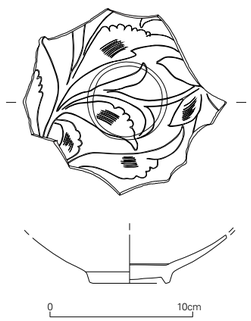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 | 청자음각모란문발 靑磁陰刻牡丹文鉢

발2 | Ⅰ-1①-C-가 | 높이 7.0cm 저경 6.1cm | B1+F2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모란문을, 외면에는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 | 청자압출양각모란문발 靑磁壓出陽刻牡丹文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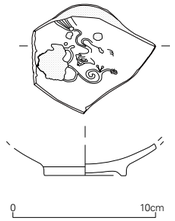
발2 | Ⅰ-1①-C-다 | 잔존높이 3.4cm 저경 5.5cm | B1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한 뒤 음각으로 윤곽선을 더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 | 청자압출양각봉황문발 青磁壓出陽刻鳳凰文鉢

발3 | Ⅰ-1②-C-다 | 잔존높이 2.4cm 저경 5.5cm | T7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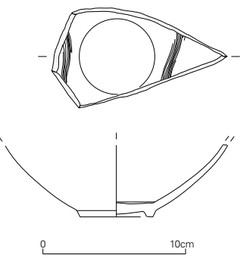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봉황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5 | Ⅰ-2①-B-가 | 잔존높이 5.0cm 저경 5.0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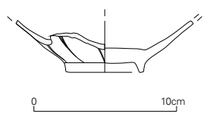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 | 청자양각연판문발 青磁陽刻蓮瓣文鉢

발5 | Ⅰ-2①-B-㉮ | 잔존높이 3.6cm 저경 5.4cm | 7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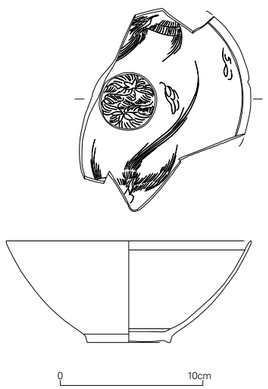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6 | Ⅰ-2①-C-가 | 높이 7.5cm 저경 5.9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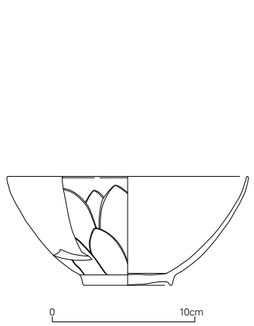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과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1 | 청자양각연판문발 青磁陽刻蓮瓣文鉢

발6 | Ⅰ-2①-C-㉮ | 높이 8.0cm 저경 6.4cm | W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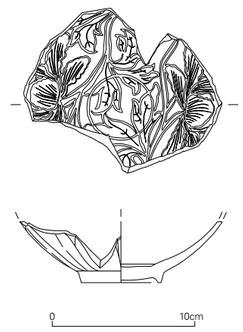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2 | 청자음각모란문발 青磁陰刻牡丹文鉢

발6 | Ⅰ-2①-C-가㉮ | 잔존높이 4.8cm 저경 5.7cm | CㅌㅌE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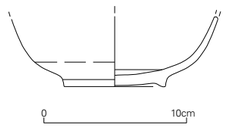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고,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 | 청자발 青磁鉢

발7 | Ⅰ-3①-C | 잔존높이 4.9cm 저경 7.0cm | 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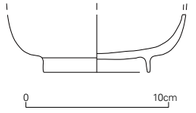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 | 청자발 青磁鉢

발7 | Ⅰ-3①-C | 잔존높이 4.0cm | BB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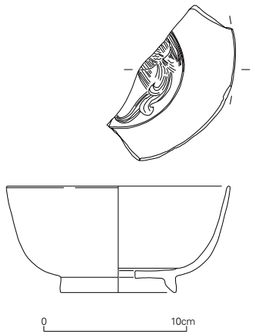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5 | 청자음각봉황문발 青磁陰刻鳳凰文鉢

발8 | Ⅰ-3①-D-가 | 높이 7.4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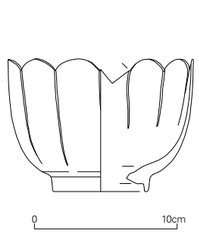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는 봉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형태이며 굽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16 | 청자화형발 青磁花形鉢

발9 | Ⅰ-3②-C-다 | 높이 9.3cm 저경 6.9cm | W7Bㅅ+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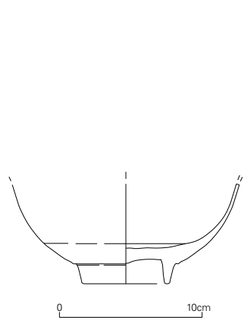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은 틀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은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7 | 청자발 青磁鉢

발10 | Ⅰ-4①-E | 잔존높이 7.0cm 저경 6.2cm | 右T9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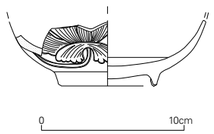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8 | 청자음각모란문발 青磁陰刻牡丹文鉢

발11 | Ⅰ-5①-C-㉮ | 잔존높이 4.6cm 저경 6.3cm | 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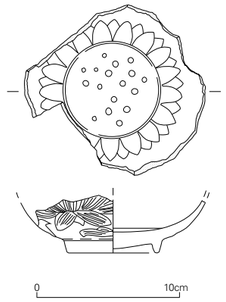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 | 청자압출양각연화문발 青磁壓出陽刻蓮花文鉢

발12 | Ⅰ-5②-C-다㉮ | 잔존높이 4.1cm 저경 6.5cm | W7Bㅅ+T6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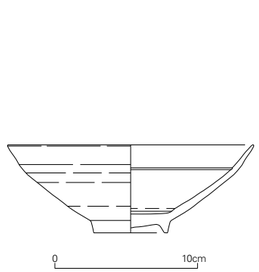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 | 청자발 青磁鉢

발1 | Ⅱ-1①-B | 높이 6.4cm 저경 5.1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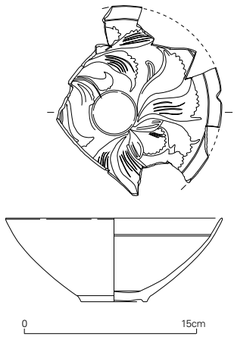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 | 청자압출양각모란문발 青磁壓出陽刻牡丹文鉢

발1 | Ⅱ-1①-B-다 | 높이 7.6cm, 저경 5.7cm | T6+A+B1+F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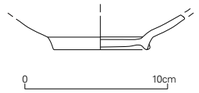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 | 청자발 青磁鉢

발2 | Ⅱ-1①-C | 잔존높이 2.4cm 저경 6.5cm | 左T3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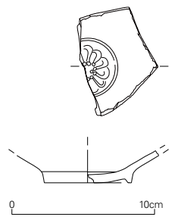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 | 청자압출양각화문발 青磁壓出陽刻花文鉢

발2 | Ⅱ-1①-C-다 | 잔존높이 2.3cm 저경 6.0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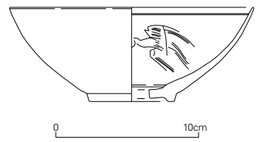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4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5 | Ⅱ-2①-B-가 | 높이 6.6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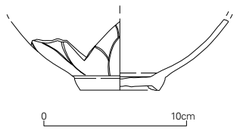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5 | 청자음각연판문발 靑磁陰刻蓮瓣文鉢

발5 | Ⅱ-2①-B-㉮ | 잔존높이 4.9cm 저경 5.5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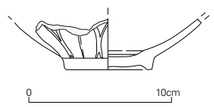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6 | 청자양각연판문발 靑磁陽刻蓮瓣文鉢

발5 | Ⅱ-2①-B-㉱ | 잔존높이 3.6cm 저경 6.1cm | 2트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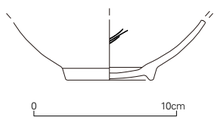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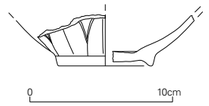


27 | 청자음각앵무문발 靑磁陰刻鸚鵡文鉢

발6 | Ⅱ-2①-C-가 | 잔존높이 3.8cm 저경 6.1cm | T2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8 | 청자양각연판문발 靑磁陽刻蓮瓣文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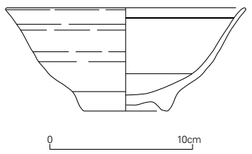
발6 | Ⅱ-2①-C-㉱ | 잔존높이 3.6cm 저경 6.8cm | T4A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9 | 청자발 靑磁鉢

발10 | Ⅱ-4①-E | 높이 7.4cm 저경 5.9cm | F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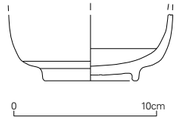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0 | 청자발 靑磁鉢

기타 | 잔존높이 4.6cm 저경 6.7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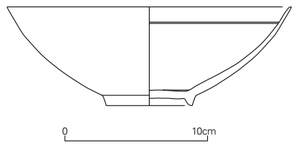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1 | 청자발 靑磁鉢

발2 | Ⅲ-1①-C | 높이 7.0cm 저경 6.1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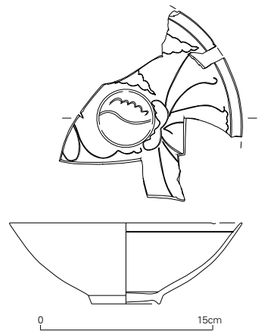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 | 청자음각모란문발 靑磁陰刻牡丹文鉢

발2 | Ⅲ-1①-C-가 | 높이 7.1cm 저경 5.9cm | 4H+H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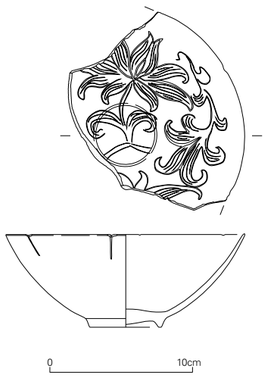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 | 청자압출양각연화문발 靑磁壓出陽刻蓮花文鉢

발2 | Ⅲ-1①-C-다 | 높이 6.8cm 저경 5.0cm | 中W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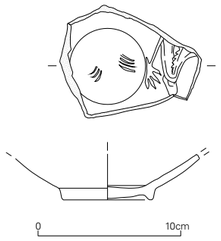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이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한 뒤 음각으로 윤곽선을 더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 | 청자압출양각용문발 靑磁壓出陽刻龍文鉢

발2 | Ⅲ-1①-C-다 | 잔존높이 3.3cm 저경 6.3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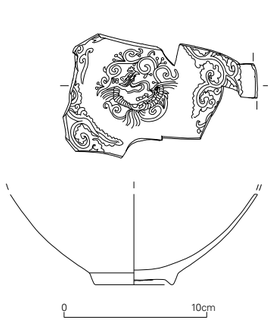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용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5 | 청자압출양각봉황문발 靑磁壓出陽刻鳳凰文鉢

발3 | Ⅲ-1②-C-다 | 높이 6.4cm 저경 5.5cm | W7Bㅅ+W4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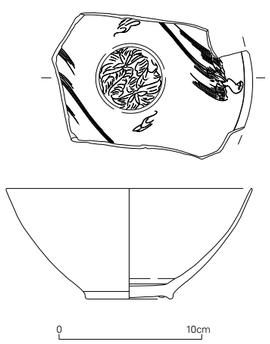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면에는 봉황문과 당초문을 압출양각한 뒤 음각으로 윤곽선을 더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6 | 청자음각앵무문발 靑磁陰刻鸚鵡文鉢

발6 | Ⅲ-2①-C-가 | 높이 7.8cm 저경 6.0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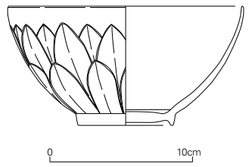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과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7 | 청자양각연판문발 靑磁陽刻蓮瓣文鉢

발6 | Ⅲ-2①-C-㉮ | 높이 8.4cm 저경 6.5cm | T6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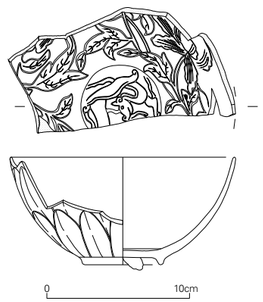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8 | 청자음각이룡모란문발 靑磁陰刻螭龍牡丹文鉢

발6 | Ⅲ-2①-C-가㉮ | 높이 7.6cm 저경 5.8cm | Cㄷ+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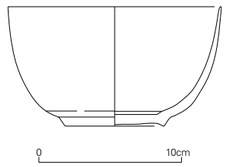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이룡문과 모란문을 음각하였고,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9 | 청자발 靑磁鉢

발7 | Ⅲ-3①-C | 높이 8.3cm 저경 7.1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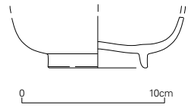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0 | 청자발 靑磁鉢

발7 | Ⅲ-3①-C | 잔존높이 3.4cm 저경 6.8cm | 右T9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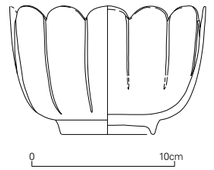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1 | 청자화형발 靑磁花形鉢

발9 | Ⅲ-3②-C-다 | 높이 8.9cm 저경 6.5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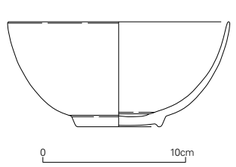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은 틀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은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2 | 청자발 靑磁鉢

발11 | Ⅲ-5①-C | 높이 7.4cm 저경 6.0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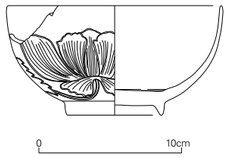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3 | 청자음각모란문발 青磁陰刻牡丹文鉢

발11 | Ⅲ-5①-C-㉮ | 높이 7.7cm 저경 6.6cm | G트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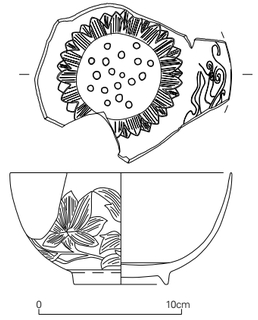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4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발 青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鉢

발12 | Ⅲ-5②-C-다㉮ | 높이 7.9cm 저경 6.5cm | A3+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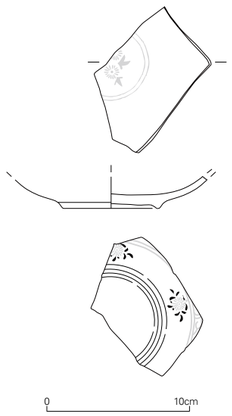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한 뒤 음각으로 윤곽선을 더했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5 | 청자상감국화문발 青磁象嵌菊花文鉢

발14 | Ⅲ-6②-C-사㉯ | 잔존높이 2.3cm 저경 7.0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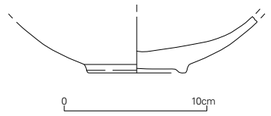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외면에는 국화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6 | 청자발 青磁鉢

발15 | Ⅲ-6②-F | 잔존높이 4.2cm 저경 6.8cm | T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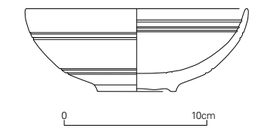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7 | 청자음각선문발 青磁陰刻線文鉢

발15 | Ⅲ-6②-F-가㉮ | 높이 5.9cm 구경 15.5cm 저경 5.4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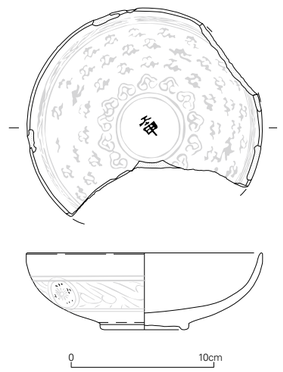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외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8 | 청자상감운학문'임신'명발 青磁象嵌雲鶴文壬申銘鉢

발15 | Ⅲ-6②-F-사㉯ | 높이 5.9cm 구경 16.5cm 저경 5.9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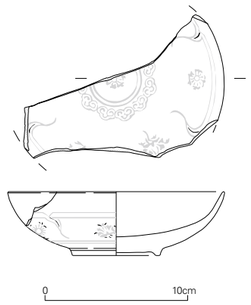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는 '壬申'자와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9 | 청자상감국화모란문발 青磁象嵌菊花牡丹文鉢

발15 | Ⅲ-6②-F-사㉮ | 높이 4.5cm 구경 15.4cm 저경 6.2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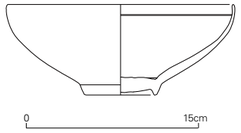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외면에는 국화문과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0 | 청자발 青磁鉢

발16 | Ⅲ-7①-F | 높이 7.9cm 저경 6.2cm | BA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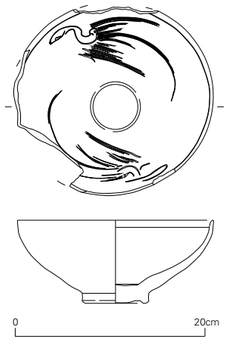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1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16 | Ⅲ-7①-F-가 | 높이 9.1cm 구경 20.5cm 저경 7.1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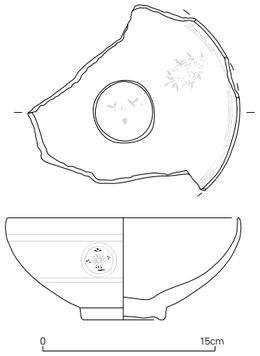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 | 청자상감여지문발 青磁象嵌荔枝文鉢

발16 | Ⅲ-7①-F-사㉮ | 높이 8.8cm 저경 7.2cm | T4B1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여지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 | 청자음각화문발 青磁陰刻花文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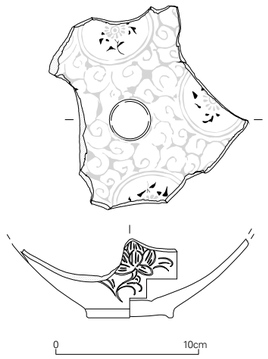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2.8cm 저경 6.7cm | T51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4 | 청자상감국화문발 青磁象嵌菊花文鉢

기타 | 잔존높이 5.5cm 저경 6.0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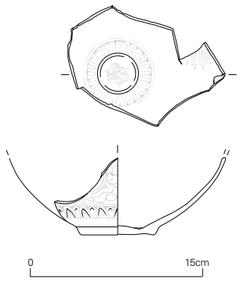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중심으로 당초문을 역상감하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5 | 청자상감여지문발 青磁象嵌荔枝文鉢

기타 | 잔존높이 6.2cm 저경 6.3cm | BAW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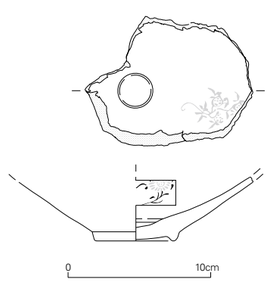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지문을 상감하고, 외면에는 당초문을 역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6 | 청자상감여지문발 青磁象嵌荔枝文鉢

기타 | 잔존높이 4.5cm 저경 5.6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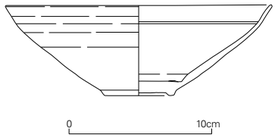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여지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7 | 청자발 青磁鉢

발1 | Ⅳ-1①-B | 높이 6.6cm 구경 17.9cm 저경 4.8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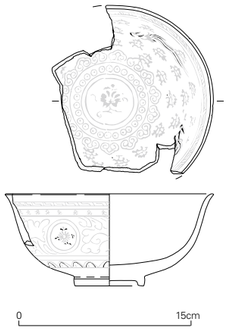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8 | 청자상감운봉문발 青磁象嵌雲鳳文鉢

발13 | Ⅳ-5②-F-사㉮ | 높이 8.2cm 저경 5.9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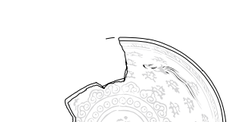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운봉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9 | 청자발 青磁鉢

발15 | Ⅳ-6②-F | 높이 7.0cm 구경 19.5cm 저경 6.8cm | LMC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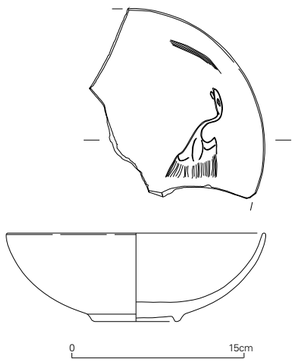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0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15 | Ⅳ-6②-F-가 | 높이 6.1cm 저경 6.2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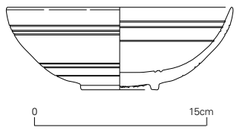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1 | 청자음각선문발 青磁陰刻線文鉢

발15 | Ⅳ-6②-F-가㉮ | 높이 7.6cm 구경 19.1cm 저경 6.6cm | T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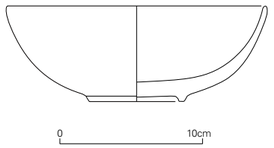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외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2 | 청자압출양각화당초문발 青磁壓出陽刻花唐草文鉢

발15 | Ⅳ-6②-F-다 | 높이 6.2cm 저경 6.7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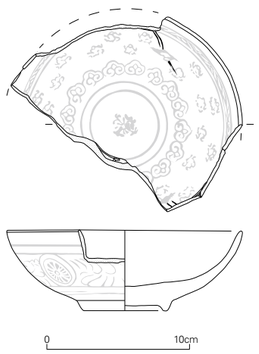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3 | 청자상감운학문발 青磁象嵌雲鶴文鉢

발15 | Ⅳ-6②-F-사㉲ | 높이 5.8cm 저경 5.8cm | BABMㅌ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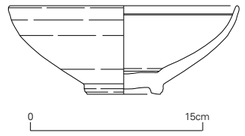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4 | 청자발 青磁鉢

발16 | Ⅳ-7①-F | 높이 8.0cm 저경 6.5cm | BA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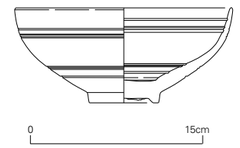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5 | 청자음각선문발 青磁陰刻線文鉢

발16 | Ⅳ-7①-F-가㉮ | 높이 8.6cm 구경 19.0cm 저경 6.1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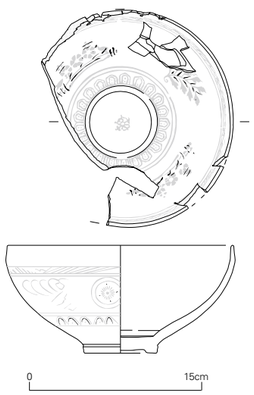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6 | 청자상감화훼문발 青磁象嵌花卉文鉢

발16 | Ⅳ-7①-F-사㉲ | 높이 9.7cm 구경 20.2cm 저경 6.4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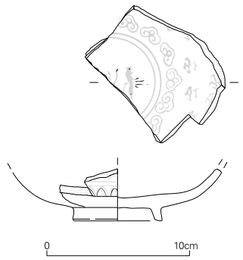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훼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7 | 청자상감운학문발 青磁象嵌雲鶴文鉢

기타 | 잔존높이 3.7cm 저경 6.2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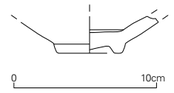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8 | 청자발 青磁鉢

발16 | Ⅴ-7①-F | 잔존높이 2.7cm 저경 5.5cm | 담속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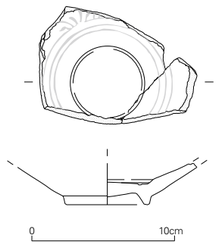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넓적한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태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9 | 청자상감초문발 青磁象嵌草文鉢

발16 | Ⅴ-7①-F-사 | 잔존높이 3.2cm 저경 5.9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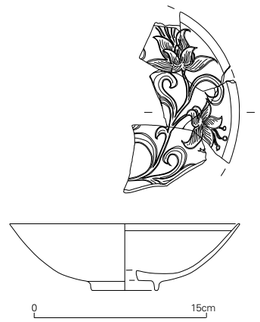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태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0 | 청자음각연당초문발 青磁陰刻蓮唐草文鉢

발4 | Ⅵ-1②-E-가 | 높이 5.9cm | Dㄷ+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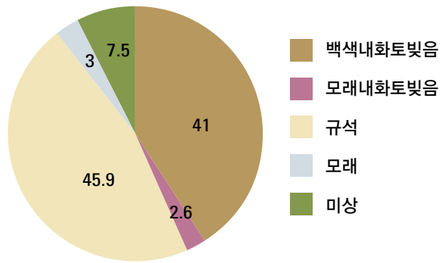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내면에는 연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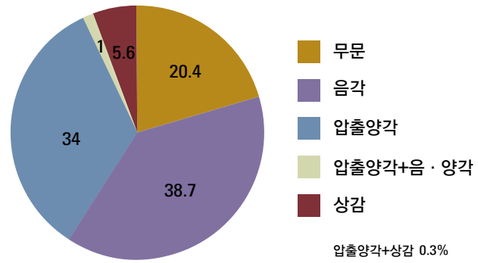
| 2 | 완碗

완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그래프3〉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6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7가지로 나누었다.〈표9〉 '완1'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내저면에 3.0cm 내외의 원각이 있는 형태로 원각이 저경보다 작다. 굽은 햇무리굽에 가까운 A형의 다리굽이다. '완2~6'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이며 '완1'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내저면에 원각이 있으며 저경보다 작다. 굽은 'V'자 또는 'U'자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 · 상감이 있고, 문양은 이룡문 · 파어문 · 운학문 등이 있다. '완7'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조금 작은 2.9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이다. '완8'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굽은 C형의 다리굽이다. 문양은 압출양각하였다. '완9~1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굽은 B형과 C형, 그리고 크고 넓적한 'V'자 또는 'U'자 형태인 F형이 확인된다. 운학문 등을 압출양각과 상감으로 시문하였다.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는 '완12~17'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지만 구연부가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B형, C형, F형이 확인된다.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 · 상감이 있고, 문양은 운학문 · 황촉규문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프4〉

〈그래프3〉 완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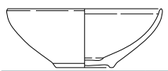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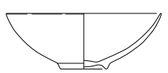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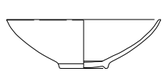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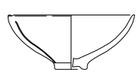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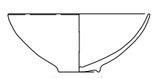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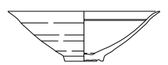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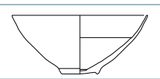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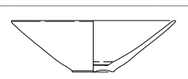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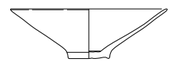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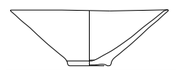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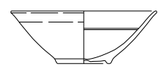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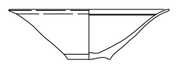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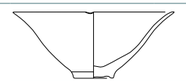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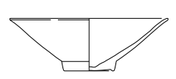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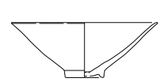
〈그래프4〉 완 시문기법 비율



압출양각+상감 0.3%

〈표9〉 완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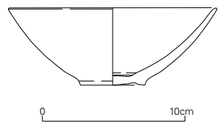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완 1		Ⅰ-1①-A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9	12 (1.29)
		Ⅵ-1①-A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고 내저면에 3.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2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	2 (0.21)
		Ⅵ-2①-B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고 내저면에 3.0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8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3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이룡문	7	23 (2.47)
		Ⅲ-2①-C	규석	무문, 음각	이룡문	15	
		Ⅵ-2①-C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2.5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는 이룡문을,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한 예도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완 4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파어문	109	330 (35.37)
		Ⅱ-2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파도문	2	
		Ⅲ-2①-C	규석	음각	파어문	198	
		Ⅵ-2①-C	미상	음각	파어문	2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3.8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파어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완 5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압출양각	국화문 등	18	21 (2.25)
		Ⅵ-2①-C	미상	음각, 압출양각	국화문 등	3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5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화엽형의 구획 안에 국화문을 음각 또는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1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6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7	27 (2.90)
		Ⅲ-2①-C	규석	무문, 상감	운학문, 국화문 등	17	
		Ⅳ-2①-C	모래	상감	운학문 등	1	
		Ⅵ-2①-C	미상	상감	국화문 등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5cm 내외의 작은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는 운문이나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완 7		Ⅰ-3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8	8 (0.85)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2.9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3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8		Ⅱ-4①-C	모래내화토빛음	압출양각	화문	1	1 (0.1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5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5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9		Ⅰ-5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4	4 (0.43)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2.9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6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완 10		Ⅰ-5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운학문	17	75 (8.04)
		Ⅲ-5①-C	규석	압출양각	운학문, 파도문	49	
		Ⅵ-5①-C	미상	압출양각	운학문	9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3.1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운학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완 11		Ⅲ-5①-F	규석	상감	운학문	1	1 (0.11)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0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크기는 4.1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완 12		Ⅰ-6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3	20 (2.14)
		Ⅱ-6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Ⅳ-6①-B	모래	무문		2	
		Ⅵ-6①-B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고, 내저면에 1.4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6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완 13		Ⅰ-6①-B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운학문	1	1 (0.11)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2.3cm 정도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7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14		Ⅰ-6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3	5 (0.54)
		Ⅲ-6①-C	규석	무문		2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5cm 정도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1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완 15		Ⅰ-6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황촉규문, 국화문	43	44 (4.71)
		Ⅵ-6①-C	미상	압출양각	국화문	1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2cm 정도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 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16		Ⅰ-6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운학문, 화엽문 등	75	184 (19.72)
		Ⅲ-6①-C	규석	압출양각	운학문, 화엽문 등	103	
		Ⅵ-6①-C	미상	압출양각	운학문, 화엽문 등	6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5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운학문 또는 화엽문 등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7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완 17		Ⅲ-6①-F	규석	상감	운학문, 국화문 등	13	35 (3.75)
		Ⅳ-6①-F	모래	상감	운학문, 포류수금문 등	15	
		Ⅵ-6①-F	미상	음각, 상감	운학문 등	7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2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 운학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1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기타						140	140 (15.00)
출토 현황	1지점	438	2지점	304	3지점	191	933	100%

71 | 청자완 青磁碗

완1 | Ⅰ-1①-A | 높이 5.3cm 저경 4.5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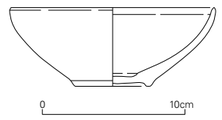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햇무리굽처럼 접지면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2 | 청자완 青磁碗

완2 | Ⅰ-2①-B | 높이 5.5cm | BABM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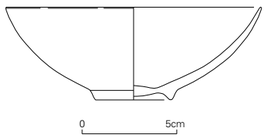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골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3 | 청자완 青磁碗

완3 | Ⅰ-2①-C | 높이 4.8cm 저경 4.0cm | 右T9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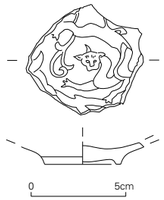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4 | 청자음각이룡문완 青磁陰刻螭龍文碗

완3 | Ⅰ-2①-C-가㈎ | 잔존높이 1.5cm 저경 4.0cm | T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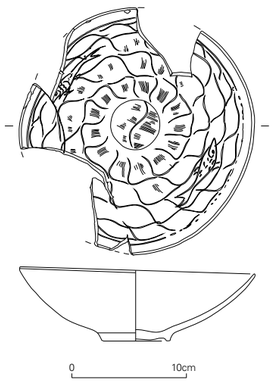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이룡문을, 외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5 | 청자음각파어문완 青磁陰刻波魚文碗

완4 | Ⅰ-2①-C-가 | 높이 4.9cm 구경 16.0cm 저경 4.9cm | A+F+T1+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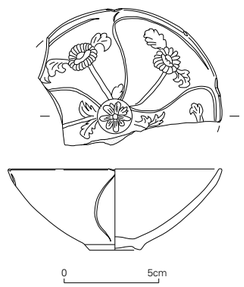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는 파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6 | 청자음각국화문완 青磁陰刻菊花文碗

완5 | Ⅰ-2①-C-가 | 높이 4.1cm 저경 2.6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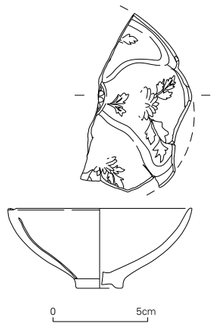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의 원각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고, 내면에는 화엽형의 구획 안에 국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 | 청자압출양각국화문완 青磁壓出陽刻菊花文碗

완5 | Ⅰ-2①-C-다 | 높이 3.7cm 저경 2.9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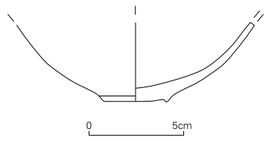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의 원각에는 화문을, 내면에는 화엽형의 구획 안에 국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8 | 청자완 青磁碗

완6 | Ⅰ-2①-C | 잔존높이 4.3cm 저경 3.4cm | WG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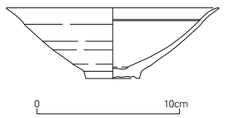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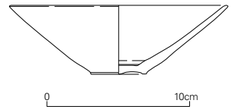


79 | 청자완 青磁碗

완7 | Ⅰ-3①-B | 높이 5.0cm 저경 3.7cm | 右T9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0 | 청자완 青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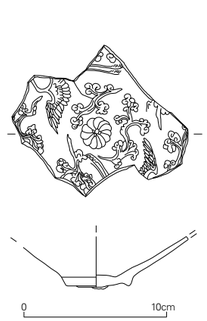
완9 | Ⅰ-5①-B | 높이 4.8cm 저경 3.8cm | Dㅈ1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1 |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青磁壓出陽刻雲鶴文碗

완10 | Ⅰ-5①-C-다 | 잔존높이 3.9cm 저경 4.5cm | B1+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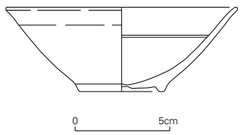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고, 음각으로 윤곽선을 표현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2 | 청자완 青磁碗

완12 | Ⅰ-6①-B | 높이 4.5cm 저경 4.5cm | T6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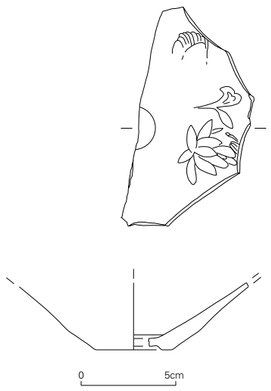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작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3 | 청자압출양각연화학문완 青磁壓出陽刻蓮花鶴文碗

완13 | Ⅰ-6①-B-다 | 잔존높이 3.9cm | H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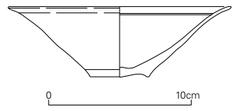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 | 청자완 青磁碗

완14 | Ⅰ-6①-C | 높이 5.0cm 저경 4.0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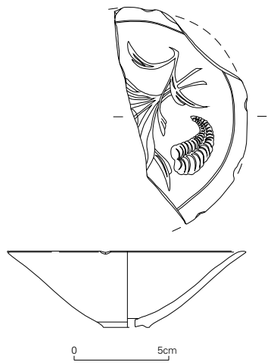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 | 청자압출양각속련문완 青磁壓出陽刻束蓮文碗

완15 | Ⅰ-6①-C-다 | 높이 4.4cm 저경 2.6cm | H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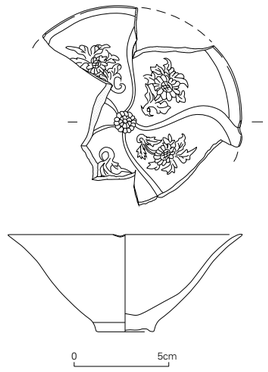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는 연화를 엮은 문양을 압출양각하였고,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6 | 청자압출양각국화문완 青磁壓出陽刻菊花文碗

완15 | Ⅰ-6①-C-다 | 높이 5.2cm 저경 3.1cm | Dㄷ1+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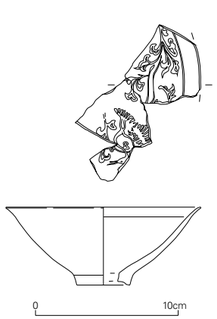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화형의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내면에는 화엽형의 구획 안에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 | 청자압출양각학당초문완 青磁壓出陽刻鶴唐草文碗

완16 | Ⅰ-6①-C-다 | 높이 5.6cm | -中W4A+W8B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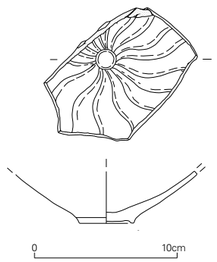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 학문과 당초문을 함께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 | 청자압출양각화엽문완 青磁壓出陽刻花葉文碗

완16 | Ⅰ-6①-C-다 | 잔존높이 3.6cm 저경 3.8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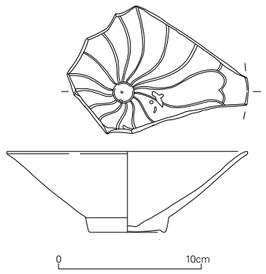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등간격으로 화엽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 | 청자압출양각화엽문완 青磁壓出陽刻花葉文碗

완16 | Ⅰ-6①-C-다 | 높이 5.4cm 저경 4.9cm | D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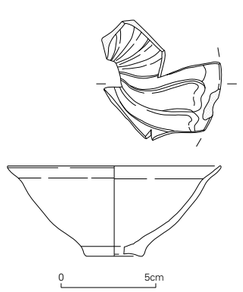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이중 화엽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안바닥을 얕게 깎았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0 | 청자압출양각화엽문완 青磁壓出陽刻花葉文碗

완16 | Ⅰ-6①-C-다 | 높이 4.6cm 저경 3.1cm | G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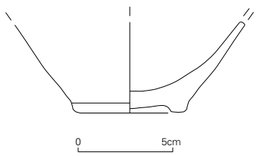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는 등간격으로 이중 화엽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안바닥을 얕게 깎았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4.6cm 저경 6.0cm | 1차ㄹ-6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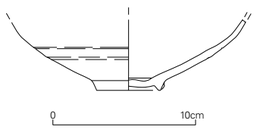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간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곡면을 이룬다. 굽은 접지면이 넓은 햇무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4.9cm 저경 4.3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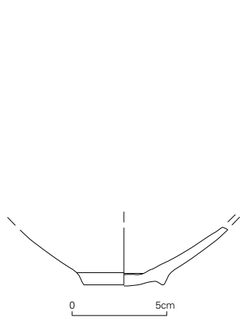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3.0cm 저경 4.3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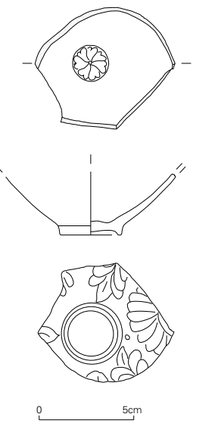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 | 청자음각화문완 青磁陰刻花文碗

기타 | 잔존높이 3.3cm 저경 3.2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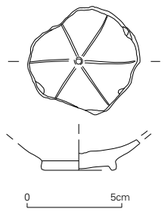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원각 안에는 화문을 음각하고,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 | 청자음각선문완 青磁陰刻線文碗

기타 | 잔존높이 1.7cm 저경 3.6cm | T4A 출토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내·외면에 등간격으로 두 줄의 선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6 | 청자음각화당초문완 青磁陰刻花唐草文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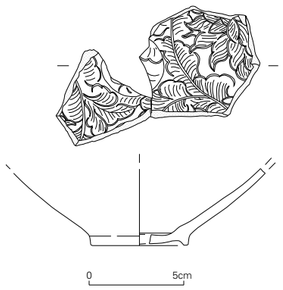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2.6cm 저경 4.2cm | SM2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7 | 청자음각화당초문완 青磁陰刻花唐草文碗

기타 | 잔존높이 3.9cm 저경 5.7cm | W7Bㅅㅏ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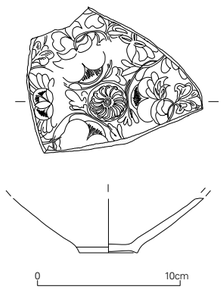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8 | 청자압출양각보상화문완 青磁壓出陽刻寶相華文碗

기타 | 잔존높이 3.8cm 저경 4.0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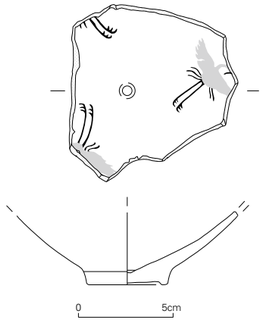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보상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9 | 청자상감학문완 青磁象嵌鶴文碗

기타 | 잔존높이 3.9cm 저경 4.5cm | G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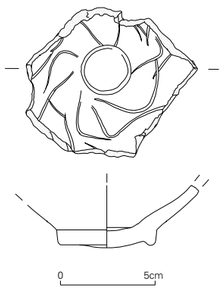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의 세 곳에는 운학문을 등간격으로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0 | 청자음각파도문완 青磁陰刻波濤文碗

완4 | Ⅱ-2①-C-가 | 잔존높이 3.1cm 저경 4.9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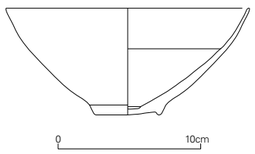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 | 청자압출양각화문완 青磁壓出陽刻花文碗

완8 | Ⅱ-4①-C-다 | 높이 7.2cm 저경 4.3cm | T5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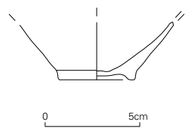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2 | 청자완 青磁碗

완12 | Ⅱ-6①-B | 잔존높이 3.2cm 저경 3.9cm | 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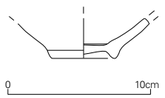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3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2.8cm 저경 4.5cm | 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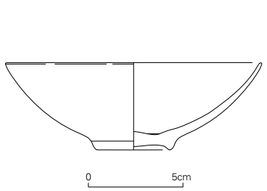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4 | 청자완 青磁碗

완3 | Ⅲ-2①-C | 높이 4.6cm 저경 4.0cm | W7B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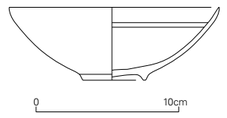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5 | 청자음각선문완 青磁陰刻線文碗

완3 | Ⅲ-2①-C-가 | 높이 5.2cm 저경 4.4cm | 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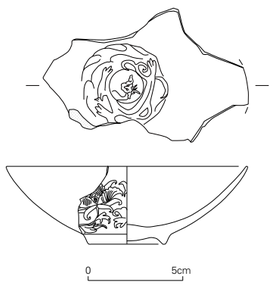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두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6 | 청자음각이룡문완 青磁陰刻螭龍文碗

완3 | Ⅲ-2①-C-가㉮ | 높이 4.1cm 저경 4.0cm | 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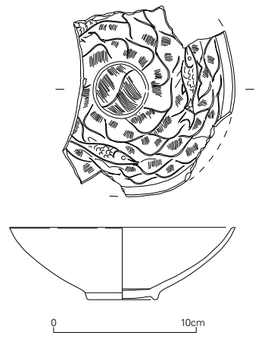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이룡문을, 외면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7 | 청자음각파어문완 青磁陰刻波魚文碗

완4 | Ⅲ-2①-C-가 | 높이 5.1cm 저경 4.9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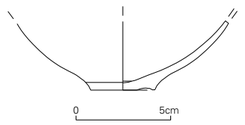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고, 파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을 살짝 깎아내고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8 | 청자완 青磁碗

완6 | Ⅲ-2①-C | 잔존높이 3.3cm 저경 3.6cm | 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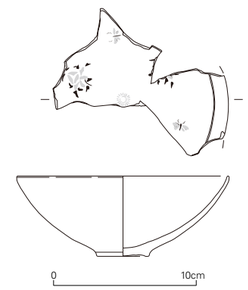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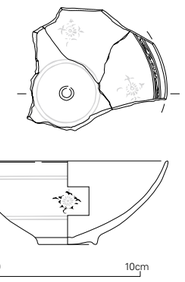


109 | 청자상감모란문완 青磁象嵌牡丹文碗

완6 | Ⅲ-2①-C-사 | 높이 5.7cm 저경 3.7cm | 2ㅌㅅ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고, 모란문과 나비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0 | 청자상감국화문완 青磁象嵌菊花文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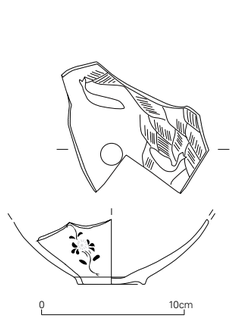
완6 | Ⅲ-2①-C-사㉮ | 높이 5.7cm 저경 4.2cm | T51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1 | 청자압출양각파어문완 青磁壓出陽刻波魚文碗

완6 | Ⅲ-2①-C-다㉮ | 잔존높이 4.6cm 저경 5.1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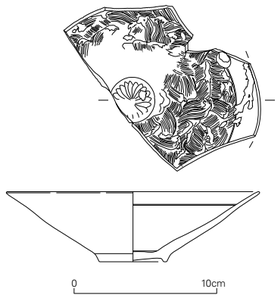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어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2 | 청자압출양각파도문완 青磁壓出陽刻波濤文碗

완10 | Ⅲ-5①-C-다 | 높이 5.2cm 저경 4.7cm | 2T1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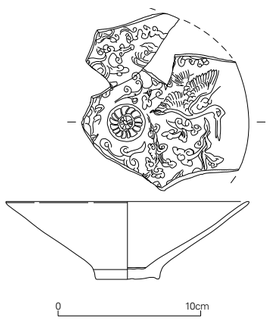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3 |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青磁壓出陽刻雲鶴文碗

완10 | Ⅲ-5①-C-다 | 높이 5.8cm 저경 4.2cm | T7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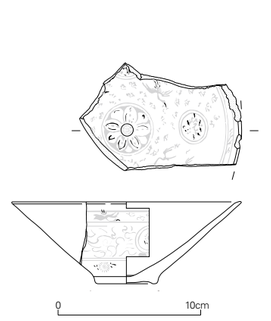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운학문을 압출양각한 뒤 음각으로 윤곽선을 나타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4 | 청자상감운학문완 青磁象嵌雲鶴文碗

완11 | Ⅲ-5①-F-사㉮ | 높이 5.7cm 저경 4.1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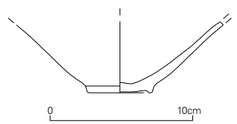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5 | 청자완 青磁碗

완14 | Ⅲ-6①-C | 잔존높이 5.1cm 저경 4.3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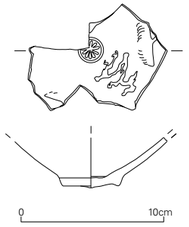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6 |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青磁壓出陽刻雲鶴文碗

완16 | Ⅲ-6①-C-다 | 잔존높이 3.3cm 저경 4.0cm | A2+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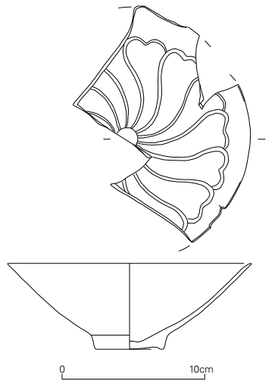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7 | 청자압출양각화엽문완 青磁壓出陽刻花葉文碗

완16 | Ⅲ-6①-C-다 | 높이 6.0cm 저경 4.8cm | W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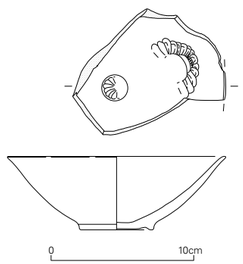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이중 화엽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8 | 청자압출양각보상화문완 青磁壓出陽刻寶相華文碗

완16 | Ⅲ-6①-C-다 | 높이 5.1cm 저경 5.1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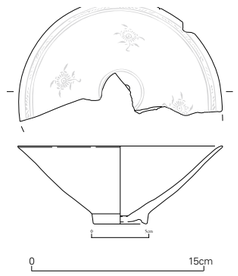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보상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19 | 청자상감국화문완 青磁象嵌菊花文碗

완17 | Ⅲ-6①-F-사㉮ | 높이 6.6cm 구경 17.9cm 저경 4.7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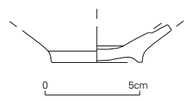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20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1.9cm 저경 4.8cm | T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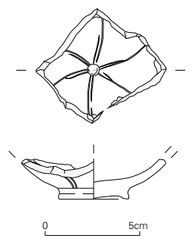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21 | 청자음각선문완 青磁陰刻線文碗

기타 | 잔존높이 2.1cm 저경 3.8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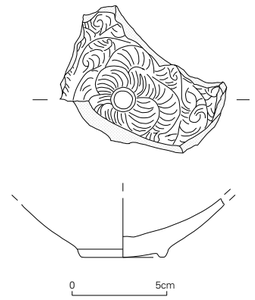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내·외면에 등간격으로 두 줄의 선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22 | 청자음각파도문완 青磁陰刻波濤文碗

기타 | 잔존높이 3.2cm 저경 4.5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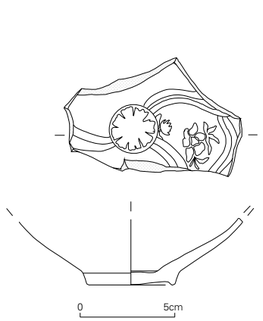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23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완 青磁壓出陽刻黃蜀葵文碗

기타 | 잔존높이 3.5cm 저경 4.6cm | F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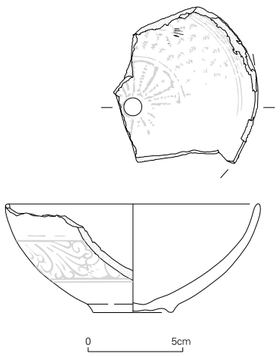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엽형의 구획 안에 황촉규문을 한 송이씩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24 | 청자상감운학문완 青磁象嵌雲鶴文碗

완6 | Ⅳ-2①-C-사㉮ | 높이 5.8cm 저경 4.0cm | T2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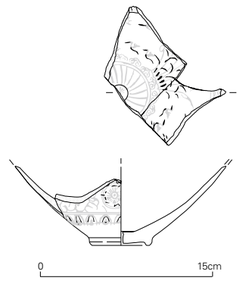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25 | 청자상감포류수금문완 青磁象嵌蒲柳水禽文碗

완17 | Ⅳ-6①-F-사㉮ | 잔존높이 6.8cm 저경 5.2cm | MD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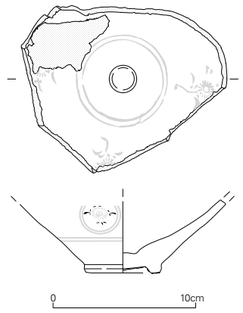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26 | 청자상감국화문완 青磁象嵌菊花文碗

완17 | Ⅳ-6①-F-사㉮ | 잔존높이 5.8cm 저경 5.1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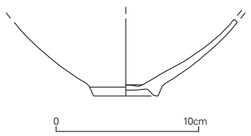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등간격으로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27 | 청자완 青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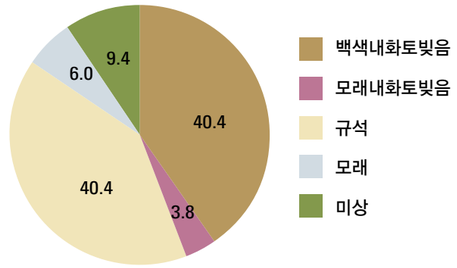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4.8cm 저경 4.5cm | T51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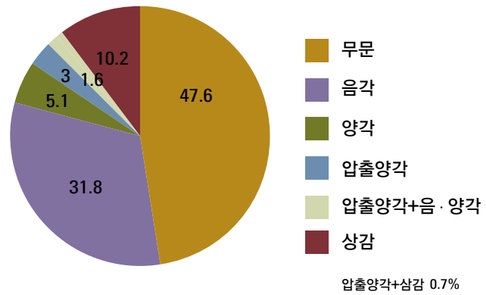


잔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그래프5〉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8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7가지로 나누었다.〈표10〉 우선 '잔1~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가운데 '잔1~2'는 내저면에 4.5~5.0cm의 원각이 있는 형태로 원각이 저경보다 크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과 'V'자 또는 'U'자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되는데, C형의 비율이 높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 · 상감이 있고,〈그래프6〉 문양은 연화문 · 이룡문 · 파도문 등이 있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인 '잔6~7'은 구연부가 내만하거나 직립한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인 D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문양은 압출양각으로 화문 등을 시문하였다. 이 가운데 '잔6'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조금 작은 3.3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잔8'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굽은 3.0cm 이상의 높은 I형 굽으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선으로 벌어지거나 바깥으로 외반한다. 내면에 운학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잔9'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F형의 다리굽이다. '잔10~11'은 기측선이 등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는 형태이다. 굽은 C형과 F형의 다리굽이 확인되며, 문양은 상감으로 운학문과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잔12'는 계란형에 가까운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는 형태이다. 굽은 C형이며, 문양은 음각과 상감으로 화문과 연화문 등을 나타냈다. '잔13~16'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B형, C형, D형, F형의 다리굽이 확인되며, 압출양각과 상감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으로 국화문 등을 시문하였다. '잔17'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6.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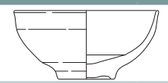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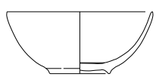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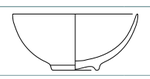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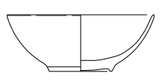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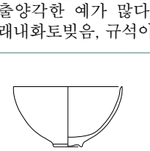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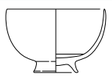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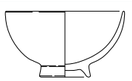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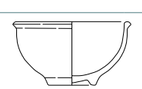
〈그래프5〉 잔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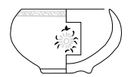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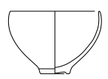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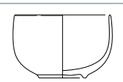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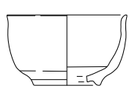


〈그래프6〉 잔 시문기법 비율



〈표10〉 잔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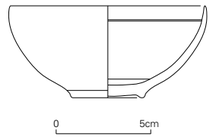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잔 1		Ⅱ-1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3	3 (0.20)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하거나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다.							
잔 2		Ⅰ-1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20	38 (2.49)
		Ⅲ-1①-C	규석	무문, 압출양각	연화문	15	
		Ⅵ-1①-C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4.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잔 3		Ⅰ-1②-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5	7 (0.46)
		Ⅱ-1②-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원각은 없으며,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잔 4		Ⅰ-1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당초문, 연화이룡문	73	447 (29.27)
		Ⅱ-1②-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0	
		Ⅲ-1②-C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등	화당초문, 연화이룡문	337	
		Ⅵ-1②-C	미상	무문, 압출양각	화당초문	27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원각은 없으며, 내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하거나 또는 연화 · 이룡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0~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잔 5		Ⅰ-1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파도문	448	511 (33.46)
		Ⅱ-1②-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파도문	19	
		Ⅲ-1②-C	규석	음각	파도문	9	
		Ⅵ-1②-C	미상	음각	파도문	35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 파도문을, 외면에 보상화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잔 6		Ⅰ-2①-D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9	40 (2.62)
		Ⅲ-2①-D	규석	무문, 압출양각	연판문	16	
		Ⅵ-2①-D	미상	무문		5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거나 직립한다. 3.3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일부 잔은 틀을 사용하여 화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굽의 형태이며 크기는 3.6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잔 7		Ⅰ-2②-D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음각	화문	19	31 (2.03)
		Ⅲ-2②-D	규석	무문, 압출양각+양각	화문	9	
		Ⅵ-2②-D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거나 직립한다. 원각은 없으며, 내 · 외면에는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화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굽의 형태로 크기는 3.5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잔 8		Ⅳ-3②-I	모래	무문, 상감	운학문	26	47 (3.08)
		Ⅵ-3②-I	미상	무문, 상감	운학문, 용문	21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 운학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높이가 3.0cm 이상으로 높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선으로 벌어지거나 바깥으로 외반한다. 크기는 4.2cm 내외이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잔 9		Ⅳ-4②-F	모래	무문		15	15 (0.98)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2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잔 10		Ⅲ-5②-F	규석	상감	운학문, 국화문 등	55	96 (6.29)
		Ⅳ-5②-F	모래	무문, 상감	운학문, 국화문 등	30	
		Ⅵ-5②-F	미상	음각, 상감	운학문, 국화문 등	11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내면에 운학문이나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크기는 3.6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잔 11		Ⅵ-5②-C	미상	상감	국화문	1	1 (0.06)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의 다리굽이며 크기는 3.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 12		Ⅱ-6②-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화문	18	64 (4.19)
		Ⅲ-6②-C	규석	무문, 음각, 상감	화문, 연화문 등	31	
		Ⅳ-6②-C	모래	상감	국화문	7	
		Ⅵ-6②-C	미상	무문, 음각	화문	8	
계란형에 가까운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내 · 외면에 국화 등의 화문을 시문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의 다리굽이며 크기는 3.7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잔 13		Ⅰ-7②-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5	6 (0.39)
		Ⅱ-7②-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죽절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죽절문을 음각한 경우도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잔 14		Ⅰ-7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양각	용문, 연판문	26	143 (9.37)
		Ⅲ-7②-C	규석	무문, 양각	연판문	105	
		Ⅵ-7②-C	미상	무문, 양각	연판문	1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7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잔 15		Ⅲ-7②-F	규석	상감	국화문	9	15 (0.98)
		Ⅳ-7②-F	모래	상감	국화문	5	
		Ⅵ-7②-F	미상	상감	미상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5cm 정도의 대형과 4.0cm 정도의 소형이 있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잔 16		Ⅲ-7②-D	규석	압출양각+상감 등	국화문	13	27 (1.77)
		Ⅳ-7②-D	모래	압출양각+상감 등	국화문	4	
		Ⅵ-7②-D	미상	압출양각+상감 등	국화문	10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오려내고 도드라지게 하여 금속기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동체는 틀을 사용하여 화형을 표현하고, 국화문을 음각 또는 상감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다소 높은 화형굽의 형태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잔 17		Ⅱ-8①-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	3 (0.20)
		Ⅲ-8①-C	규석	무문		1	
		Ⅳ-8①-C	모래	무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내저면에 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과 규석, 모래가 있다.							
기타						33	33 (2.16)
출토 현황	1지점	651	2지점	472	3지점	404	1,527	100%

128 | 청자잔 靑磁盞

잔2 | Ⅰ-1①-C | 높이 4.7cm 저경 4.0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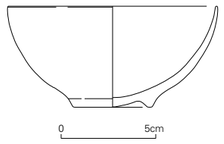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29 | 청자잔 靑磁盞

잔4 | Ⅰ-1②-C | 높이 5.3cm 저경 4.2cm | W7B 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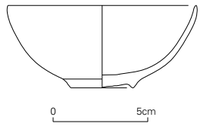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0 | 청자잔 靑磁盞

잔4 | Ⅰ-1②-C | 높이 4.5cm 저경 3.4cm | 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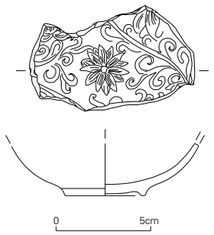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1 | 청자음각화당초문잔 靑磁陰刻花唐草文盞

잔4 | Ⅰ-1②-C-가 | 잔존높이 2.3cm 저경 4.2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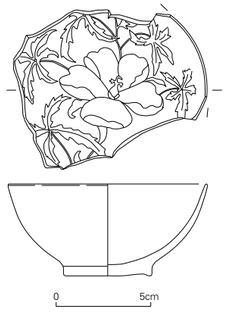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2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잔 靑磁壓出陽刻黃蜀葵文盞

잔4 | Ⅰ-1②-C-다 | 높이 4.9cm 저경 4.5cm | 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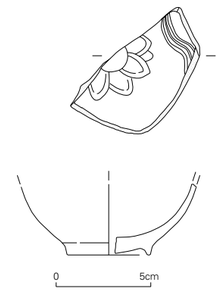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황촉규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3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잔 靑磁壓出陽刻蓮花文盞

잔4 | Ⅰ-1②-C-다 | 잔존높이 3.7cm 저경 4.4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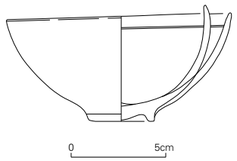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4 | 청자잔 靑磁盞

잔5 | Ⅰ-1②-C | 높이 5.6cm 구경 9.0cm 저경 3.3cm | Cㄷ+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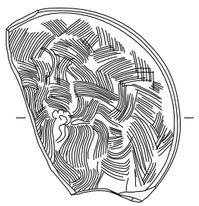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높이가 다소 높은 편이며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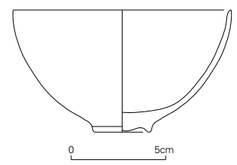


135 | 청자음각파도문잔 靑磁陰刻波濤文盞

잔5 | Ⅰ-1②-C-가㉮ | 높이 6.6cm 구경 11.4cm 저경 2.8cm | Cㄷ1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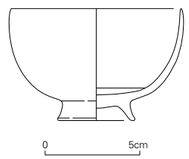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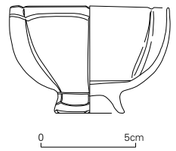


136 | 청자잔 靑磁盞

잔6 | Ⅰ-2①-D | 높이 5.9cm 저경 4.0cm | B1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7 | 청자화형잔 靑磁花形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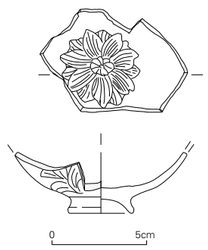
잔6 | Ⅰ-2①-D-다 | 높이 5.8cm 구경 8.0cm 저경 3.5cm | Dㄷ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었으며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화형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8 | 청자압출양각화문잔 靑磁壓出陽刻花文盞

잔7 | Ⅰ-2②-D-다㉮ | 잔존높이 3.2cm 저경 3.5cm | 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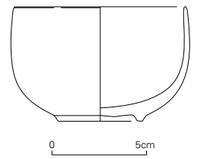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39 | 청자잔 靑磁盞

잔13 | Ⅰ-7②-B | 높이 6.0cm 저경 4.4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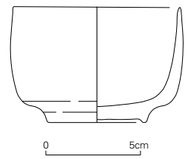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0 | 청자잔 靑磁盞

잔14 | Ⅰ-7②-C | 높이 6.5cm 저경 5.4cm | F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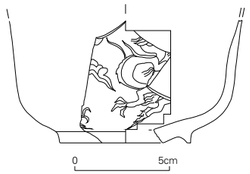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1 | 청자음각용문잔 靑磁陰刻龍文盞

잔14 | Ⅰ-7②-C-㉮ | 잔존높이 6.4cm 저경 6.2cm | T3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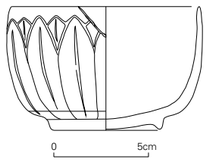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는 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2 | 청자양각연판문잔 靑磁陽刻蓮瓣文盞

잔14 | Ⅰ-7②-C-㉰ | 높이 6.5cm 저경 5.8cm | T3右+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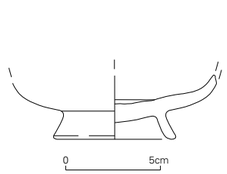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3 | 청자잔 靑磁盞

기타 | 잔존높이 3.4cm 저경 6.6cm | SM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반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선으로 뻗은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4 | 청자잔 靑磁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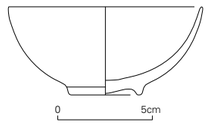
잔1 | Ⅱ-1①-B | 높이 4.9cm 저경 3.9cm | T4A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5 | 청자잔 靑磁盞

잔3 | Ⅱ-1②-B | 높이 5.1cm 저경 3.6cm | T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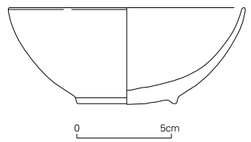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6 | 청자잔 靑磁盞

잔4 | Ⅱ-1②-C | 높이 5.4cm 저경 5.2cm | 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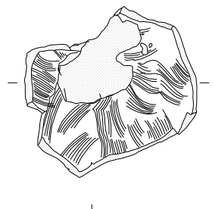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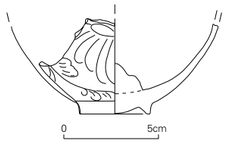


147 | 청자음각파도문잔 靑磁陰刻波濤文盞

잔5 | Ⅱ-1②-C-가㉮ | 잔존높이 5.2cm 저경 3.6cm | LMA2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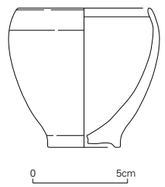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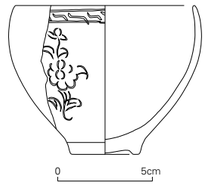


148 | 청자잔 靑磁盞

잔12 | Ⅱ-6②-C | 높이 6.8cm 저경 3.6cm | T4SA 출토

계란형에 가까운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49 | 청자음각화문잔 靑磁陰刻花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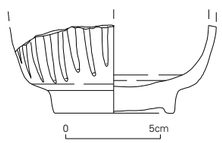
잔12 | Ⅱ-6②-C-㉮ | 높이 7.8cm 저경 3.7cm | T51 출토

계란형에 가까운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50 | 청자음각선문잔 靑磁陰刻線文盞

잔13 | Ⅱ-7②-B-㉮ | 잔존높이 4.6cm 저경 6.1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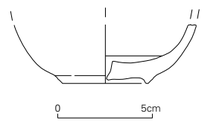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굵고 깊게 음각하여 주름과 같이 표현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51 | 청자잔 靑磁盞

잔17 | Ⅱ-8①-C | 잔존높이 3.4cm 저경 4.5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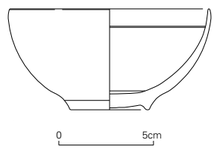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52 | 청자잔 靑磁盞

잔2 | Ⅲ-1①-C | 높이 4.9cm 구경 10.7cm 저경 4.1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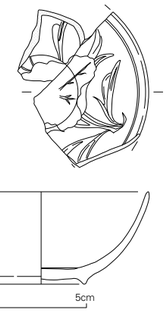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3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잔 靑磁壓出陽刻蓮花文盞

잔2 | Ⅲ-1①-C-다 | 높이 4.8cm 저경 4.7cm | T3中+4I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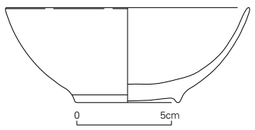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4 | 청자잔 靑磁盞

잔4 | Ⅲ-1②-C | 높이 5.1cm 저경 5.5cm | E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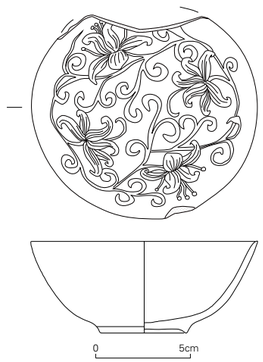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5 | 청자음각화당초문잔 靑磁陰刻花唐草文盞

잔4 | Ⅲ-1②-C-가 | 높이 4.9cm 구경 11.2cm 저경 4.5cm | W8B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6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잔 靑磁壓出陽刻黃蜀葵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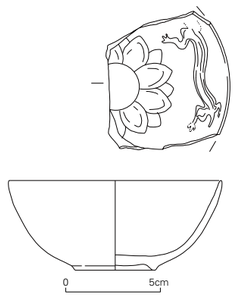
잔4 | Ⅲ-1②-C-다 | 잔존높이 2.4cm 저경 4.5cm | H트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황촉규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는 사립이 섞인 백색내화토빚음 안쪽에 규석을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157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잔 靑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盞

잔4 | Ⅲ-1②-C-다 | 높이 4.6cm 저경 4.3cm | E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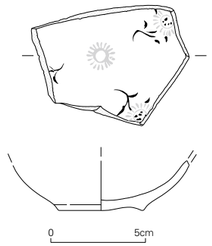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8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잔4 | Ⅲ-1②-C-사 | 잔존높이 2.6cm 저경 4.5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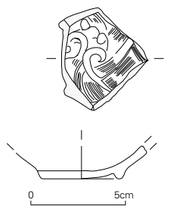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59 | 청자음각파도문잔 青磁陰刻波濤文盞

잔5 | Ⅲ-1②-C-가 | 잔존높이 1.7cm 저경 4.2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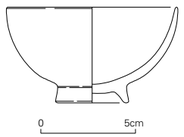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0 | 청자잔 青磁盞

잔7 | Ⅲ-2②-D | 높이 5.1cm 저경 3.6cm | WH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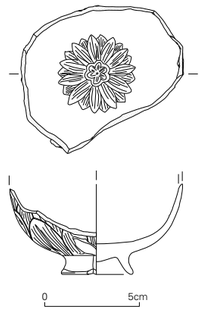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굽의 형태이다. 굽 외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1 | 청자압출양각화문잔 青磁壓出陽刻花文盞

잔7 | Ⅲ-2②-D-다㉡ | 잔존높이 4.8cm 저경 3.9cm | Cㄷ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원각은 없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한 뒤 음각선으로 세부 표현을 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다소 높은 화형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2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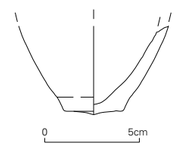
잔10 | Ⅲ-5②-F-㉮ | 높이 5.6cm 구경 7.7cm 저경 4.1cm | T4B1 출토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의 네 군데에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3 | 청자잔 青磁盞

잔12 | Ⅲ-6②-C | 잔존높이 4.9cm 저경 3.2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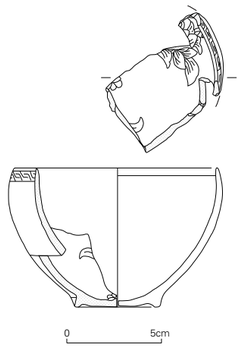
계란형의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은 움푹한 'V'자 형태를 보인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4 | 청자음각연화문잔 青磁陰刻蓮花文盞

잔12 | Ⅲ-6②-C-가 | 높이 7.3cm 저경 3.8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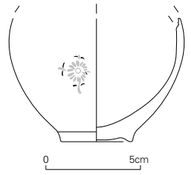
계란형의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5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잔12 | Ⅲ-6②-C-㉮ | 잔존높이 6.5cm 저경 3.9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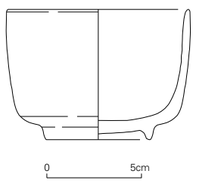
계란형의 기측선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은 움푹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6 | 청자잔 青磁盞

잔14 | Ⅲ-7②-C | 높이 6.8cm 저경 5.6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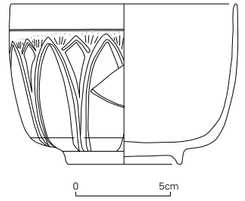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7 | 청자양각연판문잔 青磁陽刻蓮瓣文盞

잔14 | Ⅲ-7②-C-㉰ | 높이 8.7cm 구경 11.2cm 저경 6.0cm | T7+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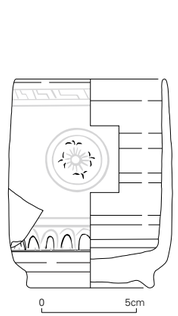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고, 음각선과 백퇴화점으로 꽃술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8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잔15 | Ⅲ-7②-F-㉮ | 높이 10.9cm 저경 6.4cm | T4B+T4B1+SM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69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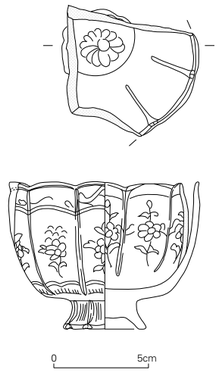
잔15 | Ⅲ-7②-F-㉮ | 잔존높이 6.9cm | SM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국화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70 | 청자음각화문화형잔 青磁陰刻花文花形盞

잔16 | Ⅲ-7②-D-다㉑ | 높이 7.7cm 저경 4.3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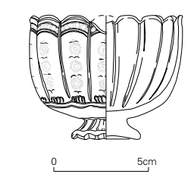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오려내고 도드라지게 하여 금속기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동체는 틀을 이용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외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화형굽의 형태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71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 青磁象嵌菊花文花形盞

잔16 | Ⅲ-7②-D-다㉓ | 높이 6.3cm 구경 7.7cm 저경 3.5cm | T2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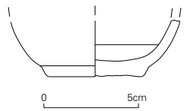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오려내고 도드라지게 하여 금속기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동체는 틀을 이용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화형굽의 형태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72 | 청자잔 青磁盞

잔17 | Ⅲ-8①-C | 잔존높이 3.3cm 저경 4.9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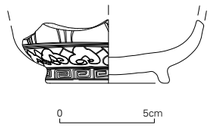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규석 받침 아래에는 요도구와 유물을 이격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토빚음의 흔적이 확인된다.



173 | 청자음각연판문잔 青磁陰刻蓮瓣文盞

기타 | 잔존높이 3.3cm 저경 6.5cm | 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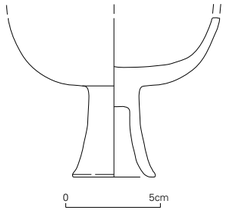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반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연판문과 여의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다리굽이며, 뇌문을 음각하였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74 | 청자잔 青磁盞

잔8 | Ⅳ-3②-I | 잔존높이 8.4cm 저경 4.2cm | MD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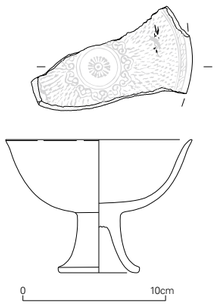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원각은 없다. 굽은 바닥으로 갈수록 곡선을 이루며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75 | 청자상감운학문잔 青磁象嵌雲鶴文盞

잔8 | Ⅳ-3②-I-사㉘ | 높이 9.6cm 저경 5.6cm | IT3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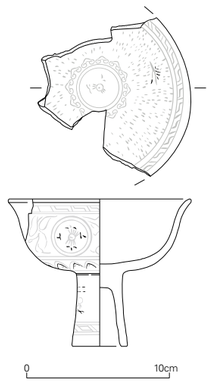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으로 갈수록 외반하며 말리는 높은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76 | 청자상감운학문잔 青磁象嵌雲鶴文盞

잔8 | Ⅳ-3②-I-사㉮ | 높이 10.6cm 저경 3.4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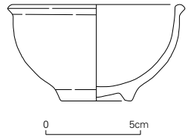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으로 갈수록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높은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77 | 청자잔 青磁盞

잔9 | Ⅳ-4②-F | 높이 5.0cm 저경 3.8cm | 1T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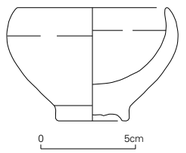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78 | 청자잔 青磁盞

잔10 | Ⅳ-5②-F | 높이 5.9cm 저경 3.8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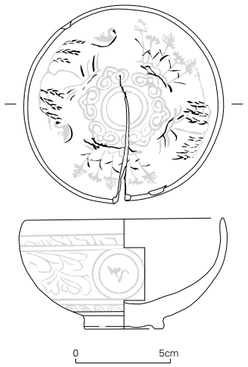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79 | 청자상감포류수금문잔 青磁象嵌蒲柳水禽文盞

잔10 | Ⅳ-5②-F-사㉮ | 높이 5.8cm 구경 10.6cm 저경 4.1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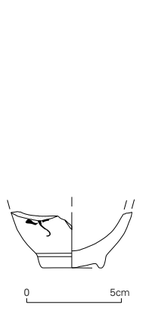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화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0 | 청자상감화문잔 青磁象嵌花文盞

잔12 | Ⅳ-6②-C-㉮ | 잔존높이 2.9cm 저경 3.1cm | T1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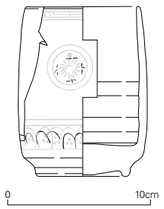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화문을 상감한 것으로 보인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1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잔15 | Ⅳ-7②-F-㉮ | 높이 11.8cm 저경 6.4cm | SM+SM1+SM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2 | 청자상감당초문잔 青磁象嵌唐草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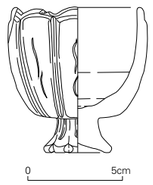
잔15 | Ⅳ-7②-F-㉮ | 잔존높이 4.8cm 저경 3.9cm | SM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3 | 청자음각당초문화형잔 青磁陰刻唐草文花形盞

잔16 | Ⅳ-7②-D-다㉗ | 높이 7.7cm 저경 3.0cm | Dㅈ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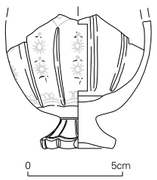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오려내고 도드라지게 하여 금속기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동체는 틀을 이용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화형굽의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4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 青磁象嵌菊花文花形盞

잔16 | Ⅳ-7②-D-다㉔ | 잔존높이 6.9cm 저경 3.6cm | BABM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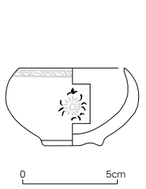
틀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화형잔이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화형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85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잔11 | Ⅵ-5②-C-㉮ | 높이 4.1cm 저경 3.0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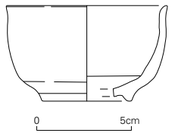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할 수 없다.



186 | 청자잔 青磁盞

잔17 | Ⅵ-8①-C | 높이 5.2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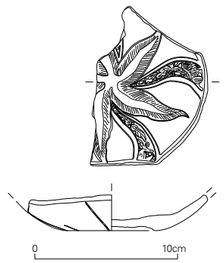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할 수 없다.



187 | 초벌압출양각황촉규문화형잔 初燔壓出陽刻黃蜀葵文花形盞

기타 | 잔존높이 2.6cm 최대길이 11.4cm | Eㅌ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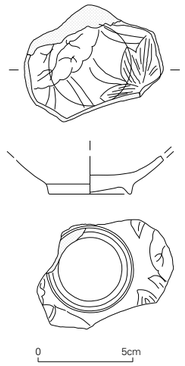
잔의 초벌구이편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면에는 황촉규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결실되었으나 화형의 다리굽을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8 | 초벌음각연화문잔 初燔陰刻蓮花文盞

기타 | 잔존높이 2.1cm 저경 4.5cm | 6B 출토

잔의 초벌구이편으로,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 4 | 접시楪匙

접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모두 확인된다.〈그래프7〉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22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74가지로 나누었다.〈표1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갖는 '접시1~7'은 '접시7'을 제외하고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의 다리굽,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G형의 안굽, 바닥이 편평한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그리고 '접시8'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8.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포개구이 흔적이 확인되는 예가 많다. 굽은 B형의 다리굽이 있다. '접시9~12'는 '접시1~8'처럼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지만 구연부가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접시12'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접시13~14'는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굽은 G형의 안굽과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15~16'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며,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부를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접시15'는 G형의 안굽이, '접시16'은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17~19'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접시19'외에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과 굽이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D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접시20~26'은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이다. 원각이 없는 '접시24~25'외에는 대부분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B형, C형, D형, 그리고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F형의 다리굽과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27~28'은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외반하는 형태이다. '접시27'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살짝 큰 원각이 있다. 굽은 C형의 다리굽과 H형의 평굽이 있다. '접시29~30'은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접시29'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B형의 다리굽과 G형의 안굽이 확인된다. '접시31~33'은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르는 형태이다. '접시31~32'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D형과 F형의 다리굽, H형의 평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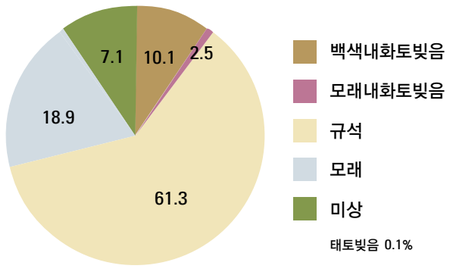
'접시34~35'는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한다. '접시34'는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G형의 안굽이다. '접시36'은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 끝은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H형의 평굽이다. '접시37'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C형의 다리굽이다. '접시38~40'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있다. '접시41~47'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이다. '접시46~47'외에는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하거나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돌대가 있거나 외면이 팔각을 이루는 예도 확인된다. 굽은 B형, C형의 다리굽과 G형의 안굽이 있다. '접시48~49'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 또는 C형의 다리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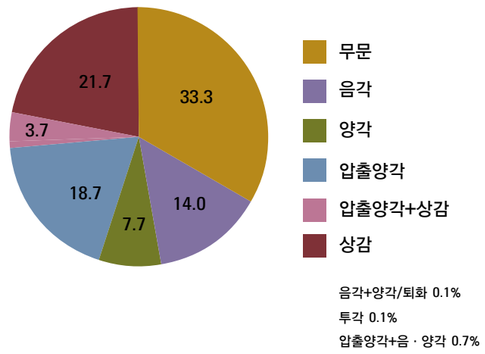
'접시50~60'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다. '접시50~53'에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살짝 큰 원각이 있다. 구연부는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한 예가 많다. 굽은 C형, F형의 다리굽과 높은 다리굽인 E형과 I형, G형의 안굽과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61~65'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접시65'외에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C형, F형의 다리굽과 H형의 평굽이 있다. '접시66~68'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 F형의 다리굽과 H형의 평굽이 있다. '접시69~7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다시 밖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다. '접시72'외에는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C형, F형의 다리굽과 H형의 평굽이 있다. '접시73~74'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접시73'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C형의 다리굽이다.

이상 살펴본 접시는 다른 기종에 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측선과 다양한 크기의 원각, 그리고 다리굽 · 안굽 · 평굽 · 높은 굽 등 세부형식에서의 차이는 물론 크기와 수량 면에서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시문기법은 무문 외에 음각 · 양각 · 압출양각 · 상감 등이 있는데, 상감의 비중이 높다.〈그래프8〉 특히 화형접시와 팔각접시는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비롯한 압출양각의 문양을 장식하고 다시 외면을 상감으로 나타내는 등 시문기법을 혼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문양은 국화문 · 모란문 · 연화문 · 앵무문 · 연판문 · 용문 · 봉황문 · 포류수금문 등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가운데 연화 · 국화 · 모란 등 화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를 기법별로 세분해보면 음각 문양은 연화나 모란 등의 화문과 연판문 · 용문 · 봉황문 · 접문蝶文 · 선문 등이 있고, 양각 문양은 연판문이 대부분이다. 압출양각 문양은 연화 · 모란 · 국화 · 보상당초 등의 화문과 이룡문 · 파도문 등이 있다. 상감 문양은 국화나 모란 등의 화문을 비롯하여 여지문, 용문, 파어문, 운학문, 포류수금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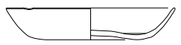
〈그래프7〉 접시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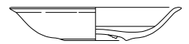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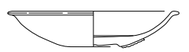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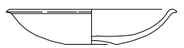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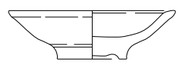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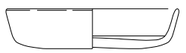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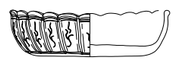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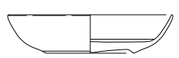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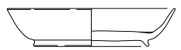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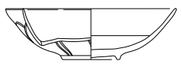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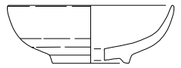
〈그래프8〉 접시 시문기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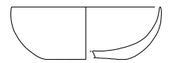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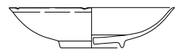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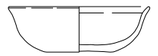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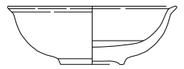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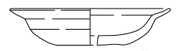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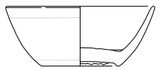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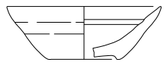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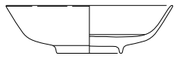
〈표11〉 접시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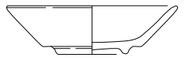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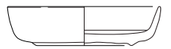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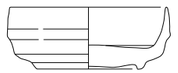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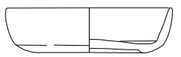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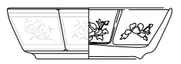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1		Ⅰ-1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21	250 (4.50)
		Ⅱ-1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77	
		Ⅳ-1①-B	모래	무문		35	
		Ⅵ-1①-B	미상	무문		17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내저면에 8.0~9.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구연부의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확인되는 예도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2		Ⅰ-1①-G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선문	15	23 (0.41)
		Ⅱ-1①-G	규석	무문		3	
		Ⅳ-1①-G	모래	무문		4	
		Ⅵ-1①-G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기도 했다. 내저면에 8.5~10.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쪽에 포개구이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접시 3		Ⅰ-1①-G	백색내화토빛음	양출양각	선문	3	5 (0.09)
		Ⅲ-1①-G	규석	압출양각, 퇴화	선문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7.0~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배치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4		Ⅰ-1①-H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용문	5	5 (0.09)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접시 5		Ⅲ-1①-H	규석	무문, 압출양각	연화문	16	16 (0.29)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 등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평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6		Ⅲ-1①-H	규석	음각, 압출양각	선문	49	51 (0.92)
		Ⅵ-1①-H	미상	음각	선문	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고 오려진 부분에 맞춰 내 · 외면에 세로선을 시문하였다. 내저면에 5.0~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7		Ⅲ-1②-H	규석	압출양각	이룡문	79	81 (1.46)
		Ⅵ-1②-H	미상	압출양각	이룡문	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은 등간격으로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이룡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8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5	7 (0.13)
		Ⅳ-2①-B	모래	무문		1	
		Ⅵ-2①-B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기도 했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쪽으로 포개구이 흔적이 확인되는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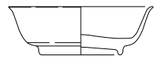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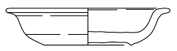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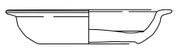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9		Ⅲ-3①-C	규석	무문		1	1 (0.0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내저면에 10.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단면형태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10		Ⅰ-3①-G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보상화문 등	29	37 (0.67)
		Ⅲ-3①-G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선문	7	
		Ⅵ-3①-G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가 많다. 내저면에 5.0~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모란문과 보상화문을 압출양각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11		Ⅰ-3①-H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연화문, 모란문	49	68 (1.22)
		Ⅱ-3①-H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8	
		Ⅲ-3①-H	규석	음각, 압출양각	연화문, 보상화문 등	6	
		Ⅵ-3①-H	미상	무문		5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가 많다. 내저면에 4.5~5.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과 모란문을 압출양각 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12		Ⅱ-3②-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6 (0.11)
		Ⅳ-3②-B	모래	무문		4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과 모래가 있다.						
접시 13		Ⅲ-4①-G	규석	무문, 압출양각, 상감	이룡문, 국화문 등	112	112 (2.0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 형태이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이룡문이나 보상당초문을 압출양각하거나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14		Ⅲ-4①-H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등	용문, 국화문 등	453	469 (8.44)
		Ⅵ-4①-H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용문	16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형태에 따라 기측선이 직사선을 이루는 형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형으로 세분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15		Ⅲ-5②-H	규석	압출양각+음각 · 상감	국화문, 화문	2	2 (0.04)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반한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화문을 배치하고, 외면의 화판 사이에는 국화와 초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접시 16		Ⅲ-6②-G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화문, 국화문	51	64 (1.15)
		Ⅳ-6②-G	모래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화문, 국화문	8	
		Ⅵ-6②-G	미상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화문	5	
	기측선이 가파른 곡선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내만하는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과 외면에 국화문 등을 시문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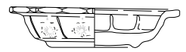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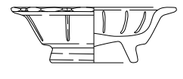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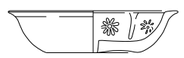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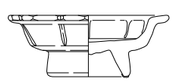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17		Ⅲ-7①-C	규석	압출양각	연모란문	6	7 (0.13)
		Ⅵ-7①-C	미상	압출양각	연모란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0.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모란문과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단면형태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18		Ⅲ-7①-D	규석	무문		2	4 (0.07)
		Ⅵ-7①-D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19		Ⅲ-7②-C	규석	무문		13	13 (0.23)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원각은 없고, 외면은 화판 사이를 세로로 눌러 골을 내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20		Ⅱ-8①-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연판문	9	11 (0.20)
		Ⅵ-8①-B	미상	음각	연판문	2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1.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이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다.							
접시 21		Ⅰ-8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접문, 앵무문 등	174	817 (14.71)
		Ⅱ-8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5	
		Ⅲ-8①-C	규석	무문, 음각, 양각 등	앵무문, 연판문 등	584	
		Ⅵ-8①-C	미상	음각, 양각	접문, 앵무문 등	54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1.0~1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앵무문과 접문을,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22		Ⅰ-8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모란문	6	55 (1.00)
		Ⅲ-8①-C	규석	무문, 압출양각, 퇴화 등	연화문, 파도문 등	45	
		Ⅵ-8①-C	미상	무문		4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얇게 깎아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도 있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23		Ⅰ-8①-D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접문	3	5 (0.09)
		Ⅵ-8①-D	미상	음각	접문, 운문	2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접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접시 24		Ⅳ-8②-F	모래	무문		1	1 (0.02)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25		Ⅳ-8②-H	모래	상감	여지국화문	1	1 (0.0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상감기법으로 내저면부터 국화, 연지문, 초문대 순으로 시문하였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26		Ⅲ-8②-H	규석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모란문	1	1 (0.0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이며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는 상감기법으로 도안화된 국화문, 모란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27		Ⅲ-9①-C	규석	무문		11	12 (0.22)
		Ⅵ-9①-C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거나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얇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7.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28		Ⅳ-9②-H	모래	무문		1	1 (0.0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이며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측사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29		Ⅰ-10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2	3 (0.05)
		Ⅵ-10①-B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짧게 꺾여 있다. 내저면에 6.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다소 작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접시 30		Ⅰ-10②-G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	6 (0.11)
		Ⅲ-10②-G	규석	무문		3	
		Ⅵ-10②-G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31		Ⅰ-11①-D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봉황문	8	55 (1.00)
		Ⅲ-11①-D	규석	무문		46	
		Ⅵ-11①-D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12.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봉황문을 음각한 예도 있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32		Ⅲ-11①-F	규석	음각, 상감	선문, 운학문 등	56	176 (3.17)
		Ⅳ-11①-F	모래	무문, 음각, 상감	선문, 용문 등	115	
		Ⅵ-11①-F	미상	상감	운학문, 파어문 등	5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운학문, 용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33		Ⅳ-11②-H	모래	무문		8	11 (0.20)
		Ⅵ-11②-H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34		Ⅲ-12①-G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연화문, 황촉규문 등	157	336 (6.05)
		Ⅳ-12①-G	모래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등	선문, 화문	160	
		Ⅴ-12①-G	태토빛음	상감	국화문	1	
		Ⅵ-12①-G	미상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등	선문, 국화문	18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8.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다수이며, 내면에 화문과 여의두문을 음각하거나 압출양각한 예도 있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있다.							
접시 35		Ⅱ-12②-G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	1 (0.02)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다.							
접시 36		Ⅲ-13①-H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상감	연화문, 모란문 등	199	204 (3.67)
		Ⅵ-13①-H	미상	무문, 음각, 압출양각	연화문, 여지문 등	5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지름 9.3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37		Ⅰ-14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6	22 (0.40)
		Ⅲ-14①-C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16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다. 압출양각된 문양 위에 음각을 더한 유형은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38		Ⅰ-15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5	24 (0.43)
		Ⅱ-15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3	
		Ⅳ-15①-B	모래	무문		6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0.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포개구이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39		Ⅰ-15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문, 화엽문 등	23	32 (0.54)
		Ⅱ-15①-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압출양각	당초문	3	
		Ⅳ-15①-B	모래	음각, 압출양각	화문, 화엽문 등	2	
		Ⅵ-15①-B	미상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엽문, 당초문 등	4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낸 예가 많다. 내저면에 11.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음각으로 화엽문을 시문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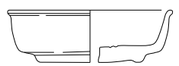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40		Ⅰ-15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당초문 등	71	489 (8.80)
		Ⅱ-15①-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모란문, 당초문 등	9	
		Ⅲ-15①-C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당초문 등	350	
		Ⅳ-15①-C	모래	압출양각	화문, 화절지문 등	4	
		Ⅵ-15①-C	미상	무문, 압출양각	모란문 등	55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낸 예가 많다. 내저면에 1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압출양각하여 문양을 시문하는 유형이 다수이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접시 41		Ⅰ-16①-F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상감	국화문	2	9 (0.16)
		Ⅳ-16①-F	모래	무문, 음각, 상감	국화문, 선문 등	5	
		Ⅵ-16①-F	미상	상감	국화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국화문을 상감 또는 압출양각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가 있다.							
접시 42		Ⅲ-16①-C	규석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16	20 (0.36)
		Ⅵ-16①-C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4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선문을 음각하거나,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접시43'에 비해 높이가 낮은 편이다.							
접시 43		Ⅰ-16①-F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선문	1	324 (5.83)
		Ⅲ-16①-F	규석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114	
		Ⅳ-16①-F	모래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182	
		Ⅵ-16①-F	미상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27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선문을 음각하거나,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접시 44		Ⅲ-16①-F	규석	상감	운학문 등	38	74 (1.33)
		Ⅳ-16①-F	모래	상감	운학문	34	
		Ⅵ-16①-F	미상	음각, 상감	운학문, 선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 돌출된 돌대가 있는 것이 많다. 내 · 외면에는 운학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접시 45		Ⅳ-16①-G	모래	상감	국화문	1	1 (0.0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46		Ⅲ-16②-C	규석	압출양각+음각, 압출양각+상감	연화문, 국모란문	15	15 (0.27)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하고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내저면에는 연화, 모란문 등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화엽, 국화문을 음각 또는 상감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47		Ⅲ-16②-F	규석	무문, 압출양각+상감, 상감	국화문	111	201 (3.62)
		Ⅳ-16②-F	모래	무문, 압출양각+상감 등	국화문	78	
		Ⅴ-16②-F	태토빛음	무문,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4	
		Ⅵ-16②-F	미상	무문, 상감 등	국화문	8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끝을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있다.							
접시 48		Ⅰ-17①-B	백색내화토빛음	양각	연판문	3	14 (0.25)
		Ⅲ-17①-B	규석	양각	연판문	10	
		Ⅵ-17①-B	미상	양각	연판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3.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49		Ⅰ-17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1	15 (0.27)
		Ⅲ-17①-C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11	
		Ⅵ-17①-C	미상	압출양각, 압출양각+음각	연화이룡문	3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0.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문양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세부를 표현한 유형의 경우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50		Ⅲ-18①-C	규석	무문, 음각, 상감	화문, 국화문	6	8 (0.14)
		Ⅵ-18①-C	미상	상감	국화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음각이나 상감기법으로 국화문 등의 화문을 시문하기도 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51		Ⅳ-18①-F	모래	무문		18	19 (0.34)
		Ⅵ-18①-F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내저면에 6.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52		Ⅲ-18①-G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5	5 (0.09)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내저면에 6.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접시 53		Ⅲ-18①-H	규석	음각, 압출양각, 상감	국화문, 연화문	5	5 (0.09)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도 있다. 내저면에 6.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음각, 압출양각, 상감 기법으로 국화문 · 연화문 등을 시문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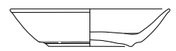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54		Ⅳ-18②-C	모래	상감	국화문	2	26 (0.47)
		Ⅳ-18②-G	모래	압출양각+상감, 상감	국화문, 파어문 등	18	
		Ⅵ-18②-G	미상	압출양각+상감, 상감	국화문, 파어문 등	6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오려내어 능화형을 표현하였다. 내 · 외면에 국화문, 파어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 또는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접시 55		Ⅲ-18②-C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13	13 (0.23)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압출양각하거나 상감하였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접시 56		Ⅲ-18②-F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파어문 등	68	143 (2.57)
		Ⅳ-18②-F	모래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파어문 등	64	
		Ⅵ-18②-F	미상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파어문 등	1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은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압출양각하거나 상감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내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접시 57		Ⅲ-18②-E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등	국화문	6	9 (0.16)
		Ⅳ-18②-E	모래	압출양각	화판문	1	
		Ⅵ-18②-E	미상	압출양각+상감	화판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은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국화문 등을 나타냈다. 굽은 높이가 1.0cm 내외로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접시 58		Ⅲ-18②-G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등	화문, 국화문	80	126 (2.27)
		Ⅳ-18②-G	모래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등	화문	32	
		Ⅵ-18②-G	미상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등	화문	14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은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내면에 화문 등을 압출양각하거나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접시 59		Ⅱ-18②-H	모래내화토빛음	압출양각	국화문	1	5 (0.09)
		Ⅲ-18②-H	규석	압출양각	화문	3	
		Ⅵ-18②-H	미상	압출양각	화문	1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이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화판 안에 국화문 등을 배치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60		Ⅲ-18②-I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9	74 (1.33)
		Ⅳ-18②-I	모래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57	
		Ⅵ-18②-I	미상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8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이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외면의 화판 안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도 있다. 굽은 2.0cm 이상의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1		Ⅲ-19①-C	규석	음각, 상감	연화문, 국화문	13	13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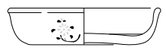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9.0~10.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연화문 · 여의두문 등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2		Ⅲ-19①-F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122	219 (3.94)
		Ⅳ-19①-F	모래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84	
		Ⅵ-19①-F	미상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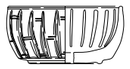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리거나 살짝 외반한다. 내저면에 9.0~10.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3		Ⅲ-19①-F	규석	상감	파어문	11	16 (0.29)
		Ⅳ-19①-F	모래	상감	파어문	2	
		Ⅵ-19①-F	미상	상감	파어문	3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10.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파어문과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고, 외면에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4		Ⅲ-19①-H	규석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2	2 (0.04)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내저면과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유형이 다수이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5		Ⅰ-19②-F	백색내화토빚음	압출양각	주름문, 죽절문	1	15 (0.27)
		Ⅲ-19②-F	규석	압출양각, 압출양각+상감	주름문, 국화문 등	11	
		Ⅳ-19②-F	모래	압출양각	주름문, 죽절문	2	
		Ⅵ-19②-F	미상	압출양각+상감	국화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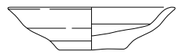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몸체는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외면은 골을 내어 주름을 표현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내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6		Ⅰ-20①-B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	4 (0.07)
		Ⅱ-20①-B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1	
		Ⅳ-20①-B	모래	무문		2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8.0~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대부분 무문이나 내저면에 음각선을 두른 예도 있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고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7		Ⅲ-20①-F	규석	무문, 상감	운학문, 파어문 등	7	13 (0.23)
		Ⅳ-20①-F	모래	상감	운학문, 파어문 등	5	
		Ⅵ-20①-F	미상	상감	초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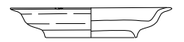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내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8		Ⅱ-20①-H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1	1 (0.02)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5.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69		Ⅲ-21-①-C	규석	무문, 음각	연화문	14	14 (0.25)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 마무리 하였다. 내저면에 15.0~1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을 넓게 음각한 예들이 많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70		Ⅰ-21①-C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당초문	1	18 (0.32)
		Ⅲ-21①-C	규석	무문, 음각, 상감	당초문	13	
		Ⅵ-21①-C	미상	무문, 상감	파어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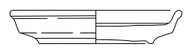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내저면에 10.0~11.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전의 윗면에 당초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의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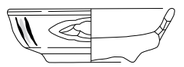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71		Ⅲ-21①-F	규석	상감	운학문	3	6 (0.11)
		Ⅳ-21①-F	모래	상감	운학문	3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 마무리 하였다. 내저면에 13.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운학문과 간지명을 상감한 예도 있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72		Ⅲ-21②-H	규석	무문		13	15 (0.27)
		Ⅵ-21②-H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오르다가 구연부에서 밖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다각접시이다. 구연은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 마무리 하였다. 평면의 모양은 육각 또는 팔각형으로 구분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73		Ⅲ-22①-C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등	64	92 (1.66)
		Ⅳ-22①-C	모래	무문, 음각, 상감	선문, 뇌문 등	19	
		Ⅵ-22①-C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선문, 뇌문 등	9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뇌문대를 상감한 유형이 다수이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일부 모래 받침의 경우 굽의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예도 확인된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74		Ⅲ-22②-C	규석	투각	능화문	4	5 (0.09)
		Ⅵ-22②-C	미상	투각	능화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살짝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 등간격으로 능화창을 투각하고, 그 사이에 세 줄의 흑백상감선을 배치하였다. 굽은 'U'자 또는 'V'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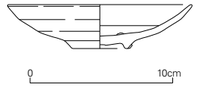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기타						532	532 (9.58)

출토 현황							
1지점	2,183	2지점	1,042	3지점	2,330	5,555	100%

18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 | Ⅰ-1①-B | 높이 3.1cm 구경 13.0cm 저경 4.1cm | 右T9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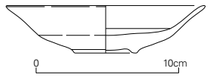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다.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0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 | Ⅰ-1①-B | 높이 3.3cm 저경 4.2cm | FㅈⅠ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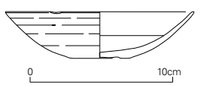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1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2 | Ⅰ-1①-G | 높이 3.2cm 저경 4.2cm | 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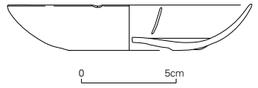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2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3 | Ⅰ-1①-G-다 | 높이 2.4cm 저경 4.4cm | T3B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3 | 청자음각용문화형접시 靑磁陰刻龍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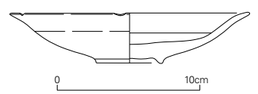
접시4 | Ⅰ-1①-H-가 | 복원높이 4.4cm | T4A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4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8 | Ⅰ-2①-B | 높이 3.5cm 구경 16.7cm 저경 4.7cm | W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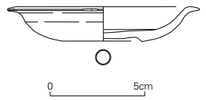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다소 작다.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5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10 | Ⅰ-3①-G | 높이 1.8cm 구경 10.0cm 저경 4.0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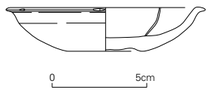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ㅇ'형의 음각부호가 있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6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10 | Ⅰ-3①-G-다 | 높이 2.2cm 저경 3.6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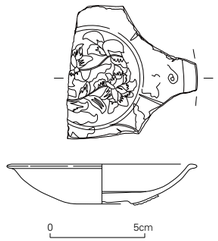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7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靑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접시10 | Ⅰ-3①-G-다 | 높이 2.1cm 저경 3.5cm | 1차-ㄹ6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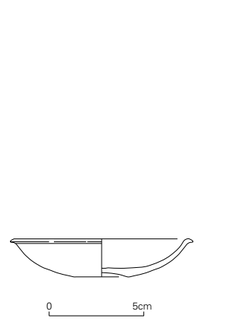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8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1 | Ⅰ-3①-H | 높이 2.0cm 구경 9.6cm 저경 3.3cm | W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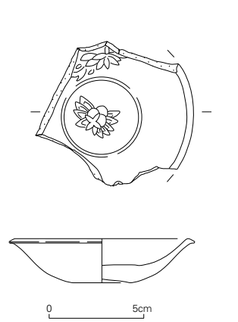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아낸 평굽이다.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99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접시 靑磁壓出陽刻蓮花文楪匙

접시11 | Ⅰ-3①-H-다 | 높이 2.3cm 저경 3.3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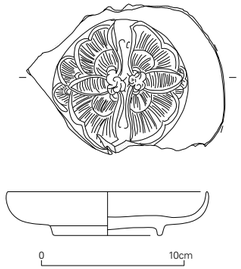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으나 희미하게 남아 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0 | 청자음각접문접시 靑磁陰刻蝶文楪匙

접시21 | Ⅰ-8①-C-가 | 높이 3.1cm 저경 7.7cm | T4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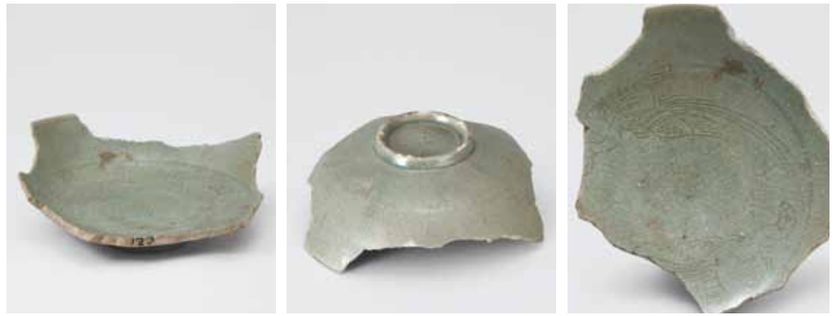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접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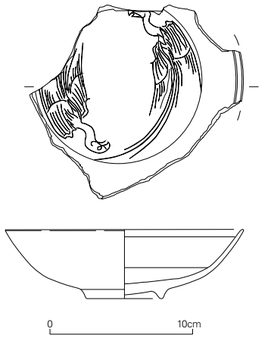


201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Ⅰ-8①-C-가 | 높이 5.1cm 저경 5.8cm | Cㄷ1 출토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다섯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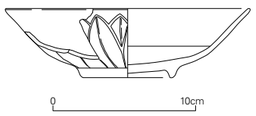




202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1 | Ⅰ-8①-C-㉮ | 높이 4.8cm 저경 6.4cm | WHㅌㅅ+E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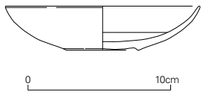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다섯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3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2 | Ⅰ-8①-C | 높이 3.1cm 저경 5.3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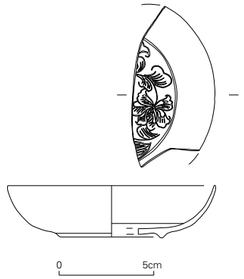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4 | 청자음각모란문접시 靑磁陰刻牡丹文楪匙

접시22 | Ⅰ-8①-C-가 | 높이 2.7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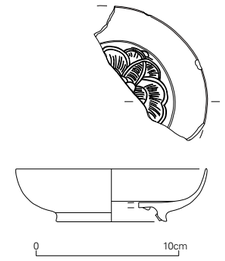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5 | 청자음각접문접시 靑磁陰刻蝶文楪匙

접시23 | Ⅰ-8①-D-가 | 높이 3.7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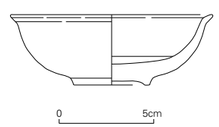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접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다. 굽 안쪽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9 | Ⅰ-10①-B | 높이 3.7cm 구경 10.7cm 저경 4.0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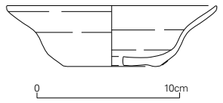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다소 작다.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7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0 | Ⅰ-10②-G | 높이 4.2cm | F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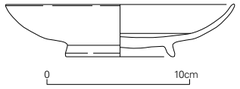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사선으로 연장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08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1 | Ⅰ-11①-D | 높이 3.7cm | F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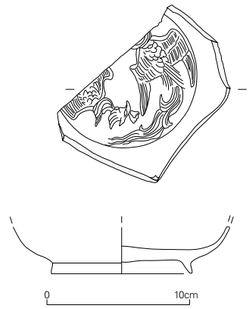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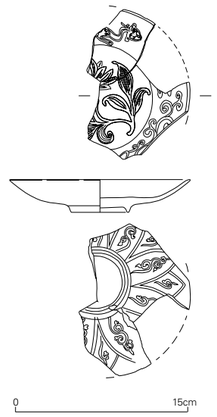


209 | 청자음각봉황문접시 靑磁陰刻鳳凰文楪匙

접시31 | Ⅰ-11①-D-가 | 잔존높이 3.2cm 저경 9.8cm | T4A1 출토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봉황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0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접시 靑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楪匙

접시37 | Ⅰ-14①-C-다㉮ | 높이 2.9cm 저경 5.1cm | B1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부드럽게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의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1 | 청자접시 靑磁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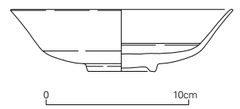
접시38 | Ⅰ-15①-B | 높이 3.5cm 저경 4.5cm | W7B㉡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포개구이한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높이가 다소 낮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2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9 | Ⅰ-15①-B | 높이 4.4cm 저경 4.9cm | A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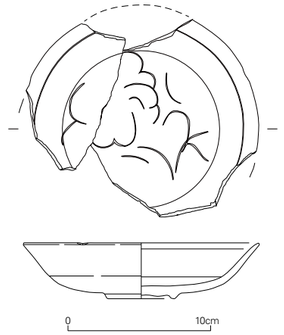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3 | 청자음각화문접시 靑磁陰刻花文楪匙

접시39 | Ⅰ-15①-B-가 | 높이 4.9cm 구경 16.7cm 저경 4.7cm | A+G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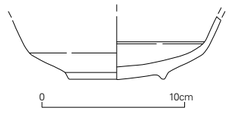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4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40 | Ⅰ-15①-C | 잔존높이 4.4cm 저경 6.8cm | A3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이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다섯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5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靑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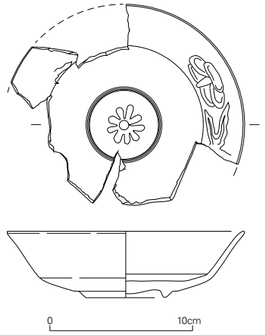
접시40 | Ⅰ-15①-C-다 | 잔존높이 4.6cm 저경 5.8cm | B1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모란문을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6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접시 靑磁壓出陽刻黃蜀葵文楪匙

접시40 | Ⅰ-15①-C-다 | 높이 4.7cm 저경 5.6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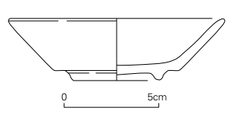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국화문과 황촉규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7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41 | Ⅰ-16①-F | 높이 3.2cm 구경 11.3cm 저경 4.8cm | T2ㅅ+1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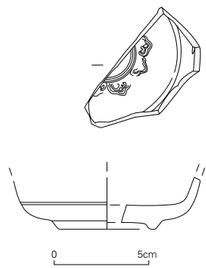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고,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8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접시41 | Ⅰ-16①-F-가㉮ | 잔존높이 2.8cm | 左T3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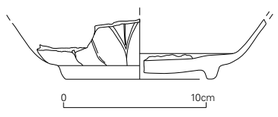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이중원문과 여의두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19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48 | Ⅰ-17①-B-㉰ | 잔존높이 4.1cm 저경 9.8cm | W7Bㅅ+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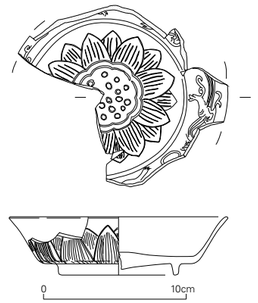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0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접시 靑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楪匙

접시49 | Ⅰ-17①-C-다㉮ | 높이 4.1cm 저경 8.3cm | B+F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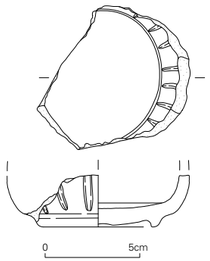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이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으며,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우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1 | 청자압출양각선문접시 靑磁壓出陽刻線文楪匙

접시65 | Ⅰ-19②-F-다 | 잔존높이 2.7cm 저경 6.2cm | 담밖표토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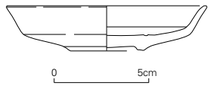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룬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은 깊게 골을 내어 주름을 표현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2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접시66 | Ⅰ-20①-B-가 | 높이 2.4cm 저경 4.0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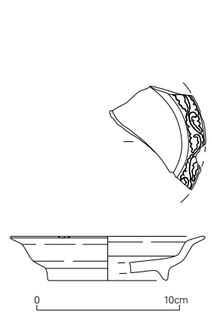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3 | 청자음각당초문화형접시 靑磁陰刻唐草文花形楪匙

접시70 | Ⅰ-21①-C-가 | 높이 3.1cm | 1차ㄹ-6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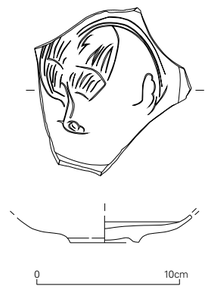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전에는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4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磁陰刻鸚鵡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1.9cm 저경 4.8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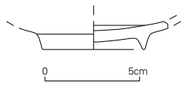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쪽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5 | 청자접시 靑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1.5cm 저경 5.5cm | H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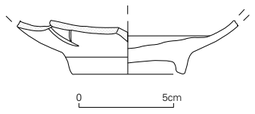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6 | 청자음각연판문접시 靑磁陰刻蓮瓣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2.8cm 저경 6.0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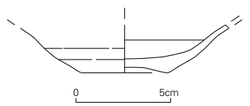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높이가 다소 높다.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7 | 청자접시 靑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2.5cm 저경 4.6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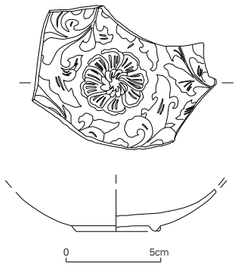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8 | 청자압출양각화당초문접시 靑磁壓出陽刻花唐草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2.6cm 저경 4.3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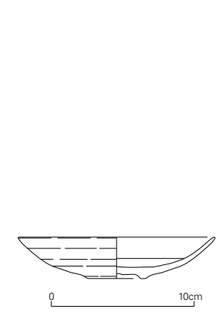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면에 화문과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2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 | Ⅱ-1①-B | 높이 3.1cm 저경 4.0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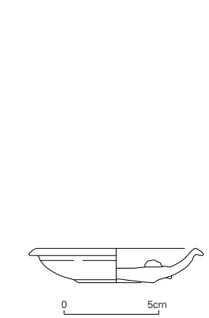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쪽으로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0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1 | Ⅱ-3①-H | 높이 2.0cm 구경 9.6cm 저경 4.1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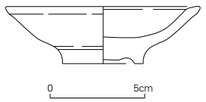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아낸 평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1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2 | Ⅱ-3②-B | 높이 3.0cm 저경 4.1cm | T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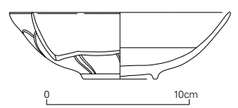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2 | 청자음각연판문접시 靑磁陰刻蓮瓣文楪匙

접시20 | Ⅱ-8①-B-㉮ | 높이 4.7cm 저경 5.3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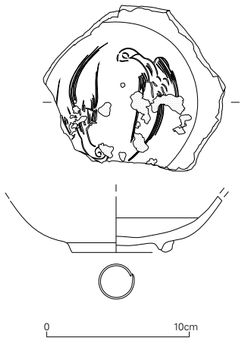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3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Ⅱ-8①-C-가 | 잔존높이 4.7cm 저경 6.0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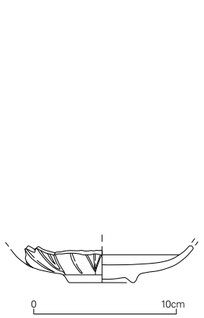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에 가깝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 안바닥에 'ㅇ'형태의 음각부호가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4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1 | Ⅱ-8①-C-㉰ | 잔존높이 2.6cm 저경 4.9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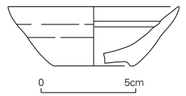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의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5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5 | Ⅱ-12②-G | 높이 3.1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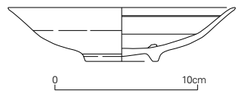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8 | Ⅱ-15①-B | 높이 3.8cm 저경 5.1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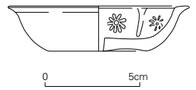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포개구이한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7 | 청자압출양각국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菊花文花形楪匙

접시59 | Ⅱ-18②-H-다 | 높이 2.5cm 저경 4.8cm | 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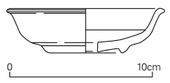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의 화판 안에 국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8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66 | Ⅱ-20①-B | 높이 3.1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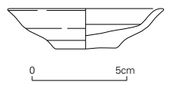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39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68 | Ⅱ-20①-H | 높이 2.1cm 저경 3.4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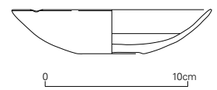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세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240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2 | Ⅲ-1①-G | 높이 3.1cm 구경 14.1cm 저경 4.4cm | E ㄷ 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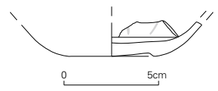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얇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살짝 깎아낸 형태의 안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1 | 청자퇴화선문화형접시 青磁堆花線文花形楪匙

접시3 | Ⅲ-1①-G-마 | 잔존높이 1.8cm 저경 4.5cm | 6A+6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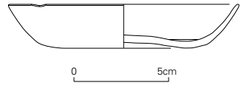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퇴화기법으로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2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5 | Ⅲ-1①-H | 높이 2.4cm 구경 12.1cm 저경 8.7cm | T4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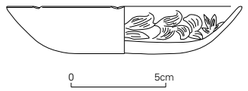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3 |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花形楪匙

접시5 | Ⅲ-1①-H-다 | 높이 2.5cm 구경 12.4cm 저경 8.4cm | W7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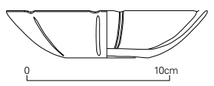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장식했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4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6 | Ⅲ-1①-H-다 | 높이 3.5cm 저경 5.8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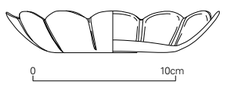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5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7 | Ⅲ-1②-H | 높이 2.8cm 저경 9.0cm | 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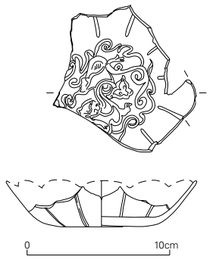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6 | 청자압출양각이룡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螭龍文花形楪匙

접시7 | Ⅲ-1②-H-다 | 높이 3.2cm 저경 8.0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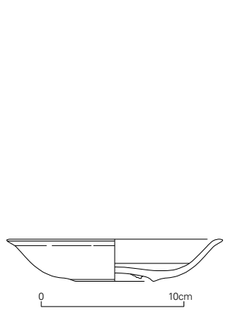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이룡문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7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9 | Ⅲ-3①-C | 높이 3.0cm 구경 15.1cm 저경 5.6cm | W7Bㅅ+T7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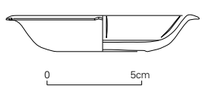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 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8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10 | Ⅲ-3①-G-다 | 높이 2.1cm 저경 4.5cm | 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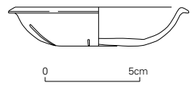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49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11 | Ⅲ-3①-H-㉮ | 높이 2.1cm 저경 3.2cm | T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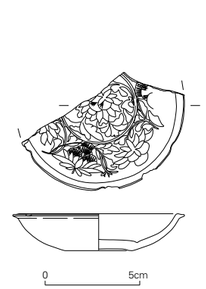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음각선을 세로로 배치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작은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0 | 청자압출양각보상당초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寶相唐草文花形楪匙

접시11 | Ⅲ-3①-H-다 | 높이 1.8cm 저경 3.4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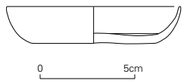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보상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1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3 | Ⅲ-4①-G | 높이 2.0cm 저경 6.4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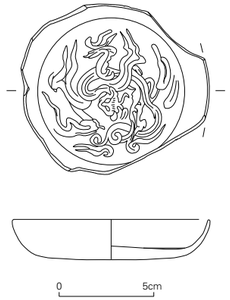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살짝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가장자리를 살짝 깎아낸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252 | 청자압출양각이룡문접시 青磁壓出陽刻螭龍文楪匙

접시13 | Ⅲ-4①-G-다 | 높이 2.1cm 저경 7.4cm | 담밖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이룡문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3 | 청자압출양각보상당초문접시 青磁壓出陽刻寶相唐草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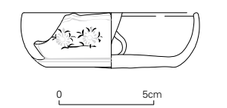
접시13 | Ⅲ-4①-G-다 | 높이 1.9cm 구경 9.9cm 저경 7.6cm | -Bㅌ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보상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4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13 | Ⅲ-4①-G-다㉮ | 높이 2.9cm 저경 6.7cm | BAW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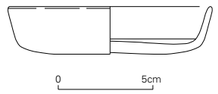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살짝 내만한다. 구연 끝을 뾰족하게 마무리하였고 내저면에는 원각이 있다. 내면에 'S'자형의 화판을 압출양각하였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5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4 | Ⅲ-4①-H | 높이 2.5cm 구경 10.7cm 저경 9.5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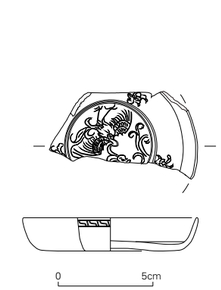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6 | 청자음각봉황문접시 靑磁陰刻鳳凰文楪匙

접시14 | Ⅲ-4①-H-가㉮ | 높이 1.8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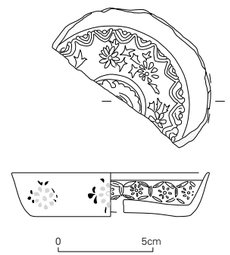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봉황문과 화문을, 외면에는 뇌문대를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7 | 청자압출양각국화문접시 靑磁壓出陽刻菊花文楪匙

접시14 | Ⅲ-4①-H-다㊽ | 높이 2.3cm 저경 8.3cm | MT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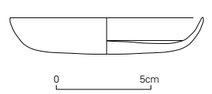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8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4 | Ⅲ-4①-H | 높이 2.0cm 저경 8.0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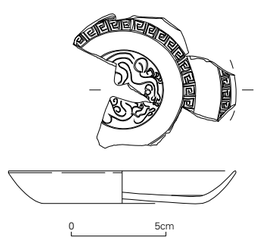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네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59 | 청자음각용문접시 靑磁陰刻龍文楪匙

접시14 | Ⅲ-4①-H-가 | 높이 1.7cm 저경 8.4cm | 7A+1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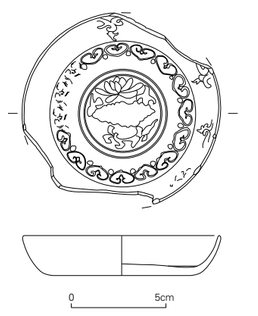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완만하게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용으로 추정되는 문양과 뇌문대를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0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접시 靑磁壓出陽刻蓮花文楪匙

접시14 | Ⅲ-4①-H-다 | 높이 2.1cm 구경 10.3cm 저경 8.2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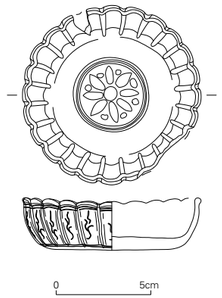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완만하게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연화문과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1 | 청자압출양각국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菊花文花形楪匙

접시15 | Ⅲ-5②-H-다㉮ | 높이 3.8cm 구경 9.3cm 저경 6.8cm | BBNW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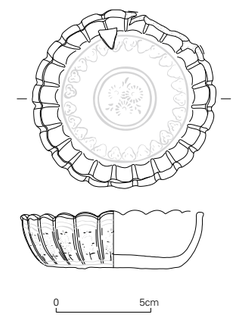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부는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국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도안화된 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2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青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접시15 | Ⅲ-5②-H-사㉯ | 높이 3.0cm 구경 9.4cm 저경 7.0cm | BC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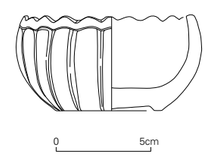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부는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과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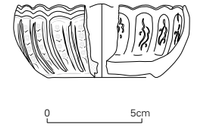


263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16 | Ⅲ-6②-G-다 | 높이 5.0cm 구경 8.9cm 저경 5.2cm | 1ㄷ 출토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부는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4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青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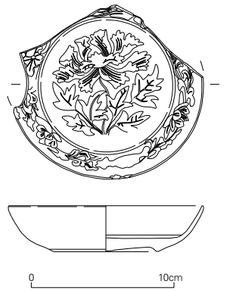
접시16 | Ⅲ-6②-G-사㉱ | 높이 4.8cm | Fㅈ 출토

기측선이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상감 국화문과 음각 초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5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접시17 | Ⅲ-7①-C-다 | 높이 3.2cm 저경 7.3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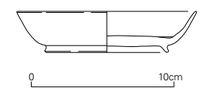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문과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6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8 | Ⅲ-7①-D | 높이 2.9cm 저경 8.7cm | B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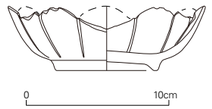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바닥에 이를수록 벌어지고 끝이 바깥으로 말린 형태의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7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19 | Ⅲ-7②-C-다 | 높이 4.5cm 저경 7.1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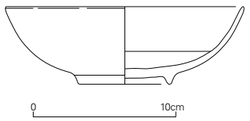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8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Ⅲ-8①-C-가 | 높이 5.5cm 구경 16.9cm 저경 6.4cm | T4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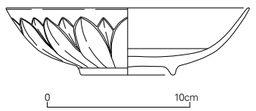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앵무문과 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69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1 | Ⅲ-8①-C-⑭ | 높이 4.7cm 구경 16.9cm 저경 6.5cm | 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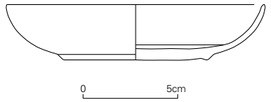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0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2 | Ⅲ-8①-C | 높이 2.9cm 저경 7.7cm | 6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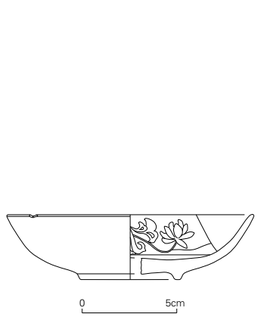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1 |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접시 靑磁壓出陽刻蓮唐草文楪匙

접시22 | Ⅲ-8①-C-다 | 높이 3.4cm | 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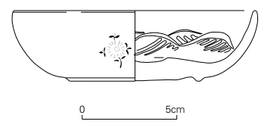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원반형 도침 위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2 | 청자압출양각파도문접시 靑磁壓出陽刻波濤文楪匙

접시22 | Ⅲ-8①-C-다㉮ | 높이 3.7cm 저경 6.5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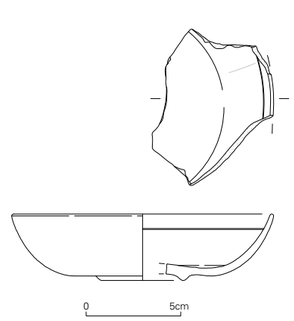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여의두문과 파도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3 | 청자퇴화선문접시 靑磁堆花線文楪匙

접시22 | Ⅲ-8①-C-마 | 높이 4.0cm | Cㄷ 출토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고, 그 아래에 퇴화기법으로 세로선을 시문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4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靑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접시26 | Ⅲ-8②-H-사 | 높이 2.5cm 구경 9.9cm 저경 5.9cm | T4SA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의 각 화판 사이는 음각하였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5 |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楪匙

접시27 | Ⅲ-9①-C | 높이 4.7cm 저경 7.1cm | Dㄷ1 출토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0 | Ⅲ-10②-G | 높이 3.2cm | T2 출토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사선으로 연장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7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1 | Ⅲ-11①-D | 높이 4.1cm 저경 8.7cm | +Dㄷ 출토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8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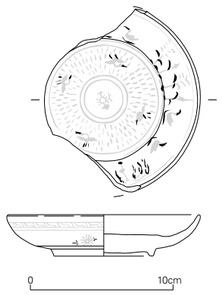
접시32 | Ⅲ-11①-F-가㉮ | 높이 3.5cm 구경 14.4cm 저경 5.9cm | BAㄷ 출토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79 | 청자상감운학문접시 青磁象嵌雲鶴文楪匙

접시32 | Ⅲ-11①-F-사㉮ | 높이 2.9cm 저경 6.9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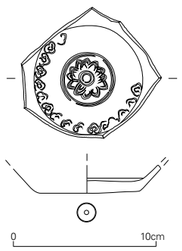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면에는 운학문과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0 | 청자음각화문접시 青磁陰刻花文楪匙

접시34 | Ⅲ-12①-G-가 | 잔존높이 2.0cm 저경 7.5cm | LM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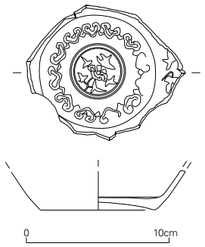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으며, 화문과 여의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형태의 음각부호가 있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1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접시 青磁壓出陽刻黃蜀葵文楪匙

접시34 | Ⅲ-12①-G-다 | 잔존높이 2.7cm 저경 7.7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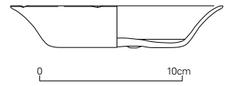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으며, 황촉규문과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2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36 | Ⅲ-13①-H | 높이 2.9cm 구경 14.7cm 저경 9.8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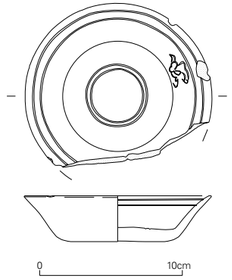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3 | 청자음각연화문접시 青磁陰刻蓮花文楪匙

접시36 | Ⅲ-13①-H-가 | 높이 3.3cm 구경 13.1cm 저경 8.3cm | 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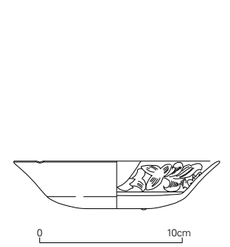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4 |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花形楪匙

접시36 | Ⅲ-13①-H-다 | 높이 3.3cm 저경 10.0cm | W7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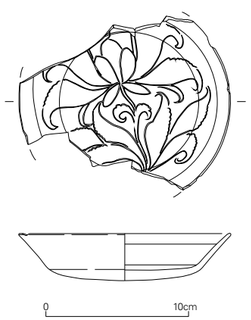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얇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5 | 청자압출양각모란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花形楪匙

접시36 | Ⅲ-13①-H-다 | 높이 3.3cm 구경 14.7cm 저경 10.3cm | A+F1+Hㄷ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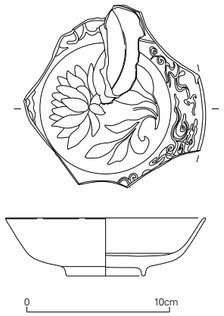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6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楪匙

접시37 | Ⅲ-14①-C-다 | 높이 4.5cm 저경 5.2cm | WHㄷ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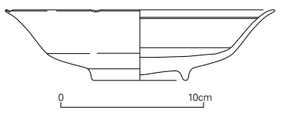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7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40 | Ⅲ-15①-C | 높이 4.9cm 저경 6.3cm | 4I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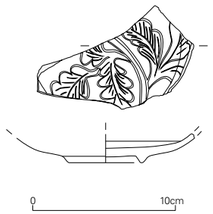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8 | 청자음각화엽문접시 青磁陰刻花葉文楪匙

접시40 | Ⅲ-15①-C-가 | 잔존높이 2.0cm 저경 5.2cm | Cㄷ1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음각된 화엽문이 확인된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89 | 청자압출양각모란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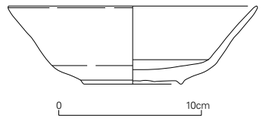
접시40 | Ⅲ-15①-C-다 | 높이 4.8cm 저경 6.2cm | Dㄷ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고 다시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0 | 청자압출양각화당초문접시 青磁壓出陽刻花唐草文楪匙

접시40 | Ⅲ-15①-C-다 | 높이 5.4cm 저경 6.8cm | BAW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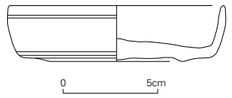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으나 희미하게 나타난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1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42 | Ⅲ-16①-C-가㉮ | 높이 2.9cm 저경 7.3cm | T2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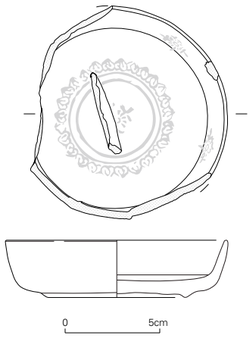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며,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2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42 | Ⅲ-16①-C-사㉮ | 높이 3.0cm 저경 7.4cm | BAW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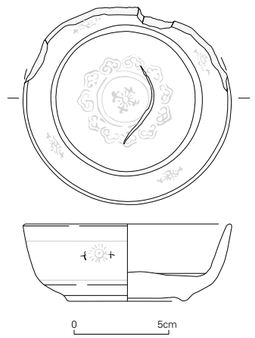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의두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3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43 | Ⅲ-16①-F-사㉯ | 높이 4.1cm 구경 11.2cm 저경 6.3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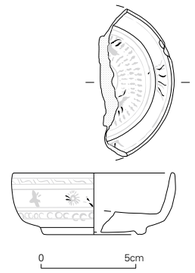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의두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4 | 청자상감운학문접시 青磁象嵌雲鶴文楪匙

접시44 | Ⅲ-16①-F-사㉯ | 높이 4.3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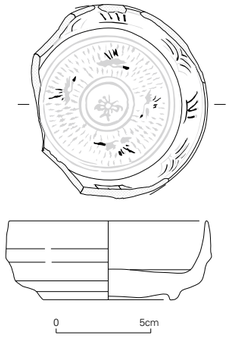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운학문과 도안화된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고, 외면에 국화와 나비를 배치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5 | 청자상감운학문접시 青磁象嵌雲鶴文楪匙

접시44 | Ⅲ-16①-F-사㉯ | 높이 4.1cm 저경 7.0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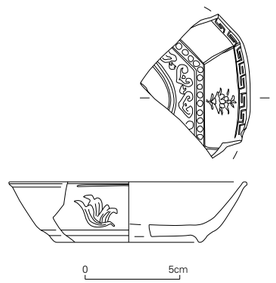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 운학문과 도안화된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고, 외면의 돌대 아래에 연주문을 돌렸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6 | 청자압출양각연화문팔각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八角楪匙

접시46 | Ⅲ-16②-C-다㉮ | 높이 3.1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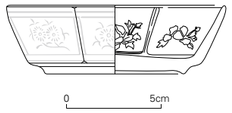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내면에는 여의두문과 연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화엽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7 | 청자압출양각모란문팔각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八角楪匙

접시46 | Ⅲ-16②-C-다㉮ | 높이 3.6cm 저경 7.3cm | BAW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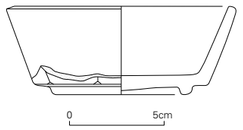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8 | 청자압출양각화문팔각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八角楪匙

접시47 | Ⅲ-16②-F-다 | 높이 4.6cm 저경 6.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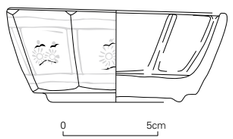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내저면에는 화문과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299 |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 青磁象嵌菊花文八角楪匙

접시47 | Ⅲ-16②-F-㉮ | 높이 4.6cm 구경 11.4cm 저경 7.0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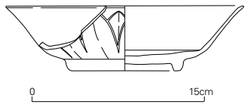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은 팔각을 이루며,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0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青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48 | Ⅲ-17①-B-㉯ | 높이 5.6cm 저경 8.6cm | 담밖+H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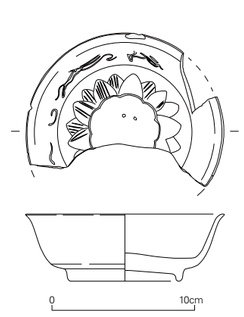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굽 안바닥에 작은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1 | 청자압출양각연화이룡문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螭龍文楪匙

접시49 | Ⅲ-17①-C-다 | 높이 5.7cm 구경 14.0cm 저경 7.8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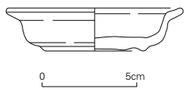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이룡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을 깎아낸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2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50 | Ⅲ-18①-C | 높이 2.3cm 저경 5.4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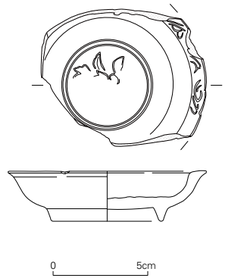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3 | 청자음각화문접시 青磁陰刻花文楪匙

접시50 | Ⅲ-18①-C-가 | 높이 3.1cm 저경 5.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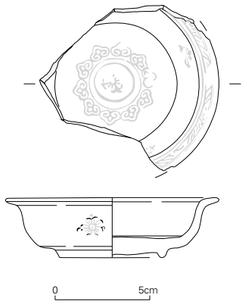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전에는 화문과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원반형 도침에 규석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304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50 | Ⅲ-18①-C-사㉮ | 높이 3.1cm 저경 5.6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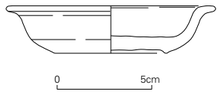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전에는 당초문대를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5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52 | Ⅲ-18①-G-가 | 높이 2.5cm 저경 5.7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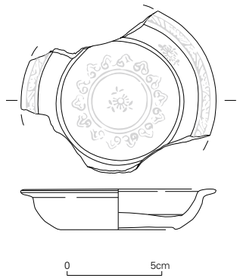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전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6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52 | Ⅲ-18①-G-사㉮ | 높이 2.1cm 구경 10.2cm 저경 6.1cm | LM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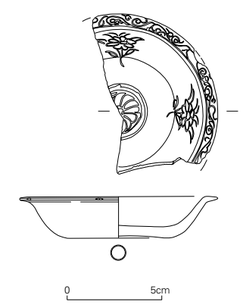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하게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전에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7 | 청자음각국화문접시 青磁陰刻菊花文楪匙

접시53 | Ⅲ-18①-H-가 | 높이 2.2cm 저경 5.8cm | 1T1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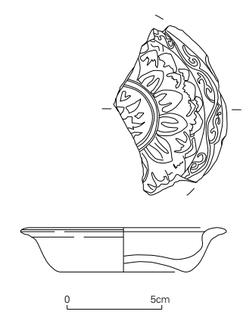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음각하였다. 굽 안바닥에 'O'형태의 음각부호가 있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8 |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花形楪匙

접시53 | Ⅲ-18①-H-다 | 높이 2.3cm 저경 7.0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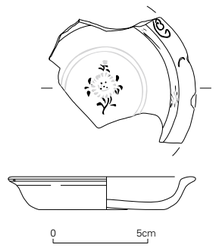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09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青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접시53 | Ⅲ-18①-H-사 | 높이 1.7cm 저경 5.8cm | T2AB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0 | 청자압출양각국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菊花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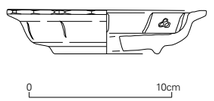
접시55 | Ⅲ-18②-C-다㉮ | 높이 3.3cm | BAW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루고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고, 그 안에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1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6 | Ⅲ-18②-F-다 | 높이 3.0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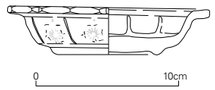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은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2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6 | Ⅲ-18②-F-다㉮ | 높이 3.0cm 구경 14.0cm 저경 7.5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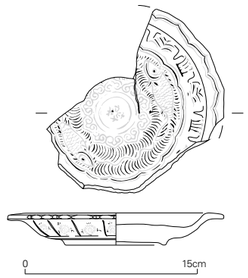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은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의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3 | 청자상감파어문화형접시 青磁象嵌波漁文花形楪匙

접시56 | Ⅲ-18②-F-사㉮ | 높이 2.8cm 저경 8.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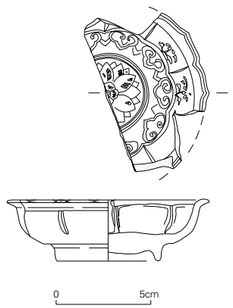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는 국화문과 파어문 등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4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7 | Ⅲ-18②-E-다 | 높이 3.2cm 저경 5.2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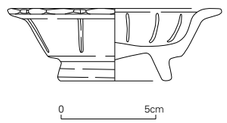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U'자형의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직립한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5 | 청자압출양각화판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瓣文花形楪匙

접시57 | Ⅲ-18②-E-다 | 높이 3.8cm 저경 5.8cm | BAW3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외반하는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6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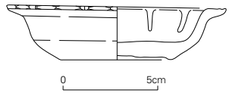
접시58 | Ⅲ-18②-G-다 | 높이 2.2cm | 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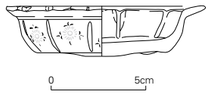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7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8 | Ⅲ-18②-G-다 | 높이 2.7cm 구경 11.3cm 저경 5.9cm | 2T1ㅌ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살짝 깎아낸 안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8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青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접시58 | Ⅲ-18②-G-사㉮ | 높이 2.5cm 저경 6.6cm | T2A1+SA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나타냈다. 내 ·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19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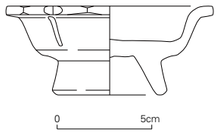
접시59 | Ⅲ-18②-H-다 | 잔존높이 1.5cm | SM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표현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0 | 청자압출양각화판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瓣文花形楪匙

접시60 | Ⅲ-18②-I-다 | 높이 5.0cm 구경 11.1cm 저경 5.8cm | T4B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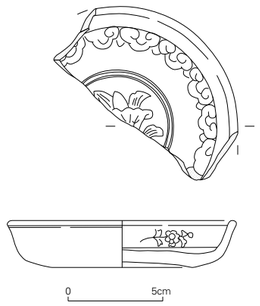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굽은 외반하며 높이가 2.0cm 이상으로 높은 다리굽이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1 | 청자음각연화문접시 青磁陰刻蓮花文楪匙

접시61 | Ⅲ-19①-C-가 | 높이 2.4cm 저경 7.6cm | T4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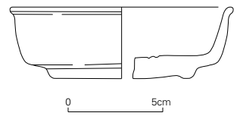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과 국화문 등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2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2 | Ⅲ-19①-F-가 | 높이 3.7cm | 담속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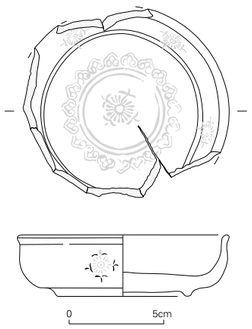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3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62 | Ⅲ-19①-F-사㉮ | 높이 3.7cm 구경 11.6cm 저경 6.9cm | BAW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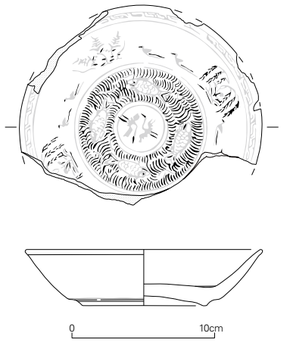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4 | 청자상감학파어문접시 青磁象嵌鶴波魚文楪匙

접시63 | Ⅲ-19①-F-사㉮ | 높이 3.9cm 구경 16.5cm 저경 8.8cm | MD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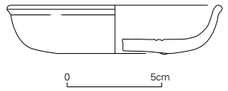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학문, 파어문,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국화문과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쳤다.



325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4 | Ⅲ-19①-H-가 | 높이 2.6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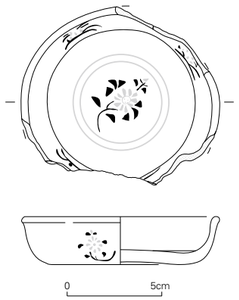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6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64 | Ⅲ-19①-H-사㉮ | 높이 2.5cm 구경 10.5cm 저경 8.1cm | T4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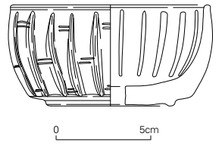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연화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7 | 청자음각죽절문접시 靑磁陰刻竹節文楪匙

접시65 | Ⅲ-19②-F-다㉰ | 높이 5.3cm 저경 6.6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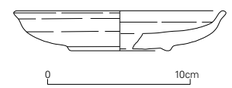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에는 깊게 골을 내었으며, 그 위로 마디를 음각하여 대나무를 표현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8 | 청자상감파어문접시 靑磁象嵌波魚文楪匙

접시67 | Ⅲ-20①-F-사㉯ | 높이 2.8cm 구경 15.0cm 저경 7.1cm | Hㅂ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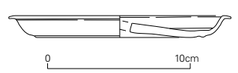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어문과 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2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69 | Ⅲ-21①-C | 높이 1.8cm | 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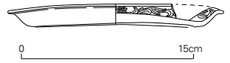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0 | 청자음각연화문접시 靑磁陰刻蓮花文楪匙

접시69 | Ⅲ-21①-C-가 | 높이 1.5cm 구경 18.6cm 저경 14.2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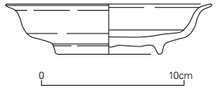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루며 끝을 둥글게 말아 마무리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 등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1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70 | Ⅲ-21①-C | 높이 3.5cm 저경 7.3cm | T7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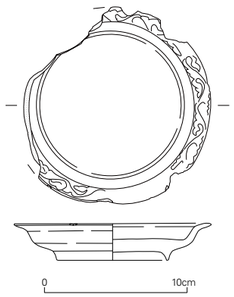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접시면을 살짝 깎아내었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2 | 청자음각당초문화형접시 靑磁陰刻唐草文花形楪匙

접시70 | Ⅲ-21①-C-가 | 높이 2.6cm 구경 13.6cm 저경 7.9cm | D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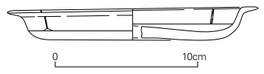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그리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고, 전에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3 | 청자육각접시 青磁六角楪匙

접시70 | Ⅲ-21②-H | 높이 2.4cm 구경 17.4cm 저경 13.7cm | B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오르다가 구연부에서 밖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다각접시이다. 구연 끝을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 마무리하였다. 평면형태는 육각형이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4 | 청자접시 青磁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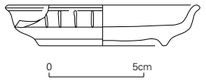
접시73 | Ⅲ-22①-C | 높이 1.9cm 구경 9.6cm 저경 6.4cm | LMA1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5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73 | Ⅲ-22①-C-㉮ | 높이 2.1cm 저경 6.6cm | F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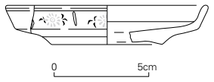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좁은 간격으로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6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73 | Ⅲ-22①-C-㉯ | 높이 2.1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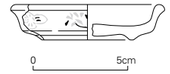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음각하고, 그 사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작은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7 | 청자상감모란문접시 青磁象嵌牡丹文楪匙

접시73 | Ⅲ-22①-C-㉯ | 높이 1.8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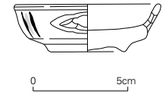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모란문과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38 | 청자투각능화문접시 青磁透刻菱花文楪匙

접시74 | Ⅲ-22②-C-㉥ | 높이 2.5cm 구경 7.5cm 저경 4cm | MT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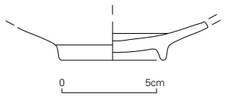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살짝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이러한 접시는 잔받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39 | 청자접시 靑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1.9cm 저경 5.7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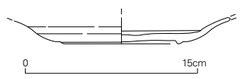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0 | 청자접시 靑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2.3cm | T8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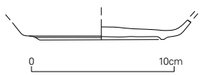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다가 외반하며 크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1 | 청자압출양각용문접시 靑磁壓出陽刻龍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1.3cm 저경 8.7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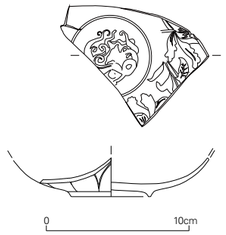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으며, 용문과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2 | 청자압출양각이룡문접시 靑磁壓出陽刻螭龍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3.7cm 저경 5.6cm | E 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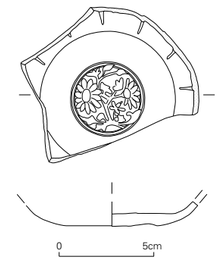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이룡문과 모란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의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3 | 청자압출양각국화문접시 靑磁壓出陽刻菊花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1.4cm 저경 5.1cm | T1A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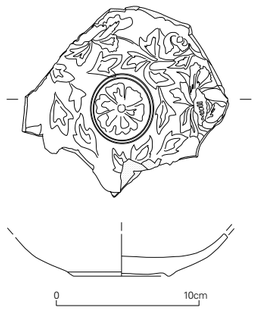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지름 7.0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국화문과 화판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4 |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접시 靑磁壓出陽刻牡丹唐草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2.9cm 저경 6.8cm | T2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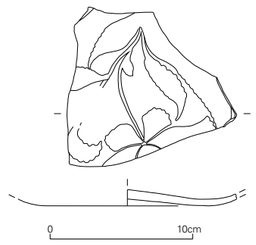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화문과 모란당초문을 가득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5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靑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0.8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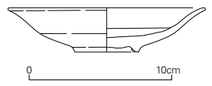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저부만 남아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확인되지 않고, 모란문을 가득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깝고 높이가 매우 낮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34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 | Ⅳ-1①-B | 높이 4.7cm 저경 4.3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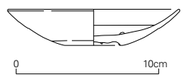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47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 | Ⅳ-1①-G | 높이 2.5cm 저경 4.0cm | 1T1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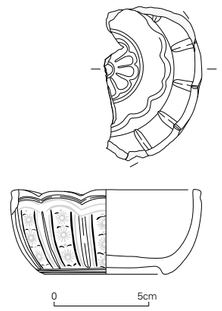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안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48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16 | Ⅳ-6②-G-다㉮ | 높이 4.6cm 저경 6.0cm | T2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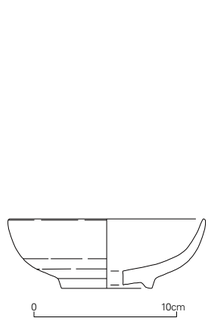
기측선이 가파른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내만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의 화판 안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4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4 | Ⅳ-8②-F | 높이 5.0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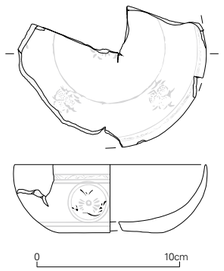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0 | 청자상감국화여지문접시 靑磁象嵌菊花荔枝文楪匙

접시25 | Ⅳ-8②-H-사㉯ | 높이 4.7cm 저경 7.2cm | 8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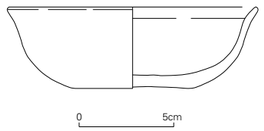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상감기법으로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지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평굽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1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28 | Ⅳ-9②-H | 높이 4.3cm 저경 3.1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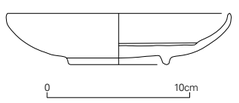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평굽이다. 측사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2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2 | Ⅳ-11①-F | 높이 3.6cm 저경 7.0cm | MD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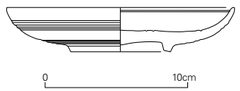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3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접시32 | Ⅳ-11①-F-가㉮ | 높이 3.1cm 저경 7.0cm | M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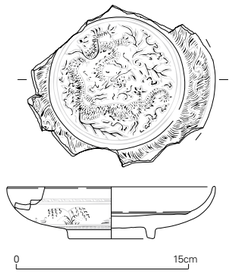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4 | 청자상감용문접시 靑磁象嵌龍文楪匙

접시32 | Ⅳ-11①-F-사㉘ | 높이 4.6cm 저경 7.7cm | MA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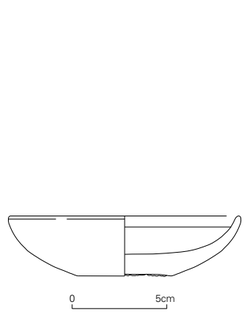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상감기법으로 내면에는 용문과 파도문을, 외면에는 포류수금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5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3 | Ⅳ-11②-H | 높이 3.1cm 구경 12.2cm 저경 4.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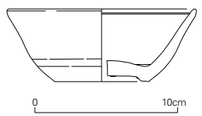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4 | Ⅳ-12①-G | 높이 5.1cm 구경 13.1cm 저경 6.6cm | 담밖표토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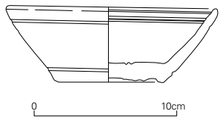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안굽이고, 접지면은 편평하게 깎았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7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접시34 | Ⅳ-12①-G-가㉮ | 높이 5.1cm 구경 14.7cm 저경 7.4cm | BABM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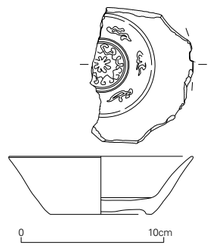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평평하게 깎은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8 | 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靑磁壓出陽刻花文楪匙

접시34 | Ⅳ-12①-G-다 | 높이 4.1cm 저경 7.2cm | BAW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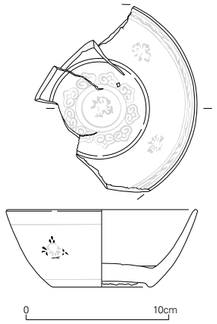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문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운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평평하게 깎은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59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34 | Ⅳ-12①-G-사㊽ | 높이 5.5cm 저경 7.1cm | Hㅂ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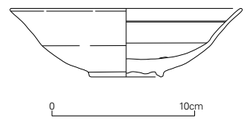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접지면은 평평하게 깎아냈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0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8 | Ⅳ-15①-B | 높이 4.8cm 저경 4.7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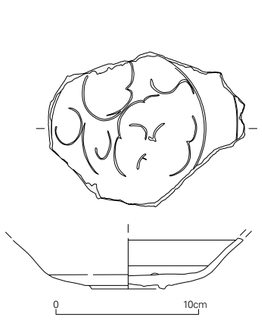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361 | 청자음각당초문접시 靑磁陰刻唐草文楪匙

접시39 | Ⅳ-15①-B-가 | 잔존높이 3.5cm 저경 5.0cm | 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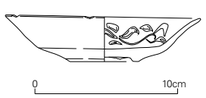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낮은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362 | 청자압출양각당초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唐草文花形楪匙

접시39 | Ⅳ-15①-B-다 | 높이 3.0cm 구경 13.6cm 저경 4.7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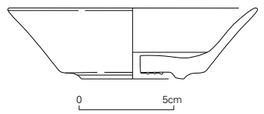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하단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3 | 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楪匙

접시41 | Ⅳ-16①-F-다 | 높이 3.7cm 저경 5.4cm | T51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으며, 화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4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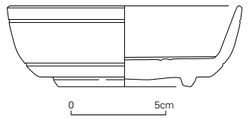
접시41 | Ⅳ-16①-F-사㉘ | 높이 4.8cm | T5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여의두문과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5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43 | Ⅳ-16①-F-가㉙ | 높이 4.2cm 저경 7.0cm | T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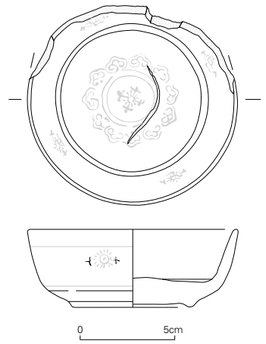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외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6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43 | Ⅳ-16①-F-사㉘ | 높이 4.7cm 구경 12.2cm 저경 7.3cm | W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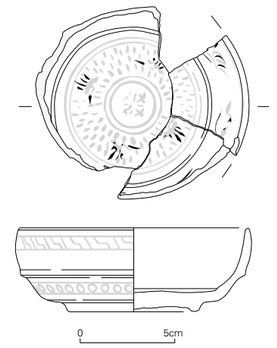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7 | 청자상감운학문접시 青磁象嵌雲鶴文楪匙

접시44 | Ⅳ-16①-F-사㉘ | 높이 4.5cm 저경 6.6cm | 左T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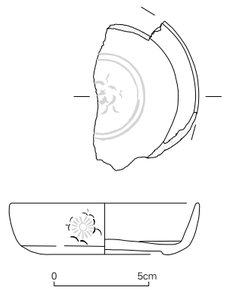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외면에 돌대가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과 도안화된 포류수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8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45 | Ⅳ-16①-G-사㉘ | 높이 2.7cm 저경 6.2cm | T2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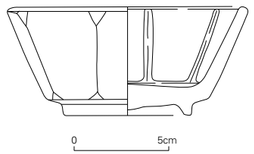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69 | 청자팔각접시 靑磁八角楪匙

접시47 | Ⅳ-16②-F | 높이 5.7cm 저경 6.7cm | M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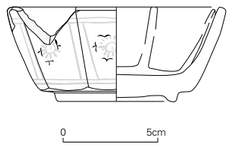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평평하게 마무리하였고,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0 | 청자압출양각화문팔각접시 靑磁壓出陽刻花文八角楪匙

접시47 | Ⅳ-16②-F-다㉮ | 높이 5.0cm 저경 6.2cm | T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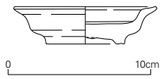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평평하게 마무리하였고,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고,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1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51 | Ⅳ-18①-F | 높이 2.6cm 저경 5.3cm | H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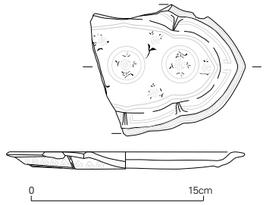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2 | 청자상감국화문능화형접시 靑磁象嵌菊花文菱花形楪匙

접시54 | Ⅳ-18②-C-사㉮ | 높이 1.7cm | 73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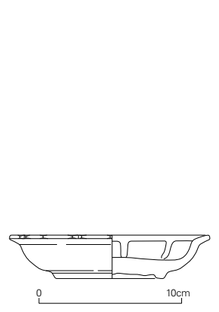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화형으로 깎아내어, 평면 형태가 능화형을 이룬다. 내면에는 국화문을, 외면에는 여의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의 작은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3 | 청자압출양각어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魚文花形楪匙

접시56 | Ⅳ-18②-F-다 | 높이 2.9cm 저경 7.3cm | T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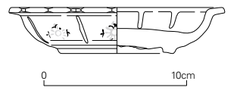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는 어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4 | 청자압출양각화판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花瓣文花形楪匙

접시56 | Ⅳ-18②-F-다㉯ | 높이 3.1cm 저경 7.3cm | BABM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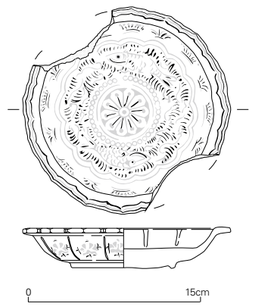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국화를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5 | 청자상감파어문화형접시 靑磁象嵌波魚文花形楪匙

접시56 | Ⅳ-18②-F-사㉮ | 높이 3.1cm 구경 18.2cm 저경 9.1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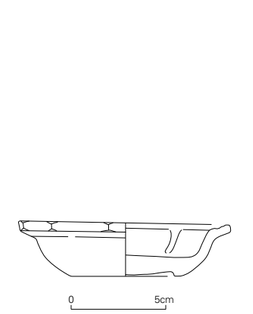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는 파어문을, 외면에는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6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8 | Ⅳ-18②-G-다 | 높이 2.7cm 구경 11.1cm 저경 5.5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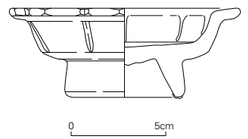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7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60 | Ⅳ-18②-I-다 | 높이 5.1cm 구경 11.8cm 저경 5.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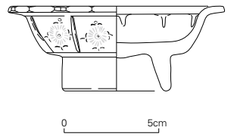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굽은 2.0cm 내외의 높은 다리굽이며, 바닥에 이를수록 벌어진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8 | 청자압출양각화판문화형접시 靑磁壓出陽刻花瓣文花形楪匙

접시60 | Ⅳ-18②-I-다㉮ | 높이 4.5cm 구경 11.3cm 저경 5.6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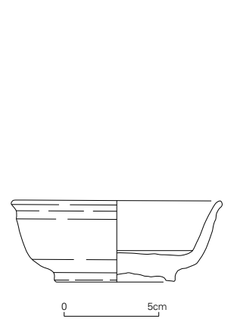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2.0cm 내외의 높은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7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62 | Ⅳ-19①-F | 높이 4.2cm 구경 11.2cm 저경 6.2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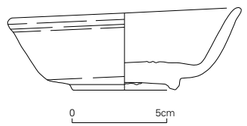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태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0 | 청자음각선문접시 靑磁陰刻線文楪匙

접시62 | Ⅳ-19①-F-가 | 높이 4.3cm 구경 12.1cm 저경 5.5cm | H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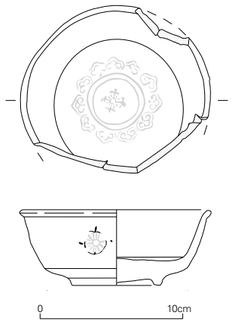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살짝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1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62 | Ⅳ-19①-F-사㉮ | 높이 5.2cm 구경 13.3cm 저경 6.0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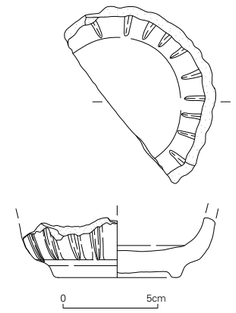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2 | 청자압출양각선문접시 青磁壓出陽刻線文楪匙

접시65 | Ⅳ-19②-F-다 | 잔존높이 3.1cm 저경 6.5cm | 74 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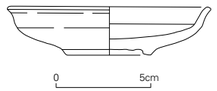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외면은 깊게 골을 내어 주름을 표현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3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66 | Ⅳ-20①-B | 높이 2.5cm 구경 10.5cm 저경 4.4cm | 73BB작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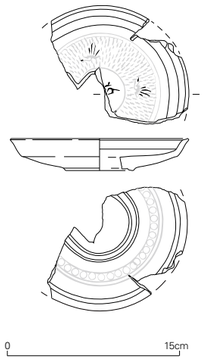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4 | 청자상감운학문‘정해’명접시 青磁象嵌雲鶴文丁亥銘楪匙

접시71 | Ⅳ-21①-F-사㉮ | 높이 2.8cm 저경 6.4cm | BABMㄷ+BABMㄷ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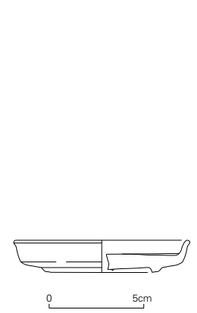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넓게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 마무리하였다. 내저면에는 ‘丁亥’자와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5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73 | Ⅳ-22①-C | 높이 1.7cm 저경 6.2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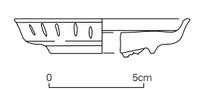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6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73 | Ⅳ-22①-C-㉯ | 높이 1.7cm 저경 5.5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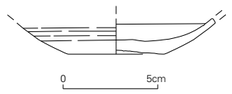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좁은 간격으로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7 | 청자접시 青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1.8cm 저경 4.7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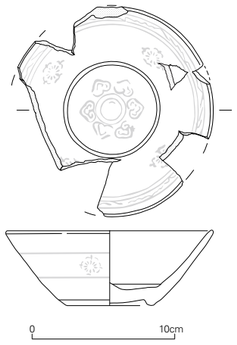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9.1cm의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388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34 | V-12①-G-사㉮ | 높이 5.6cm 구경 14.0cm 저경 6.2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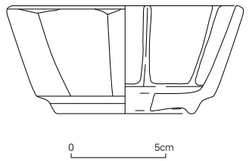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고, 평평하게 깎은 접지면 세 곳에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89 | 청자팔각접시 青磁八角楪匙

접시47 | V-16②-F | 높이 5.6cm | 8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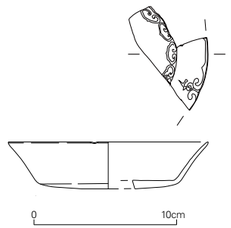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평평하게 마무리하였고, 외면은 팔각을 이룬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90 | 청자압출양각여의두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如意頭文花形楪匙

접시36 | Ⅵ-13①-H-다 | 높이 3.3cm | 1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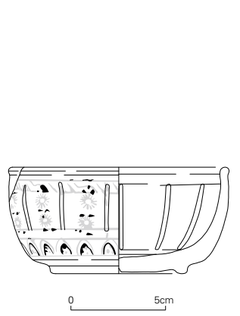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391 |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青磁象嵌菊花文花形楪匙

접시65 | Ⅵ-19②-F-다㉮ | 높이 5.6cm | BBS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고,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392 | 청자상감당초문접시 青磁象嵌唐草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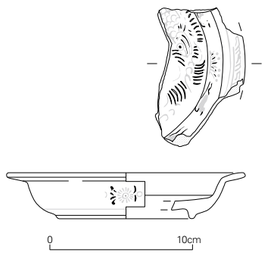
접시67 | Ⅵ-20①-F-㉮ | 높이 2.7cm 구경 10.6cm 저경 5.2cm | BABMㅌㅌ1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도안화된 당초문대를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393 | 청자상감파어문접시 青磁象嵌波魚文楪匙

접시70 | Ⅵ-21①-C-사㉔ | 높이 3.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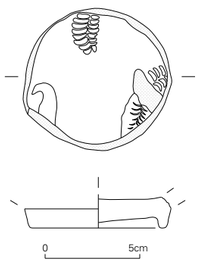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어문과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394 | 초벌압출양각초문접시 初燔壓出陽刻草文楪匙

기타 | 높이 1.7cm 저경 7.1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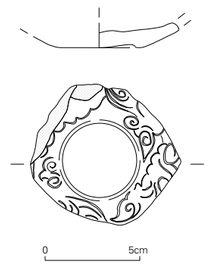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접시 초벌구이편으로, 내저면에 초문으로 보이는 문양을 압출양각하였으나 희미하게 나타난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395 | 초벌음각당초문접시 初燔陰刻唐草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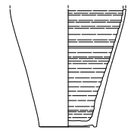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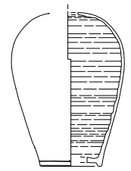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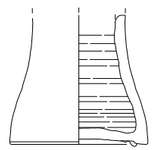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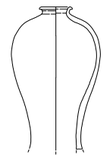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3cm 저경 4.2cm | F2 출토

형식 미상의 접시 초벌구이편으로, 외면에는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다.



매병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확인된다. 기측선을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표12〉 '매병1'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양각 · 철화가 있고, 문양은 당초문 등이 있다. '매병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부 상단에 이르러 곡선을 이루는 형태이다. 문양은 연화문과 용문 등을 음각 등으로 시문하였다. '매병3~4'는 기측선이 'S'자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광구형廣口形이거나 외반하여 둥글게 말려있다. 시문기법은 음각 · 상감이 확인되는데, 포류수금문과 연화문의 비중이 크다. 매병의 굽은 모두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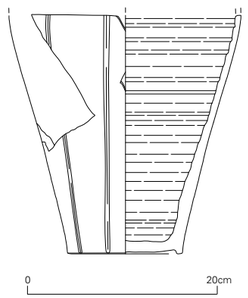
〈표12〉 매병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매병 1		Ⅰ-1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양각	당초문	12	15 (8.33)
		Ⅵ-1	미상	무문, 철화	국당초문	3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당초문을 음각 또는 철화로 시문하거나,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한 예가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매병 2		Ⅰ-2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연화문, 용문 등	64	81 (45.00)
		Ⅱ-2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연화문, 모란문 등	5	
		Ⅳ-2	모래	무문		4	
		Ⅵ-2	미상	무문, 음각	연화문	8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부 상단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구연부는 광구형廣口形이며, 동체 외면에는 연화문이나 용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매병 3		Ⅰ-3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상감	뇌문	2	22 (12.22)
		Ⅱ-3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상감	연화문, 모란문 등	11	
		Ⅳ-3	모래	무문, 상감	운학문, 포도문 등	6	
		Ⅵ-3	미상	무문, 상감	당초문	3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구연부는 광구형이며, 동체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거나 운학문, 포도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매병 4		Ⅳ-4	모래	상감	포류수금문, 연화문 등	43	55 (30.56)
		Ⅵ-4	미상	상감	포류수금문 등	12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동체부 상단에 이르러 구형球形을 이룬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둥글게 말려있다. 포류수금문과 연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기타						7	7 (3.89)
출토 현황	1지점	35	2지점	47	3지점	98	180	100%

396 | 청자과형매병 靑磁瓜形梅甁

매병1 | Ⅰ-1 | 잔존높이 25.6cm 저경 11.7cm | 右T3+F+T3ㄷ+Eㄷ+F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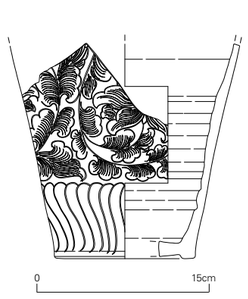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97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매병 靑磁陰刻牡丹唐草文梅甁

매병1 | Ⅰ-1 | 잔존높이 18.8cm | Cㄷ+Dㄷ+Eㄷ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398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매병 靑磁陰刻牡丹唐草文梅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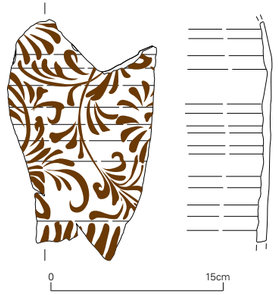
매병1 | Ⅵ-1 | 최대길이 12.0cm | W7Aㅅ 출토

매병의 견부肩部이다. 외면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였다.

399 | 청자철화국당초문매병 靑磁鐵畫菊唐草文梅甁

매병1 | Ⅵ-1 | 잔존높이 20.2cm | T4B1+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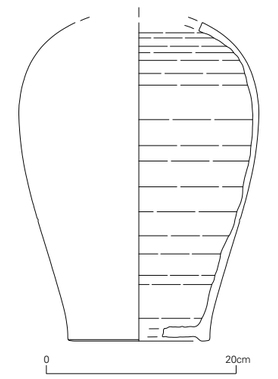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이다. 외면에는 산화철 안료로 국당초문을 시문하였다.



400 | 청자매병 靑磁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4.0cm 저경 14.8cm | A3+WHㄷ+WHㄷㅅ+Cㄷ+Eㄷ+Hㄷ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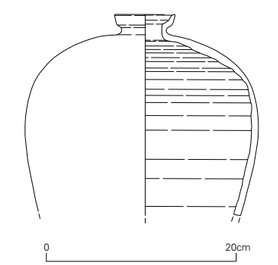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1 | 청자매병 靑磁梅甁

매병2 | Ⅵ-2 | 잔존높이 22.1cm 구경 6.2cm | 右4Iㅈ+T7ㅈ+WHㄷㅅ+A2+B2+Eㄷ+E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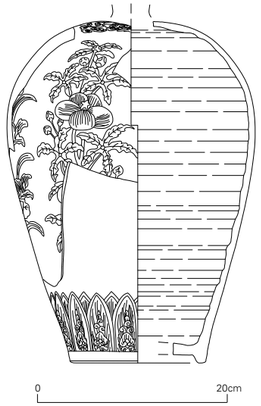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가고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구연부는 광구형廣口形이다.



402 | 청자음각연황촉규문매병 靑磁陰刻蓮黃蜀葵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5.1cm 저경 14.0cm | B+Cㄷ1+Cㄷ2+EㄷㅓH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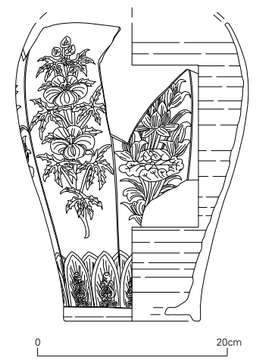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연화문과 황촉규문을 번갈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3 | 청자음각연황촉규문매병 靑磁陰刻蓮黃蜀葵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1.2cm 저경 14.6cm | 6B+Cㄷㅓ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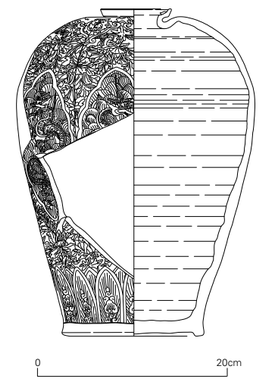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세로선을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냈고, 연화문과 황촉규문을 번갈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4 | 청자음각용문매병 靑磁陰刻龍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4.2cm 저경 14.8cm | B+WHㄷ+2T1中+Dㄷ++Dㄷ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냈고, 능화창 안에는 용문을, 바탕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2. 청자음각연황촉규문매병

403. 청자음각연황촉규문매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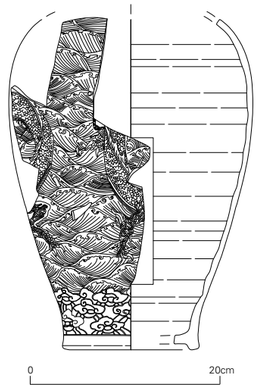
404. 청자음각용문매병

405. 청자음각용문매병

405 | 청자음각용문매병 靑磁陰刻龍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5.0cm 저경 14.3cm | WHㅌㅅ+Dㅌ+Eㅌ+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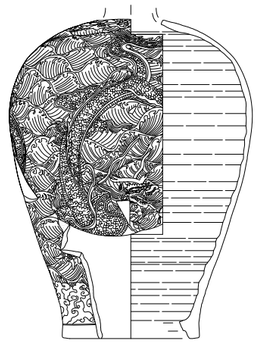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용문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음각으로 가득 채웠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6 | 청자음각용문매병 靑磁陰刻龍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33.4cm | T7+Cㅌ+Eㅌ+Hㅌ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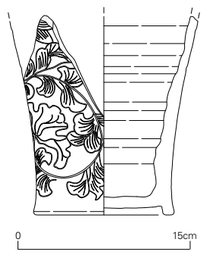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 상부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용문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음각으로 가득 채웠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07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매병 靑磁陰刻牡丹唐草文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17.4cm 저경 12.1cm | T2+2ㅌㅅ+2ㅌㅈ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 외면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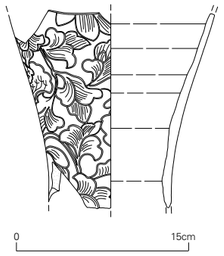


406. 청자음각용문매병

408 | 청자음각연당초문매병 青磁陰刻蓮唐草文梅甁

매병2 | Ⅵ-2 | 잔존높이 18.2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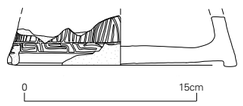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 외면에는 연당초문을 음각하였다.



409 | 청자음각연판문매병 青磁陰刻蓮瓣文梅甁

매병3 | Ⅱ-3 | 잔존높이 5.4cm 저경 19.7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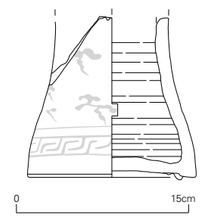
매병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연판문과 뇌문雷文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10 |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青磁象嵌雲鶴文梅甁

매병3 | Ⅳ-3 | 잔존높이 21.7cm | SM1+SM2+SL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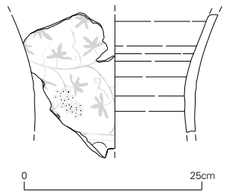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면에는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11 | 청자상감포도문매병 青磁象嵌葡萄文梅甁

매병3 | Ⅵ-3 | 잔존높이 19.0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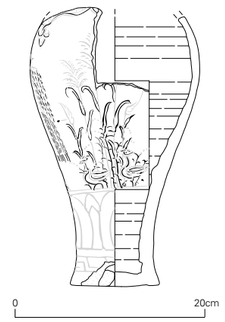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외면에는 포도문을 상감하였다.



412 | 청자상감포류수금문매병 青磁象嵌蒲柳水禽文梅甁

매병4 | Ⅳ-4 | 잔존높이 29.2cm | T4SA+T4S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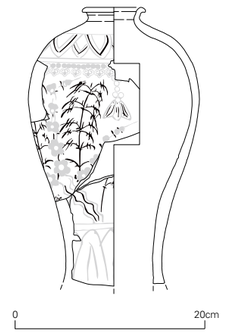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동체 상부에 이르러 구형球形을 이룬다. 외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13 | 청자상감매죽류문매병 青磁象嵌梅竹柳文梅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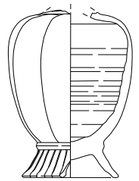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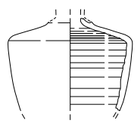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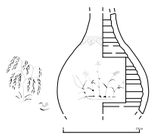
매병4 | Ⅵ-4 | 잔존높이 29.2cm 구경 6.8cm | T1A+MC+MABㅅ+SM+SM2+SSA+SLMB+74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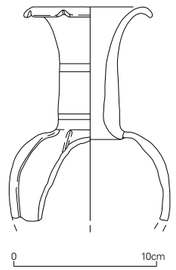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동체 상부에 이르러 구형을 이룬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둥글게 말려있다. 외면에는 버드나무와 매화 · 대나무를 번갈아 상감하였다.



병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13〉 '병1'은 목과 동체부, 저부의 세 부분을 접합한 형태이다. 저부는 외반하고, 동체부의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목은 길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무문 외에 음각으로 연화문을 시문한 예가 많다. 굽은 높은 다리굽 형태이다. '병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꺾여 목에 이르는 반구장경병盤口長頸甁 형태이다. 굽은 바닥면이 편평한 평굽이다. '병3'은 옥호춘玉壺春 형태의 병으로 구형의 동체부에 가늘고 긴 목을 갖추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외면에는 음각이나 상감으로 연판문 또는 국화문 등을 시문한 예가 많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 형태이다.

〈표13〉 병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병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양각, 상감	과형, 연화문 등	15	29 (11.55)
		Ⅵ-1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철화	연화문, 국화문 등	14	
	목과 동체부, 저부의 세 부분을 접합한 형태이다. 저부는 외반하고, 동체부의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목은 길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과형을 표현하거나 연화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병 2		Ⅲ-2	규석	무문		4	7 (2.79)
		Ⅵ-2	미상	무문		3	
	반구장경병으로 목 부분과 동체부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꺾여 목에 이른다. 목은 길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전을 형성한다. 굽은 바닥면이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병 3		Ⅱ-3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음각	연판문	10	171 (68.13)
		Ⅲ-3	규석	무문, 음각, 양각	죽절문, 연판문 등	14	
		Ⅳ-3	모래	무문, 양각, 상감	죽절문, 포류수금문	12	
		Ⅵ-3	미상	무문, 음각, 상감 등	죽절문, 포류수금문	135	
	구형의 동체부에 가늘고 긴 목을 갖춘 옥호춘 형태의 병으로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외면에는 음각이나 상감으로 연판문 또는 국화문 등을 시문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과 규석, 모래가 있다.						
기타						44	44 (17.53)
출토 현황	1지점	51	2지점	23	3지점	177	251	100%



414 | 청자과형병 靑磁瓜形甁

병1 | Ⅵ-1 | 잔존높이 14.9cm | T4 출토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목은 길고 화형의 구연부는 외반한다. 목 부분에는 선문을 음각하고, 동체부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내면에 동체부와 목 부분을 접합한 흔적이 있다.

415 | 청자과형병 靑磁瓜形甁

병1 | Ⅰ-1 | 잔존높이 14.8cm 저경 8.6cm | 담밖 출토

동체부의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동체부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고 저부는 치마주름과 같은 선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16 | 청자상감모란문과형병 靑磁象嵌牡丹文瓜形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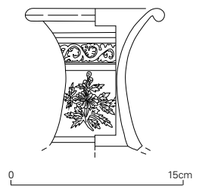
병1 | Ⅵ-1 | 잔존높이 8.0cm | SM2 출토

동체부의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든다. 동체부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고 각 면에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417 |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磁陰刻蓮花文甁

병1 | Ⅵ-1 | 잔존높이 12.8cm 구경 12.0cm | 1T1中+T4ㄷ+Bㄷ+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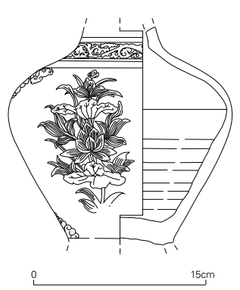
청자음각연화문병(도판418)과 같은 형식의 목 부분으로, 목은 길고 위로 갈수록 오므라들다가 다시 벌어지는 곡선 형태이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둥글게 말려있다.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였다.



418 |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磁陰刻蓮花文甁

병1 | Ⅰ-1 | 잔존높이 22.0cm | WHㄷ+Hㅈ+Hㄷㅅ+Hㄷ1+Dㄷ+Eㄷ+2T1ㄷ+2T1中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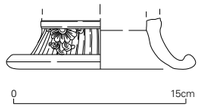
동체부의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동체부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저부의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419 |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磁陰刻蓮花文甁

병1 | Ⅰ-1 | 잔존높이 5.5cm 저경 16.3cm | Dㄷ+Eㄷ+Eㄷ1+Eㄷ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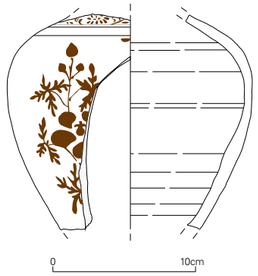
청자음각연화문병(도판418)과 같은 형식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치마주름과 같은 선문과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외반하여 가장자리가 말려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20 | 청자철화황촉규문병 靑磁鐵畫黃蜀葵文甁

병1 | Ⅵ-1 | 잔존높이 15.1cm | 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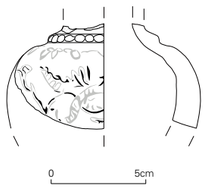
동체부의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동체부 외면에는 산화철 안료로 황촉규문을 시문하였다.



421 | 청자상감용문병 靑磁象嵌龍文甁

기타 | 잔존높이 5.8cm | MABㅅ 출토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오므라들며 목에 이른다. 목 부분과 동체부가 이어지는 부분에는 연주 장식을 도드라지게 둘렀다. 외면에는 용문을 상감하였다.



422 | 청자상감용문병 靑磁象嵌龍文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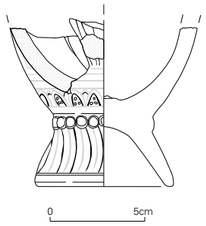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9.7cm | SM 출토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간다. 동체부와 저부가 이어지는 부분에는 연주 장식을 도드라지게 둘렀다. 외면에는 용문을 상감하였다.

423 | 청자상감유로문병 靑磁象嵌柳蘆文甁

기타 | 잔존높이 8.7cm 저경 7.3cm | T2AB+SM2+BAL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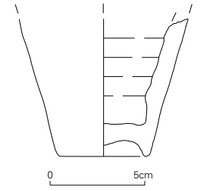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간다. 동체부와 굽 사이에는 연주 장식을 도드라지게 둘렀다. 외면에는 문양대를 구획하고 유로문을 상감한 것으로 보인다. 굽은 사선을 그리며 벌어지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24 | 청자병 靑磁甁

기타 | 잔존높이 7.2cm 저경 4.9cm | T7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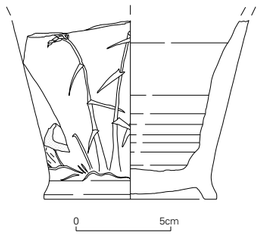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굽은 속을 깊게 판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25 | 청자음각유로수금문정병 靑磁陰刻柳蘆水禽文淨甁

기타 | 잔존높이 9.3cm 저경 9.0cm | 4I+T7ㅈ+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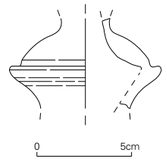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오므라들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갈대와 오리 등의 물가풍경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26 | 청자정병 靑磁淨甁

기타 | 잔존높이 4.2cm 최대지름 8.0cm | 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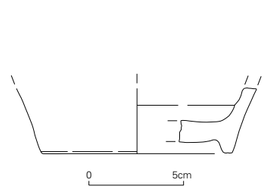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정병의 환테[丸輪]부분이다. 내면까지 시유되어 있다.



427 | 청자철채병 靑磁鐵彩甁

기타 | 잔존높이 3.5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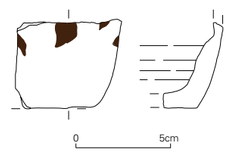
형식 미상인 병의 저부로, 산화철 안료로 채색한 후에 다시 그 위에 청자유를 시유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28 | 청자철화문병 靑磁鐵畫文甁

기타 | 잔존높이 4.6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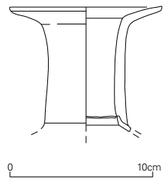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산화철 안료를 이용하여 당초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그렸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29 | 청자병 靑磁甁

병2 | Ⅵ-2 | 잔존높이 8.7cm | C㉡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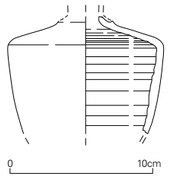
반구장경병의 목 부분으로 내면에 동체부와 접합한 흔적이 있다. 목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전을 형성한다.



430 | 청자병 靑磁甁

병2 | Ⅵ-2 | 잔존높이 8.4cm | 6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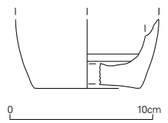
반구장경병의 동체부로 목 부분과 접합한 흔적이 있다.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꺾여 목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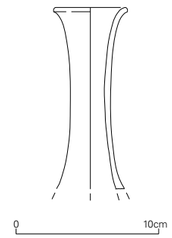


431 | 청자병 靑磁甁

병2 | Ⅲ-2 | 잔존높이 4.9cm 저경 7.6cm | T7 출토

반구장경병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올라간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굽 가장자리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32 | 청자병 靑磁甁

병3 | Ⅵ-3 | 잔존높이 12.7cm 구경 5.1cm | B1+E㉡ 출토

병의 목 부분이다. 목이 길고 살짝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433 |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磁陰刻蓮花文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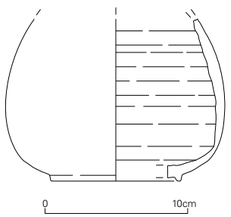
병3 | Ⅵ-3 | 잔존높이 8.5cm | T4SA 출토

병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목 부분에 이른다. 동체부에는 연화문을, 목과 이어지는 부분에는 여의두문을 음각하였다.

434 | 청자병 靑磁甁

병3 | Ⅲ-3 | 잔존높이 11.8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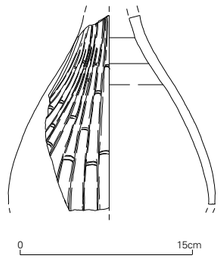
옥호춘 병의 저부로, 구형의 동체부는 둥글게 올라간다. 굽은 'U'자에 가까운 형태로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35 | 청자양각죽절문병 青磁陽刻竹節文瓶

병3 | Ⅵ-3 | 최대길이 18.6cm | T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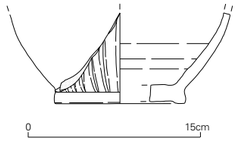
병의 동체부로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고, 음각선으로 대나무 마디를 표현하였다.



436 | 청자양각죽절문병 青磁陽刻竹節文瓶

병3 | Ⅲ-3 | 잔존높이 8.0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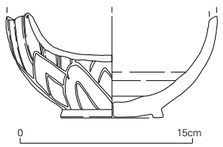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은 세로로 골을 내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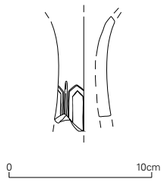


437 | 청자양각죽절문병 青磁陽刻竹節文瓶

병3 | Ⅳ-3 | 잔존높이 9.2cm 저경 9.1cm | BABMㄷE1 출토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고 그 하단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38 | 청자상감연판문병 青磁象嵌蓮瓣文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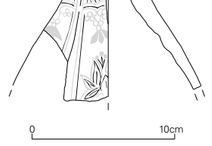
병3 | Ⅵ-3 | 잔존높이 8.0cm | MTC 출토

병의 목 부분으로, 목이 길고 살짝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상감하고, 그 사이에는 다시 음각선으로 골을 내었다.

439 | 청자상감연화문병 青磁象嵌蓮花文瓶

병3 | Ⅵ-3 | 최대길이 10.6cm | LM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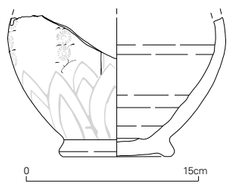
병의 동체부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목 부분에 이른다. 외면에는 음각선으로 골을 내어 문양대를 구획하고 각 면에 연화문 등을 상감하였다.



440 | 청자상감국화문병 青磁象嵌菊花文瓶

병3 | Ⅳ-3 | 잔존높이 12.1cm 저경 9.6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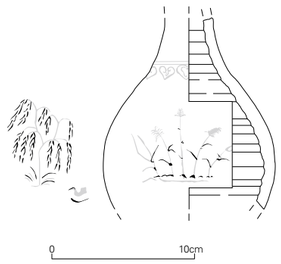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음각선으로 골을 내어 문양대를 구획하고 각 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41 |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 青磁象嵌柳蘆水禽文甁

병3 | Ⅵ-3 | 잔존높이 13.4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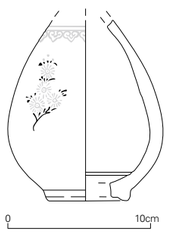
동체부의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목 부분에 이른다. 외면에는 버드나무와 갈대를 번갈아 상감하였고,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여의두문을 둘렀다.



442 | 청자상감국화문병 青磁象嵌菊花文甁

병3 | Ⅳ-3 | 잔존높이 12.8cm | WG+SM+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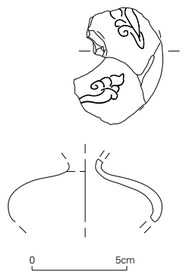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돌아가며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에 가까운 형태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43 | 청자음각운문유병 青磁陰刻雲文油甁

기타 | 잔존높이 3.6cm | H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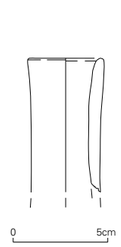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타원형을 이루며 올라간다. 수평에 가까운 견부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444 | 청자각병 青磁角甁

기타 | 잔존높이 6.9cm 구경 4.2cm | SM 출토

형식 미상인 각병의 목 부분으로, 목이 길며 구연부까지 직립한다. 외면은 면 깎기를 하여 각을 주었다.



445 | 청자상감당초문각병 青磁象嵌唐草文角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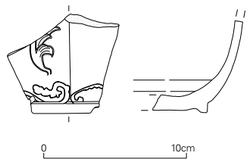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6.6cm | BBS 출토

형식 미상인 각병의 목 부분으로, 외면은 물레성형을 한 뒤에 면 깎기를 하여 각을 주었다. 각 면에는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446 | 청자음각화문각병 青磁陰刻花文角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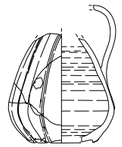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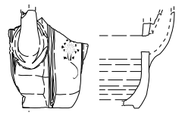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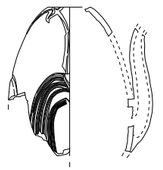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7.0cm | -J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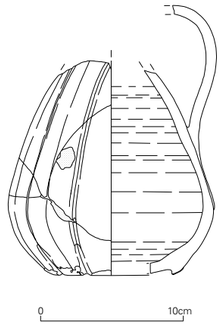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는 물레성형을 한 뒤에 외면을 다듬어 각을 주었다. 각 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에 가까운 형태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주자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모래가 확인된다.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14〉 '주자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동체부 하단에서 안으로 둥글게 휘어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은 세로로 눌러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주자2'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내고, 국화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굽은 안굽이다. '주자3'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은 죽순형으로 나타냈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표14〉 주자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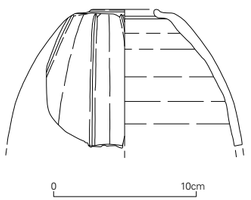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주자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9	19 (26.03)
		Ⅵ-1	미상	무문		10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동체부 하단에서 안으로 둥글게 좁아지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안으로 꺾여서 내만하고 입술이 말려있다. 외면은 세로로 눌러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고, 'S'자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다.						
주자 2		Ⅰ-2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	6 (8.22)
		Ⅳ-2	모래	상감	국화문	2	
		Ⅵ-2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동체부에는 주구가 달려있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내고, 국화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모래가 있다.						
주자 3		Ⅳ-3	모래	음각	죽순형	2	10 (13.70)
		Ⅵ-3	미상	음각	죽순형	8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안으로 꺾여서 내만한다. 동체부에는 주구와 손잡이를 접합한 흔적이 있다. 외면은 죽순형을 나타내고 음각을 더해 세부적인 표현을 하였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기타						38	38 (52.05)
출토 현황	1지점	20	2지점	5	3지점	48	73	100%



447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주자1 | Ⅰ-1 | 잔존높이 19.0cm | T3右+4Ⅰ+T4ㄷ+A+CㄷⅠ+Hㄷ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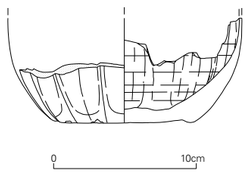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동체부 하단에서 안으로 둥글게 좁아지는 형태이다. 외면은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고, 'S'자형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48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주자1 | Ⅵ-1 | 잔존높이 10.2cm | Dㄷ 출토

기측선이 동체부 하단에서 안으로 둥글게 휘어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안으로 꺾여서 내만하고 입술이 말려있다. 외면에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449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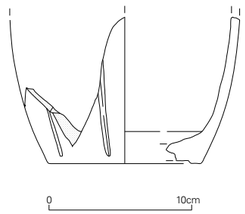
주자1 | Ⅰ-1 | 잔존높이 7.5cm 저경 9.6cm | Dㄷ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면은 세로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50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주자2 | Ⅰ-2 | 잔존높이 10.2cm 저경 10.4cm | T5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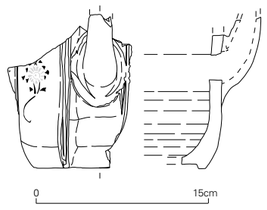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51 | 청자상감국화문과형주자 青磁象嵌菊花文瓜形注子

주자2 | Ⅳ-2 | 잔존높이 13.4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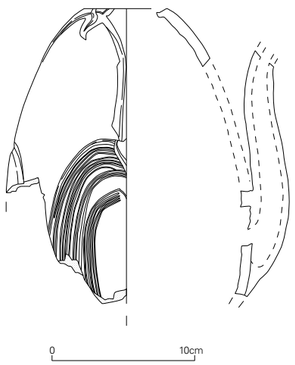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 동체부와 주구를 접합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내고 각 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52 | 청자죽순형주자 青磁竹筍形注子

주자3 | Ⅵ-3 | 잔존높이 21.0cm 구경 5.8cm | T5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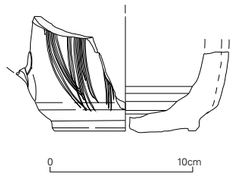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안으로 꺾여서 내만한다. 동체부 하단에는 주구가 달려있다. 외면은 죽순형을 나타내고 음각을 더해 세부적인 표현을 하였다.



453 | 청자죽순형주자 青磁竹筍形注子

주자3 | Ⅳ-3 | 잔존높이 8.2cm 저경 10.2cm | T1C+BBS+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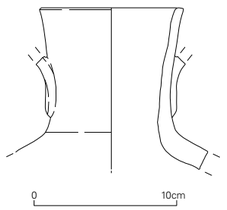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에는 손잡이를 접합한 흔적이 있다. 외면은 음각으로 죽순의 세부적인 표현을 하였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54 | 청자주자 青磁注子

기타 | 잔존높이 11.3cm 구경 9.8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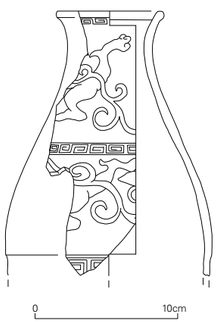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의 기측선이 목 부분에서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고 통형의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목 부분에는 손잡이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455 | 청자음각이룡문주자 青磁陰刻螭龍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18.4cm | T7+-中W4A+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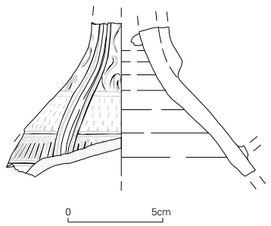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목은 짧고 잘록하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여 말려있다. 동체부 상단과 중간부분에는 뇌문대를 중심으로 각각 이룡문을 음각하였다.



456 | 청자상감운학문주자 青磁象嵌雲鶴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7.8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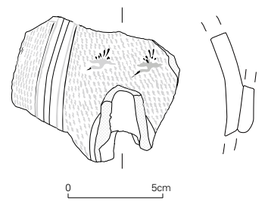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에서 사선으로 좁아지며 목 부분에 이른다. 목 부분에는 손잡이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고, 각 면에 당초문과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457 | 청자상감운학문주자 青磁象嵌雲鶴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8.6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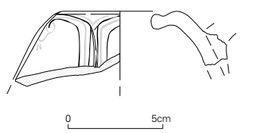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에 주구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고, 그 안에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458 | 청자상감연판문주자 青磁象嵌蓮瓣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4.1cm 구경 3.3cm | 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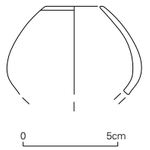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는 견부에는 손잡이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구연부는 꺾여 내만하며, 동체부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459 | 청자표형주자 青磁瓢形注子

기타 | 잔존높이 4.7cm 구경 3.0cm | 中W4B+4I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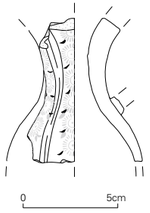
표형주자의 윗박이며 형식은 미상이다. 기측선이 둥근 곡선으로 좁아지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였다.



460 | 청자상감국화문표형주자 青磁象嵌菊花文瓢形注子

기타 | 잔존높이 7.9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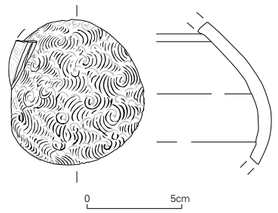
표형주자의 윗박과 아랫박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손잡이를 접합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고, 그 사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461 | 청자상감파도문주자 青磁象嵌波濤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8.3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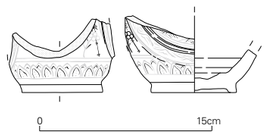
기측선이 구형을 이루며 손잡이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전면에 파도문을 상감하였다.



462 | 청자상감문주자 靑磁象嵌文注子

기타 | 잔존높이 6.5cm 저경 7.3cm | T2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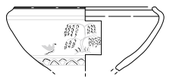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주자의 양면은 물레성형을 한 뒤에 두드려 편평하게 만들었다. 편평한 면에는 원형의 돌대를 두르고 그 안팎에 다양한 문양을 상감하였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8 | 호壺

호의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확인되며, 유물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호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표15〉 '호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드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으며 외면에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기도 했다. 굽은 'U'자에 가까운 형태이다. '호2'는 기측선이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며 원통형을 이루는 형태로 구연부는 꺾여 외반한다. 굽은 평굽이다. '호3'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 견부에서 수평으로 꺾여 구연부에 이른다. 견부에는 상형 장식이 있고 동체부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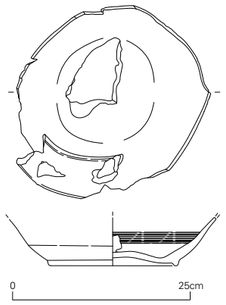
〈표15〉 호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호 1		Ⅲ-1	규석	무문		3	10 (13.16)
		Ⅵ-1	미상	무문, 상감	포류수금문	7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든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외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상감한 예가 있다. 굽은 'U'자에 가까운 형태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호 2		Ⅵ-2	미상	무문		2	2 (2.63)
	기측선이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며 원통형을 이룬다. 구연부는 꺾여 외반한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호 3		Ⅵ-3	미상	상감	국화문	3	3 (3.95)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수평으로 꺾여 구연부에 이른다. 견부에는 상형 장식이 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기타						61	61 (80.26)
출토 현황	1지점	11	2지점	6	3지점	59	76 100%

463 | 청자호 靑磁壺

호1 | Ⅲ-1 | 잔존높이 9.9cm 저경 18.2cm | G1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내저면에 갑발의 일부가 붙어있다. 굽은 'U'자에 가까운 형태이며, 접지면 네 곳과 굽 안바닥 네 곳에 규석을 받치고 그 위에 다시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64 | 청자호 靑磁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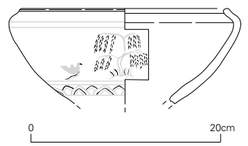
호1 | Ⅵ-1 | 잔존높이 8.7cm | SM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짧고 둥근 견부는 구연부와 수평에 가깝게 올라가 있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465 | 청자상감포류수금문호 靑磁象嵌蒲柳水禽文壺

호1 | Ⅵ-1 | 잔존높이 9.7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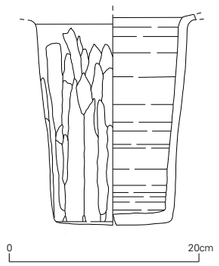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짧고 둥근 견부는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고, 동체부 외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상감하였다.



466 | 청자호 青磁壺

호2 | Ⅵ-2 | 잔존높이 22.3cm 저경 12.5cm | 中W4C+A4+B3+G2+J1ㅈ+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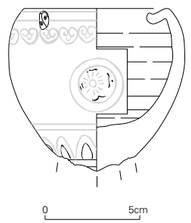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 원통형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467 | 청자상감국화문호 青磁象嵌菊花文壺

호3 | Ⅵ-3 | 잔존높이 8.8cm | T2AB+T2AB1+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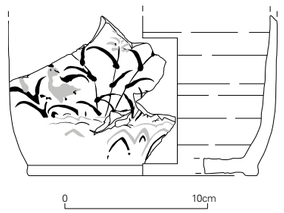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수평으로 꺾여 구연부에 이른다. 견부에는 상형 장식이 달려 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468 | 청자상감위로수금문호 青磁象嵌葦蘆水禽文壺

기타 | 잔존높이 14.0cm | 1T1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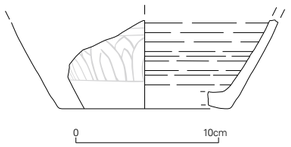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갈대와 물새를 상감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69 | 청자상감연판문호 青磁象嵌蓮瓣文壺

기타 | 잔존높이 9.2cm | SM2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며,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70 | 청자상감파도문호 青磁象嵌波濤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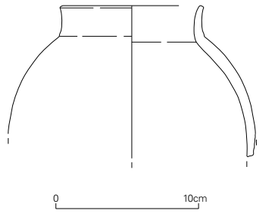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1.5cm 저경 12.1cm | SM+SM2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파도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71 | 청자호 青磁壺

기타 | 잔존높이 13.3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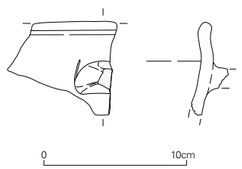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는 직립에 가까운 사선으로 벌어졌다.



472 | 청자호 青磁壺

기타 | 잔존높이 6.3cm | BAW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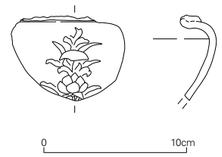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는 말려있고, 그 아래에는 손잡이로 추정되는 장식이 달려있다.



473 | 청자음각연화문호 青磁陰刻蓮花文壺

기타 | 잔존높이 6.2cm | B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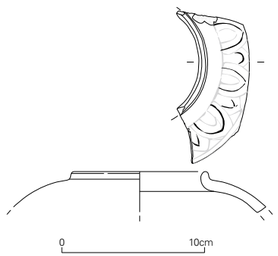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견부에 이르러 급격한 곡선으로 오므라든다. 구연부는 말려있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474 | 청자상감연판문호 青磁象嵌蓮瓣文壺

기타 | 최대길이 14.9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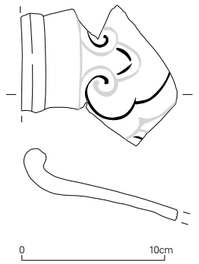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견부는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는 짧게 직립하며, 외면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475 | 청자상감여의두문호 青磁象嵌如意頭文壺

기타 | 최대길이 12.7cm | SM+74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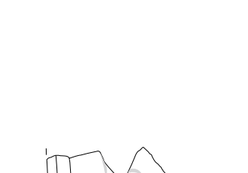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견부는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크게 말려있고, 외면에는 여의두문을 상감하였다.



476 | 청자상감운학문호 青磁象嵌雲鶴文壺

기타 | 잔존높이 17.5cm | SM1+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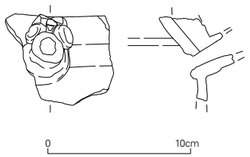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견부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짧고 잘록한 목에 이른다. 구연부는 광구형이며, 외면에는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불규칙한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477 | 초벌주구호 初燔注口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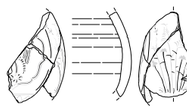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7.7cm | T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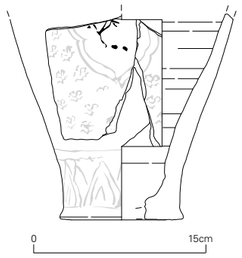
호의 초벌구이편으로, 동물 형상을 표현한 주구가 달려있다. 내면에는 주구를 접합한 흔적이 확인된다.



편호의 번조받침은 모래가 확인된다. 유물의 수량이 적고 잔존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다. 편호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표16〉 '편호1'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오므라들다가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그린 뒤 초화문과 운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다. '편호2'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외면 능화창에 포류문과 운문 등을 상감하였다.

〈표16〉 편호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편호 1		Ⅳ-1	모래	상감	초화문	13	23 (92.00)
		Ⅵ-1	미상	상감	초화문	10	
	동체부의 양면을 두드려 편평하게 만든 편호이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오므라들다가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그린 뒤 그 안에 초화문을, 바탕에 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편호 2		Ⅵ-2	미상	상감	포류문	1	23 (4.00)
	동체부의 양면을 두드려 편평하게 만든 편호이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의 능화창에는 포류문을, 바탕에는 운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1	23 (4.00)
출토 현황	1지점	0	2지점	1	3지점	24	25	100%



478 | 청자상감초화문편호 青磁象嵌草花文扁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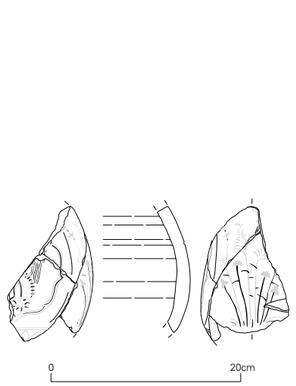
편호1 | Ⅳ-1 | 잔존높이 17.6cm | SM+SM2+BABMㅌ1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오므라들다가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그린 뒤 그 안에 초화문을, 바탕에 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낮게 깎은 안굽으로,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79 | 청자상감포류문편호 青磁象嵌蒲柳文扁壺

편호2 | Ⅵ-2 | 잔존높이 15.2cm | SM+BABM+74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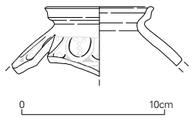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의 능화창에는 포류문을, 바탕에는 운문을 상감하였다.



480 | 청자상감연판문편호 青磁象嵌蓮瓣文扁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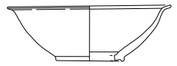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8.3cm 구경 9.2cm | SLM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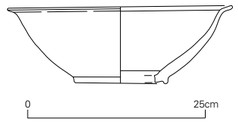
편호의 구연부로 추정되며, 형식은 미상이다. 견부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짧고 잘록한 목에 이른다. 구연부는 광구형이고, 견부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대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 유물의 수량이 적고 잔존상태도 좋지 않다. 대발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표17〉 '대발1'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대발2'는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면에 연화문을 음각하였고 굽은 외반한 다리굽이다.

〈표17〉 대발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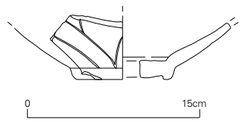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대발 1		Ⅰ-1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4	26 (59.09)
		Ⅳ-1	모래	무문		16	
		Ⅵ-1	미상	음각	연판문	6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낸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가 있다.						
대발 2		Ⅱ-2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연화문	1	2 (4.55)
		Ⅵ-2	미상	음각	연화문	1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면에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외반한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기타						16	16 (36.36)
출토 현황	1지점	10	2지점	3	3지점	31	44	100%



481 | 청자대발 靑磁大鉢

대발1 | Ⅰ-1 | 높이 11.5cm 구경 31.8cm 저경 13.2cm | T2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낸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82 | 초벌음각연판문대발 初燔陰刻蓮瓣文大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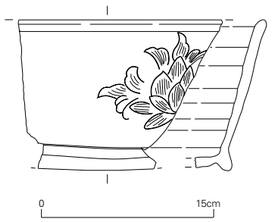
대발1 | Ⅵ-1 | 잔존높이 5.6cm | 1T1中 출토

대발의 초벌구이편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낸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483 | 청자음각연화문대발 靑磁陰刻蓮花文大鉢

대발2 | Ⅱ-2 | 높이 13.0cm | 左T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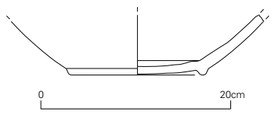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외반한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84 | 청자대발 青磁大鉢

기타 | 잔존높이 6.9cm 저경 14.4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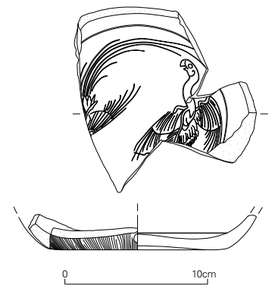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85 | 청자음각앵무문대발 青磁陰刻鸚鵡文大鉢

기타 | 잔존높이 2.5cm 저경 12.6cm | 右T3+T7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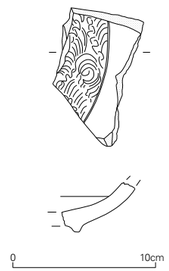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앵무문을,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바닥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86 | 청자음각파도문대발 青磁陰刻波濤文大鉢

기타 | 잔존높이 4.0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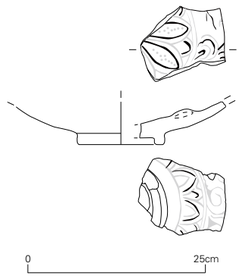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파도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87 | 청자상감연화문대발 青磁象嵌蓮花文大鉢

기타 | 잔존높이 7.2cm | T5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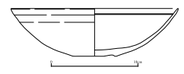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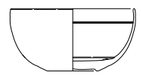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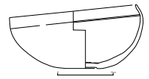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면에는 연화문 등을, 외면에는 연판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 11 | 발우鉢盂

발우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 발우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표18〉 '발우1'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원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구연부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리기도 했으며 굽은 안굽이다. '발우2'는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 한 줄 음각선과 내면에 화당초문을 음각,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발우3'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내저원각이 있고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기도 했다. 굽은 안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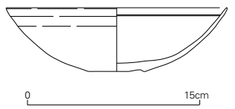
〈표18〉 발우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발우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5	34 (55.74)
		Ⅲ-1	규석	무문		17	
		Ⅵ-1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거나,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는 예도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다.						
발우 2		Ⅰ-2	백색내화토빚음	음각+양각	화당초문	2	11 (18.03)
		Ⅲ-2	규석	음각+양각	화당초문	8	
		Ⅵ-2	미상	음각+양각	화당초문	1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으며,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다.						
발우 3		Ⅰ-3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1	13 (21.31)
		Ⅲ-3	규석	무문		1	
		Ⅳ-3	모래	음각	선문	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 또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무문 외에 외면에 선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 모래가 있다.						
기타						3	3 (4.92)
출토 현황	1지점	43	2지점	14	3지점	4	61	100%

488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1 | Ⅰ-1 | 높이 5.7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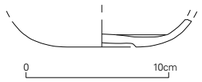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안쪽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89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1 | Ⅰ-1 | 잔존높이 2.0cm 저경 4.6cm | 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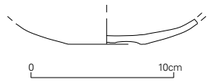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90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1 | Ⅲ-1 | 잔존높이 1.8cm 저경 4.4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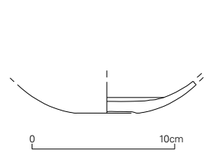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91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1 | Ⅲ-1 | 잔존높이 2.2cm 저경 4.2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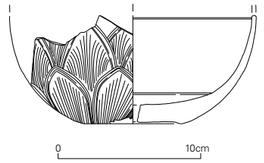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92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2 | Ⅰ-2 | 잔존높이 7.8cm | 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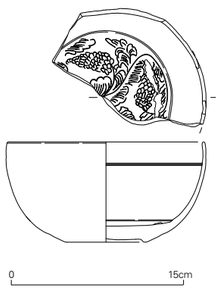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고,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93 | 청자음각화당초문발우 靑磁陰刻花唐草文鉢盂

발우2 | Ⅲ-2 | 높이 8.6cm 저경 6.3cm | WHㅌㅅ+H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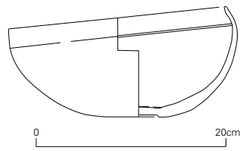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94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3 | Ⅰ-3 | 높이 11.4cm 구경 23.3cm 저경 4.2cm | T3中+W7Bㅅ+G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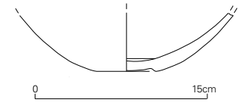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꺾여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95 | 청자발우 靑磁鉢盂

발우3 | Ⅲ-3 | 잔존높이 4.9cm 저경 4.5cm | WH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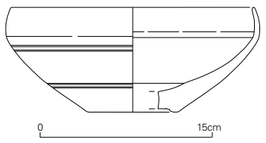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496 | 청자음각선문발우 靑磁陰刻線文鉢盂

발우3 | Ⅳ-3 | 높이 9.1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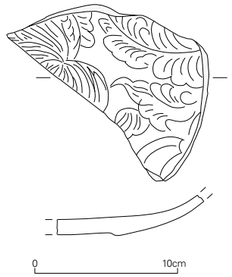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497 | 청자음각화당초문발우 靑磁陰刻花唐草文鉢盂

기타 | 잔존높이 2.9cm | SM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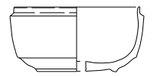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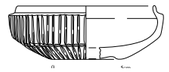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내저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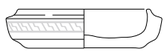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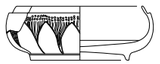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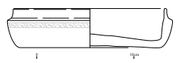


| 12 | 합신盒身

합신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 기측선을 중심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19〉 '합신1~4'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굽은 다리굽과 안굽, 평굽이 확인된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상감이 있고, 문양은 연화문과 뇌문 등이 있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인 '합신5~6'은 국화문과 뇌문 등을 상감으로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굽과 평굽이 있다.

〈표19〉 합신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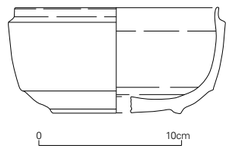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합신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2	16 (27.12)
		Ⅱ-1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8	
		Ⅲ-1	규석	무문, 상감	연판문	2	
		Ⅳ-1	모래	상감	뇌문	2	
		Ⅵ-1	미상	무문, 상감	뇌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합신 2		Ⅰ-2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선문	1	16 (27.12)
		Ⅱ-2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음각	연화문	2	
		Ⅲ-2	규석	상감	뇌문	10	
		Ⅵ-2	미상	무문, 음각	선문	3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거나 뇌문을 상감한 예도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합신 3		Ⅱ-3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1	9 (15.25)
		Ⅲ-3	규석	상감	뇌문	1	
		Ⅳ-3	모래	상감	뇌문	1	
		Ⅵ-3	미상	무문, 상감	뇌문	6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합신 4		Ⅲ-4	규석	양각	연화문	1	1 (1.69)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합신 5		Ⅲ-5	규석	무문, 상감	뇌문	2	3 (5.09)
		Ⅵ-5	미상	상감	뇌문	1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외면에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합신 6		Ⅳ-6	모래	상감	국화문	1	3 (5.09)
		Ⅵ-6	미상	무문, 상감	범어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외면에는 국화문과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기타						11	11 (18.64)
출토 현황	1지점	16	2지점	6	3지점	37	59	100%

498 | 청자합신 青磁盒身

합신1 | Ⅰ-1 | 높이 7.5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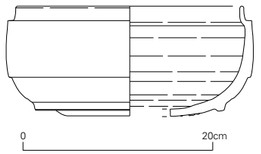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499 | 청자합신 青磁盒身

합신1 | Ⅱ-1 | 높이 11.9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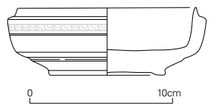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00 | 청자상감뇌문합신 青磁象嵌雷文盒身

합신1 | Ⅳ-1 | 높이 4.9cm 구경 12.6cm 저경 8.3cm | T2A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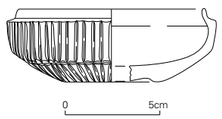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01 | 청자음각선문합신 青磁陰刻線文盒身

합신2 | Ⅰ-2 | 높이 3.9cm 구경 10.5cm | A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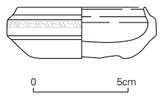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에는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주름처럼 나타냈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02 | 청자상감뇌문합신 青磁象嵌雷文盒身

합신2 | Ⅲ-2 | 높이 2.9cm 구경 7.4cm 저경 4.6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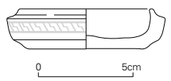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에는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쳤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03 | 청자상감뇌문합신 青磁象嵌雷文盒身

합신3 | Ⅲ-3 | 높이 2.2cm 저경 6.0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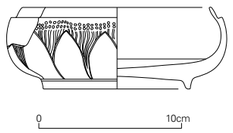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에는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쳤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며, 굽 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04 | 청자음각연화문합신 青磁陰刻蓮花文盒身

합신4 | Ⅲ-4 | 높이 5.7cm 저경 10.3cm | WHㅌㅅ+Dㅌ+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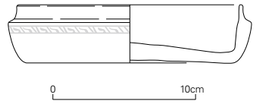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에는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쳤다.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05 | 청자상감뇌문합신 青磁象嵌雷文盒身

합신5 | Ⅵ-5 | 높이 4.2cm 구경 14.9cm 저경 14.6cm | 73BB작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태토빛음을 받쳤다. 외면에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06 | 청자상감국화문합신 青磁象嵌菊花文盒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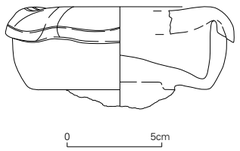
합신6 | Ⅳ-6 | 높이 9.1cm 저경 6.2cm | 5H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외면에는 국화문과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07 | 청자음각선문합 青磁陰刻線文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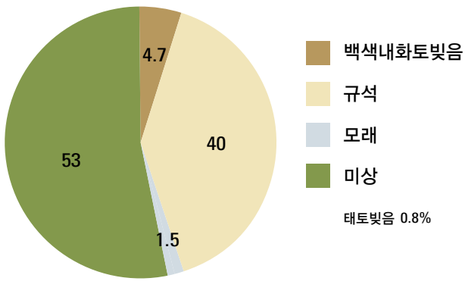
기타 | 높이 5.5cm 구경 10.0cm 저경 9.6cm | MC 출토

뚜껑은 편평한 윗면에 두 줄의 음각선이 있다. 합신의 저부는 주저앉았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올라간다.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태토빛음을 받쳤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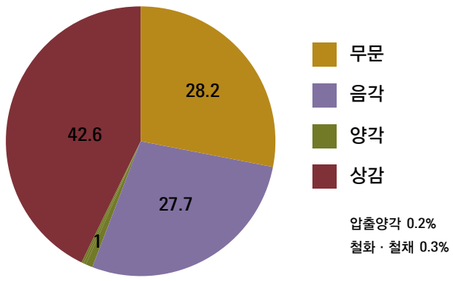


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확인된다.〈그래프9〉 개의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18가지로 구분하였다.〈표20〉 ‘개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려있다. ‘개2’는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아래로 꺾여 두툼한 돌대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에도 단이 져 있다. ‘개3’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형태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 또는 납작한 원통형의 꼭지가 달린 예가 많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철화 당초문, 음각 화엽문, 상감 국화문 등 다양한 시문기법과 문양소재가 확인된다.〈그래프10〉 ‘개4’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상형 꼭지가 있고, 내면에 촉이 달려있다. ‘개5’는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의 흔적이 있고, 내면에 촉이 있다. 상감으로 연판문이나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개6’은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가 있고, 내면에 원통형의 다소 높은 촉이 있다. ‘개7’은 병의 개로, 내면에 끝을 깎아낸 긴 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8’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살짝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다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다. ‘개9’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을 이루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상형象形의 꼭지가 달려있고, 안팎에 도식화된 운학문, 연당초문 등을 가득 상감하였다. ‘개10’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거나 수평을 이루며, 하단에서 짧게 꺾여 마무리되었다. 윗면 중앙에 연봉이나 토끼 같은 상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개11’은 매병의 개로,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윗면에 구멍이 있거나 가장자리에 굽 형태의 돌대가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개12’는 사이호의 개로,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줄기를 형상화한 ‘十’자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개13’은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중간에서 단을 이루고 다시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꼭지의 흔적이 있고, 상감으로 연화문이나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개14’는 기측선이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르고, 끝부분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이중의 단을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연화문과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개15’는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 또는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르고, ‘개16’은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된 형태이다. ‘개17’은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끼워넣은 흔적과 얕은 단이 있다. ‘개18’은 기측선이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꼭지의 흔적이 있고,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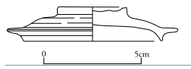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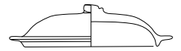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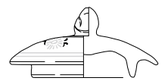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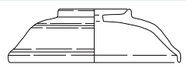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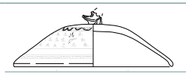
〈그래프9〉 개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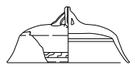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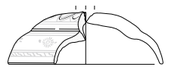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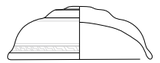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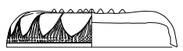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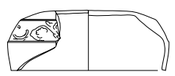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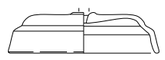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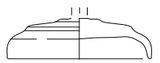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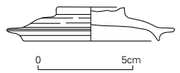
〈그래프10〉 개 시문기법 비율



〈표20〉 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개1		Ⅰ-1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2	5 (0.84)
		Ⅵ-1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개2		Ⅲ-2	규석	음각	화엽문	1	1 (0.17)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아래로 꺾여 두툼한 돌대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에도 단이 져 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3		Ⅰ-3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철화, 상감	용문, 국화문 등	11	250 (42.09)
		Ⅲ-3	규석	무문, 음각, 상감	화엽문, 국화문 등	154	
		Ⅳ-3	모래	상감	국화문 등	4	
		Ⅴ-3	태토빛음	상감	국화문	6	
		Ⅵ-3	미상	무문, 음각, 양각, 상감	화엽문, 국화문 등	75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 또는 납작한 원통형의 꼭지가 달린 예가 많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있다.							
개4		Ⅰ-4	백색내화토빛음	상감	국화문	2	25 (4.21)
		Ⅲ-4	규석	무문, 음각, 상감	하엽문, 국화문	5	
		Ⅳ-4	모래	상감	국화문	3	
		Ⅵ-4	미상	무문, 상감	국화문	15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넝쿨 내지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상감으로 국화문 등을 시문하기도 한다. 내면에 촉이 달렸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개5		Ⅰ-5	백색내화토빛음	상감	연판문	1	4 (0.67)
		Ⅲ-5	규석	음각, 양각, 상감	연화문, 국화문 등	3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의 꼭지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고, 상감으로 연판문 또는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으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개6		Ⅰ-6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	12 (2.02)
		Ⅵ-6	미상	상감	여의두문	11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작은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상감으로 여의두문을 장식하기도 한다. 내면에 원통형의 다소 높은 촉이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개7		Ⅵ-7	미상	무문, 음각	연봉문	6	6 (1.01)
몸체가 과형瓜形을 이루고, 평평한 윗면에는 넝쿨 모양의 꼭지가 달렸다. 내면에 끝을 깎아낸 긴 촉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8		Ⅵ-8	미상	음각	연판문	1	1 (0.17)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살짝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다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9		Ⅵ-9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운학문, 연당초문 등	132	132 (22.22)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봉황과 같은 상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안팎에 도식화된 운학문, 연당초문 등을 가득 상감하였다. 번조 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개 10		Ⅲ-10	규석	무문, 음각	연화문, 국화문 등	10	12 (2.02)
		Ⅵ-10	미상	음각	연화문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거나 수평을 이루며, 하단에서 짧게 꺾여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연봉이나 토끼 같은 상형의 꼭지를 부착하고, 연화문 등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 11		Ⅲ-11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연화문, 황촉규문 등	30	36 (6.06)
		Ⅵ-11	미상	음각	연화문, 용문 등	6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윗면에 구멍이 있거나 가장자리에 굽 형태의 돌대가 있는 경우도 확인되며, 음각으로 연화문 등을 나타내거나 상감으로 선문과 뇌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 12		Ⅲ-12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운문, 국화문	11	13 (2.19)
		Ⅵ-12	미상	음각, 상감	운문, 국화문	2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줄기를 형상화한 '十'자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외면에는 음각으로 운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 13		Ⅲ-13	규석	상감	연화문, 연판문 등	7	7 (1.18)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중간에서 단을 이루고 다시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고, 내면에 촉이 없다. 상감으로 연화문이나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 14		Ⅲ-14	규석	상감	연화문	1	2 (0.34)
		Ⅵ-14	미상	상감	연판문	1	
	기측선이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르고, 끝부분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다. 외면 중앙에 이중의 단을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연화문과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 15		Ⅰ-15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연판문	3	39 (6.56)
		Ⅵ-15	미상	무문, 음각, 상감	앵무문, 국화문 등	36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 또는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돌기 형태의 연밥을 배치하고 측면에 연꽃잎을 음각하거나, 국화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개 16		Ⅰ-16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선문, 앵무문 등	6	21 (3.53)
		Ⅲ-16	규석	무문, 음각, 압출양각	선문, 보상화문	4	
		Ⅵ-16	미상	음각, 상감	연화문, 운학문 등	11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 한 줄의 돌대가 있고, 등간격으로 선문을 음각하여 화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음각으로 연화문을 시문한 예가 많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개 17		Ⅰ-17	백색내화토빛음	철화	보상당초문	1	2 (0.34)
		Ⅵ-17	미상	상감	국화문	1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끼워넣은 흔적과 얕은 단이 있다. 외면에 보상당초문을 가늘 철화 장식하거나 상감으로 국화문을 나타낸 예가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개 18		Ⅲ-18	규석	상감	국화문, 연판문	4	7 (1.18)
		Ⅵ-18	미상	상감	국화문, 연판문	3	
	기측선이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의 꼭지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고,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기타						19	19 (3.20)
출토 현황	1지점	154	2지점	147	3지점	293	594	100%



508 | 청자개 靑磁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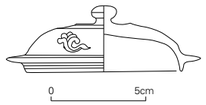
개1 | Ⅰ-1 | 높이 1.8cm 저경 7.0cm | T2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손잡이의 외면과 아랫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09 | 청자음각운문개 靑磁陰刻雲文蓋

개3 | Ⅰ-3 | 높이 3.3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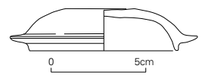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는 납작한 타원형의 꼭지가 달렸다. 꼭지의 외면에는 용문을, 주변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아랫면에 촉이 있고,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0 | 청자철화당초문개 靑磁鐵畫唐草文蓋

개3 | Ⅰ-3 | 높이 2.4cm 저경 7.9cm | T7+右T9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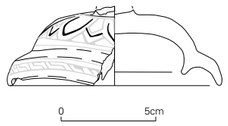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은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이 낮게 깎여 편평하고 꼭지는 없다. 외면에 당초문을 철화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고,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1 | 청자상감연판문개 青磁象嵌蓮瓣文蓋

개5 | Ⅰ-5 | 잔존높이 4.1cm | M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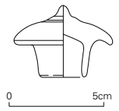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의 꼭지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고,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으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2 | 청자개 青磁蓋

개6 | Ⅰ-6 | 높이 3.7cm 저경 2.3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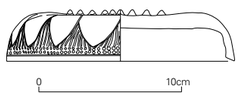
기측선이 하단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온다. 외면 중앙에 작은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꼭지 주변은 살짝 도드라져 단을 이룬다. 내면에 원통형의 다소 높은 촉이 있으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3 | 청자음각연화문개 青磁陰刻蓮花文蓋

개15 | Ⅰ-15 | 높이 4.0cm | W7B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으로 꺾여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돌기 형태의 연밥을 배치하고 측면에 연꽃잎을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4 | 청자철화보상당초문개 青磁鐵畫寶相唐草文蓋

개17 | Ⅰ-17 | 높이 4.6cm 저경 12.8~14.6cm | Cㅌ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하단에서 단을 이루며 수직으로 꺾여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끼워넣은 흔적과 얕은 단이 있다. 외면에 보상당초문을 가득 철화 장식하였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5 | 청자개 青磁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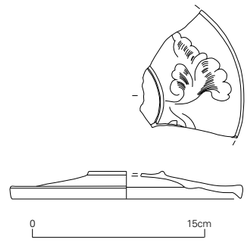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9cm | W7Bㅅ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다 하단에서 수평으로 넓은 전을 이룬다. 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내면에 시유하지 않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16 | 청자음각화엽문개 青磁陰刻花葉文蓋

개2 | Ⅲ-2 | 높이 2.3cm | SM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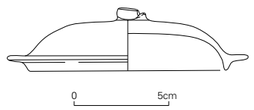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아래로 꺾여 두툼한 돌대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음각으로 화엽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도 단이 져 있으며 내면 중간 부분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17 | 청자개 靑磁蓋

개3 | Ⅲ-3 | 높이 2.8cm 저경 10.3cm | C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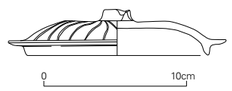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는 납작한 원통형 꼭지에 짧게 말린 줄기가 달려있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으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18 | 청자음각화엽문개 靑磁陰刻花葉文蓋

개3 | Ⅲ-3 | 높이 3.1cm 저경 11.9cm | G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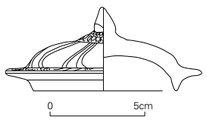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는 납작한 원통형 꼭지에 짧게 말린 줄기가 달려있다. 외면에 화엽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19 | 청자음각화엽문개 靑磁陰刻花葉文蓋

개3 | Ⅲ-3 | 높이 4.2cm 저경 7.3cm | 지표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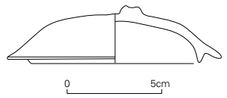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 꼭지가 있고 그 주위에 연주형 장식을 부착하였다. 외면에 음각과 양각으로 화엽을 나타내고 전에는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0 | 청자개 靑磁蓋

개4 | Ⅲ-4 | 높이 2.4cm 저경 9.0cm | T4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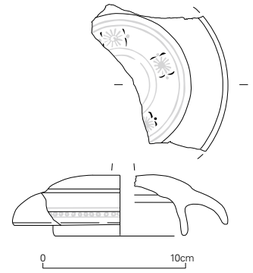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다가 살짝 벌어져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넝쿨 모양의 꼭지가 있다. 내면에 촉이 있으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1 | 청자상감국화문개 靑磁象嵌菊花文蓋

개5 | Ⅲ-5 | 잔존높이 4.3cm 저경 8.5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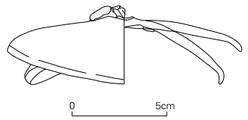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단을 이루며 꺾여 완만한 곡선으로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끼워 넣은 흔적이 있고,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원통형의 촉이 있으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2 | 청자개 靑磁蓋

개10 | Ⅲ-10 | 높이 4.1cm 저경 10.2~12.3cm | Hㅌ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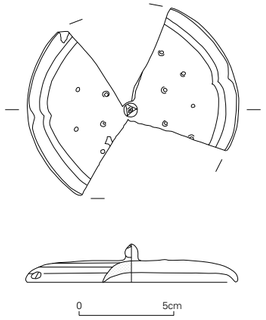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며, 하단에서 짧게 꺾여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넝쿨 모양의 꼭지가 달려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3 | 청자음각연화문화형개 青磁陰刻蓮花文花形蓋

개10 | Ⅲ-10 | 높이 2.7cm 저경 10.9cm | T6+A 출토

기측선이 수평을 이루며, 하단에서 짧게 꺾여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의 꼭지가 달려있고, 화판을 음각하고 돌기 형태의 연밥을 배치하였으며 가장자리에 등간격으로 홈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4 | 청자음각연화문개 青磁陰刻蓮花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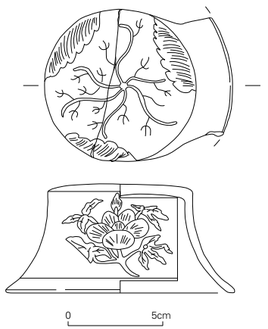
개10 | Ⅲ-10 | 높이 3.1cm | T1A2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다 가장자리에서 단을 이루고, 하단은 아래로 짧게 꺾여 있다. 외면 중앙에 토끼 모양의 꼭지가 달려있고, 연화문을 넓게 음각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5 | 청자음각연화황촉규문개 青磁陰刻蓮黃蜀葵文蓋

개11 | Ⅲ-11 | 높이 5.7cm | A+D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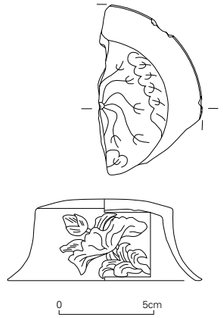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윗면에 하엽문을, 측면에 연화문과 황촉규문을 음각으로 나타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6 | 청자음각연화문개 青磁陰刻蓮花文蓋

개11 | Ⅲ-11 | 높이 4.4cm | F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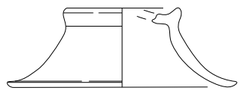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윗면에 하엽문을, 측면에 연화문을 음각으로 나타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7 | 청자음각하엽문개 青磁陰刻荷葉文蓋

개11 | Ⅲ-11 | 잔존높이 4.5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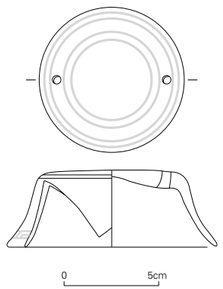
윗면 가장자리에 굽 형태의 돌대가 있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윗면에 하엽문을 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8 | 청자상감선문개 青磁象嵌線文蓋

개11 | Ⅲ-11 | 높이 4.3cm | BAW2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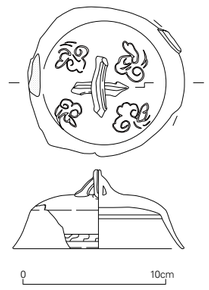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윗면에 2개의 구멍이 있다. 그 주위에 선문을 배치하고, 하단 끝부분에 뇌문대를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29 | 청자음각운문개 青磁陰刻雲文蓋

개12 | Ⅲ-12 | 높이 5.2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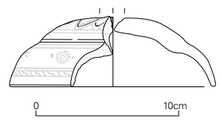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줄기를 형상화한 '十'자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그 주위에 운문을, 하단 끝부분에 뇌문대를 음각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0 | 청자상감연판문개 青磁象嵌蓮瓣文蓋

개13 | Ⅲ-13 | 잔존높이 4.7cm | LM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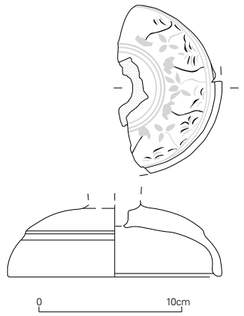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중간에서 단을 이루고 다시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과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1 | 청자상감연화문개 青磁象嵌蓮花文蓋

개13 | Ⅲ-13 | 잔존높이 5.0cm | LMD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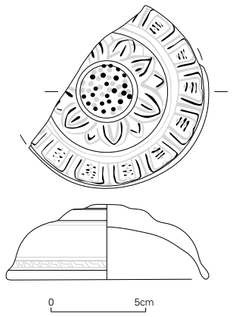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중간에서 단을 이루고 다시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연화문과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2 | 청자상감연화문개 青磁象嵌蓮花文蓋

개14 | Ⅲ-14 | 높이 3.5cm | LMA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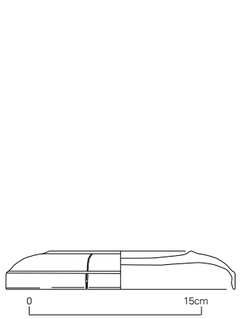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으로 내려와 하단에 이르고, 끝부분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다. 외면 중앙에 이중의 단을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연화문과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3 | 청자음각선문화형개 青磁陰刻線文花形蓋

개1 | Ⅲ-16 | 높이 3.4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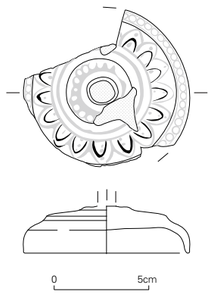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을 이루다가 수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한 줄의 돌대가 있고, 등간격으로 선문을 음각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고, 윗면에 규석 받침이 남아있다.



534 | 청자상감연판문개 青磁象嵌蓮瓣文蓋

개18 | Ⅲ-18 | 잔존높이 2.6cm | 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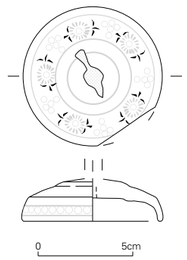
기측선이 이중의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의 꼭지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고, 외면에 연판문과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5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18 | Ⅲ-18 | 잔존높이 2.3cm 저경 7.3cm | T2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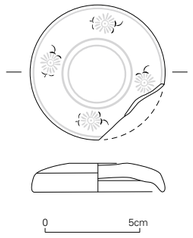
기측선이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끼워넣은 흔적이 있고,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6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18 | Ⅲ-18 | 높이 1.5cm 저경 7.0cm | SM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고,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7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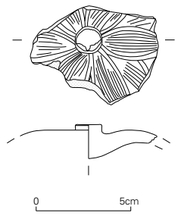
개18 | Ⅲ-18 | 높이 2.0cm | BABME 출토

기측선이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고,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8 | 청자양각연판문개 青磁陽刻蓮瓣文蓋

기타 | 잔존높이 1.8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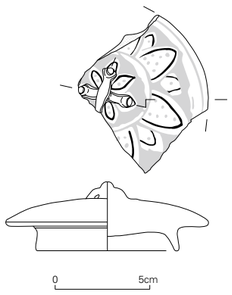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외면 중앙에는 백토白土로 만든 원통형의 꼭지가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고,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39 | 청자상감연판문개 青磁象嵌蓮瓣文蓋

개4 | Ⅳ-4 | 높이 3.3cm | MT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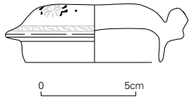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줄기를 형상화한 '十'자형의 꼭지가 달려있고,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40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3 | Ⅴ-3 | 잔존높이 3.0cm 저경 7.0cm | SM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의 꼭지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나 번조시 분리되어 전에 얹어져 있다.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고,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41 | 청자상감여의두문개 靑磁象嵌如意頭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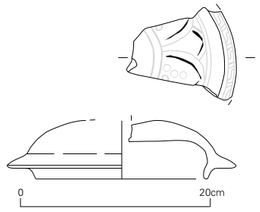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3.9cm | SM1 출토

기측선이 윗면에서 이중의 단을 이루며 사선으로 내려오고, 내면에 촉이 있다. 외면의 각 단에는 위에서부터 연주문, 여의두문, 연판문 순으로 상감하였다. 내면에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42 | 청자상감연판문개 靑磁象嵌蓮瓣文蓋

개3 | Ⅵ-3 | 잔존높이 6.4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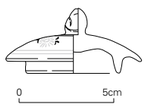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에 연판문과 전에 뇌문대를 상감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으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3 | 청자상감국화문개 靑磁象嵌菊花文蓋

개4 | Ⅵ-4 | 높이 3.9cm 저경 4.7cm | 2T1下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의 꼭지가 있으며,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4 | 청자상감여의두문개 靑磁象嵌如意頭文蓋

개6 | Ⅵ-6 | 잔존높이 2.6cm 저경 2.4cm | T1A1 출토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고, 여의두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는 원통형의 다소 높은 촉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5 | 청자과형개 靑磁瓜形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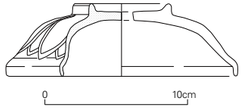
개7 | Ⅵ-7 | 높이 6.2cm | WHㅌ 출토

몸체가 과형을 이루고, 평평한 윗면에는 넝쿨 모양의 꼭지가 달렸다. 내면에 끝을 깎아낸 긴 촉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6 | 청자음각연판문개 靑磁陰刻蓮瓣文蓋

개8 | Ⅵ-8 | 높이 5.2cm | 4B+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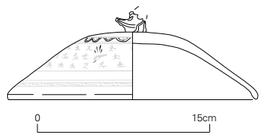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살짝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다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7 | 청자상감운학문개 青磁象嵌雲鶴文蓋

개9 | Ⅵ-9 | 높이 7.5cm 저경 21.4cm | M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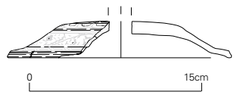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봉황과 같은 상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안팎에 도식화된 운학문을 가득 상감하였다. 내면 가장자리에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 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8 | 청자상감연당초문개 青磁象嵌蓮唐草文蓋

개9 | Ⅵ-9 | 잔존높이 3.3cm | BA1下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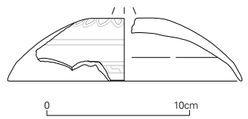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다 중간에서 단을 이루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꼭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고, 연판문과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내면에 운봉문을 가득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49 | 청자상감연판문개 青磁象嵌蓮瓣文蓋

개9 | Ⅵ-9 | 잔존높이 3.9cm | T2A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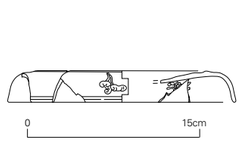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꼭지의 흔적이 있고,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0 | 청자음각운문개 青磁陰刻雲文蓋

개15 | Ⅵ-15 | 높이 3.5cm | Building A 최하작업토내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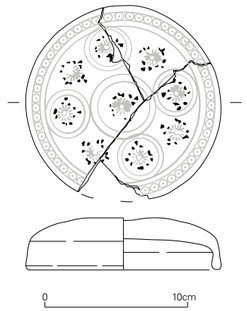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운문을 음각하고, 내면에는 이중원 안에 국화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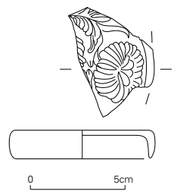


551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15 | Ⅵ-15 | 높이 3.7cm 저경 13.6cm | BABM+BCㅈ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과 가장자리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2 | 청자음각국당초문개 青磁陰刻菊唐草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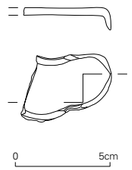
개15 | Ⅵ-15 | 높이 1.5cm | 7A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국당초문을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3 | 청자개 青磁蓋

개15 | Ⅵ-15 | 높이 1.4cm | BAB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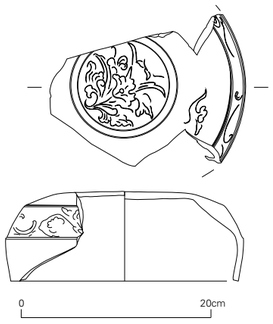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상감한 흔적이 있으나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4 | 청자음각연화문개 青磁陰刻蓮花文蓋

개16 | Ⅵ-16 | 높이 8.7cm | T2+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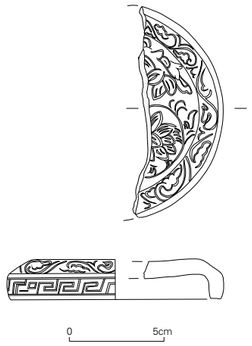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연화문과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5 | 청자음각연당초문개 青磁陰刻蓮唐草文蓋

개16 | Ⅵ-16 | 높이 2.1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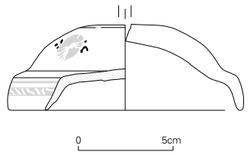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연당초문과 하단 끝부분에 뇌문대를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6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17 | Ⅵ-17 | 잔존높이 4.0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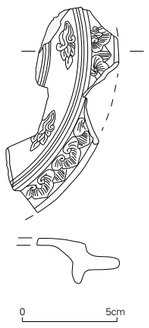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을 그리다가 살짝 외반하여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 국화문과 하단 끝부분에 뇌문대를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7 | 청자음각운문개 青磁陰刻雲文蓋

기타 | 잔존높이 2.6cm | BBS 출토

기측선이 단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의 전을 이룬다. 외면에 운문과 여의두문 등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촉이 있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8 | 청자음각하엽문개 青磁陰刻荷葉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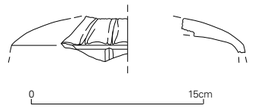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0cm 잔존폭 8.2cm | WHㅌ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내려오는 형태이다. 외면에 하엽문과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59 | 청자화형개 青磁花形蓋

기타 | 잔존높이 3.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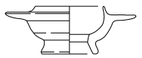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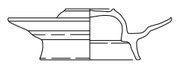
기측선이 윗면에서 사선으로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외면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내고 세로골을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 14 | 탁托

탁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있다.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표21〉 '탁1'은 잔 모양의 잔좌盞座를 갖춘 형태이다. 굽은 'U'자형 또는 외반하는 높은 굽이며, 장식은 이룡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탁2'는 잔좌의 구연부가 낮고 사선을 이루며 줄어드는 형태이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 일반적이나 일부 직립하기도 한다. 문양은 화당초문과 운문 등을 상감으로 시문하였다. '탁3'은 잔좌가 대좌臺座처럼 돌출된 것이 특징으로,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음각과 상감으로 화문, 국화문 등을 시문하였는데, 상감 기법의 비중이 높다. '탁4'는 내면이 편평한 접시모양의 받침이다. 내저면 중앙에는 원형의 돌대가 있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고 전을 이룬다. 굽은 평굽과 'U'자형의 낮은 다리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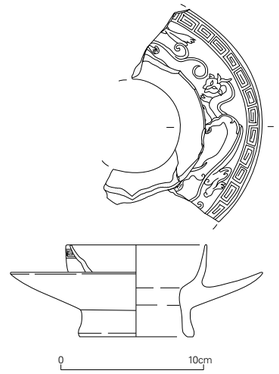
〈표21〉 탁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탁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음각	이룡문	10	29 (17.36)
		Ⅱ-1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3	
		Ⅲ-1	규석	무문, 음각	화문, 화엽문	7	
		Ⅳ-1	모래	무문		5	
		Ⅵ-1	미상	음각	화엽문	4	
	잔 모양의 잔좌를 갖추며, 잔좌의 내저면은 막혀 있거나 굽까지 뚫려있는 형태가 있다. 잔좌의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 또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굽은 'U'자형 또는 외반하는 높은 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탁 2		Ⅳ-2	모래	무문, 음각, 상감	화당초문, 운문 등	26	38 (22.76)
		Ⅵ-2	미상	음각, 상감	화당초문, 운문 등	12	
	잔좌의 구연부가 사선을 이루며 줄어들어 낮게 올라와 있다. 내저면은 막혀 있거나 굽까지 뚫려있는 형태가 있다. 저부는 사선을 이루며 꺾여 올라가 전에 이르며,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 일반적이나 일부 직립하기도 한다.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탁 3		Ⅰ-3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5	93 (55.69)
		Ⅲ-3	규석	무문, 음각, 상감	화당초문, 국화문 등	41	
		Ⅳ-3	모래	상감	국화문	12	
		Ⅴ-3	태토빚음	음각, 상감	화문, 국화문	6	
		Ⅵ-3	미상	무문, 음각, 상감	화문, 국화문	29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 내지 수직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고 끝은 말려있거나 직립한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있다.						
탁 4		Ⅲ-4	규석	무문, 음각	화엽문	6	7 (4.19)
		Ⅵ-4	미상	음각	화엽문	1	
	내면이 편평한 접시모양의 받침이다. 내저면 중앙에는 원형의 돌대가 있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고 전을 이룬다. 굽은 평굽과 'U'자형의 낮은 다리굽이 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출토 현황	1지점	29	2지점	30	3지점	108	167 100%

560 | 청자음각이룡문탁 青磁陰刻螭龍文托

탁1 | Ⅰ-1 | 높이 6.7cm 저경 8.4cm | W7A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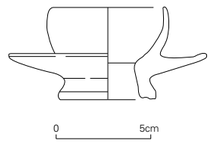
잔 모양 잔좌의 내저면이 굽까지 뚫려있는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전은 완만한 사선으로 뻗어있다. 전에는 이룡문을 음각하고 가장자리에는 뇌문을 음각 장식 하였다. 굽은 높은 굽으로 외반하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61 | 청자탁 青磁托

탁1 | Ⅱ-1 | 높이 4.9cm 구경 6.1cm 저경 4.9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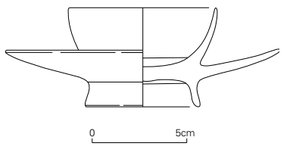
잔 모양 잔좌의 내저면이 굽까지 뚫려있는 형태로, 잔좌를 굽 안쪽으로 끼워 넣어 제작한 흔적이 있다. 잔좌의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굽은 높은 굽으로 외반하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62 | 청자음각화엽문화형탁 青磁陰刻花葉文花形托

탁1 | Ⅲ-1 | 높이 5.1cm 저경 6.1cm | W7Aㅅ+F+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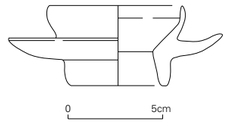
잔 모양 잔좌의 내저면이 막혀있는 형태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 있으며, 양면에 화엽문을 음각하고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높은 굽으로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63 | 청자탁 青磁托

탁1 | Ⅳ-1 | 높이 4.3cm 최대지름 11.2cm 저경 5.4cm | MT3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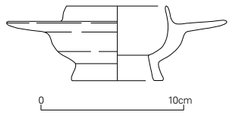
잔 모양 잔좌의 내저면이 굽까지 돌려있는 형태이며, 전은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뻗어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64 | 청자탁 青磁托

탁2 | Ⅳ-2 | 높이 5.3cm 구경 7.3cm 저경 6.7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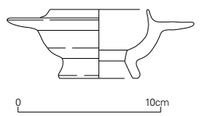
잔좌의 구연부가 사선을 이루며 줄어들어 낮게 올라와 있고, 내저면이 굽까지 돌려있다. 저부는 사선을 이루며 꺾여 올라가 전에 이르며,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65 | 청자음각선문탁 青磁陰刻線文托

탁2 | Ⅳ-2 | 높이 4.9cm 최대지름 13.0cm 저경 5.7cm | T2A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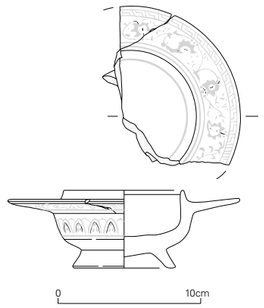
잔좌의 구연부가 낮게 올라와 있고, 내저면이 굽까지 돌려있다. 저부는 사선을 이루며 꺾여 올라가 전에 이르며,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전의 양면과 탁의 저부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66 | 청자상감연당초문탁 青磁象嵌蓮唐草文托

탁2 | Ⅳ-2 | 높이 5.4cm 구경 8.2cm 저경 7.2cm | T3+T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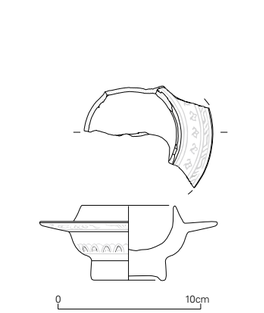
잔좌의 구연부가 낮게 올라와있고, 내저면이 막혀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는데, 윗면에는 화당초문을, 아랫면에는 당초문을 상감하였으며, 저부에는 연판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67 | 청자상감운문탁 青磁象嵌雲文托

탁2 | Ⅳ-2 | 높이 5.2cm 저경 5.0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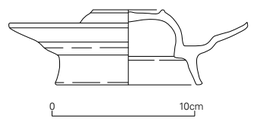
잔좌의 구연부가 낮게 올라와있고, 내저면이 막혀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는데, 윗면에는 운문을, 아랫면에는 당초문을 상감하였으며, 저부에는 연판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직립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68 | 청자탁 青磁托

탁3 | Ⅰ-3 | 높이 5.3cm 최대지름 16.5cm 저경 10.2cm | C 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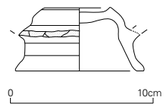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으며 끝이 말려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69 | 청자탁 青磁托

탁3 | Ⅰ-3 | 높이 4.5cm 저경 9.5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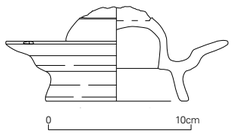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동일 형식의 탁들과 달리 저부 안쪽에 별도의 턱이 없는 점이 구분된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70 | 청자탁 青磁托

탁3 | Ⅲ-3 | 높이 6.4cm 최대지름 15.5cm 저경 9.7cm | 中W4B+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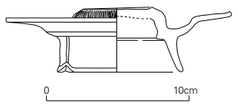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바깥으로 말려 살짝 외반하며, 접지면 안쪽의 다섯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71 | 청자화형탁 青磁花形托

탁3 | Ⅲ-3 | 높이 4.9cm 최대지름 15.6cm 저경 9.3cm | 中W4B 출토

잔좌가 돌출된 형태로 높이가 다소 낮다. 잔좌의 기측선은 곡선을 이루며, 편평한 윗면에는 화문을, 측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전은 수평에 가깝고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72 | 청자음각화당초문화형탁 青磁陰刻花唐草文花形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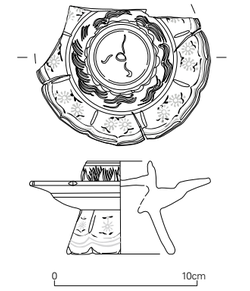
탁3 | Ⅲ-3 | 높이 5.5cm 저경 9.9cm | F1 출토

돌출된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측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전은 수평에 가까우며 윗면에는 화당초문을, 단이 진 아랫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굽 안쪽의 다섯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73 | 청자상감국화문화형탁 青磁象嵌菊花文花形托

탁3 | Ⅲ-3 | 높이 6.4cm 최대지름 12.6cm 저경 7.7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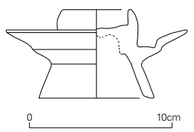
돌출된 잔좌의 기측선이 수직으로 좁아지며 올라가고, 측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전은 수평에 가까우며 전의 윗면과 저부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굽 안쪽에 규석을 받치고 그 위에 다시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74 | 청자탁 青磁托

탁3 | Ⅳ-3 | 높이 6.3cm 저경 8.1cm | M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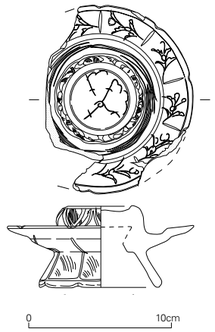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수직으로 좁아지며 올라가고 윗면은 깊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고 끝은 직립한다. 굽은 높은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75 | 청자음각화문화형탁 青磁陰刻花文花形托

탁3 | Ⅴ-3 | 높이 6.1cm 최대지름 13.0cm 저경 7.9cm | LMD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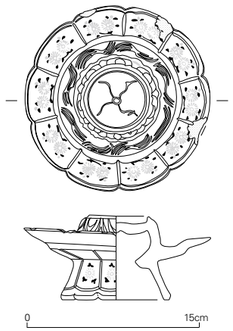
돌출된 잔좌의 기측선이 수직으로 좁아져 올라가며, 측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전은 수평에 가까우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윗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굽 안쪽에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76 | 청자상감국화문화형탁 青磁象嵌菊花文花形托

탁3 | Ⅴ-3 | 높이 6.0cm 최대지름 13.0cm 저경 7.7cm | T4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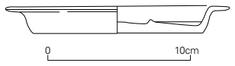
돌출된 잔좌의 기측선이 수직으로 좁아져 올라가고, 측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수평에 가까운 전은 끝을 살짝 오려내고 윗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외반하며,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고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77 | 청자탁 青磁托

탁4 | Ⅲ-4 | 높이 2.0cm 최대지름 15.5cm 저경 11.7cm | T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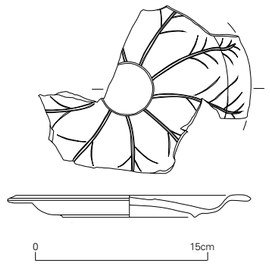
내면이 편평한 접시모양의 탁이다. 내저면 중앙에는 원형의 돌대가 있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고 전을 이룬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으로 세 곳에 작은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78 | 청자음각화엽문화형탁 青磁陰刻花葉文花形托

탁4 | Ⅲ-4 | 높이 2.1cm 저경 11.7cm | W7Bㅅ++D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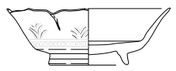
내면이 편평한 접시모양의 탁이다. 내저면 중앙에는 원형의 돌대가 있고, 구연부까지 이어지는 꽃잎을 음각하였다. 구연부는 꺾여 전을 이루고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U'자형의 낮은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 15 | 승반承盤

승반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22〉 '승반1'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굽은 끝을 오려낸 화형의 다리굽이다. '승반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승반3'은 '승반2'와 유사하나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과 화형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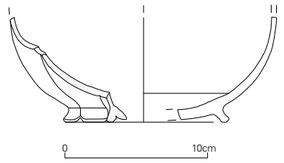
〈표22〉 승반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승반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선문	4	6 (15.38)
		Ⅲ-1	규석	음각	선문	1	
		Ⅵ-1	미상	음각	선문	1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동체부와 굽 외면을 세로로 골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굽은 끝을 오려낸 화형의 다리굽으로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다.						
승반 2		Ⅲ-2	규석	상감	초문 등	6	12 (30.78)
		Ⅳ-2	모래	상감	초문 등	5	
		Ⅵ-2	미상	무문, 상감	초문 등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살짝 오려낸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은 안에서 누르고 세로선을 음각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외면에는 초문과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선으로 외반한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승반 3		Ⅲ-3	규석	음각	선문	1	11 (28.20)
		Ⅳ-3	모래	음각	선문	9	
		Ⅵ-3	미상	음각	선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은 바깥에서 눌러 화형을 나타냈고 내저면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기타						10	10 (25.64)
출토 현황	1지점	7	2지점	6	3지점	26	39	100%

579 | 청자화형승반 青磁花形承盤

승반1 | Ⅰ-1 | 잔존높이 7.5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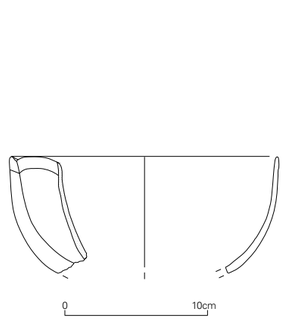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동체부와 굽 외면에 세로로 골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굽은 끝을 오려낸 화형의 다리굽으로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한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80 | 청자화형승반 青磁花形承盤

승반1 | Ⅵ-1 | 최대길이 12.3cm | 6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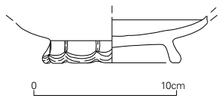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동체부 외면에 세로로 골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581 | 청자화형승반 青磁花形承盤

승반1 | Ⅲ-1 | 잔존높이 3.7cm 저경 9.5cm | Eㅌ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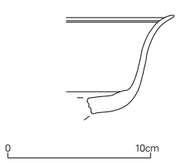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높은 화형의 다리굽으로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외면에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였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82 | 청자화형승반 青磁花形承盤

승반1 | Ⅵ-1 | 잔존높이 7.2cm | Hㅌ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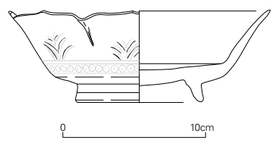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구연부의 끝은 살짝 오려내었고 외면에는 세로로 골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583 | 청자상감초문화형승반 青磁象嵌草文花形承盤

승반2 | Ⅲ-2 | 높이 5.9cm 구경 18.2cm 저경 9.0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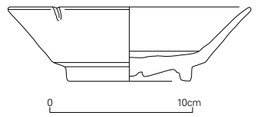
기축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살짝 오려낸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은 안에서 누르고 세로선을 음각하여 화형을 나타냈다. 외면에는 초문과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선으로 외반하는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84 | 청자음각선문화형승반 青磁陰刻線文花形承盤

승반3 | Ⅳ-3 | 높이 5.6cm 구경 16.9cm 저경 8.7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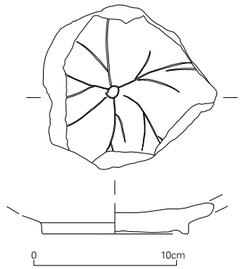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은 바깥에서 눌러 화형을 나타냈고 내저면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85 | 초벌음각하엽문승반 初燔陰刻荷葉文承盤

기타 | 잔존높이 2.2cm 최대길이 12.0cm | 2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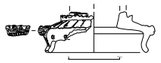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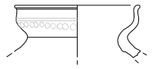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고 하엽문이 음각되어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추정되나 결실되어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 16 | 기대器臺

기대의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형태는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23〉 '기대1'은 원통형의 받침대로 여의두형 다리를 제외한 3단의 몸체를 갖추고 있다. 하단 외면에는 모란문을 음각하고, 돌대로 구획한 중간부분에는 능화형 투공이 있으며, 상단에는 구름형 판 위로 원형의 띠를 얹었다.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는 '기대2'는 유물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전세품과 비교하여 대략적인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대2'는 다리가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귀면鬼面 장식이 붙어 있는 예가 많다. 몸체 하단에는 원반형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였던 기둥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단은 투각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기대3'은 연판문을 양각한 하단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 상단에서 다시 급격하게 안으로 꺾여 올라가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외면에는 이중선 아래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표23〉 기대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기대 1		Ⅲ-1	규석	음각	모란문	1	1 (0.99)
기대 2		Ⅳ-2	모래	양각	연판문 등	24	73 (72.28)
		Ⅵ-2	미상	양각, 투각	연판문, 당초문 등	49	
기대 3		Ⅵ-3	미상	상감	연주문	13	13 (12.87)
기타						14	14 (13.86)
출토 현황	1지점	7	2지점	3	3지점	91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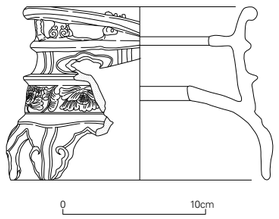
다리는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귀면 장식이 붙어 있는 예가 많다. 그 위로 연판문을 양각하고 여의두문 장식을 둘러 돕니처럼 나타냈다. 몸체 하단에는 원형 투공이 있는 원반형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였던 기둥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단은 투각으로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연판문을 양각한 하단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상단에서 다시 급격하게 안으로 꺾여 올라간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외면에는 이중선 아래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86 | 청자음각모란문기대 靑磁陰刻牡丹文器臺

기대1 | Ⅲ-1 | 높이 12.1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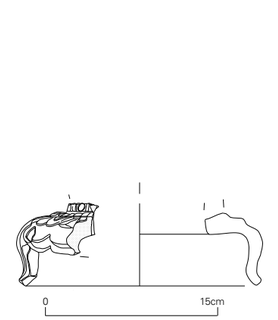
원통형의 받침대로, 여의두형 다리를 갖춘 하단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고, 원반형의 상판 중앙에는 5.1cm 정도의 원형 투공이 있다. 돌대로 구획한 중간에는 능화형 투공이 있으며, 상단에 구름형 판 위로 원형의 띠를 얹었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587 | 청자기대 靑磁器臺

기대2 | Ⅳ-2 | 잔존높이 7.5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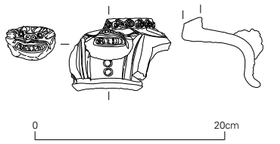
다리는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양쪽에 원형의 투공이 있다. 그 위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연주 장식을 도드라지게 둘렀다. 다리와 몸체를 연결하였던 기둥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내면의 원반형 상판에는 원형 투공이 있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88 | 청자기대 靑磁器臺

기대2 | Ⅳ-2 | 잔존높이 8.8cm | 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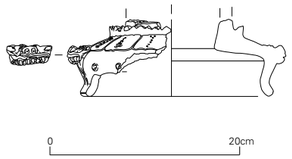
다리는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백퇴화로 장식한 귀면이 붙어 있다. 그 위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다리와 몸체를 연결하였던 기둥에는 여의두문을 압인壓印하였다. 내면의 원반형 상판에는 원형 투공이 있다. 다리의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89 | 청자기대 青磁器臺

기대2 | Ⅵ-2 | 잔존높이 7.6cm 저경 20.1cm | ME+SM+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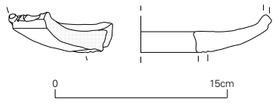
다리는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귀면이 붙어 있다. 그 위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다시 톱니모양의 장식에 여의두문을 압인하였다. 내면에는 몸체와 연결하였던 기둥과 지름 8.5cm 정도의 원형 투공이 있는 원반형 상판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90 | 청자기대 青磁器臺

기대2 | Ⅵ-2 | 최대길이 13.0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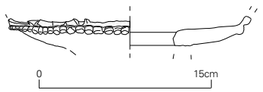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아랫면에는 하단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위쪽 가장자리에 투각 장식을 하고 내면에는 원형 투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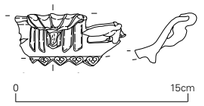


591 | 청자기대 青磁器臺

기대2 | Ⅵ-2 | 잔존높이 2.6cm 최대지름 20.6cm | BAOLㅌ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아랫면에는 하단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위쪽 가장자리에는 투각 장식을, 아래에는 연주 장식을 두르고, 내면에는 지름 7.5cm 정도의 원형 투공이 있다.





592 | 청자투각접문기대 青磁透刻蝶文器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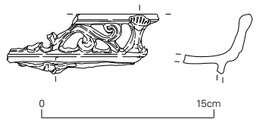
기대2 | Ⅵ-2 | 잔존높이 3.9cm | T2A 출토

기대의 상단부로 추정된다. 아래쪽의 톱니모양 장식에는 여의두문을 압인하였다. 그 위에는 나비문을 투각하고 다시 퇴화로 장식하였다. 나비문 옆으로는 하엽문荷葉文을 입체적으로 나타냈다.

593 | 청자투각당초문기대 青磁透刻唐草文器臺

기대2 | Ⅵ-2 | 잔존높이 5.4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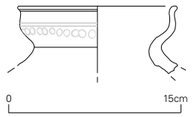
기대의 상단부로 추정된다. 아랫면에는 하단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으며, 위쪽면의 당초문 투각 장식 위로 원형의 띠를 둘렀다. 내면에 원형 투공의 흔적이 있다.



594 | 청자상감연주문기대 青磁象嵌聯珠文器臺

기대3 | Ⅵ-3 | 잔존높이 5.9cm | T4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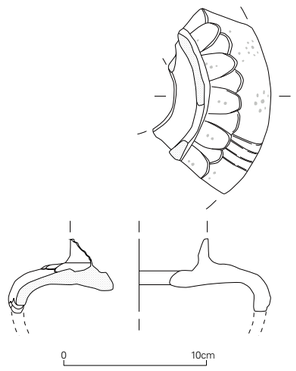
연판문을 양각한 하단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상단에서 다시 급격하게 안으로 꺾여 올라간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 있다. 외면에는 이중선 아래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595 | 청자기대 靑磁器臺

기타 | 잔존높이 5.2cm | BABM+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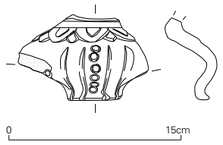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다리 접지면과 상단이 결실되었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그 위에는 퇴화로 화문을 나타내고 다시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상단과 연결되는 기둥 부분에도 퇴화 장식을 더했다. 내면의 중앙에 원형 투공의 흔적이 있다.



596 | 청자기대 靑磁器臺

기타 | 잔존높이 7.3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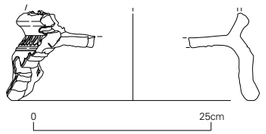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다리는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한다. 몸체의 하단부와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다리의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597 | 청자기대 靑磁器臺

기타 | 잔존높이 12.4cm | T51 출토

형식 미상으로, 여의두형 다리 위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그 위는 도톰한 돌대를 돌리고 투각장식을 하였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의 중앙에는 크고 둥근 원형 투공이 있다.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투합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형태는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24〉 '투합1'은 상단이 방형方形에 가까운 화형으로 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비교적 높은 다리가 수직을 이룬다. '투합2'는 상단이 원형圓形에 가까운 화형으로 가장자리에 단이 있는 형태이다. 외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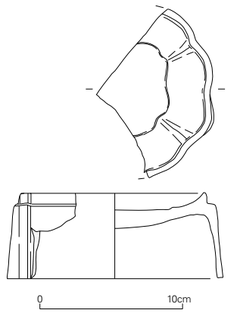
〈표24〉 투합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투합 1		Ⅰ-1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3	9 (75.00)
		Ⅵ-1	미상	무문		6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단이 방형에 가까운 화형을 이루는 투합이다. 상단 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비교적 높은 다리가 수직을 이룬다. 상단의 윗면은 오목하게 파이다가 낮은 단을 이루며 편평한 내저면으로 이어진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투합 2		Ⅲ-2	규석	양각	화당초문	2	3 (25.00)
		Ⅵ-2	미상	무문		1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단이 원형에 가까운 화형을 이루는 투합이다. 상단 가장자리에 단이 있는 형태이다. 상단의 윗면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오목해지고, 음각선을 더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화당초문을 양각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출토 현황	1지점	3	2지점	3	3지점	6	12	100%

598 | 청자투합 靑磁套盒

투합1 | Ⅰ-1 | 높이 7.3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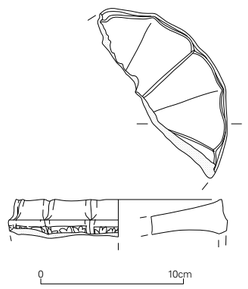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단이 방형에 가까운 화형을 이루는 투합이다. 상단 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비교적 높은 다리가 수직을 이룬다. 상단의 윗면은 오목하게 파여 낮은 단을 이루며 편평한 내저면으로 이어진다.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599 | 청자양각화당초문투합 靑磁陽刻花唐草文套盒

투합2 | Ⅲ-2 | 잔존높이 2.5cm 최대길이 13.8cm | F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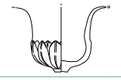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단이 원형에 가까운 화형을 이루는 투합이다. 상단 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윗면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오목해지고, 음각선을 더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화당초문을 양각하였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 18 | 향완香垸

향완의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형태는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25〉 '향완1'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굽은 살짝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향완2'는 기측선이 동체부 하단에서 둥글게 꺾여 직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동체부 하단에 연판문을 양각하였으며, 굽과 연결하였던 부분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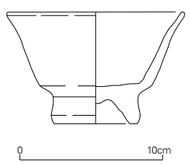
〈표25〉 향완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향완 1		Ⅳ-1	모래	무문		1	6 (26.09)
		Ⅵ-1	미상			5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살짝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향완 2		Ⅲ-2	규석	양각	연판문	2	11 (47.82)
		Ⅵ-2	미상	양각	연판문	9	
	향완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하단에서 둥글게 꺾여 직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하단에 연판문을 양각하였으며, 굽과 연결하였던 부분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기타						6	6 (26.09)
출토 현황	1지점	5	2지점	4	3지점	14	23 100%

600 | 청자향완 靑磁香垸

향완1 | Ⅳ-1 | 높이 8.1cm 저경 5.9cm | LMD2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살짝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01 | 청자양각연판문향완 靑磁陽刻蓮瓣文香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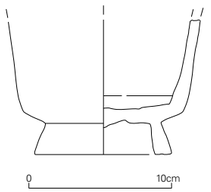
향완2 | Ⅵ-2 | 잔존높이 12.2cm | 4I 출토

향완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하단에서 둥글게 꺾여 직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하단에 연판문을 양각하였으며, 굽과 연결하였던 부분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02 | 청자향완 靑磁香垸

기타 | 잔존높이 9.5cm 저경 9.5cm | BABM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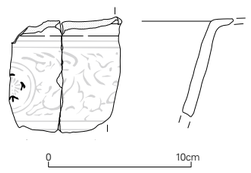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굽은 사선으로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03 | 청자상감국화문향완 青磁象嵌菊花文香垸

기타 | 잔존높이 8.1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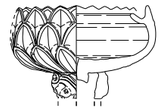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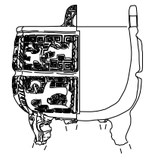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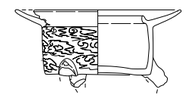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꺾여 외반한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 19 | 향로香爐

향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으며, 형태를 중심으로 5가지로 구분하였다.〈표26〉 연화형 향로인 '향로1'은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연꽃잎 모양이다. 곡선을 이루며 바닥에 이르는 저부는 가장자리를 바깥으로 말아서 연잎을 형상화하고, 문양은 네 겹의 이중 연판문과 연잎을 음각과 양각으로 세밀하게 나타냈다. '향로2~3'은 정형鼎形 향로이다.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가는 원형圓形과, 기측선이 직립 혹은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는 방형方形으로 나뉜다. 동체부 바닥에 3~4개의 다리가 달려 있다.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饕餮文이나 용문을 찍어냈다. '향로4'는 소위 삼족三足 향로라 부르는 형태로, 동체부의 바닥이 편평하고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운문이나 뇌문을 음각하였고 바닥에는 3~4개의 다리를 부착하였다. 팔각八角 향로로 추정되는 '향로5'는 각진 동체부의 기측선이 편평한 바닥에서 꺾여 올라가 사선으로 벌어지고, 구연부에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의 외면 모서리에 연주 장식이 있고, 동체부 바닥에 귀면형鬼面形 다리가 달려 있다. 동체부 각 면에는 초화문을 상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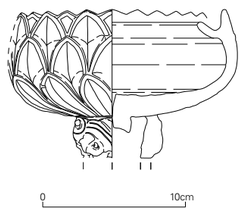
〈표26〉 향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향로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양각	하엽문	4	14 (11.11)
		Ⅲ-1	규석	음각, 양각	하엽문	1	
		Ⅵ-1	미상	양각	연판문	9	
	연화형 향로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연꽃잎 모양으로 오려내었다. 동체부에는 네 겹의 연판문을, 저부와 연결되는 하단 외면에는 당초문을 양각하였다. 곡선을 이루며 바닥에 이르는 저부는 가장자리를 바깥으로 불규칙하게 말아서 연잎을 형상화하고, 음각 또는 양각으로 잎맥을 세밀하게 나타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다.						
향로 2		Ⅲ-2	규석	압출양각	도철문, 용문	5	20 (15.88)
		Ⅵ-2	미상	압출양각	도철문, 용문	15	
	동체부가 둥근 원정형圓鼎形 향로이다.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가며, 구연부에 반원형의 귀가 달려 있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이나 용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 바닥에는 세 개의 운형雲形 다리를 부착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향로 3		Ⅲ-3	규석	압출양각	도철문, 용문	13	22 (17.45)
		Ⅵ-3	미상	압출양각	도철문, 용문	9	
	동체부가 방형인 방정형方鼎形 향로이다. 기측선이 직립하거나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단을 이룬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이나 용문을 찍어냈다. 동체부 바닥에는 네 개의 다리를 부착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향로 4		Ⅲ-4	규석	음각	운문, 뇌문	21	37 (29.37)
		Ⅵ-4	미상	음각	운문, 뇌문	16	
	삼족 향로로, 동체부의 바닥이 편평하고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외면에는 운문이나 뇌문을 음각하였다. 동체부 바닥에는 3~4개의 수면형獸面形 또는 운형 다리를 부착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향로 5		Ⅵ-5	미상	상감	초화문	29	29 (23.02)
	팔각 향로로 추정되며, 동체부의 기측선이 편평한 바닥에서 꺾여 올라가 사선으로 벌어진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뻗어 넓은 전을 이루고, 전에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동체부의 외면 모서리에는 연주 장식을 붙였으며, 각 면에는 초화문을 상감하였다. 바닥에는 귀면형 다리를 부착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4	4 (3.17)
출토 현황	1지점	47	2지점	27	3지점	52	126	100%

604 | 청자연화형향로 青磁蓮花形香爐

향로1 | Ⅵ-1 | 잔존높이 10.6cm 저경 5.1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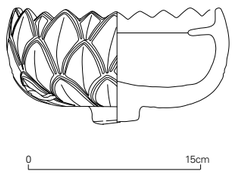
연화형 향로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연꽃잎 모양으로 오려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로 뚜껑받이턱이 있다. 동체부에는 네 겹의 연판문을, 저부와 연결되는 하단 외면에는 당초문을 양각하였다.



605 | 청자연화형향로 青磁蓮花形香爐

향로1 | Ⅵ-1 | 잔존높이 9.7cm 구경 18.1cm | W7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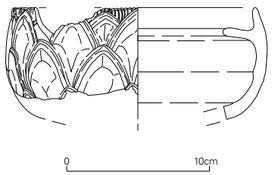
연화형 향로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연꽃잎 모양으로 오려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로 뚜껑받이턱이 있고, 동체부에는 네 겹의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저부와의 연결부위에 '十'자를 음각하였다.



606 | 청자연화형향로 青磁蓮花形香爐

향로1 | Ⅵ-1 | 잔존높이 7.7cm 복원구경 17.0cm | A3+Dㄷ+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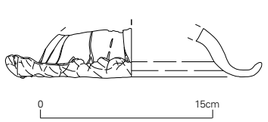
연화형 향로의 동체부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톱니처럼 나타냈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로 뚜껑받이턱이 있고, 동체부에는 네 겹의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607 | 청자연화형향로 青磁蓮花形香爐

향로1 | Ⅰ-1 | 잔존높이 4.3cm 최대길이 21.5cm | T4A+T4A1 출토

연화형 향로의 저부이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바닥에 이르며, 가장자리는 바깥으로 말아서 연잎을 형상화하였다. 잎맥은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냈다. 저부의 내면은 시유하지 않고, 안쪽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08 | 청자연화형향로 青磁蓮花形香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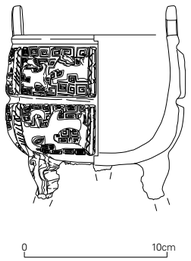
향로1 | Ⅲ-1 | 잔존높이 4.9cm 최대길이 17.2cm | A 출토

연화형 향로의 저부이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바닥에 이르며, 가장자리는 바깥으로 불규칙하게 말아서 연잎을 형상화하였다. 잎맥은 음각과 양각으로 세밀하게 나타냈다. 접지면과 안쪽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09 | 청자압출양각도철문정형향로 青磁壓出陽刻饕餮文鼎形香爐

향로2 | Ⅲ-2 | 높이 13.3cm | 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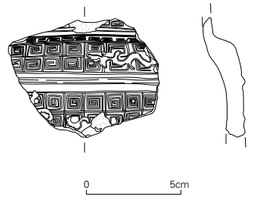
원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가며, 구연부에 반원형의 귀가 달려 있다. 외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2단으로 구획하고 도철문과 뇌문을 찍어냈다. 바닥에는 세 개의 운형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0 | 청자압출양각도철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饕餮文鼎形香爐

향로2 | Ⅵ-2 | 잔존높이 6.3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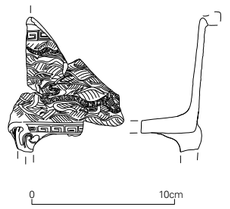
원형의 정형 향로의 상단으로, 기측선이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꺾여 단을 이루며 목으로 이어진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과 뇌문을 찍어냈다.



611 | 청자압출양각용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龍文鼎形香爐

향로2 | Ⅲ-2 | 잔존높이 9.3cm(右) | 1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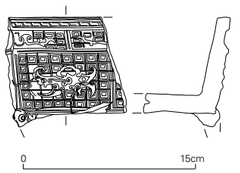
원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직립해 올라오며,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단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용문과 파도문을 찍어냈다. 동체부 바닥에는 운형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2 | 청자압출양각도철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饕餮文鼎形香爐

향로3 | Ⅲ-3 | 잔존높이 9.5cm | T3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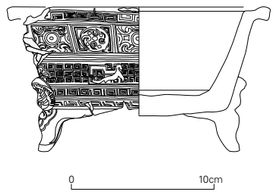
방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직립하며, 구연부는 얕은 단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과 뇌문을 찍어냈다. 동체부 바닥 모서리에 개구리모양의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3 | 청자압출양각도철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饕餮文鼎形香爐

향로3 | Ⅲ-3 | 높이 10.0cm | 右T3+W7B+ㅂ7B+G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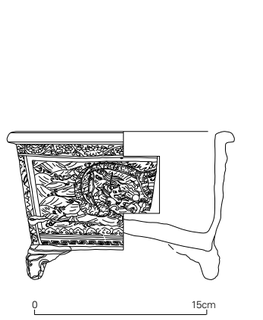
방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는 단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과 뇌문 등을 찍어내고, 바닥 모서리 네 곳에 매미모양 장식을 붙였다. 바닥에는 운형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4 | 청자압출양각용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龍文鼎形香爐

향로3 | Ⅲ-3 | 높이 12.8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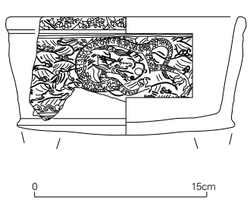
방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단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용문과 파도문 등을 찍어냈다. 동체부 바닥 모서리에 운형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5 | 청자압출양각용문정형향로 靑磁壓出陽刻龍文鼎形香爐

향로3 | Ⅲ-3 | 잔존높이 9.9cm | 中W4C+Cㄷ1+ + Dㅌ+Eㅌ+H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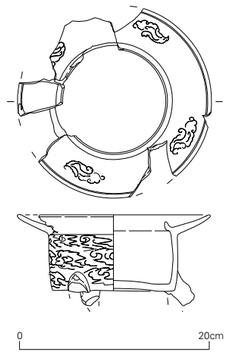
방형의 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얕은 단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용문과 파도문 등을 찍어냈다. 바닥 모서리 네 곳에 다리를 부착하였던 흔적이 있으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6 | 청자음각운문향로 青磁陰刻雲文香爐

향로4 | Ⅲ-4 | 잔존높이 9.4cm 최대지름 20.5cm | T3中+Dㄷ+H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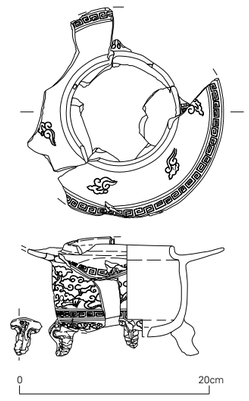
삼족 향로로, 동체부의 바닥이 편평하고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와 구연부 전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동체부 바닥 3군데에 수면형 다리를 부착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17 | 청자음각운문향로 青磁陰刻雲文香爐

향로4 | Ⅵ-4 | 높이 12.2cm 최대지름 22.0cm | J1ㅈ+Cㄷ1+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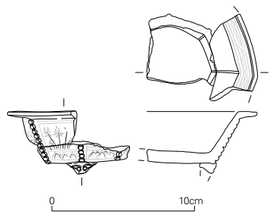
삼족 향로로, 기측선이 둥근 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와 구연부 전에는 운문과 뇌문을 음각하였다. 동체부 바닥에 운형雲形 다리를 부착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18 | 청자상감초화문향로 青磁象嵌草花文香爐

향로5 | Ⅵ-5 | 잔존높이 8.8cm | T4B+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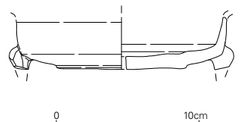
팔각 향로로 추정되며, 각진 동체부의 기측선이 편평한 바닥에서 꺾여 올라가 사선으로 벌어지고, 구연부에는 상감 당초문을 장식한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의 외면 모서리에는 연주 장식을 붙이고, 각 면에는 초화문을 상감하였다. 바닥에는 귀면형 다리를 부착하였다.



619 | 청자향로 青磁香爐

기타 | 잔존높이 3.7cm 최대길이 13.0cm | T3+T7 출토

형식 미상으로, 동체부의 내저면에 단이 져 있고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동체 하단의 꺾이는 부분에 다리를 부착하고, 바닥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20 | 청자상감모란문향로 青磁象嵌牡丹文香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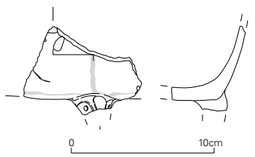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4.3cm 최대길이 8.2cm | BBS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 외면에는 모란문을 상감하고, 결실된 다리의 윗부분에 몇 개의 음각선을 깊숙이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21 | 청자상감문향로 青磁象嵌文香爐

기타 | 잔존높이 6.2cm | SM1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바닥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 외면은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향로개의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고, 형태를 중심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27〉 '향로개1'은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에는 귀룡龜龍이나 오리 등 물새의 상형 장식을 올렸다. '향로개2'는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을 이룬다. 윗면은 '귄'자 모양으로 투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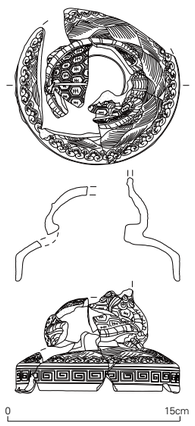
〈표27〉 향로개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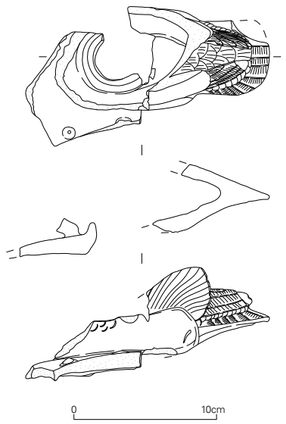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향로개 1		Ⅲ-1	규석	양각, 음각	상형, 파도문 등	9	11 (42.30)
		Ⅵ-1	미상	양각	상형	2	
	상형 장식을 올린 향로의 뚜껑이다.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 또는 수평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에는 귀룡이나 오리 등 물새의 상형 장식을 올리고, 그 주변에 파도나 물새의 물갈퀴 등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향로개 2		Ⅵ-2	미상	투각	'귄'자문	1	1 (3.85)
	향로의 뚜껑으로,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을 이룬다. 윗면은 '귄'자 모양으로 투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14	14 (53.85)
출토 현황	1지점	13	2지점	5	3지점	8	26	100%

622 | 청자귀룡형향로개 青磁龜龍形香爐蓋

향로개1 | Ⅲ-1 | 잔존높이 9.0cm 저경 14.3cm | W4+左T4+2T10+＋Dㄷ+Fㄷ+Hㄷ1+Hㄷㅅ 출토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에는 귀룡 장식을 올리고, 그 주변에 파도문 등을 시문하였다. 등의 귀갑문龜甲文에는 '王'자가 새겨져 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23 | 청자압형향로개 青磁鴨形香爐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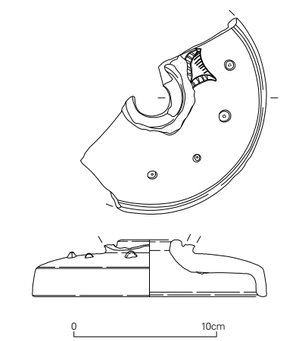
향로개1 | Ⅲ-1 | 잔존높이 6.3cm 최대길이 17.5cm | T1+B2 출토

윗면은 수평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중앙에 속을 파내어 제작한 오리의 형상을 올리고, 그 주변에 연밥 형태의 장식을 볼록하게 나타냈다. 내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24 | 청자압형향로개 青磁鴨形香爐蓋

향로개1 | Ⅲ-1 | 잔존높이 3.9cm 최대길이 15.7cm | 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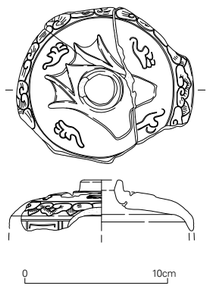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의 상형 장식은 확인되지 않으나, 연밥 형태의 볼록한 장식과 음각한 물갈퀴로 미루어 볼 때 물새류의 장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25 | 초벌압형향로개 初燔鴨形香爐蓋

향로개1 | Ⅵ-1 | 잔존높이 3.3cm 최대길이 12.4cm | ＋D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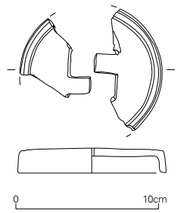
향로개의 초벌구이편으로, 기측선이 짧게 직립하다가 두 번 꺾여 윗면에서 수평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에 상형 장식은 확인되지 않으나, 세밀하게 음각한 물갈퀴로 보아 물새류의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26 | 청자투각'만'자문향로개 青磁透刻卍字文香爐蓋

향로개2 | Ⅵ-2 | 높이 2.0cm 최대길이 11.5cm(左) | T1A3+BA최하 출토

향로의 뚜껑으로,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꺾여 윗면에서 수평을 이룬다. 윗면은 '卍'자 모양으로 투각하였다. 가장자리에는 이중의 음각선을 둘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 21 | 자침磁枕

자침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고, 형태를 중심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28〉 '자침1'은 장방형 몸체로, 투각과 상감으로 새 문양 등을 장식하였다. '자침2'는 기측선이 사각의 베갯모에서 안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휘어들다가 다시 베갯모에 이르는 형태이다. 문양은 용문과 파도문 등을 세밀하게 음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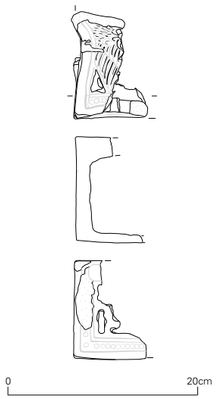
〈표28〉 자침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자침1		Ⅰ-1	백색내화토빛음	상감+투각	조문	1	2 (13.33)
		Ⅵ-1	미상	상감+투각	봉황문	1	
	장방형 몸체의 자침이다. 정면에는 새 문양을 상감하고 그 주변을 투각과 상감 연주문으로 장식하였다. 측면 역시 투각 장식을 하고 가장자리는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자침2		Ⅲ-2	규석	음각	용문, 화문 등	6	12 (80.00)
		Ⅵ-2	미상	음각	용문, 화문 등	6	
	장방형 몸체의 자침이다. 기측선이 사각의 베갯모에서 안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휘어들다가 다시 베갯모에 이르는 형태이다. 정면에는 원권문 안에 용문과 파도문을 세밀하게 음각하고, 양쪽 베갯모는 1.9cm 정도 투공의 주위에 음각 모란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기타						1	1 (6.67)
출토 현황	1지점	3	2지점	9	3지점	3	15 100%

627 | 청자상감투각조문자침 青磁象嵌透刻鳥文磁枕

자침1 | Ⅰ-1 | 최대길이 18.4cm | W7Bㅅ+B2+LMB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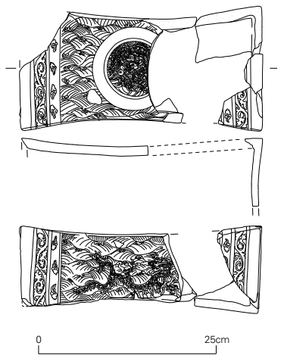
형태가 일그러진 장방형 몸체의 자침으로, 정면에는 새 문양을 상감하고 그 주변을 투각과 상감 연주문으로 장식하였다. 측면 역시 투각 장식을 하고 가장자리는 연주문을 상감하였다. 베갯모 한쪽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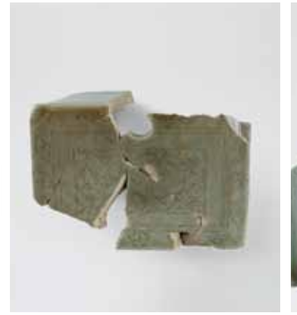


628 | 청자음각용문자침 青磁陰刻龍文磁枕

자침2 | Ⅲ-2 | 높이 12.0cm 가로 30.4cm 세로 17.4cm | CㄷㅌC+Cㄷㅌ1+DㄷㅌE+EㄷㅌE 출토

기측선이 사각의 베갯모에서 안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휘어들다가 다시 베갯모에 이르는 형태이다. 정면에는 용문과 파도문을, 양쪽 베갯모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1.9cm 정도의 투공이 베갯모 한 켠에 치우쳐 있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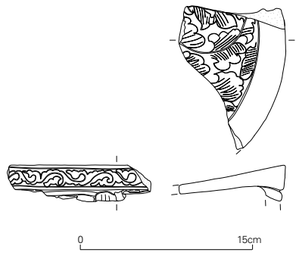




629 | 청자음각화당초문자침 青磁陰刻花唐草文磁枕

기타 | 잔존높이 3.0cm 최대길이 13.3cm | SM2 출토

타원형 자침의 상부로, 형식은 미상이다. 윗면이 비스듬한 사선을 이루며 오목하게 들어간다. 윗면에는 화당초문을, 측면에는 당초문대를 음각하였다. 가장자리 아래쪽으로 투각장식을 하였던 흔적이 있으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촉대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고, 형태를 중심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29〉 '촉대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안바닥을 깎아낸 안굽이다. '촉대2'는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는 형태의 촉대이다. 내저면의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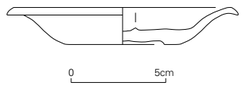
〈표29〉 촉대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촉대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	1 (50.00)
	기측선이 몸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단을 이루며 꺾이고 구연부는 넓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안바닥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다.						
촉대 2		Ⅵ-2	미상	무문		1	1 (50.00)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는 형태의 촉대이다. 내저면의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 현황	1지점	2	2지점	0	3지점	0	2 100%

630 | 청자촉대 靑磁燭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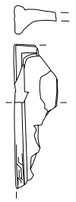
촉대1 | Ⅰ-1 | 높이 2.0cm 저경 4.2cm | W7Bㅅ 출토

기측선이 몸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단을 이루며 꺾이고 구연부가 넓게 외반하는 형태의 촉대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연의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고, 1가지 형식이 확인되었다.〈표30〉 '연1'은 먹을 가는 부분인 연당硯堂이 높이 솟아 있고 곡선을 이루며 오목해지고, 먹물이 모이는 연지硯池에 이르는 형태이다. 연당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음각문이 있고 시유하지 않았다. 윗면 가장자리에는 뇌문을, 측면에는 이중의 능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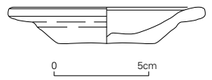
〈표30〉 연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연 1		Ⅲ-1	규석	음각	능화문	1	2 (100.00)
		Ⅵ-1	미상	상감	화문	1	
	연당이 높이 솟아 있고 곡선을 이루며 오목해져 먹물이 모이는 연지에 이른다. 연당은 미상의 음각문이 있고 시유하지 않았다. 윗면 가장자리에는 뇌문을, 측면에는 이중의 능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출토 현황	1지점	0	2지점	0	3지점	2	2 100%

631 | 청자촉대 靑磁燭臺

촉대1 | Ⅵ-2 | 높이 1.9cm 저경 5.2cm | H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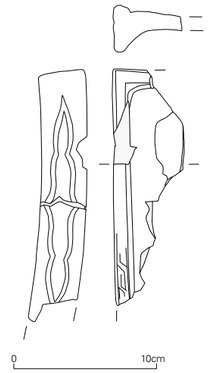
기측선이 몸체 하단에서 사선을 그리다 단을 이루며 꺾이고 구연부가 넓게 외반하는 형태의 촉대이다. 내저면의 중앙에 초꽂이를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32 | 청자음각능화문연 青磁陰刻菱花文硯

연1 | Ⅲ-1 | 높이 3.8cm 최대길이 17.5cm | Fㅌ+BAW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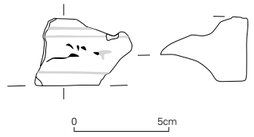
연당이 높이 솟아 있고 곡선을 이루며 오목해져 연지에 이른다. 연당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음각문이 있다. 윗면 가장자리에는 뇌문을, 측면에는 이중의 능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33 | 청자상감화문연 青磁象嵌花文硯

연1 | Ⅵ-1 | 높이 3.3cm 최대길이 5.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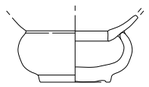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벼루의 일부로 추정된다. 측면에 꽃으로 보이는 문양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초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 24 | 타호唾壺

타호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 모래가 있고, 1가지 형식이 확인되었다.〈표31〉 '타호1'은 하단 호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깔때기 형태의 전을 접합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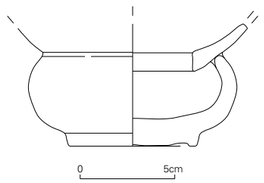
〈표31〉 타호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타호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2	18 (100.00)
		Ⅲ-1	규석	무문		1	
		Ⅳ-1	모래	무문		3	
		Ⅵ-1	미상	무문, 음각, 상감	봉황문, 국화문 등	12	
	하단 호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깔때기 형태의 전을 접합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출토 현황	1지점	4	2지점	1	3지점	13	18	100%

634 | 청자타호 青磁唾壺

타호1 | Ⅳ-1 | 잔존높이 6.4cm 저경 6.6cm | BABMㅌ1+73BB작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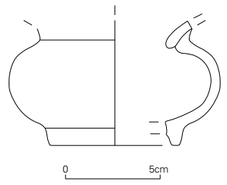
하단 호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내만한다.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깔때기 형태의 전을 접합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35 | 청자타호 青磁唾壺

타호1 | Ⅵ-1 | 잔존높이 6.6cm | B1+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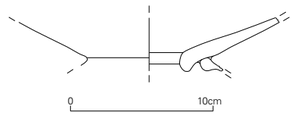
하단 호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전을 접합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36 | 청자타호 青磁唾壺

타호1 | Ⅵ-1 | 최대길이 10.3cm | 담밖+LM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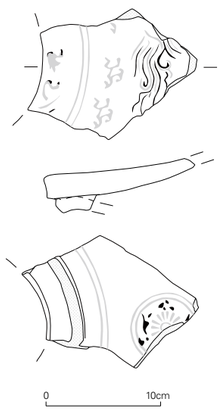
타호의 전으로 추정된다.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접합한 흔적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37 | 청자상감봉황문타호 青磁象嵌鳳凰文唾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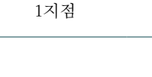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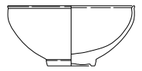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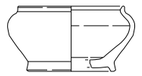
타호1 | Ⅵ-1 | 최대길이 9.3cm | SM 출토

타호의 전으로 추정된다. 호의 구연부 안쪽으로 접합한 흔적이 있으며, 수평에 가까운 사선으로 뻗어 있다. 전의 윗면에는 봉황문을, 아랫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약연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고, 형태를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32〉 약연과 조합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봉은 1가지가 확인되었다. 우선 '약연1'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는 형태이다. 외면에만 시유하고 구연부와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안굽이다. '약연2'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살짝 바깥으로 말려있는 형태이다. 외면과 내면의 상단에만 시유하였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다. '약연3'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만하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외면에만 시유하였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다. 그리고 약연과 조합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봉1'은 손잡이 부분을 팔각으로 깎아내었다. 약연에 닿는 면은 시유하지 않고 손잡이에만 시유하였다. 손잡이 중간의 마주보는 두 군데에 투공이 있고, 끝 부분은 점차 좁아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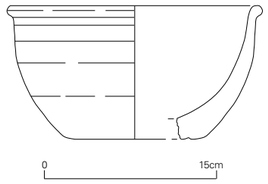
〈표32〉 약연 · 봉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약연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8	10 (58.82)
		Ⅱ-1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1	
		Ⅲ-1	규석	무문		1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으며 구연부 외면 아래에 홈이 파여 있다. 외면에만 시유하고 구연부와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약연 2		Ⅳ-2	모래	무문		1	1 (5.88)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살짝 바깥으로 말려있다. 외면과 내면의 상단에만 시유하였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접지면과 굽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약연 3		Ⅵ-3	미상	무문		1	1 (5.88)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만한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외면에만 시유하였으나 유약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봉 1		Ⅵ-1	미상	무문		5	5 (29.42)
	약연에 사용하는 봉으로 손잡이 부분을 팔각으로 깎아내었다. 약연에 닿는 면은 시유하지 않고 손잡이에만 시유하였다. 내부는 비어있고, 손잡이 중간의 마주보는 두 군데에 투공이 있다. 손잡이의 끝 부분이 점차 좁아드는 형태이다.						
출토 현황	1지점	7	2지점	4	3지점	6	17 100%

638 | 청자약연 靑磁藥碾

약연1 | Ⅲ-1 | 높이 11.7cm 구경 22.3cm | -中W4A+E1+H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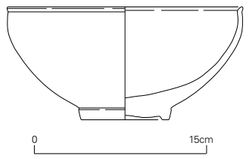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으며, 구연부 외면 아래에 홈이 파여 있다. 외면에만 시유하고 구연부와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39 | 청자약연 靑磁藥碾

약연2 | Ⅳ-2 | 높이 10.1cm 저경 7.5cm | 73BB작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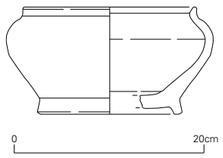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살짝 바깥으로 말려있다. 외면과 내면의 상단에만 시유하였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다. 접지면과 굽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40 | 청자약연 靑磁藥碾

약연3 | Ⅵ-3 | 높이 11.2cm | A3+Cㄷ+E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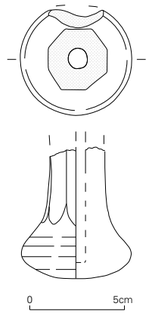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만한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외면에만 시유하였으나 유약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굽은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41 | 청자봉 靑磁棒

봉1 | Ⅵ-1 | 잔존높이 6.9cm 최대지름 6.0cm | T51 출토

약연에 사용하는 봉으로 손잡이 부분을 팔각으로 깎아내고 도톰한 원반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약연에 닿는 면은 시유하지 않고 손잡이에만 부분적으로 시유하였다. 내부는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42 | 청자봉 靑磁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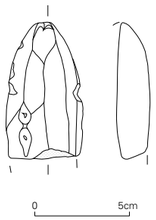
봉1 | Ⅵ-1 | 잔존높이 6.3cm | SLMA1 출토

약연에 사용하는 봉으로 팔각의 손잡이 부분만 남아있다. 손잡이의 내부는 비어있고, 외면에 시유하였다. 손잡이 중간의 마주보는 두 군데에 투공이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43 | 청자봉 靑磁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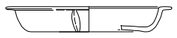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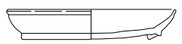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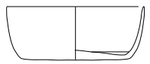
봉1 | Ⅵ-1 | 잔존높이 7.0cm | BAB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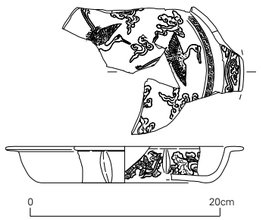
약연에 사용하는 봉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점차 좁아지는 형태이다. 외면은 시유하였다.



반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형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였다.〈표33〉 '반1'과 '반2'는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내저면에 운학문 또는 파어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반1'의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며, '반2'는 넓적한 사다리꼴의 다리굽이다. '반3'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외면 아래에 홈이 파여 있다. 문양은 내면에 파어문과 포류수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반4'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반5'는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평굽이다.

〈표33〉 반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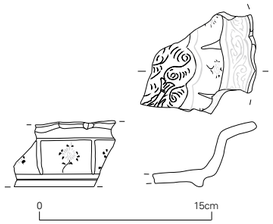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반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운학문	3	4 (3.31)
		Ⅲ-1	규석	음각	운학문	1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내저면에 운학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다.						
반 2		Ⅰ-2	백색내화토빚음	음각+상감	파어문, 화문 등	1	14 (11.57)
		Ⅵ-2	미상	음각, 상감	화문, 국화문 등	13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내면에 파어문을 음각하거나 국화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반 3		Ⅲ-3	규석	무문, 상감	파어문 등	9	74 (61.16)
		Ⅳ-3	모래	무문, 상감	파어문 등	24	
		Ⅵ-3	미상	무문, 상감	파어문 등	4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외면 아래에 홈이 파여 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문양은 내면에 파어문과 포류수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확인된다.						
반 4		Ⅲ-4	규석	음각	국화문	1	2 (1.66)
		Ⅵ-4	미상	상감	범어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내면에 국화문을 음각하거나, 범어문을 상감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반 5		Ⅲ-4	규석	무문		11	15 (12.39)
		Ⅵ-4	미상	무문		4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이 편평하고 문양은 없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기타						12	12 (9.91)
출토 현황	1지점	25	2지점	8	3지점	88	121	100%



644 | 청자음각운학문반 青磁陰刻雲鶴文盤

반1 | Ⅰ-1 | 높이 5.5cm 최대길이 29.5cm | 左T3ㅈ+T4+6B+F 출토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내저면에는 운학문을, 내측면과 전은 각각 연화문과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45 | 청자음각파어문화형반 青磁陰刻波魚文花形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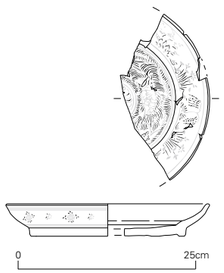
반2 | Ⅰ-2 | 높이 4.9cm | SM 출토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는 파어문을 음각하고, 내측면과 전에는 각각 국화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46 | 청자상감파어문반 青磁象嵌波魚文盤

반3 | Ⅳ-3 | 높이 4.7cm 최대길이 23.1cm | 5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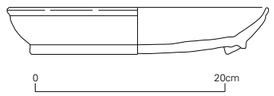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파어문과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47 | 청자반 靑磁盤

반3 | Ⅵ-3 | 높이 5.5cm 구경 27.8cm 저경 22.9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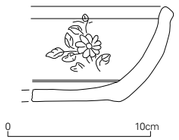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외면 아래에 홈이 파여 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48 | 청자음각국화문반 靑磁陰刻菊花文盤

반4 | Ⅲ-4 | 높이 6.5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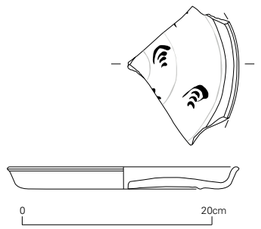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과 외면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양을, 내면에는 국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49 | 청자상감범어문반 靑磁象嵌梵語文盤

반4 | Ⅵ-4 | 높이 2.4cm | T2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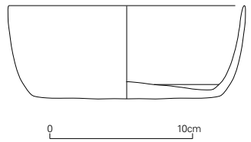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내면에 범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50 | 청자반 靑磁盤

반5 | Ⅲ-5 | 높이 6.5cm 저경 13.0cm | 6B 출토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이 편평하고 문양은 없다. 굽은 평굽으로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51 | 청자음각용문반 靑磁陰刻龍文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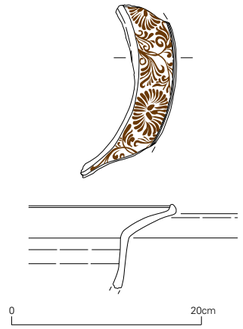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7.1cm 최대길이 21.3cm | W8B 출토

형식 미상으로, 구연부가 외반하여 넓은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내면에는 용문을, 전의 윗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52 | 청자철화보상화문반 靑磁鐵畫寶相華文盤

기타 | 잔존높이 6.9cm 최대길이 25.5cm | T4中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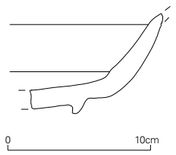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구연부가 외반하여 넓은 전을 이루는 형태로 전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살짝 말려있다. 전의 윗면에는 보상화문을 철화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53 | 청자반 青磁盤

기타 | 잔존높이 7.0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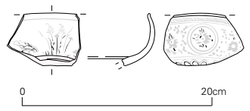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쪽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54 | 청자상감포류수금문반 青磁象嵌蒲柳水禽文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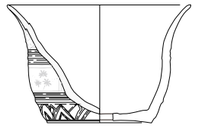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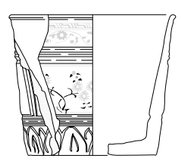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4.8cm | SM2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며 바깥으로 말려있다. 내면에는 포류수금문을, 외면에는 도안화된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분의 번조받침은 모래가 확인된다. 형태를 중심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표34〉 '화분1'은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 중앙에 투공이 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중간에는 사각형으로 구획한 틀 안에 국화문을, 상단에는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화분2'는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으며 내저면 중앙에 투공이 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음각하고 중간에는 사각형의 틀 안에 국화문이나 연당초문을, 상단에는 화당초문을 상감하였다. 화분의 굽은 대부분 모두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나, 일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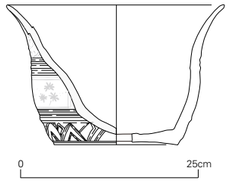
〈표34〉 화분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화분 1		Ⅳ-1	모래	상감	국화문	5	15 (26.31)
		Ⅵ-1	미상	상감	모란문, 연당초문 등	10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 중앙에 투공이 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중간에는 사각형의 틀 안에 국화문을, 상단에는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화분 2		Ⅳ-2	모래	상감	국화문, 연당초문 등	15	42 (73.69)
		Ⅵ-2	미상	상감	모란문, 포류수금문	27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으며 내저면 중앙에 투공이 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음각하고 중간에는 국화문이나 연당초문을, 상단에는 화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 또는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출토 현황	1지점	2	2지점	0	3지점	55	57	100%

655 | 청자상감국화문화분 青磁象嵌菊花文花盆

화분1 | Ⅳ-1 | 높이 19.6cm 저경 17.4cm | MD+ME+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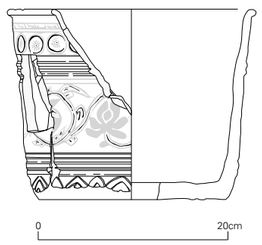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 중앙에 투공이 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중간에는 사각형의 틀 안에 국화문을, 상단에는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56 | 청자상감연당초문화분 青磁象嵌蓮唐草文花盆

화분2 | Ⅳ-2 | 높이 19.5cm | T2A+A1+Aㅅ+LMA2+LMC2+LMD2+SLMB1+BBS+WM10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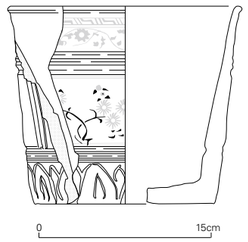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음각하고 중간에는 연당초문을, 상단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57 | 청자상감국화문화분 青磁象嵌菊花文花盆

화분2 | Ⅳ-2 | 높이 17.7cm | T2AB1+T3ㅈ+LMA2+SM1+SM3+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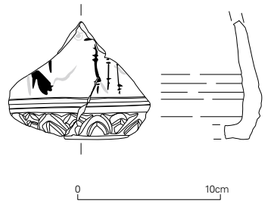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음각하고 중간에는 사각형의 틀 안에 국화문을, 상단에는 변형된 연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658 | 청자상감죽문화분 青磁象嵌竹文花盆

기타 | 잔존높이 7.9cm | WH+SLM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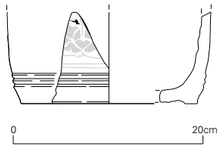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화분의 저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곡선을 그리다가 동체부에서 직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중간에는 죽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59 | 청자상감모란문화분 青磁象嵌牡丹文花盆

기타 | 잔존높이 9.6cm | SM 출토

형식 미상으로, 화분의 저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며 동체부 중간에 모란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돈은 수량이 적고 잔존상태도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윗면은 편평하다. 동체부에 투각과 음각 기법으로 다양한 문양을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표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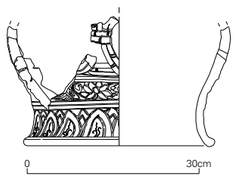
〈표35〉 돈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돈 1		Ⅳ-1	모래	투각	연환連環문, 격자格子문	31	40 (100.00)
		Ⅵ-1	미상	투각	연환문 등	9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높이 올라가고 윗면은 편평하다. 동체부 하단에는 음각 연판문을, 중간에는 투각으로 연화문 등 다양한 문양을, 상단에는 당초문을 양각한 예가 많다. 윗면에는 음각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출토 현황	1지점	3	2지점	1	3지점	36	40	100%

660 | 청자투각연환문돈 靑磁透刻連環文墩

돈1 | Ⅳ-1 | 잔존높이 22.8cm | T51+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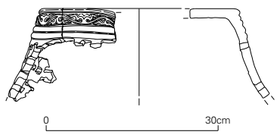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룬다.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음각하고 그 위로 화당초문을 양각하였다. 중간에는 연환문을 투각하였으며 음각으로 대나무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은 바깥으로 말려 외반하는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구웠다.



661 | 청자투각격자문돈 靑磁透刻格子文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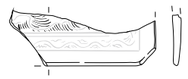
돈1 | Ⅵ-1 | 잔존높이 16.3cm | HㅅT1B+MA+BBS 출토

돈의 윗면 일부와 동체부의 편으로, 동체부 중간에는 격자문을 투각하고 상단에는 당초문을 양각하였다. 윗면은 편평하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양을 음각하였다.



자판은 두께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36〉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이 확인된다. '자판1'은 방형으로 일부 자판은 모서리를 사선으로 오려내기도 하였다. 두께는 1.0cm 미만으로 얇은 편이다. 상감으로 나한羅漢, 파도 등을 시문하였다. '자판2'는 방형이며 두께는 1.0~2.0cm 내외이다. 음각으로 연화문을 장식하거나, 상감으로 연화문 또는 쌍어문 등을 장식한 예가 있다. '자판3'은 방형이며 두께는 2.1cm 이상이다. 음각으로 화문을 장식하거나, 상감으로 연화문 또는 운학문을 시문한 예가 있다.

〈표36〉 자판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자판 1		Ⅰ-1	백색내화토빛음	상감	나한문	2	46 (30.46)
		Ⅵ-1	미상	상감	죽문, 파도문 등	44	
	방형으로, 일부 자판은 모서리를 사선으로 오려내었다. 두께는 1.0cm 미만으로 얇은 편이다. 상감으로 나한, 파도 등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자판 2		Ⅱ-2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상감 등	연화문, 쌍어문 등	22	81 (53.65)
		Ⅵ-2	미상	음각, 상감 등	연화문, 쌍어문 등	59	
	방형으로, 두께는 1.0~2.0cm 내외이다. 음각으로 연화문을 장식하거나, 상감으로 연화문 또는 쌍어문 등을 장식한 예가 있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자판 3		Ⅱ-3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상감	화문, 연화문 등	2	24 (15.89)
		Ⅵ-3	미상	음각, 상감	화문, 운학문 등	22	
	방형으로, 두께는 2.1cm 이상이다. 음각으로 화문을 장식하거나, 상감으로 연화문 또는 운학문을 시문한 예가 있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출토 현황	1지점	7	2지점	7	3지점	137	151	100%

662 | 청자상감나한문자판 青磁象嵌羅漢文磁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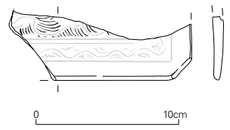
자판1 | Ⅰ-1 | 최대길이 14.3cm(右) | BABMㅌ 출토

방형으로, 두께는 0.8cm 정도로 얇은 편이다. 윗면에는 나한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상감하였다. 바닥면의 가장자리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63 | 청자상감파도문자판 青磁象嵌波濤文磁板

자판1 | Ⅵ-1 | 최대길이 12.8cm | BB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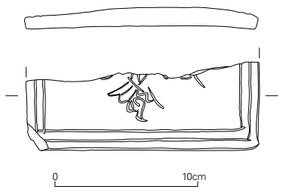
방형으로, 모서리는 사선으로 오려내었다. 두께는 0.8cm 정도로 얇은 편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당초문을 상감하고, 안쪽에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바닥면에는 시유하지 않았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64 | 청자음각화문자판 青磁陰刻花文磁板

자판2 | Ⅱ-2 | 최대길이 16.7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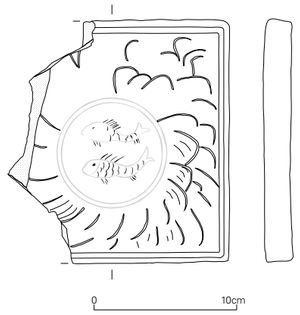
방형으로, 두께는 1.2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두르고, 안쪽에 화문을 음각하였다. 바닥면의 유약을 훑어내었으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65 | 청자상감쌍어문자판 青磁象嵌雙魚文磁板

자판2 | Ⅱ-2 | 세로길이 15.9cm | BABMㅌㅌ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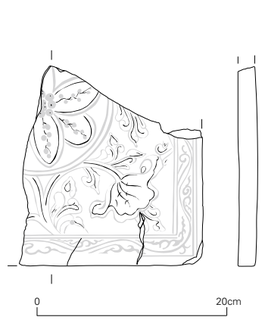
정방형이며, 두께는 1.8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중앙에는 원권문 안에 쌍어문을 상감하였으며, 그 주위로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바닥면의 가장자리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66 | 청자상감연화문자판 青磁象嵌蓮花文磁板

자판2 | Ⅱ-2 | 최대길이 25.6cm | BAW2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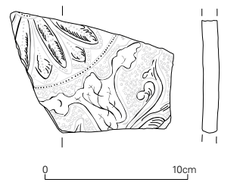
방형으로, 두께는 1.9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당초문대를 두르고, 안쪽에는 연화문을 상감하였다. 바닥면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가장자리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67 | 청자상감연화문자판 青磁象嵌蓮花文磁板

자판2 | Ⅵ-2 | 최대길이 13.4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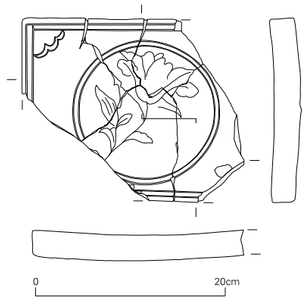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두께는 1.2cm 정도로 얇은 편이다. 윗면의 바탕면에는 연잎을, 중앙의 원권문 안에는 연꽃을 상감하였다. 연꽃잎의 세부는 다시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나타냈다. 바닥면의 유약을 닦아내었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68 | 청자음각화문자판 青磁陰刻花文磁板

자판3 | Ⅵ-3 | 최대길이 27.5cm | T51 출토

방형으로, 두께는 2.6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두르고, 중앙의 원권문 안에 화문을 음각하였다. 바닥면에는 사유하지 않았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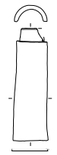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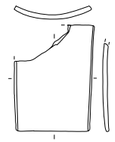
669 | 청자상감학문자판 青磁象嵌鶴文磁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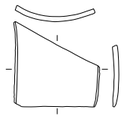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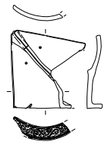
자판3 | Ⅵ-3 | 최대길이 18.2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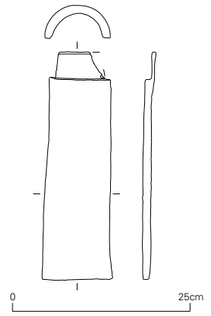
방형으로, 두께는 2.5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연화문대를 두르고, 안쪽에는 학문을 상감하였다. 중앙 부분에는 능화형의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면에는 시유하지 않았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과 규석이 확인되며, 쓰임새에 따라 크게 10가지로 구분하였다.〈표37〉 '기와1~3'은 수키와로, 미구라고 부르는 물림턱이 있는 유단식有段式과 미구가 없는 토시형의 무단식無段式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와2'는 미구 주변의 하단부가 화형을 이루며,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였다. '기와4~6'은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며, 오목한 면에 유약을 시유하였다. 일부 암키와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약을 시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용도상의 차이로 이해하여 용마루를 구성하는 적새로 추정하였다. '기와7~8'은 수키와와 막새를 직각에 가깝게 접합한 수막새로, 기와부의 형태에 따라 '一'자형과 'ㄱ'자형으로 나뉜다. 막새부는 원형을 이루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9~10'은 암키와와 막새부를 직각에 가깝게 접합한 장방형의 암막새이다. 막새부는 암키와의 모양을 따라 살짝 휘어진 직사각형이며,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표37〉 기와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기와 1		Ⅰ-1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3	58 (16.25)
		Ⅵ-1	미상	무문		55	
		미구라고 부르는 물림턱이 있는 유단식 수키와이다. 미구의 길이는 2.0~4.0cm 내외이다. 외면 상단부에 0.9cm 내외의 원형 투공이 있는 예가 보인다. 내면에 포목布目 흔적과 미구가 맞닿는 부분의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기와 2		Ⅵ-2	미상	음각	모란당초문, 연화문	48	48 (13.45)
		유단식 수키와로, 미구의 길이는 1.6cm 내외이다. 미구 주변의 하단부는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못자리로 보이는 투공이 있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내면에 깎기 · 물손질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 3		Ⅰ-3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4	5 (1.40)
		Ⅵ-3	미상	무문		1	
		'기와1'유형과 유사한 형태이나, 미구가 없는 토시형의 무단식 수키와이다. 내면에 포목 흔적과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기와 4		Ⅰ-4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7	112 (31.38)
		Ⅳ-4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Ⅵ-4	미상	무문		103	
		세로가 긴 장방형의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을 시유한 예가 많으며, 볼록한 면은 세로방향으로 깎아서 정면整面하고 물손질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기와 5		Ⅵ-5	미상	무문		30	30 (8.40)
		'기와4'유형과 유사한 형태지만 반대쪽인 볼록한 면을 시유하였다. 용마루를 구성하는 적새로 추정된다. 오목하게 휜 면에 포목 흔적과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측면에 번조한 흔적이 있으나 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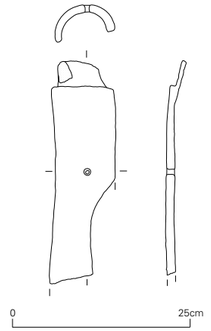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기와 6		Ⅵ-6	미상	무문		35	35 (9.80)
		‘기와4’유형의 암키와를 대각선으로 자른 형태로, 양쪽이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한 면은 시유하고, 볼록한 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와 7		Ⅵ-7	미상	압출양각	모란문	22	22 (6.16)
		수키와와 막새를 직각에 가깝게 접합한 ‘一’자형의 수막새이다. 막새부는 원형을 이루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의 윗면에 원형 투공이 있고,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 8		Ⅵ-8	미상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12	12 (3.36)
		수키와와 막새를 직각에 가깝게 접합한 ‘ㄱ’자형의 수막새이다. 막새부는 원형을 이루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는 윗면에 모란문을 음각하고, 내면에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와 9		Ⅵ-9	미상	압출양각	당초문	21	21 (5.88)
		암키와와 막새를 직각에 가깝게 접합한 장방형의 암막새이다. 막새부는 암키와의 모양을 따라 살짝 휘어진 직사각형이며,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는 외면에 시유하고, 내면에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 10		Ⅲ-10	규석	압출양각	당초문	3	5 (1.40)
		Ⅵ-10	미상	압출양각	당초문	2	
		‘기와9’유형과 유사한 형태지만 2개의 판을 대각선으로 이어 붙인 형태를 보인다. 판을 이어붙인 곳의 윗면은 뾰족하게 솟아 있으며, 양쪽에 지름 0.5cm 정도의 원형 투공이 있다. 전면을 시유하고, 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기타						9	9 (2.52)
출토 현황	1지점	206	2지점	110	3지점	41	357	100%



670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1 | Ⅰ-1 | 길이 32.0cm 폭 8.9cm 두께 1.2cm | C 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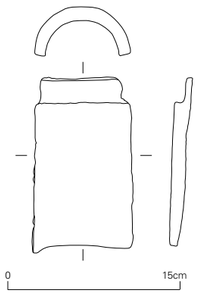
유단식 수키와이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미구가 맞닿는 부분의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71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1 | Ⅵ-1 | 잔존길이 30.8cm 폭 8.3cm 두께 1.1cm | C ㄷ 출토

유단식 수키와이다. 외면 상단부 중앙에 지름 0.9cm 크기의 투공이 있다. 내면에 포목 흔적이 남아있고, 미구가 맞닿는 부분은 시유되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72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1 | Ⅰ-1 | 길이 15.4cm 폭 8.4cm 두께 1.3cm | F 출토

유단식 수키와이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미구가 맞닿는 부분의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673 | 청자음각모란당초문기와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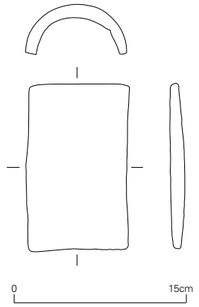
기와2 | Ⅵ-2 | 잔존길이 25.3cm 두께 0.8cm | F 출토

유단식 수키와이다. 미구 주변의 하단부는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못자리로 보이는 투공이 있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시유되지 않은 미구와 내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74 | 청자기와 青磁瓦

기와3 | Ⅵ-3 | 길이 14.2cm 폭 8.6cm 두께 1.3cm | Eㅌ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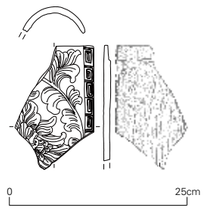
무단식 수키와이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75 | 청자음각모란당초문기와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

기타 | 잔존길이 17.7cm 두께 1.0cm | F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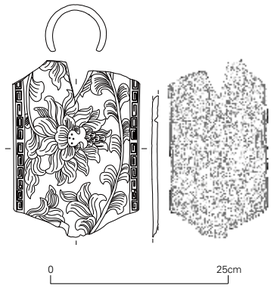
수키와로,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부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하단에 지름 0.4cm 크기의 원형 투공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 조정이 확인되며, 미구와 맞닿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낮은 단이 져 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76 | 청자음각모란당초문기와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

기타 | 잔존길이 24.8cm 폭 6.5cm 두께 1.0cm | SM 출토

수키와로, 한 쪽을 'V'자 형태로 오려내고, 하단부 양 쪽에 작은 투공을 내었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는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77 | 청자음각모란당초문기와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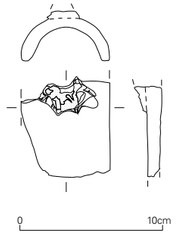
기타 | 잔존길이 18.2cm 두께 7.6cm | T7ㅈ 출토

수키와로, 한 쪽 끝을 둥글게 다듬고, 하단부는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못자리로 보이는 투공이 있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78 | 청자기와 青磁瓦

기타 | 잔존길이 9.7cm 두께 1.3cm | BABMㅌ1 출토

수키와로, 외면의 상단부에 오리 또는 원앙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발이 남아있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79 | 청자음각모란당초문'일촌오분'명기와 靑磁陰刻牡丹唐草文一寸五分銘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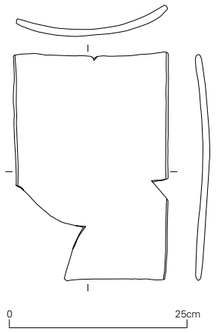
기타 | 잔존길이 22.4cm 두께 0.9cm | A 출토

수키와로, 하단부는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못자리로 보이는 투공이 있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되며, '一寸五分'자를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80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4 | Ⅵ-5 | 길이 32.0cm 폭 21.2cm 두께 1.0cm | 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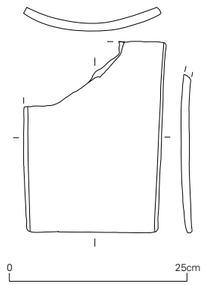
세로가 긴 장방형의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시유하고, 볼록한 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측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한 흔적이 있으나 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1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4 | Ⅵ-4 | 길이 26.5cm 폭 19.1cm 두께 1.1cm | 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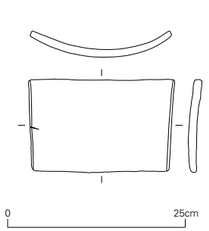
세로가 긴 장방형의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사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은 세로방향으로 깎아서 정면整面하고 물손질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2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4 | Ⅵ-4 | 길이 13.0cm 폭 19.8cm 두께 1.2cm | 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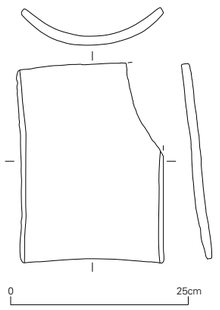
장방형의 암키와로, 길이가 짧고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시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에는 어골문을 타날한 후 깎기 및 물손질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3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5 | Ⅵ-5 | 길이 27.3cm 폭 19.8cm 두께 1.5cm | T6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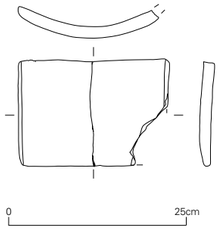
세로가 긴 장방형의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아래로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볼록한 면은 시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은 세로방향으로 깎아서 정면하고 물손질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4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5 | Ⅵ-5 | 길이 14.7cm 폭 20.7cm 두께 1.8cm | C㉡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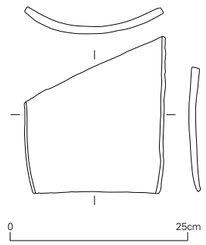
장방형의 기와로, 시유면의 방향으로 보아 용마루를 구성하는 적새로 추정된다. 볼록한 면은 시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에는 포목 흔적과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측면에 번조한 흔적이 있으나 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85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6 | Ⅵ-6 | 길이 21.6cm 폭 19.5cm 두께 1.2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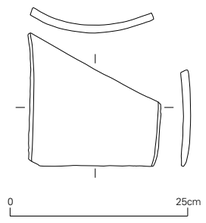
장방형의 암키와를 대각선으로 자른 형태이며,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시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에는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측면에 번조한 흔적이 있으나 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86 | 청자기와 靑磁瓦

기와6 | Ⅵ-6 | 길이 19.7cm 폭 18.5cm 두께 1.2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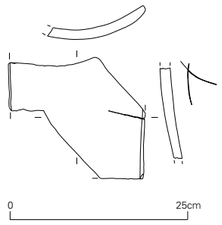
장방형의 암키와를 대각선으로 자른 형태이며,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시유하고, 시유되지 않은 면에는 어골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7 | 청자기와 靑磁瓦

기타 | 잔존길이 17.6cm 두께 1.4cm | 8A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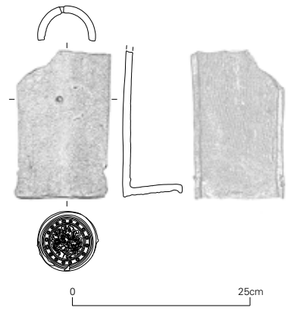
장방형의 암키와로, 양쪽 가장자리가 중심보다 치켜 올라가 완만하게 휜 모습이다. 오목하게 휜 면은 시유하고, 내면에는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되며, '十'자를 음각하였다. 측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한 흔적이 있으나 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8 | 청자압출양각모란문막새 靑磁壓出陽刻牡丹文瓦當

기와7 | Ⅵ-7 | 잔존길이 20.6cm 폭 7.9cm 두께 1.0cm | C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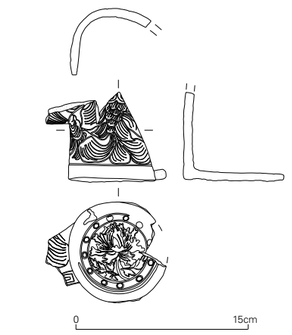
'ㅡ'자형의 수막새로, 막새부와 기와부의 접합각도는 직각에 가까우며 이음새를 보강한 흔적이 있다. 막새부는 원형이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에 지름 0.6cm 정도의 투공이 있고,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689 | 청자압출양각모란문막새 靑磁壓出陽刻牡丹文瓦當

기와8 | Ⅵ-8 | 잔존길이 7.7cm 폭 8.5cm 두께 0.9cm | 中W4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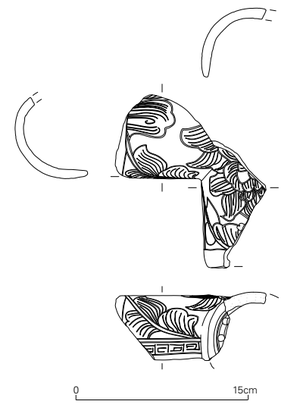
'ㄱ'자형의 수막새로, 막새부와 기와부의 접합각도는 직각에 가깝다. 막새부는 원형을 이루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에 모란문을 넓게 음각하고, 내면에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90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막새 靑磁陰刻牡丹唐草文瓦當

기와8 | Ⅵ-8 | 잔존길이 16.4cm 폭 13.1cm 두께 0.9cm | H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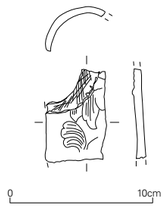
'ㄱ'자형의 수막새로, 막새부와 기와부의 접합각도는 직각에 가깝다. 막새부는 대부분 결실되어 압출양각된 연주문만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와부에는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였다. 내면에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91 | 청자음각모란당초문막새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當

기타 | 잔존길이 9.2cm 두께 0.9cm | T3右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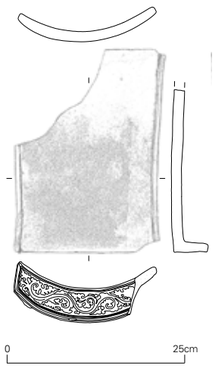
'ㄱ'자형의 수막새로 추정된다. 막새부는 완전히 결실되고, 측면의 한쪽이 원형으로 깎여 있으며 그 위로 접합흔적이 남아있다. 기와부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하고, 측면에는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내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92 | 청자압출양각당초문막새 青磁壓出陽刻唐草文瓦當

기와9 | Ⅵ-9 | 길이 28.4cm 폭 19.4cm 두께 1.5cm | E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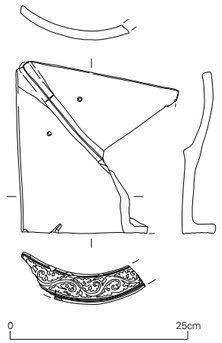
장방형의 암막새로, 막새부와 기와부의 접합각도는 직각에 가깝다. 막새부는 암키와 모양을 따라 완만하게 휘어진 직사각형 모양이며,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기와부는 외면에 시유하고, 내면에 깎기 및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693 | 청자압출양각당초문막새 青磁壓出陽刻唐草文瓦當

기와10 | Ⅲ-10 | 길이 24.0cm 폭 23.5cm 두께 1.3cm | C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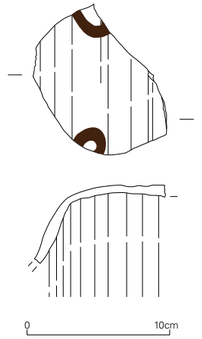
'기와9'유형과 유사한 형태지만 막새부의 길이가 길고, 2개의 판을 대각선으로 이어 붙인 형태를 보인다. 판을 이어붙인 곳의 윗면은 뾰족하게 솟아 있으며, 양쪽에 지름 0.5cm 정도의 원형 투공이 있다. 전면을 시유하고, 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694 | 청자철화문장고 青磁鐵畫文杖鼓

기타 | 잔존높이 11.1cm | A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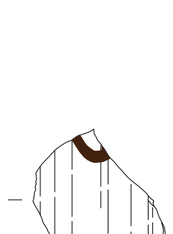
장고의 울림통 부분으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졌다가 꺾여 직선을 이룬다. 외면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양을 철화 장식하였다.



695 | 청자철채상감모란문장고 青磁鐵彩象嵌牡丹文杖鼓

기타 | 잔존높이 8.1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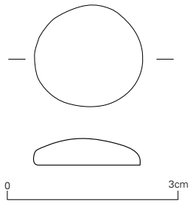
장고의 울림통 부분으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살짝 꺾였으며 내면은 곡선을 이룬다. 모란문을 상감한 뒤에 바탕면을 철채 장식하였다.



696 | 청자기석 青磁棋石

기타 | 높이 0.5cm 저경 1.7cm(左) | G2, 담속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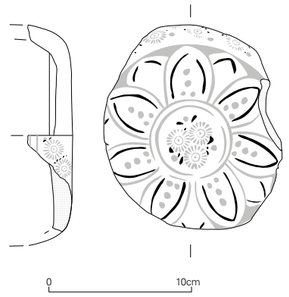
청자 바둑돌로, 가운데의 바둑돌은 철채 장식하였다. 바닥면의 유약을 닦아내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697 | 청자상감국화문장군 靑磁象嵌菊花文獐本

기타 | 최대길이 13.4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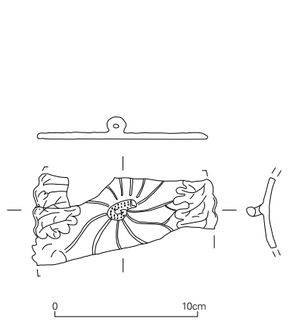
장군[獐本]의 마구리 부분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두드려서 편평하게 만들고, 내면에는 물레흔과 눌러 다진 흔적이 있다. 문양은 외면에는 국화문이 들어있는 화문을 상감하고, 동체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698 | 청자하엽형장식 靑磁荷葉形裝飾

기타 | 최대길이 13.6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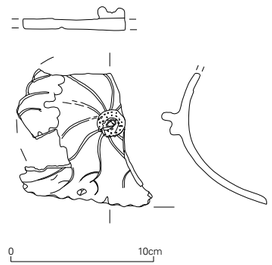
연잎 모양의 장식품으로 용도는 미상이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는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연잎과 잎맥을 표현하였다. 중앙에는 줄기형태의 꼭지가 달려있으며,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699 | 청자하엽형장식 靑磁荷葉形裝飾

기타 | 최대길이 12.3cm | T4+B 출토

연잎 모양의 장식품으로 용도는 미상이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는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연잎과 잎맥을 표현하였다. 줄기형태의 꼭지가 달려있으며, 측면에 작은 투공이 있다.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700 | 청자하엽형장식 靑磁荷葉形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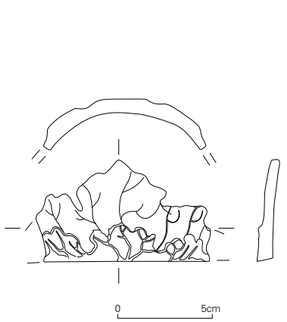
기타 | 최대길이 8.5cm | W7B 출토

연잎 모양의 장식품으로 용도는 미상이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외면에는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701 | 청자하엽형장식 靑磁荷葉形裝飾

기타 | 높이 5.2cm 최대길이 9.6cm | T6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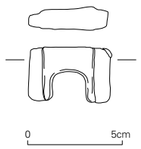
연잎 모양의 장식품으로 용도는 미상이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는 압출양각과 음각으로 연잎과 잎맥을 표현하였다.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702 | 청자이형기 靑磁異形器

기타 | 높이 2.9cm | Hㅂ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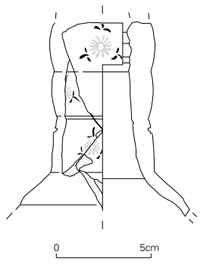
용도 미상으로, 바깥쪽 기측선이 'ㄴ'형에 가깝고, 안쪽은 곡선의 'U'자형을 보인다. 양쪽 가장자리는 얇게 단을 이룬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으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703 | 청자상감국화문이형기 青磁象嵌菊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4.4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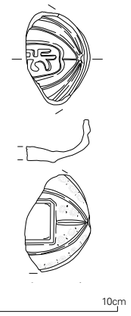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원통형의 부분을 삼단으로 나누고 국화문을 교차하여 상감하였다. 아래쪽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꺾여 벌어진다.



704 | 청자상감국화문이형기 青磁象嵌菊花文異形器

기타 | 높이 4.3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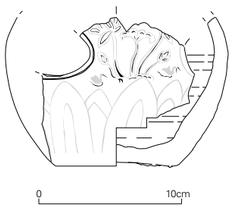
과형의 접시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다. 안쪽은 틀을 이용하여 문자로 보이는 문양과 과형의 형태를 나타냈다. 바깥쪽은 뇌문과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방형의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을 얕게 깎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05 | 청자상감연화문이형기 青磁象嵌蓮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4.9cm 저경 11.9cm | BABMㅌ+BABMㅌㅇ+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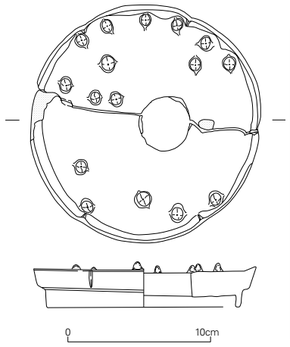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는 호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다. 동체부 중간에 커다란 투공이 있고 투공 사이에는 연화문을 나타내었으며, 동체부 하단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06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높이 2.7cm 구경 15.2cm 저경 13.5cm | T4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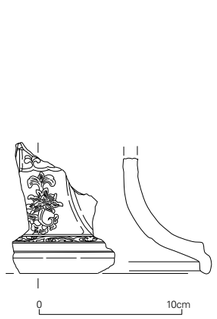
상형장식을 조합한 향로의 뚜껑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다. 윗면에 연밥모양의 장식을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중앙에서 약간 치우친 부분에 투공이 있다. 화형의 가장자리는 살짝 솟아있다.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07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이형기 青磁壓出陽刻蓮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3.0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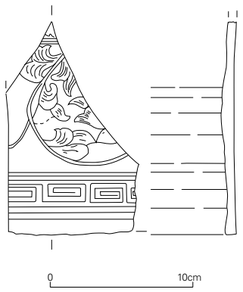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단을 이루고 안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수직으로 올라간다. 외면에는 연화문과 당초문을 압출양각하고, 등간격으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내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08 | 청자음각모란당초문이형기 青磁陰刻牡丹唐草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5.1cm | Gㅌ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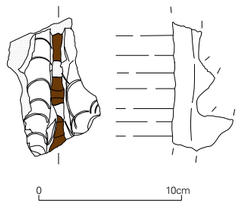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면은 물레를 이용하여 성형하고 유약을 훑어내었으며, 측면은 반듯하게 절단하여 시유하였다. 외면에는 모란당초문과 뇌문을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09 | 청자상형장식 青磁象形裝飾

기타 | 잔존높이 4.5cm 최대길이 9.8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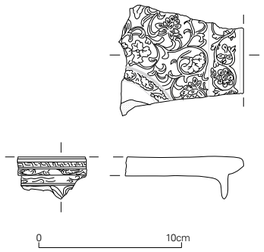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용의 일부로 추정된다. 외면은 비늘을 음각하여 표현하고 등지느러미 장식을 접합하였다. 등지느러미는 철채와 퇴화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내면에 물레흔이 있다.



710 | 청자음각연당초문장식판 青磁陰刻蓮唐草文裝飾板

기타 | 잔존높이 4.2cm 최대길이 14.8cm | T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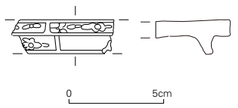
투각장식 위에 문양을 가득 채운 장식판이 올려진 형태이다. 윗면이 편평하고 옆면은 직선을 이룬다. 윗면의 가장자리와 중앙의 원권은 상감으로 구획하고, 가장자리에는 국당초문을, 원권의 바탕면에는 연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11 | 청자음각화문이형기 青磁陰刻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9cm 최대길이 6.2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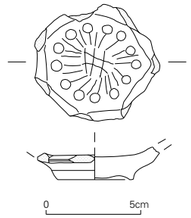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다각형의 단으로 이루어졌다. 각 옆면에는 화문을, 편평한 윗면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양을 음각하였다. 바닥면의 가운데에는 다른 부분과 접합한 흔적이 있다.



712 | 청자음각화문이형기 青磁陰刻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7cm 저경 4.2cm | SN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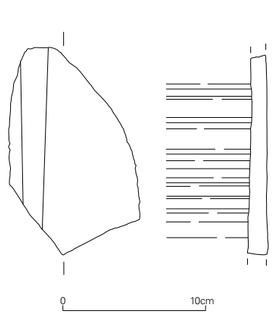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이 편평하며 팔각형을 이룬다. 내저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고 동체부는 투각으로 장식한 흔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13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최대길이 14.5cm | E ㅌ 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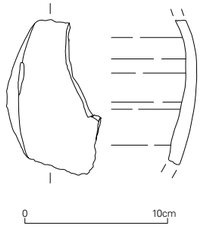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을 이루고 외면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여 각을 주었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은 평평하게 정리하였다.



714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최대길이 11.4cm | 74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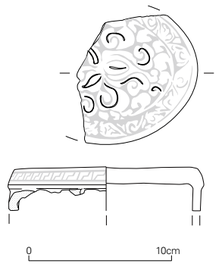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을 이루고 외면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여 각을 주었다. 내면에 일부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715 | 청자상감모란문이형기 青磁象嵌牡丹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3.0cm 최대길이 10.6cm | T2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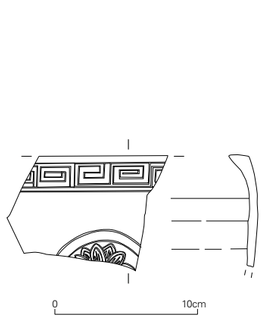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투각장식 위에 문양을 가득 채운 뚜껑을 올려놓은 듯한 형태이다. 편평한 윗면은 타원형을 이루며, 모란문과 당초문을 역상감하였다.



716 | 청자음각연화문이형기 青磁陰刻蓮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7.7cm | WHㅌ 출토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동체부 하단에는 뇌문을, 원권문 안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평평한 저부의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717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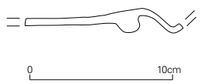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4.2cm 최대길이 16.0cm | SM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굽은 외반하는 다리굽이며, 굽 외면은 깊은 골을 내어 굽을 덧붙인 것처럼 보인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18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7cm 저경 16.6cm | T4B2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로, 동체부가 일그러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굽은 외반하는 다리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719 | 청자상형장식 青磁象形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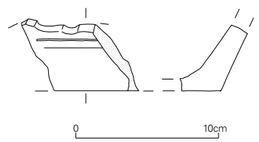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4.0cm | W8Bㅅ 출토

기종 미상이며, 식물의 잎을 형상화한 장식의 일부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매우 얇다. 아래쪽에는 시유하지 않았고 투공의 흔적이 있다.

720 | 청자투각이형기 青磁透刻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4.9cm | T2A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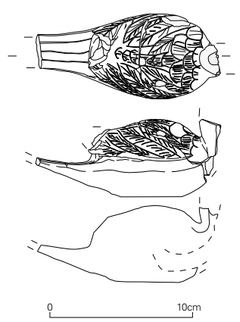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고, 윗면은 편평하고 유약을 훑어내었다. 동체부에는 능화형의 투공을 낸 흔적이 있다.



721 | 청자원앙형장식 青磁鴛鴦形裝飾

기타 | 잔존높이 5.3cm 잔존길이 12.8cm | 中W4B+T8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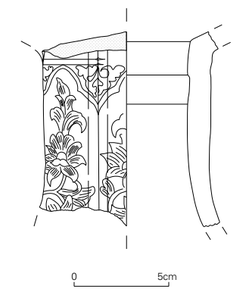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원앙모양의 상형장식으로 추정된다. 머리와 꼬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외면은 음각으로 깃털을 세밀하게 나타냈다. 바닥은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22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원통형기 青磁壓出陽刻蓮花文圓筒形器

기타 | 잔존높이 10.1cm | T7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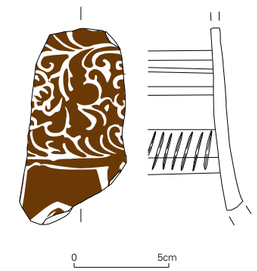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원통형의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고 각 면에 능화창 안에 든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내면에 상부와 접합한 흔적이 있다.



723 | 청자철채상감당초문원통형기 青磁鐵彩象嵌唐草文圓筒形器

기타 | 잔존높이 9.6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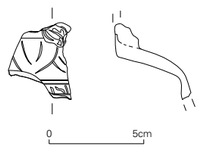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원통형의 외면에 당초문을 백상감하고 바탕면은 철채 장식한 뒤 청자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다.



724 | 청자음각연판문이형기 青磁陰刻蓮瓣文異形器

기타 | 최대길이 6.0cm | BBS 출토

기종 미상의 견부로 추정된다. 사선의 기측선이 두 번 꺾여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고, 그 위에 상형장식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내면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725 | 청자수면장식기 青磁獸面裝飾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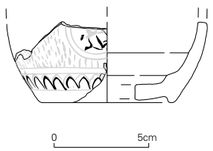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0.0cm | W4B 출토

기종 미상으로, 원통형의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의 바탕면에 당초문을 상감하고 괴면 장식을 접합하였다.

726 | 청자상감화문이형기 青磁象嵌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4.2cm | T2C+LMD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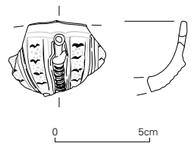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의 바탕면에는 간략화된 운문을, 원권 안에는 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27 | 청자상감국화문이형기 青磁象嵌菊花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4.5cm | MT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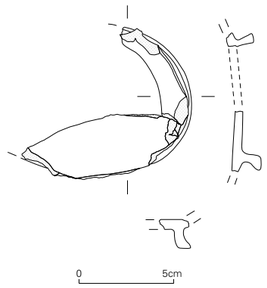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끝을 화형으로 오려내었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골을 내었고 각 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구연부 아래에 작은 투공을 낸 뒤 그 아래로 음각 거치문대를 접합하였다.



728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8cm 최대길이 9.6cm | G1+J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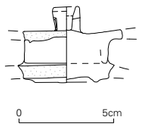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내저면은 타원형이고 편평하다. 굽은 바깥으로 외반하는 다리굽이며 접지면이 평평하다. 굽 외면에 음각으로 넓고 굵게 홈을 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29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4.1cm | Cㄷ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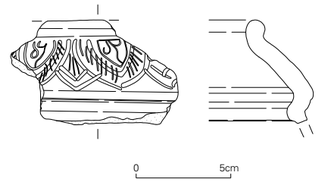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2개의 그릇을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하단에는 안굽을 갖춘 접시 형태의 그릇이 있고, 상단에는 'U'자형의 다리굽을 가진 그릇이 올려져 있다. 상단의 윗면에는 세 곳이 뚫려 있는 1.3cm 높이의 원통형 장식이 부착되었다.



730 | 청자음각연판문이형기 青磁陰刻蓮瓣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4.6cm 최대길이 9.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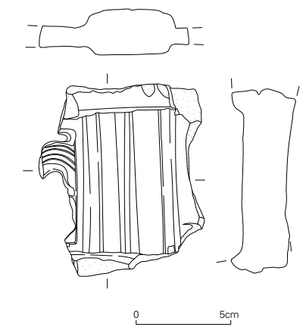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저부에 단이 있고 기측선은 사선을 이룬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외반하여 말려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731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0.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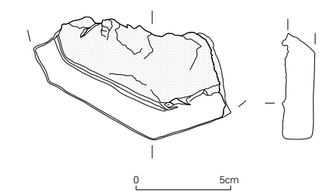
기종 미상으로, 두 개의 판을 접합하였다. 두 개의 판의 양 측면으로 투각장식이 확인된다.



732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9cm 최대길이 10.7cm | +Dㄷ1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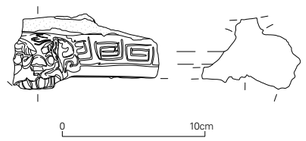
기종 미상이며 다각형의 단 위에 같은 형태이나 크기가 더 작은 장식을 접합했던 흔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33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5.9cm 최대길이 12.0cm | Cㄷ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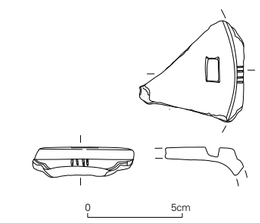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편으로, 다리부분의 귀면장식이 남아있으며 저부에는 뇌문을 음각하였다.



734 | 초벌이형기 初燔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2.1cm 최대길이 8.2cm | 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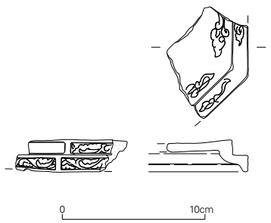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으로, 편평한 윗면에 무언가를 끼울 수 있는 장방형의 구멍이 있다. 하단 가장자리의 음각된 부분은 기대의 다리로 보인다.



735 | 초벌음각운문이형기 初燔陰刻雲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2.3cm 최대길이 7.9cm | 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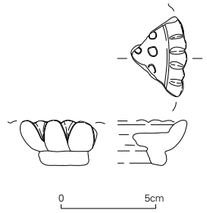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으로, 다각형의 단으로 이루어졌다. 측면 각각에는 당초문을, 편평한 윗면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736 | 초벌양각연판문이형기 初燔陽刻蓮瓣文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2.4cm | F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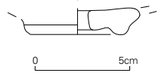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으로, 편평한 내저면에 연주문을 음각하고, 구연부와 외면은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737 | 초벌이형기 初燔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1.4cm 저경 5.0cm | GG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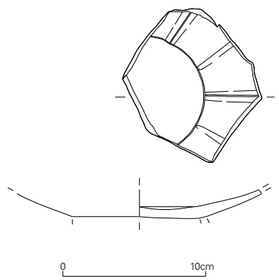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으로, 내저면이 편평하고 중앙에 투공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738 | 초벌이형기 初燔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2.1cm 최대길이 10.9cm | T4A1 출토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으로,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내 · 외면에 화판을 양각한 것으로 보인다.



초벌구이를 포함한 청자의 명문은 음각을 비롯하여 철화, 압인, 상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냈다.〈표38〉 이 가운데 상감으로 나타낸 '간지명干支銘'이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간지명은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임오壬午', '정해丁亥', '을미乙未'등 60간지 중 8개가 확인되며, '임신'과 '정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동일 층위에서 '정해'명과 원나라 순제順帝(재위 1333~1370년) 때의 연호인 '지정至正'명이 함께 출토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음각으로 나타낸 명문은 '상약국尙藥局'으로 추정되는 '상尙'자와 '성成', '균均'등이 있다. 철화로 나타낸 것은 '成'자가 있고, 압인으로 나타낸 '朮'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 외에도 굽 안바닥에 나타낸 '+', '○', '⊙', '◎'등의 음각부호도 상당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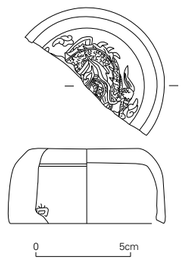
〈표38〉 명문 분류표

기법	己巳	庚午	壬申	癸酉	甲戌	壬午	丁亥	乙未	成	朮	부호	기타	합계
음각	0	0	0	0	0	0	0	0	3	0	160	31	194
철화	0	0	0	0	0	0	0	0	4	0	2	4	10
압인	0	0	2	0	0	0	0	0	0	35	0	0	37
상감	33	9	198	24	8	4	578	1	0	3	0	24	882
묵서	0	0	0	0	0	0	0	0	0	0	0	1	1
합계	33	9	200	24	8	4	578	1	7	38	162	60	1,124
출토현황	**己巳**	**庚午**	**壬申**	**癸酉**	**甲戌**	**壬午**	**丁亥**	**乙未**	**成**	**朮**	**부호**	**기타**	**합계**
1지점	3	0	4	1	1	0	14	0	0	0	19	18	60
2지점	0	1	8	0	0	0	1	0	1	5	12	5	33
3지점	30	8	188	23	7	4	563	1	6	33	131	37	1,031
합계	33	9	200	24	8	4	578	1	7	38	162	60	1,124

739 | 청자음각용문'상'명개 靑磁陰刻龍文尙銘蓋

개15 | Ⅰ-15 | 높이 3.9cm 저경 8.1cm | G트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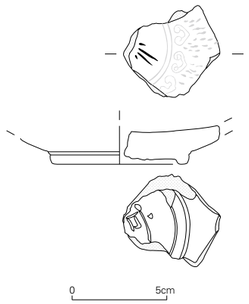
합의 뚜껑으로,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편평한 윗면에는 용문을 음각하고, 측면 하단에 '상약국尙藥局'으로 추정되는 '尙'자를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40 | 초벌상감운학문'관'명접시 初燔象嵌雲鶴文官銘楪匙

기타 | 잔존높이 2.1cm 최대길이 5.1cm | LMC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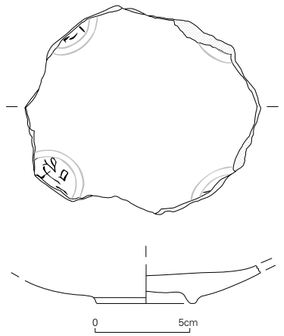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접시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 운학문을 상감하고, 굽 안바닥에 '官'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741 | 청자상감'어'명접시 靑磁象嵌語銘楪匙

기타 | 잔존높이 2.0cm 저경 5.2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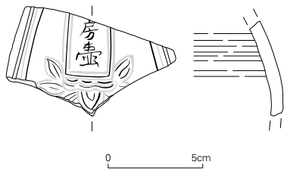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접시로, 내저면이 편평하다. 등간격으로 '語'를 비롯한 글자를 상감하였으나 대부분 결실되었다. 그릇의 유형과 잔존 글자의 양상으로 미루어보아 '漢語都監'자를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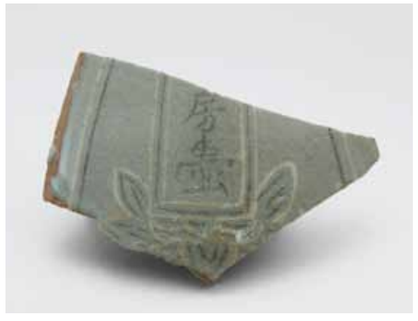


742 | 청자상감연화문'방호'명편 靑磁象嵌蓮花文房壺銘片

기타 | 잔존높이 6.4cm 최대길이 8.9cm | T2AB 출토

병이나 주자의 동체부로 추정된다. '房壺' 또는 '房壹'등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상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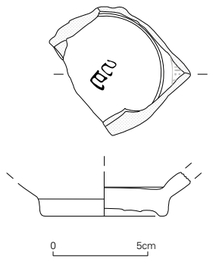




743 | 청자상감'기사'명발 靑磁象嵌己巳銘鉢

발16 | Ⅲ-7①-F-사 | 잔존높이 2.3cm 저경 6.2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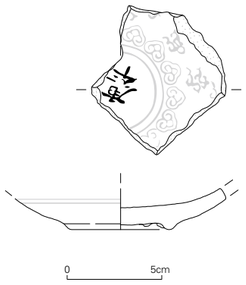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己巳'자를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44 | 청자상감운문'경오'명발 靑磁象嵌雲文庚午銘鉢

발15 | Ⅲ-6②-F-사㉮ | 잔존높이 2.4cm 최대길이 7.9cm | SN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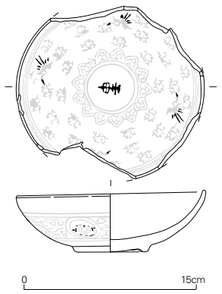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원각이 없으며 편평하다. 내면에 운문과 '庚午'자를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45 | 청자상감운학문'임신'명발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鉢

발15 | Ⅲ-6②-F-사㉮ | 높이 5.3cm 구경 16.3cm 저경 6.5cm | BC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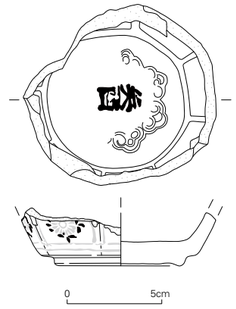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는 운학문과 '壬申'자를, 외면에는 국화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46 | 청자상감국화문'계유'명팔각접시 靑磁象嵌菊花文癸酉銘八角楪匙

접시47 | Ⅲ-16②-F-사㉮ | 잔존높이 3.1cm 저경 6.7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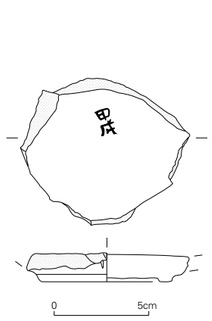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 여의두문을 압출양각하고 그 안에 '癸酉'자를 상감하였다. 외면은 팔각을 이루며,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47 | 청자상감'갑술'명화형접시 靑磁象嵌甲戌銘花形楪匙

접시56 | Ⅳ-18②-F-사 | 잔존높이 1.6cm 저경 7.0cm | SN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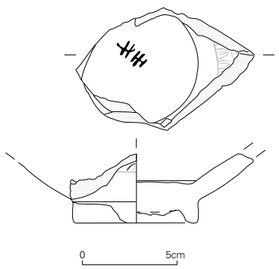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올라가고, 내면에 '甲戌'자를 상감하였다. 외면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48 | 청자상감'임오'명발 靑磁象嵌壬午銘鉢

발16 | Ⅳ-7①-F-사㉮ | 잔존높이 3.7cm 최대길이 9.4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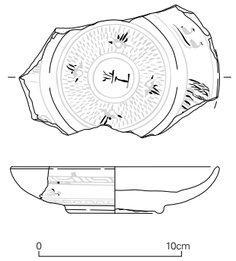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壬午'자와 연판문을, 외면에도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49 | 청자상감운학문'정해'명접시 青磁象嵌雲鶴文丁亥銘楪匙

접시32 | Ⅳ-11①-F-사㉮ | 높이 3.2cm 복원구경 cm, 저경 6.8cm | T2A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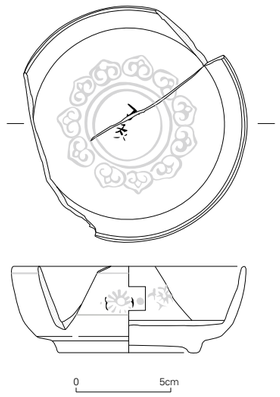
기측선은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른다. 내면에 '丁亥'자와 운학문,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고, 외면에는 국화문과 접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50 | 청자상감국화문'정해'명접시 青磁象嵌菊花文丁亥銘楪匙

접시43 | Ⅳ-16①-F-사㉮ | 높이 4.5cm 구경 11.7cm 저경 7.3cm | 3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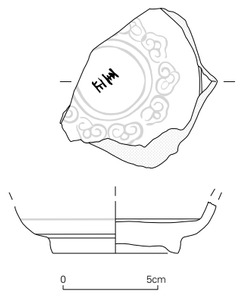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 '丁亥'자를 상감하고 그 주변에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51 | 청자상감여의두문'지정'명접시 青磁象嵌如意頭文至正銘楪匙

접시43 | Ⅳ-16①-F-사㉮ | 잔존높이 2.6cm 저경 6.6cm | 3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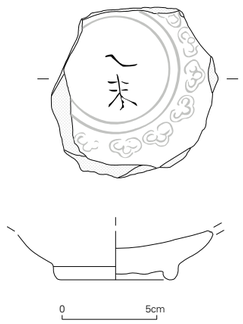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내면에 '至正'자를 상감하고 그 주변에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다리굽이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청자상감국화문'정해'명접시(750번)와 같은 층위에서 출토되었다.



752 | 초벌상감여의두문'을미'명발 初燔象嵌如意頭文乙未銘鉢

발15 | 잔존높이 2.6cm 저경 6.2cm | SLM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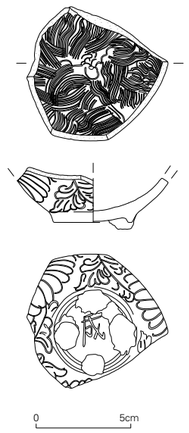
발의 초벌구이편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 '乙未'자를 상감하고 그 주변에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753 | 청자음각파도문'성'명잔 青磁陰刻波濤文成銘盞

잔5 | Ⅱ-1②-C-가㉰ | 잔존높이 3.6cm 저경 4.1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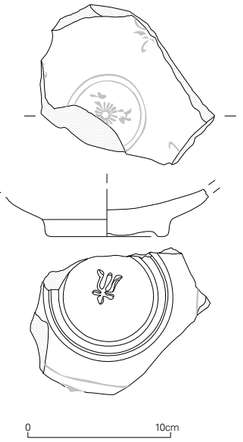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成'자를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54 | 청자상감여지문'목'명발 青磁象嵌荔枝文木銘鉢

발15 | Ⅲ-6②-F-사㉲ | 잔존높이 2.5cm 저경 6.2cm | LMD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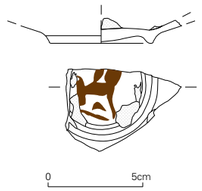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내면에 여지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木'자를 압인하였다.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55 | 청자철화'정'명발 青磁鐵畫正銘鉢

발2 | Ⅰ-1①-C-라 | 잔존높이 2.0cm 저경 5.0cm | 74작업장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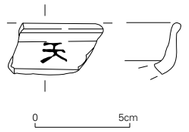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산화철 안료로 '正'자를 써넣었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56 | 청자상감'천'명접시 青磁象嵌天銘楪匙

기타 | 잔존높이 2.8cm | SLM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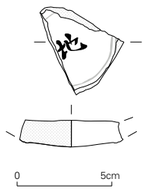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접시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외면에 '天'자를 상감하였다.



757 | 청자상감'지'명저부 青磁象嵌地銘底部

기타 | 잔존높이 1.5cm 최대길이 4.9cm | T1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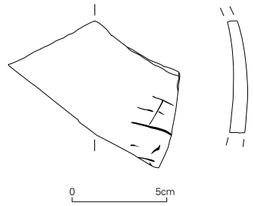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면에 '地'자를 상감하였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58 | 청자상감'왕'명동체부 青磁象嵌王銘胴體部

기타 | 최대길이 9.4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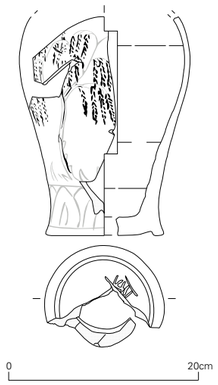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동체부로, 외면에 '王'자 등을 상감하였다.



759 | 청자상감양류문'김'명매병 青磁象嵌楊柳文金銘梅瓶

매병4 | Ⅵ-4 | 잔존높이 23.0cm 저경 12.5cm | T2AB+MABㅅ+MD+BANㅅ+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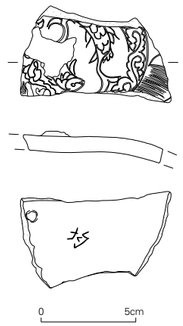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좁아들었다가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 견부에서 내경한다. 외면에 버드나무 문양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金'자를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760 | 청자음각쌍어문'균'명저부 青磁陰刻雙魚文均銘底部

기타 | 잔존높이 1.3cm 최대길이 8.1cm | T4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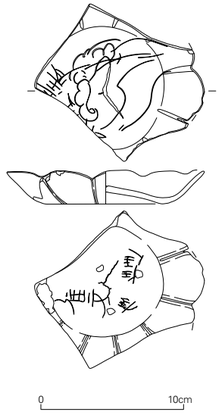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면에는 쌍어문을 음각하였다. 굽 안바닥에 '均'자를 음각하고,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61 | 청자음각'추문'명접시 青磁陰刻佳文銘楪匙

접시7 | Ⅲ-1②-H-가 | 잔존높이 2.4cm 저경 9.0cm | T1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내저면에서 꺾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은 등간격으로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과 바닥면에 '隹文' 등의 글자를 여러 방향으로 음각하였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62 | 청자상감죽문'조'명동체부 青磁象嵌竹文彫銘胴體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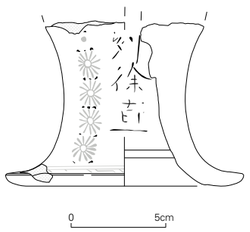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0.3cm 최대길이 11.0cm | SM1 출토

기종 미상의 동체부로, 외면에 죽문의 양쪽으로 '彫'자 등을 상감하였다.

763 | 청자상감국화문'별서직'명저부 青磁象嵌菊花文別徐直銘底部

기타 | 잔존높이 8.8cm 저경 12.3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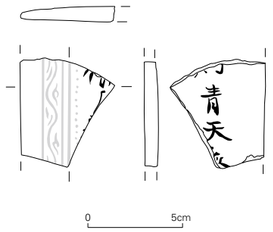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저부에 국화문을 세로로 상감하고, 그 옆에 '別徐直'자를 상감하였다. 굽은 외반하고, 굽 안쪽과 접지면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764 | 청자상감죽문'청천'명자판 青磁象嵌竹文青天銘磁板

기타 | 최대길이 6.1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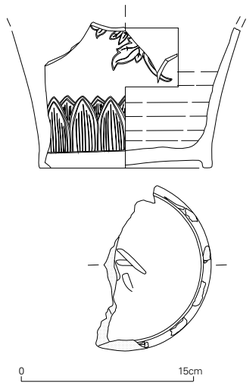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자판으로, 두께는 0.8cm 정도로 얇은 편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당초문을 상감하고, 안쪽에 죽문을 시문하였다. 바닥면에는 시유하지 않고 '靑天'자를 묵서墨書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765 | 청자음각화문'인'명매병 青磁陰刻花文仁銘梅甁

매병2 | Ⅰ-2 | 잔존높이 12.7cm, 저경 14.6cm | T7+Dㄷ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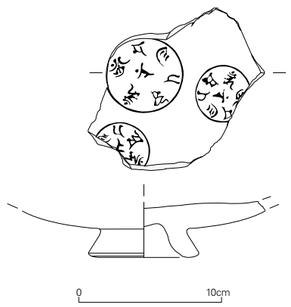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매병으로, 외면에 화문과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굽 안바닥에 '仁'자로 추정되는 글자를 음각하였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66 | 청자상감범어문저부 青磁象嵌梵語文底部

기타 | 잔존높이 4.2cm 저경 7.8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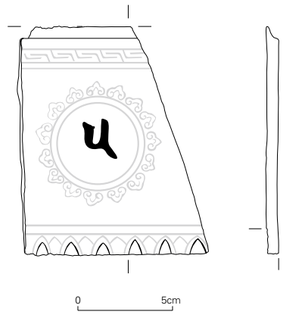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저면이 편평하며 원권 안에 범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선을 이루며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으로,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67 | 청자상감범어문동체부 靑磁象嵌梵語文胴體部

기타 | 높이 11.9cm | T2A 출토

기종 미상의 동체부로, 두께는 0.7cm 정도로 얇은 편이다. 동체부 상단에 뚜껑 등을 올릴 수 있는 단이 있고, 내면 가장자리에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외면 중앙의 원권 안에 범어문을 상감하였다.



768 | 청자음각명문저부 靑磁陰刻銘文底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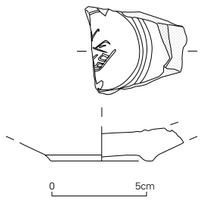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6cm 최대길이 8.5cm | 담밖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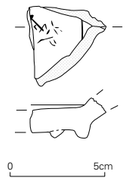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저부로, 굽 안바닥에 글자를 음각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769 | 청자음각명문저부 靑磁陰刻銘文底部

기타 | 잔존높이 1.8cm 최대길이 6.0cm | SSB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글자를 음각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70 | 청자상감명문저부 靑磁象嵌銘文底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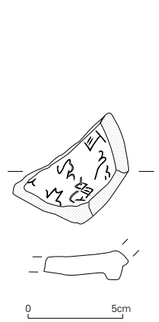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2.1cm 최대길이 4.6cm | SM1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로,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글자를 상감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71 | 초벌음각명문저부 初燔陰刻銘文底部

기타 | 잔존높이 1.4cm 최대길이 6.5cm | LMC2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 초벌구이편으로, 내저면에 글자를 음각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2) 백자白磁

백자는 21점이 출토되어 수량이 매우 적고 잔존상태도 좋지 않다. 기종은 정확한 종류를 알 수 없는 것까지 총 8개가 있다.〈표39〉 불좌상 · 접시 · 개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소량의 발 · 완 · 잔 · 기석棋石 등도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백색내화토빚음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번조받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형은 청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태토가 정제되고 기벽이 얇은 특징을 보인다. 시문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이 있는데, 양각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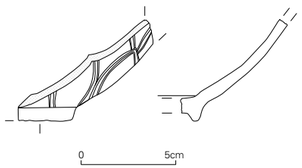
〈표39〉 백자 기종별 출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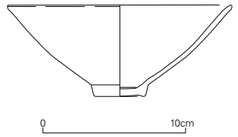
구분	번조받침			시문기법				합계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미상	무문	음각	양각	압출양각	
발	1					1		1
완	2			1			1	2
잔	2			2				2
접시		1	3	1	1	2		4
개		1	3			4		4
불좌상			5	5				5
기석			1	1				1
기타			2	1	1			2
합계	5	2	14	11	2	7	1	21

772 | 백자양각연판문발 白磁陽刻蓮瓣文鉢

발5 | Ⅰ-2①-B-⑭ | 잔존높이 5.2cm | SM1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3 | 백자완 白磁碗

완16 | Ⅰ-6①-C | 높이 6.4cm 저경 3.5cm | E트1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았고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4 | 백자압출양각연화문완 白磁壓出陽刻蓮花文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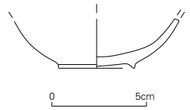
완15 | Ⅰ-6①-C-다 | 높이 4.6cm 저경 3.2cm | WHE+CE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5 | 백자잔 白磁盞

잔4 | Ⅰ-1②-C | 잔존높이 2.7cm 저경 4.0cm | H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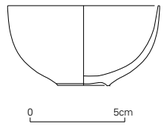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원각은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6 | 백자잔 白磁盞

잔4 | Ⅰ-1②-C | 높이 4.2cm 저경 2.8cm / C트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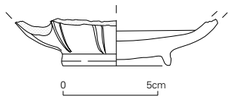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7 | 백자양각연판문접시 白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1 | Ⅰ-8①-C-㉮ | 잔존높이 2.5cm 저경 5.6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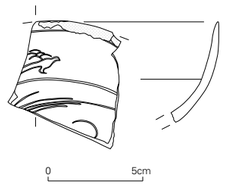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은 넓고 편평하고,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778 | 백자음각앵무문접시 白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Ⅰ-8①-C-가 | 최대길이 8.3cm | T7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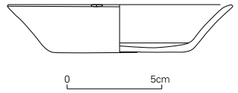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결실되었다.



779 | 백자접시 白磁楪匙

접시36 | Ⅲ-13①-H | 높이 2.8cm 저경 7.2cm | T6+T6B+F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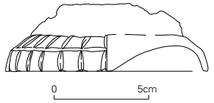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화형의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780 | 백자화형개 白磁花形蓋

개16 | Ⅲ-16 | 높이 3.6cm | E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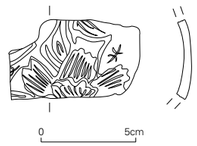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등간격으로 세로골을 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781 | 백자음각모란문병 白磁陰刻牡丹文甁

기타 | 최대길이 7.7cm | T6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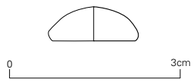
형식 미상 병의 동체부로 추정되며, 외면에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782 | 백자기석 白磁棋石

기타 | 높이 0.6cm 저경 1.6cm | T8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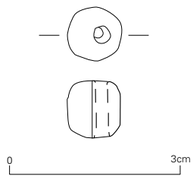
백자 바둑돌로, 외면에 투명한 유약을 입히고, 바닥면의 유약은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783 | 백자관형장식 白磁管形裝飾

기타 | 높이 0.9cm 최대지름 0.8cm | 6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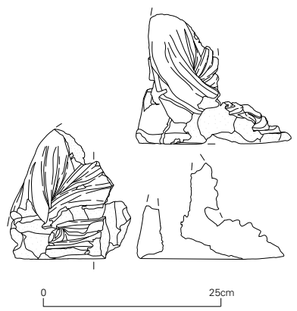
형태는 원통형이고, 상 · 하부를 관통하는 투공이 있다. 번조받침은 남아 있지 않다.



784 | 백자불좌상 白磁佛坐像

기타 | 잔존높이 18.1cm | T2A1 출토

나한상으로 추정되는 백자 불좌상으로, 외면에 백유를 시유하였다. 바닥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3) 흑자黑磁

흑자는 전체 출토 유물 가운데 0.7%에 가까운 127점이 확인된다. 기종은 정확한 종류를 알 수 없는 것까지 총 13개가 있다.〈표40〉 매병 · 호 · 장고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소량의 발 · 병 · 편호 등도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과 모래내화토빚음, 모래가 있으며, 이 가운데 모래 받침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번조받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형은 청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매병과 장고 등 특수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무문이며, 일부 음각 또는 양각기법으로 장식한 경우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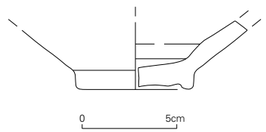
〈표40〉 흑자 기종별 출토 현황

구분	번조받침					시문기법			합계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미상	무문	음각	양각	
발				2		2			2
완		1	2	13	3	18	1		19
잔				4	5	9			9
접시				7		7			7
매병	3			20	10	29	4		33
병				1	3	3		1	4
호					22	15	7		22
편호					1		1		1
발우				4		4			4
개					5	5			5
기대		1			8	8		1	9
장고					11	10	1		11
기타					1	1			1
합계	3	2	2	51	69	111	14	2	127

785 | 흑자발 黑磁鉢

발16 | Ⅳ-7①-F | 잔존높이 3.6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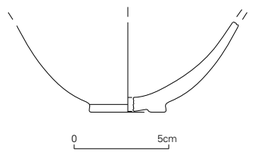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넓적한 'U'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86 | 흑자완 黑磁碗

완1 | Ⅰ-1①-A | 잔존높이 4.8cm 저경 4.1cm | SM2 출토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크기의 원각이 있다. 동체부 하단과 굽은 시유하지 않았다. 굽은 접지면이 넓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787 | 흑자완 黑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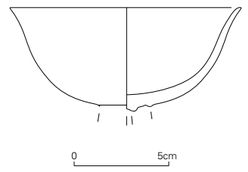
완17 | Ⅳ-6①-F | 높이 8.0cm 저경 5.2cm | MC+SA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넓적한 'U'자형의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88 | 흑자잔 黑磁盞

잔8 | Ⅵ-3②-I | 잔존높이 6.0cm | T4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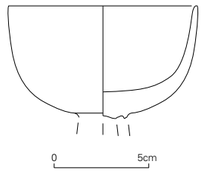
고족배의 잔 부분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바닥면에 굽을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789 | 흑자잔 黑磁盞

잔8 | Ⅵ-3②-I | 잔존높이 5.4cm | T5ㅅ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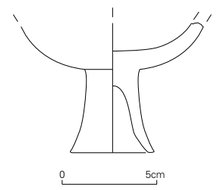
고족배의 잔 부분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바닥면에 굽을 접합하였던 흔적이 있다.



790 | 흑자잔 黑磁盞

잔8 | Ⅳ-3②-I | 잔존높이 6.7cm 저경 4.3cm | SLM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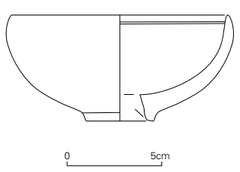
고족배의 저부로, 기측선이 둥글게 꺾여 올라가고 굽은 밖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91 | 흑자잔 黑磁盞

잔10 | Ⅳ-5②-F | 높이 5.6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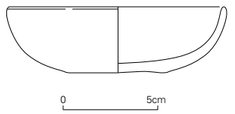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92 | 흑자접시 黑磁楪匙

접시25 | Ⅳ-8②-H | 높이 3.7cm 저경 5.2cm | 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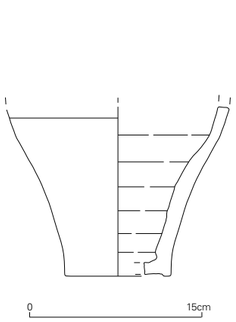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이 편평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93 | 흑자매병 黑磁梅甁

매병2 | Ⅵ-2 | 잔존높이 14.8cm | SLMA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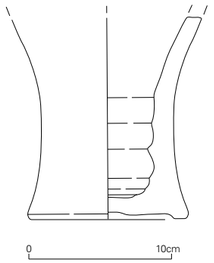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진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과 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794 | 흑자매병 黑磁梅甁

매병2 | Ⅳ-4 | 잔존높이 14.2cm 저경 11.0cm | SLMA1+BABMㄷ 출토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95 | 흑자매병 黑磁梅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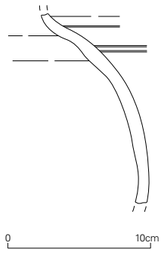
기타 | 최대길이 15.4cm | T4B1 출토

매병의 견부로 추정되며, 기측선은 곡선을 이룬다.

796 | 흑자음각선문매병 黑磁陰刻線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15.5cm | IT3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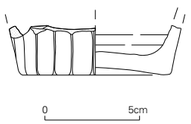
매병의 견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상단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797 | 흑자양각선문병 黑磁陽刻線文甁

기타 | 잔존높이 2.7cm 저경 7.8cm | 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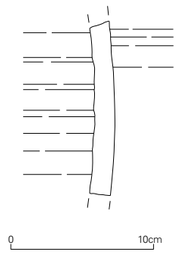
병의 저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외면을 세로로 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798 | 흑자호 黑磁壺

기타 | 최대길이 21.6cm | T5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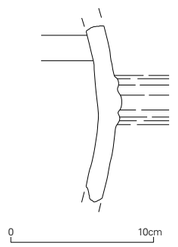
호의 동체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룬다.



799 | 흑자호 黑磁壺

기타 | 최대길이 13.4cm | BAW3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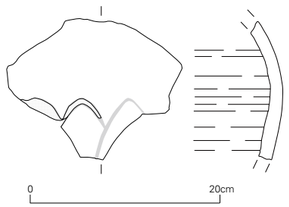
호의 동체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중간에 돌대가 있다. 내면에 내박자흔이 있다.



800 | 흑자상감연판문호 黑磁象嵌蓮瓣文壺

기타 | 최대길이 17.7cm | BC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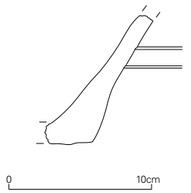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하단에 연판문을 백상감하였다.



801 | 흑자호 黑磁壺

기타 | 잔존높이 7.5cm | BBS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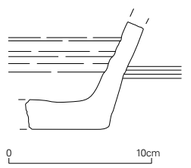
호의 저부로 추정되며,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룬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802 | 흑자음각선문호 黑磁陰刻線文壺

기타 | 잔존높이 9.5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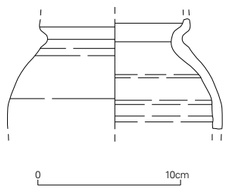
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외면에 두 줄의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803 | 흑자음각선문편호 黑磁陰刻線文扁壺

기타 | 최대길이 12.2cm | BABMㅈ+BABM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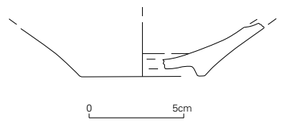
편호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가파른 곡선으로 좁아들며 짧은 목에 이르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였다.



804 | 흑자발우 黑磁鉢盂

기타 | 잔존높이 3.0cm 저경 6.4cm | T1B1+SLM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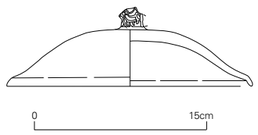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05 | 흑자개 黑磁蓋

개9 | Ⅵ-9 | 높이 7.1cm | MD+ME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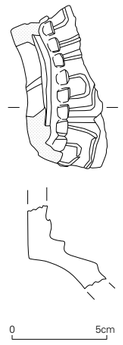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 중앙에 봉황 형태의 꼭지가 달려있다. 내면의 가장자리에는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806 | 흑자기대 黑磁器臺

기대2 | Ⅵ-2 | 최대길이 9.9cm | WH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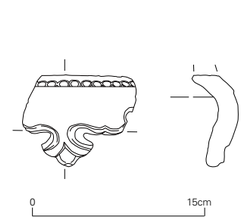
저부에서 상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연판문을 양각하고 연주문을 접합하였다. 상단에는 투각장식을 하고, 내면에도 시유하였다.



807 | 흑자기대 黑磁器臺

기타 | 잔존높이 8.0cm | SM2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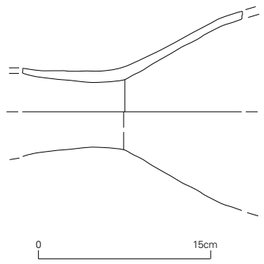
기대의 저부로 추정되며, 기측선이 곡선을 이룬다. 전면에 흑유를 시유하였으나 유약의 용융熔融 상태가 좋지 않다.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08 | 흑자장고 黑磁杖鼓

기타 | 최대길이 20.5cm | MC+LMB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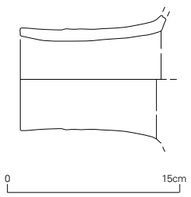
원통형의 조롱목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울림통으로 이어진다. 조롱목의 가장자리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내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다.



809 | 흑자장고 黑磁杖鼓

기타 | 최대길이 14.7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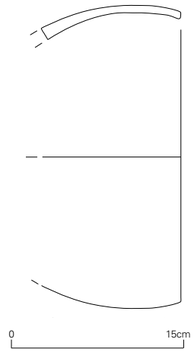
조롱목은 직선을 이루다가 꺾여 벌어지며 울림통으로 이어진다. 조롱목의 가장자리는 시유하지 않고 평평하게 다듬었다. 내면에도 다듬은 흔적이 있다.



810 | 흑자장고 黑磁杖鼓

기타 | 최대길이 18.1cm | T1B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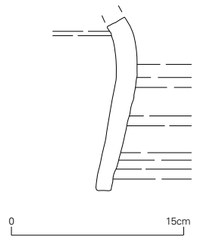
장고의 울림통이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의 끝은 평평하게 다듬었다. 내면은 가장자리로부터 3.0cm 정도까지 시유하였다.



811 | 흑자이형기 黑磁異形器

기타 | 최대길이 15.7cm | SM2 출토

기종 미상의 저부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저부의 유약을 닦아내고 접지면 끝을 평평하게 다듬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철채鐵彩 청자

철채 청자는 문양의 바탕에 산화철 안료를 칠하고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 전체 출토 유물이 총 12점으로 수량이 매우 적다. 기종은 병, 호, 화분, 장고 등 총 4개가 있다.〈표41〉 호와 장고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문기법은 대부분 상감이며, 일부 양각 또는 퇴화기법으로 장식한 경우도 있다. 철채 청자는 청자의 분류에 속하나 유색과 문양 표현 방식이 독특하여 흑자 다음으로 구분하여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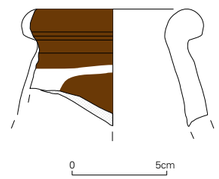
〈표41〉 철채청자 기종별 출토 현황

구분	번조받침	시문기법			합계
	미상	양각	상감	퇴화	
병	1		1		1
호	5		5		5
화분	1	1			1
장고	5		4	1	5
합계	12	1	10	1	12

812 | 청자철채상감당초문병 靑磁鐵彩象嵌唐草文甁

기타 | 잔존높이 6.1cm | T2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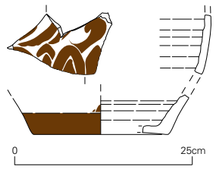
병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다. 동체부에는 당초문을 산화철 안료로 칠하고 바탕면을 넓게 백상감하였다.



813 | 청자철채상감당초문호 靑磁鐵彩象嵌唐草文壺

기타 | 잔존높이 5.5cm 최대길이 16.4cm(下) | SM+SM2+S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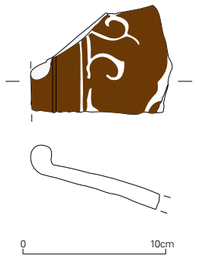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룬다. 동체부에는 당초문과 연판문을 산화철 안료로 그려넣고 바탕면을 넓게 백상감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814 | 청자철채상감여의두문호 青磁鐵彩象嵌如意頭文壺

기타 | 잔존높이 9.8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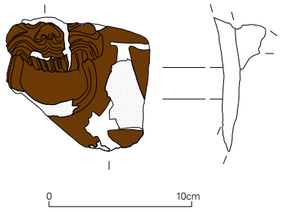
호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다. 외면에 여의두문을 백상감하고 문양의 안과 밖은 산화철 안료로 채워 넣었다.



815 | 청자철채상감귀면장식호 青磁鐵彩象嵌鬼面裝飾壺

기타 | 최대길이 11.9cm | 73작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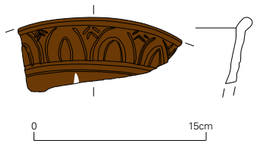
호의 동체부로 추정된다. 외면에 귀면 손잡이 장식을 부착하였다. 귀면장식과 문양은 산화철 안료로 칠하고 바탕면은 백상감하였다. 내면에 내박자흔이 있다.



816 | 청자철채양각연판문화분 青磁鐵彩陽刻蓮瓣文花盆

기타 | 최대길이 16.8cm | SM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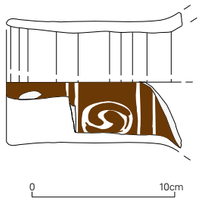
화분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다. 구연부 아래에 연판문을 양각하고 몸체 전면에 산화철 안료를 칠했다.



817 | 청자철채상감태극문장고 青磁鐵彩象嵌太極文杖鼓

기타 | 잔존높이 12.0cm 지름 9.2cm | SLMB+SLMB1+W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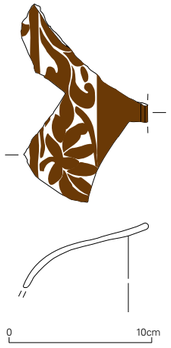
원통형의 조롱목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울림통으로 이어진다. 조롱목의 가장자리는 시유하지 않고 평평하게 마무리하였다. 문양은 상감으로 태극문을 나타내고 바탕면은 산화철 안료를 칠했다.



818 | 청자철채상감화문장고 青磁鐵彩象嵌花文杖鼓

기타 | 최대길이 14.2cm | SM+BA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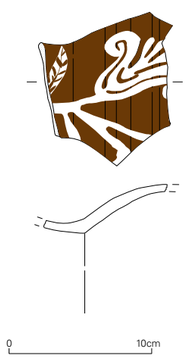
장고의 울림통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여 말려있고 끝을 평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에 산화철 안료로 화문을 그려넣고 바탕면은 백상감하였다. 내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다.



819 | 청자철채퇴화화문장고 青磁鐵彩堆花花文杖鼓

기타 | 최대길이 11.0cm | T4B1 출토

원통형의 조롱목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울림통으로 이어진다. 외면에 퇴화기법으로 화문 등을 나타내고 바탕면은 산화철 안료를 채워넣었다.



5) 요도구窯道具

요도구는 가마의 번조시에 사용되는 갑발, 도침을 비롯하여 기물의 성형시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확인된다.〈표42〉 갑발은 원통형 갑발이 주를 이루는데, 상면 중앙이 주저앉은 형태도 있다. 크기는 높이 7.0~8.0cm 내외가 다수이고 높이가 20.0cm에 이르는 예도 있다. 도침은 크게 원반형圓盤形, 원통형圓筒形, 절구형, 원추형圓錐形이 있다. 원반형 도침은 규석 받침을 함께 사용한 흔적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원통형 도침은 경사를 주어 가마 내에서 수평을 이룰 수 있게 제작하거나, 상면에 원형의 골을 내어 기물을 안정적이게 받칠 수 있게 한 예들이 있다. 도침은 대부분 굵은 사립이 섞인 내화토로 제작되었고, 고온번조되어 외면이 유리질화된 것도 있다. 기물의 성형시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물레의 축에 끼워 물레의 회전력을 높이고 나무의 마모를 막아주는 청자재질의 갓모와 문양 시문 및 상형 기물의 제작을 위한 도범陶範이 확인된다. 도범은 자토磁土로 제작하고 고온번조하여, 초벌에 비해 무르지 않고 매우 단단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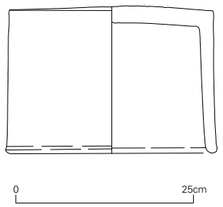
〈표42〉 요도구 출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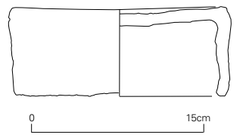
구분	갑발		도침				갓모	도범	합계
	大	小	원반형	원통형	절구형	원추형			
수량	3	15	32	16	16	4	1	2	89
합계	18		68				1	2	89

820 | 갑발 匣鉢

높이 21.5cm 저경 28.1cm | SM 출토

원통형의 갑발로,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다 꺾이며 편평한 윗면을 이룬다. 다른 갑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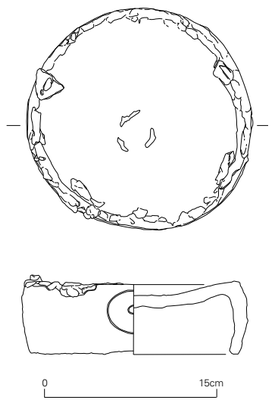




821 | 갑발 匣鉢

높이 7.9cm 저경 19.9cm | T4SA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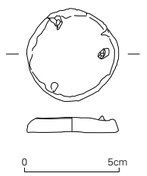
높이가 낮고 납작한 원통형의 갑발로,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다 꺾이며 편평한 윗면을 이룬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822 | 갑발 匣鉢

높이 6.7cm 저경 18.9cm | T4SA 출토

높이가 낮고 납작한 원통형의 갑발로,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다 꺾이며 'M'자형의 윗면을 이룬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측면에 작은 투공이 있고, 그 주변에 커다란 음각선을 둘렀다.



823 | 도침 陶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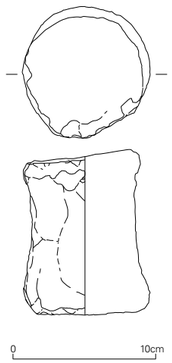
높이 0.9cm 저경 4.7cm | F 출토

납작한 원반형의 도침으로, 윗면 세 곳에 규석 받침을 받친 흔적이 있다.

824 | 도침 陶杵

높이 11.7cm 최대지름 8.7cm | SM1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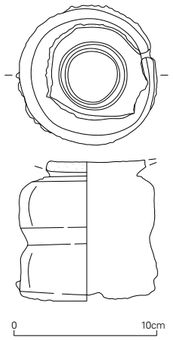
원통형의 도침으로, 몸체 중앙부가 약간 홀쭉한 형태이다. 윗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외면은 유리질화되어 광택이 있다.



825 | 도침 陶杵

높이 9.9cm 저경 9.0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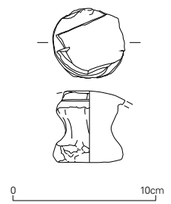
원통형의 도침으로, 중앙부에 홈이 파여 있다. 편평한 윗면에 청자저부편이 붙어 있다. 외면은 유리질화되어 광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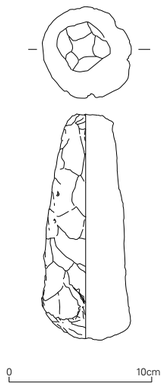


826 | 도침 陶杵

높이 5.1cm 저경 4.9cm | W7Bㅅ 출토

몸체 중앙부가 잘록하여 절구형에 가깝다. 윗면과 바닥면이 편평하고, 크기가 다소 작다. 윗면에 청자 저부편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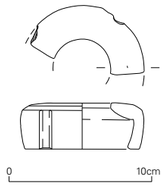




827 | 도침 陶杵

높이 15.7cm 저경 6.0cm | SM 출토

윗면에 이를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원추형의 도침이다. 윗면 세 곳에 재질을 알 수 없는 빚음을 받친 흔적이 남아있다.



828 | 갓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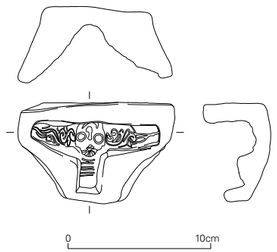
높이 3.0cm 복원지름 8.8cm | SM1 출토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다 꺾이며 편평한 상면을 이루고, 상면의 중앙은 원형으로 뚫어 물레축을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측면에는 등간격으로 홈을 내었다. 접지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으며, 받침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829 | 도범 陶範

높이 7.0cm 최대폭 10.6cm | BC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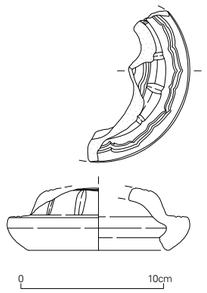
상형의 다리를 성형할 때 사용하는 도범이다. 유약을 입히지 않고 번조하였다.



830 | 도범 陶範

잔존높이 4.1cm | SM 출토

접시의 내면을 성형할 때 사용하는 도범으로, 퇴적 유구에서 출토된 '접시56'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윗면에 접시의 내면 문양을 음각하고, 저부는 둥글게 제작하였다. 유약을 입히지 않고 번조하였다.



6) 도기 陶器

도기는 구연부가 넓은 동이나 호와 같은 저장용기가 주를 이루며, 일부 시유한 것도 확인된다. 저장용기들의 제작방법은 대부분 테쌓기를 한 후 내 · 외면에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거나 내박자와 같은 도구로 정면하였다. 이외에도 개, 기대, 반 등도 극히 소량 출토된다.〈표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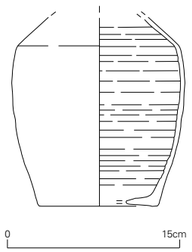
〈표43〉 도기 출토 현황

구분	병	호	개	기대	반	기타	합계
수량	1	40	1	2	1	9	54

831 | 도기병 陶器瓶

잔존높이 16.3cm 저경 10.5cm | T51 출토

기측선이 가파른 사선으로 오르다가 상부에서 살짝 꺾여 좁아지는 형태이다. 내면에 물레흔이 확인되고, 외면은 물손질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다.



832 | 도기호 陶器壺

잔존높이 8.1cm | Dㅌ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밖으로 꺾여 짧은 수평의 전을 이룬다. 내 · 외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833 | 도기호 陶器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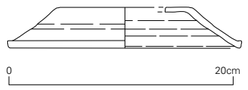
잔존높이 6.0cm | T51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다가 경부에서 수직을 이루며, 구연부는 바깥으로 각이 지게 접어 외측에 붙였다. 내면에 내박자흔이 남아있고, 외면에 사격자문을 타날하였다.

834 | 도기개 陶器蓋

높이 4.0cm | 2ㅌ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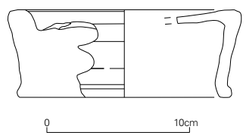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내려가고 몸체 하단부에서 살짝 외반한다. 외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윗면에 돌출된 선이 확인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835 | 도기기대 陶器器臺

높이 6.2cm | E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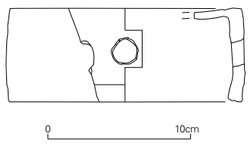
접지면이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고, 기측선은 수직에 가깝게 오르다 꺾여 편평한 윗면에 이른다. 측면은 등간격으로 안상眼象의 형태로 깎아내었다. 윗면과 다리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이 있고, 내면에 물손질흔이 있다.



836 | 도기기대 陶器器臺

높이 6.2cm | Dㅌ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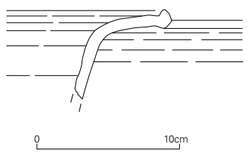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오르다가 꺾이며 편평한 윗면에 이른다. 측면에 지름 2.0cm 정도의 투공 두 개가 있다. 내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837 | 도기반 陶器盤

잔존높이 6.2cm | 1T1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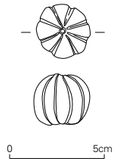
구연부가 외반하여 넓은 전을 이루는 형태로 전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살짝 말려있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838 | 도기화형장식 陶器花形裝飾

높이 2.7cm 최대지름 2.9cm | T6ㅌ 출토

구형球形의 몸체에 등간격으로 세로골을 깊게 음각하였다. 상·하단을 관통하는 작은 투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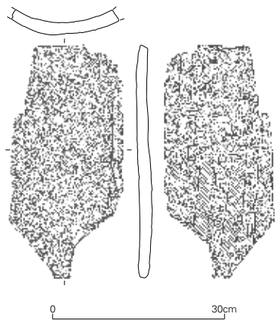
7) 기와[瓦]

기와는 암키와 8점과 수키와 2점 등 총 10점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이 가운데 '대장혜인계묘삼월大匠惠印癸卯三月'의 명문을찍은 암키와 2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839 | '대장혜인계묘삼월'명기와 大匠惠印癸卯三月銘瓦

최대길이 40.9cm 두께 2.0cm | T2ㅈ1 출토

장방형의 암키와로, 외면에 포목흔이 있고, 끝단은 물손질 조정하였다. 내면에 '大匠惠印癸卯三月' 명문과 사선문이 배치된 문양판을 타날하였다.



3
‘나’구역 출토 유물

1) 청자青磁

‘나’구역의 청자는 전체 출토 유물 가운데 97.5% 이상인 1,025점으로 총 21개의 기종이 확인되는데,〈표44〉 ‘가’구역 출토 청자에 비해 기종이 단조롭고 수량이 적다. 기종별로 출토 수량을 살펴보면 ‘가’구역의 예와 마찬가지로 접시가 48.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 아래로 발 19.6%, 완 11.4%, 잔 4.8%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일반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일반기 외에 매병 · 병 · 주자 · 호 · 탁 · 향로 등의 특수기는 총 164점이 확인되어 1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수기는 잔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나, ‘가’구역 출토품 또는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최대한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44〉 ‘나’구역의 청자 기종별 출토 현황

구분	무문	음각	양각	압출양각	철화 · 철채	퇴화	투각	상감	합계(점)	비율(%)
발	86	62	10	28	0	0	0	15	201	19.61
완	85	9	0	23	0	0	0	0	117	11.41
잔	17	18	7	0	2	0	0	6	50	4.88
접시	326	71	10	73	0	1	0	12	493	48.10
매병	9	11	0	0	2	0	0	8	30	2.93
병	14	1	2	0	0	0	0	4	21	2.05
주자	3	2	0	0	0	0	0	1	6	0.59
호	4	1	0	0	0	0	0	0	5	0.49
편호	0	0	0	0	0	0	0	1	1	0.09
대발	3	0	0	0	0	0	0	0	3	0.29
발우	1	0	0	0	0	0	0	0	1	0.09
합신	1	1	0	0	0	0	0	0	2	0.20
개	27	10	0	0	2	0	0	4	43	4.20
탁	1	7	0	0	0	0	0	0	8	0.78
승반	1	0	0	0	0	0	0	0	1	0.09
향로	0	3	0	3	0	0	0	0	6	0.59
향로개	1	3	0	0	0	0	0	0	4	0.39
화분	0	1	0	0	0	0	0	2	3	0.29
자판	0	0	0	0	0	0	0	2	2	0.20
기와	3	8	0	0	0	0	0	0	11	1.07
기타	6	7	1	0	0	0	2	1	17	1.66
합계(점)	588	215	30	127	6	1	2	56	1,025	100%
비율(%)	57.37	20.98	2.93	12.39	0.58	0.09	0.20	5.46	100%	

시문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철화, 상감 등의 기법이 확인된다. 시문기법 가운데 음각이 약 20.9%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압출양각은 12.3%, 상감은 5.4%의 점유율을 보인다. ‘나’구역 출토 청자는 ‘가’구역 출토 청자에 비해 시문기법의 종류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음각 · 양각 등 순청자의 장식기법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을 비롯하여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표45〉 백색내화토빚음이 43.6%,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는 10.0%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백색내화토빚음 받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기의 포개구이의 경우 모래 받침의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대부분 내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래 받침은 일반기를 포개어 번조할 때 가마 바닥 최하층에서 번조된 것으로 추정한다.

‘나’구역 출토 청자의 형식은 대부분 ‘가’구역 출토 청자와 문양 외의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구역 출토 청자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 것들과 상당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구역 출토 청자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은 기종별 형식 분류표에 추가하고 형식 구분에 ‘*’로 나타냈다.

〈표45〉 ‘나’구역의 청자 기종별 번조받침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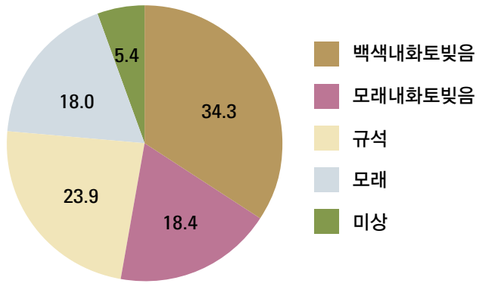
구분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	미상	합계(점)	초벌(점)
발	69	37	48	36	0	11	201	0
완	62	18	7	20	0	10	117	0
잔	12	13	14	2	2	7	50	2
접시	275	48	68	76	0	26	493	1
매병	4	8	1	1	0	16	30	0
병	0	2	1	2	0	16	21	2
주자	0	0	0	0	0	6	6	0
호	1	0	0	0	0	4	5	0
편호	0	0	0	0	0	1	1	0
대발	0	0	0	0	0	3	3	0
발우	1	0	0	0	0	0	1	0
합신	0	0	1	0	0	1	2	0
개	19	2	6	0	0	16	43	0
탁	4	0	4	0	0	0	8	0
승반	0	0	1	0	0	0	1	0
향로	0	0	0	0	0	6	6	0
향로개	0	0	2	0	0	2	4	0
화분	0	0	0	1	0	2	3	0
자판	0	0	0	0	0	2	2	0
기와	0	0	0	0	0	11	11	0
기타	0	4	2	1	0	10	17	1
합계(점)	447	132	155	139	2	150	1,025	6
비율(%)	43.61	12.88	15.12	13.56	0.20	14.63	100%	100%

1 발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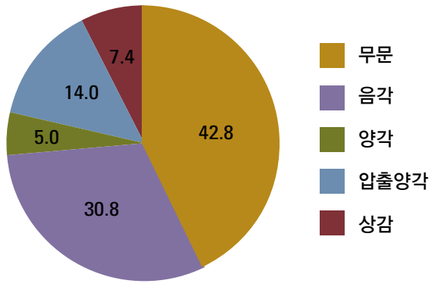
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그래프11〉 기측선을 중심으로 구분한 형形은 '가'구역 출토 발의 7개의 형 가운데 6개가 일치한다. 그러나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는 '발11~13'은 나타나지 않는다.〈표46〉 '발1~2'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보인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과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C형이 확인된다. 무문 외의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이 있고,〈그래프12〉 문양은 화당초문 · 모란문 · 화엽문 · 보상화문 등이 있다.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발5~6'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시문기법은 음각 · 양각이 있고, 문양은 앵무문 · 연판문이 있다. '발7'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C형이며 무문이다. '발10'과 '발17'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C형과 높은 다리굽인 E형이다. '발17'은 '나'구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이며 문양은 음각으로 선문을 시문하였다. '발1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이다. 무문 외에 음각 · 상감으로 선문과 국화문이 시문되었다. '발16'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에 이른다. 굽은 F형이고 상감으로 화훼문과 국화문 등을 장식했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 발은 '발1~2', '발5~7', '발10', '발16~17'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발1'의 수량이 가장 많다. 원각의 지름은 5.0~6.5cm 정도가 일반적이며, 일부 원각은 7.0cm 이상의 대형 또는 3.0~4.0cm 내외의 소형인 경우도 소량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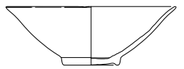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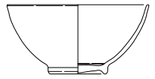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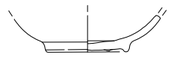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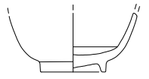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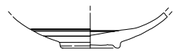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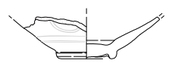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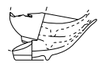
〈그래프11〉 발 번조받침 비율



〈그래프12〉 발 시문기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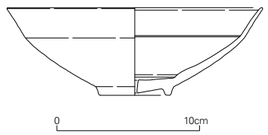
〈표46〉 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발 1		Ⅰ-1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화엽문, 모란문 등	57	99 (49.25)
		Ⅱ-1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화판문	13	
		Ⅳ-1①-B	모래	무문, 음각	화엽문	20	
		Ⅵ-1①-B	미상	무문, 음각	화엽문	9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하거나 큰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화엽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발 2		Ⅱ-1①-C	모래내화토빛음	압출양각	화당초문, 연화동자문	2	21 (10.45)
		Ⅲ-1①-C	규석	압출양각	화당초문, 모란문 등	17	
		Ⅳ-1①-C	모래	압출양각	보상화문, 포도문	2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4.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다.						
발 5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양각	연판문	1	12 (5.97)
		Ⅱ-2①-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연판문	1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문양은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크기는 5.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발 6		Ⅱ-2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앵무문	3	25 (12.44)
		Ⅲ-2①-C	규석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21	
		Ⅵ-2①-C	미상	음각	연판문	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하거나 작은 원각이 있다. 문양은 내면에 앵무문을 음각하거나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발 7		Ⅲ-3①-C	규석	무문		1	1 (0.49)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4.2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6.4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발 10		Ⅰ-4①-E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6	18 (8.95)
		Ⅱ-4①-E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7	
		Ⅳ-4①-E	모래	무문		4	
		Ⅵ-4①-E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로 높이가 1.0cm 내외의 다소 높은 굽이며 크기는 6.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발 15		Ⅲ-6②-F	규석	무문, 음각, 상감	선문, 국화문	4	10 (4.99)
		Ⅳ-6②-F	모래	상감	국화문, 운문 등	6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문양은 선문을 음각하거나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거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크기는 6.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발 16		Ⅲ-7①-F	규석	무문, 상감	포류수금문, 귀문	5	8 (3.98)
		Ⅳ-7①-F	모래	상감	화훼문, 국화문	3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면에 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 · 외면에 화훼문, 국화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거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크기는 6.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가 있다.						
발 17 *		Ⅰ-4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선문	3	3 (1.49)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살짝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7.7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9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기타						4	4 (1.99)
합계						201	100%

840 | 청자발 青磁鉢

발1 | Ⅰ-1①-B | 높이 6.1cm 저경 4.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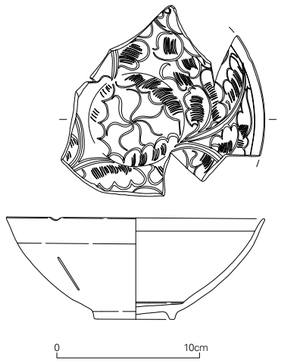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내면의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1 | 청자음각화엽문발 青磁陰刻花葉文鉢

발1 | Ⅰ-1①-B-가 | 높이 6.9cm 저경 5.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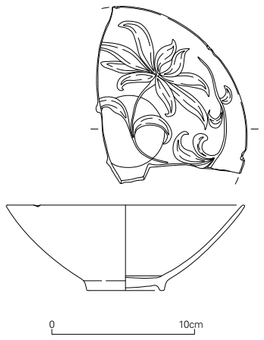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화엽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2 | 청자압출양각연화문발 青磁壓出陽刻蓮花文鉢

발1 | Ⅰ-1①-B-다 | 높이 6.2cm 저경 5.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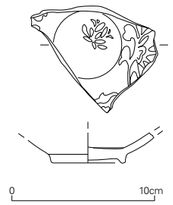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으며,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3 | 청자압출양각화문발 青磁壓出陽刻花文鉢

발1 | Ⅰ-1①-B-다 | 잔존높이 2.3cm 저경 5.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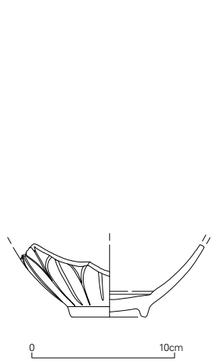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4 | 청자양각연판문발 青磁陽刻蓮瓣文鉢

발5 | Ⅰ-2①-B-⑭ | 잔존높이 5.2cm 저경 5.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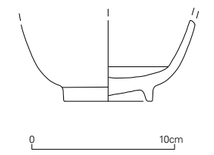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5 | 청자발 青磁鉢

발10 | Ⅰ-4①-E | 잔존높이 5.7cm 저경 6.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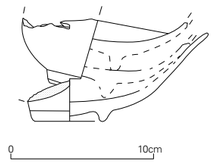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벌어진다. 내저면에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6 | 청자발 青磁鉢

발17 | Ⅰ-4①-C-㉮ | 전체높이 7.8cm 하부 발 높이 6.9cm 저경 4.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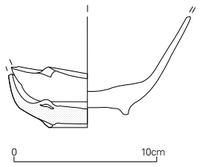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외면의 구연 아래에 등간격으로 세로선을 음각하였다. 세 점의 유물을 포개구이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47 | 청자발 青磁鉢

기타 | 전체높이 7.9cm 상부 발 잔존높이 6.6cm 저경 5.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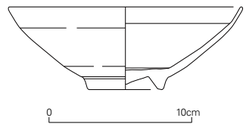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고 편평하다. 두 점의 유물을 포개구이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8 | 청자발 青磁鉢

발1 | Ⅱ-1①-B | 높이 5.6cm 저경 5.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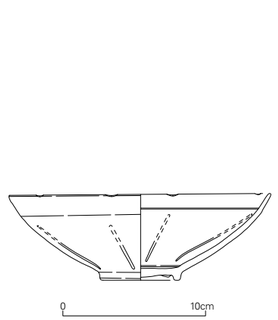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안쪽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49 | 청자화형발 青磁花形鉢

발1 | Ⅱ-1①-B | 높이 6.0cm 구경 18.4cm 저경 5.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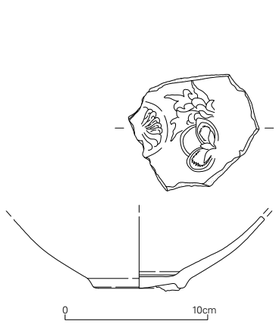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고, 외면은 등간격으로 눌러 화형을 나타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0 | 청자압출양각화문발 青磁壓出陽刻花文鉢

발2 | Ⅱ-1①-C-다 | 잔존높이 5.1cm 저경 5.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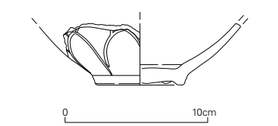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안쪽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1 | 청자음각연판문발 青磁陰刻蓮瓣文鉢

발5 | Ⅱ-2①-B-㉮ | 잔존높이 4.4cm 저경 5.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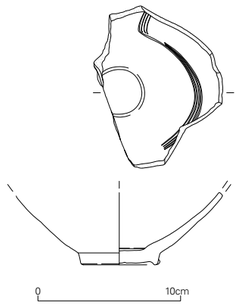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안쪽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2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6 | Ⅱ-2①-C-가 | 잔존높이 4.6cm 저경 5.0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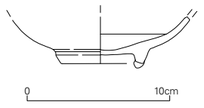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안쪽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3 | 청자발 青磁鉢

발10 | Ⅱ-4①-E | 잔존높이 3.5cm 저경 5.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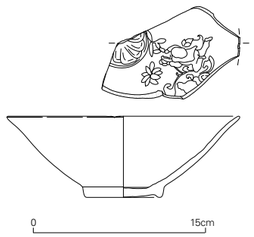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54 | 청자압출양각동자당초문발 青磁壓出陽刻童子唐草文鉢

발2 | Ⅲ-1①-C-다 | 높이 6.9cm 저경 6.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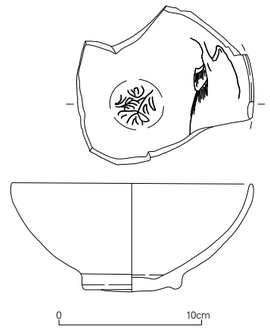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에는 동자가 있는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55 | 청자음각앵무문발 青磁陰刻鸚鵡文鉢

발6 | Ⅲ-2①-C-가 | 높이 7.4cm 저경 6.7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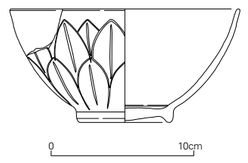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앵무문과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56 | 청자양각연판문발 青磁陽刻蓮瓣文鉢

발6 | Ⅲ-2①-C-㉮ | 높이 7.9cm 저경 6.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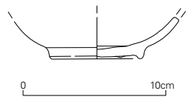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57 | 청자발 青磁鉢

발7 | Ⅲ-3①-C | 잔존높이 2.9cm 저경 6.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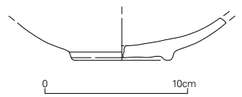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둥글게 꺾여 올라가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58 | 청자발 青磁鉢

발15 | Ⅲ-6②-F | 잔존높이 3.1cm 저경 7.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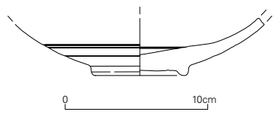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편평하고 원각이 없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59 | 청자음각선문발 青磁陰刻線文鉢

발15 | Ⅲ-6②-F-가㉮ | 잔존높이 4.2cm 저경 6.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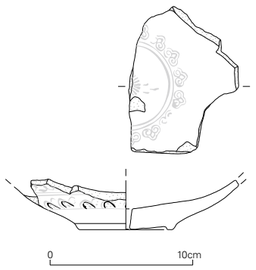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편평하고 원각이 없다. 내·외면에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60 | 청자상감국화문발 青磁象嵌菊花文鉢

발15 | Ⅲ-6②-F-사㉲ | 잔존높이 3.7cm 저경 6.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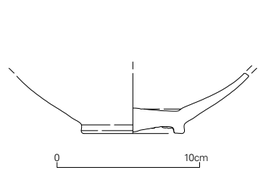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편평하고 원각이 없다. 내면에는 국화를, 외면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61 | 청자발 青磁鉢

발16 | Ⅲ-7①-F | 잔존높이 4.6cm 저경 7.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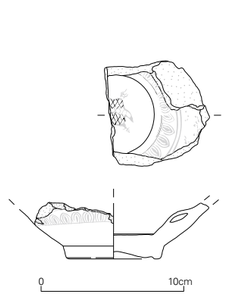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디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62 | 청자상감귀문발 青磁象嵌龜文鉢

발16 | Ⅲ-7①-F-사㉲ | 잔존높이 3.9cm 저경 6.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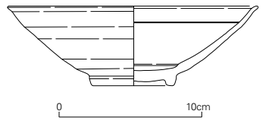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는 거북무늬를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63 | 청자발 青磁鉢

발1 | Ⅳ-1①-B | 높이 5.5cm 저경 2.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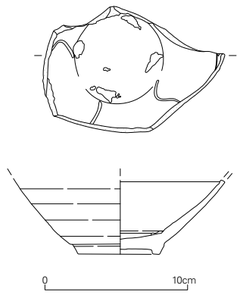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의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64 | 청자음각화판문발 青磁陰刻花瓣文鉢

발1 | Ⅳ-1①-B-가 | 잔존높이 5.2cm 저경 5.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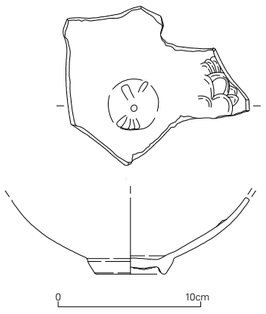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과 포개구이의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등간격으로 'S'자형의 화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 형태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65 | 청자압출양각화문발 青磁壓出陽刻花文鉢

발2 | Ⅳ-1①-C-다 | 잔존높이 5.5cm 저경 5.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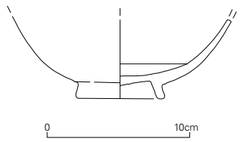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66 | 청자발 青磁鉢

발10 | Ⅳ-4①-E | 잔존높이 5.5cm 저경 6.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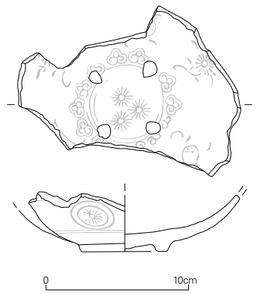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고 내저면에 원각과 백색내화토빚음을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67 | 청자상감국화여지문발 青磁象嵌菊花荔枝文鉢

발15 | Ⅳ-6②-F-사㉮ | 잔존높이 4.3cm 저경 5.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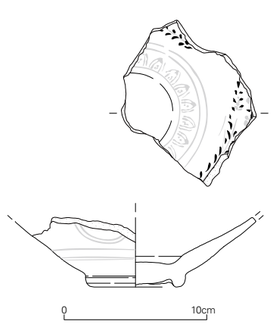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은 원각이 없고 편평하며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국화문과 여지문을,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68 | 청자상감화훼문발 青磁象嵌花卉文鉢

발16 | Ⅳ-7①-F-사㉮ | 잔존높이 4.8cm 저경 6.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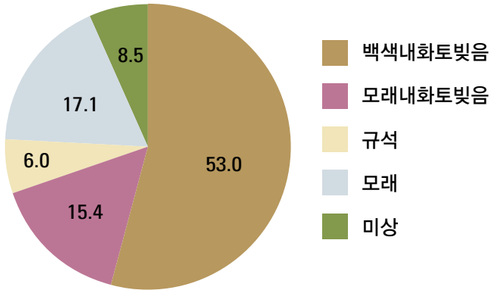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훼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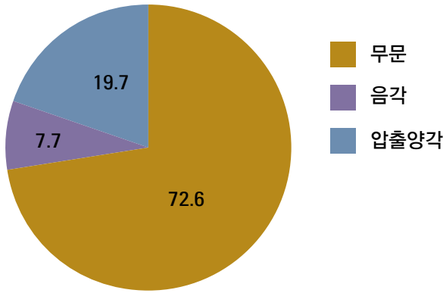
| 2 | 완碗

완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그래프13〉 기측선을 중심으로 구분한 형은 모두 5가지가 확인되는데,〈표47〉 '가'구역 출토 청자의 형식 가운데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완8'은 나타나지 않는다. '완1'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내저면에 2.6cm 내외의 원각이 있는 형태로, 원각이 저경보다 작다. 굽은 햇무리굽에 가까운 A형의 다리굽이다. '완2'와 '완4~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이며 '완1'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데 지름이 저경보다 작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과 'V'자 또는 'U'자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완5'의 경우 '가'구역에서는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되었으나 '나'구역에서는 'B'형만이 확인된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 · 압출양각이 있고,〈그래프14〉 문양은 파어문 · 모란문 · 황촉규문 등이 있다. '완7'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2.6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동일 형식의 소형은 0.7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이다. '완10'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굽은 C형이 확인된다.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완12'와 '완15~16'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지만 구연부가 외반하여 '완10'과 구분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B형, C형이 확인된다. 시문기법은 압출양각이 있고, 문양은 운학문 · 화엽문 · 보상화문 등을 시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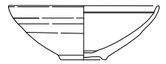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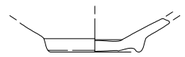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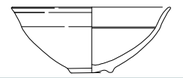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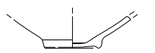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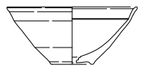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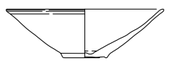
〈그래프13〉 완 번조받침 비율



〈그래프14〉 완 시문기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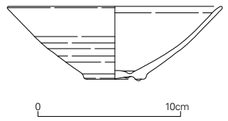
〈표47〉 완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완 1		Ⅰ-1①-A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3	4 (3.42)
		Ⅵ-1①-A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고 내저면에 2.6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이며 크기는 4.0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2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2	3 (2.57)
		Ⅳ-2①-B	모래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1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가 있다.						
완 4		Ⅰ-2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파어문	2	5 (4.27)
		Ⅱ-2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파어문	1	
		Ⅲ-2①-C	규석	음각	파어문	1	
		Ⅵ-2①-C	미상	음각	파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3.6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파어문을 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완 5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모란문, 황촉규문	3	3 (2.57)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0.7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화엽형의 구획 안에 모란, 황촉규 등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8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7		Ⅰ-3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1	16 (13.67)
		Ⅱ-3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4	
		Ⅵ-3①-B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2.6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소형의 경우 내저면의 원각이 0.7cm 정도이고 원각과 다리굽의 지름은 2.9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10		Ⅲ-5①-C	규석	압출양각	운학문	1	1 (0.85)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2.0cm 정도의 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완 12		Ⅰ-6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1	15 (12.82)
		Ⅱ-6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Ⅵ-6①-B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내저면에 1.8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8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15		Ⅰ-6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보상화문	3	3 (2.57)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0.9cm 정도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 보상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2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완 16		Ⅰ-6①-C	백색내화토빛음	압출양각	모란문, 화엽문 등	9	15 (12.82)
		Ⅲ-6①-C	규석	압출양각	모란문	5	
		Ⅵ-6①-C	미상	압출양각	모란문	1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9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모란문 또는 화엽문 등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4.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기타						52	52 (44.44)
합계						117	100%

869 | 청자완 青磁碗

완1 | Ⅰ-1①-A | 높이 5.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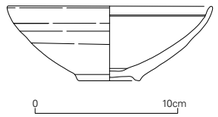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70 | 청자완 青磁碗

완2 | Ⅰ-2①-B | 높이 5.2cm 저경 4.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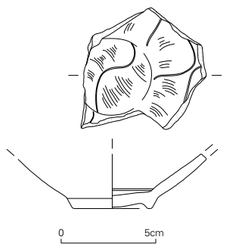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의 구연 아래에 두 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1 | 청자음각파도문완 青磁陰刻波濤文碗

완4 | Ⅰ-2①-C-가 | 잔존높이 2.5cm 저경 4.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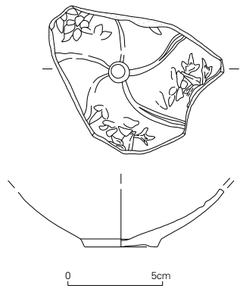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2 | 청자압출양각화문완 青磁壓出陽刻花文碗

완5 | Ⅰ-2①-B-다 | 잔존높이 3.2cm 저경 3.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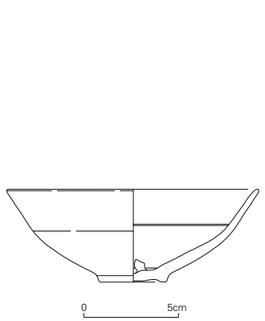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화엽형의 구획 안에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3 | 청자완 青磁碗

완7 | Ⅰ-3①-B | 높이 4.8cm 구경 13.7cm 저경 3.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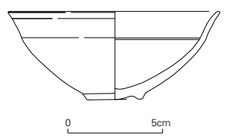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의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4 | 청자완 青磁碗

완7 | Ⅰ-3①-B | 높이 4.9cm 구경 11.3cm 저경 2.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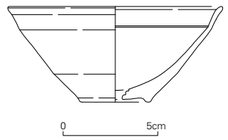
873번 완의 작은 형태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의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5 | 청자완 青磁碗

완12 | Ⅰ-6①-B | 높이 5.1cm 저경 3.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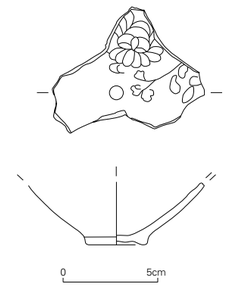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작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6 | 청자압출양각보상화문완 青磁壓出陽刻寶相華文碗

완15 | Ⅰ-6①-C-다 | 잔존높이 3.3cm 저경 3.2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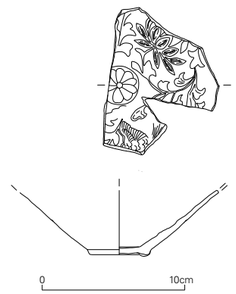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보상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7 | 청자압출양각학연당초문완 青磁壓出陽刻鶴蓮唐草文碗

완16 | Ⅰ-6①-C-다 | 잔존높이 4.8cm 저경 4.2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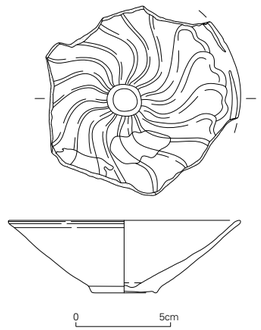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 학문과 연당초문을 함께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78 | 청자압출양각화엽문완 青磁壓出陽刻花葉文碗

완16 | Ⅰ-6①-C-다 | 높이 3.8cm 저경 3.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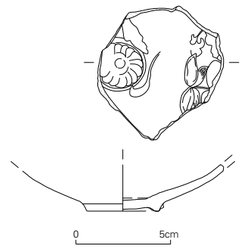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고, 내면에는 화엽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79 | 청자압출양각화문완 青磁壓出陽刻花文碗

완16 | Ⅰ-6①-C-다 | 잔존높이 2.5cm 저경 3.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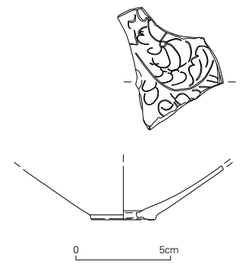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0 | 청자음각화당초문완 青磁陰刻花唐草文碗

기타 | 잔존높이 3.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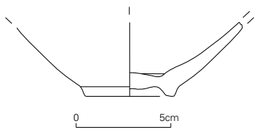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1 | 청자완 靑磁碗

기타 | 잔존높이 3.4cm 저경 4.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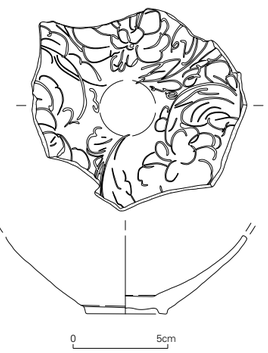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다리굽의 접지면 세 곳에 같은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2 | 청자음각화엽문완 靑磁陰刻花葉文碗

기타 | 잔존높이 4.1cm 저경 4.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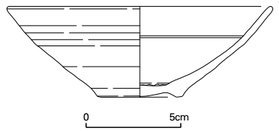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엽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3 | 청자완 靑磁碗

완7 | Ⅱ-3①-B | 높이 4.5cm 저경 4.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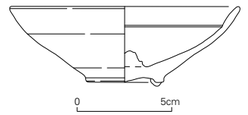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의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4 | 청자완 靑磁碗

완12 | Ⅱ-6①-B | 높이 4.2cm 저경 3.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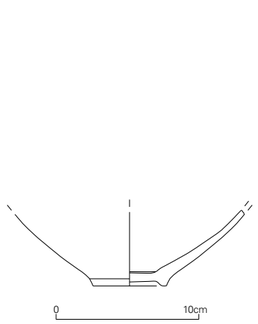
몸체가 일그러진 형태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작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5 | 청자완 靑磁碗

기타 | 잔존높이 6.0cm 저경 5.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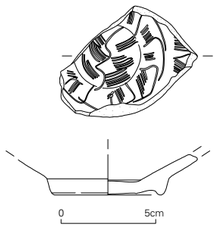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86 | 청자음각파도문완 靑磁陰刻波濤文碗

완4 | Ⅲ-2①-C-가 | 잔존높이 2.1cm 저경 5.7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87 |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青磁壓出陽刻雲鶴文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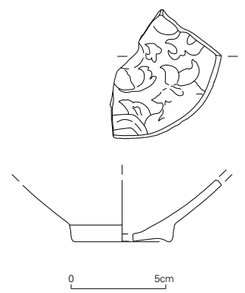
완10 | Ⅲ-5①-C-다 | 잔존높이 2.9cm 저경 5.0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운학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88 | 청자압출양각화문완 青磁壓出陽刻花文碗

완16 | Ⅲ-6①-C-다 | 잔존높이 3.3cm 저경 5.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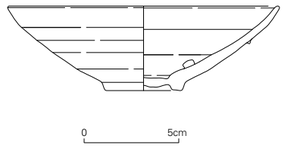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889 | 청자완 青磁碗

완2 | Ⅳ-2①-B | 높이 4.6cm 구경 14.2cm 저경 4.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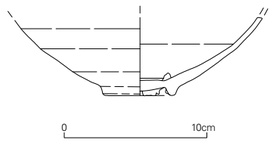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의 구연 아래에 두 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치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890 | 청자완 青磁碗

기타 | 잔존높이 5.1cm 저경 5.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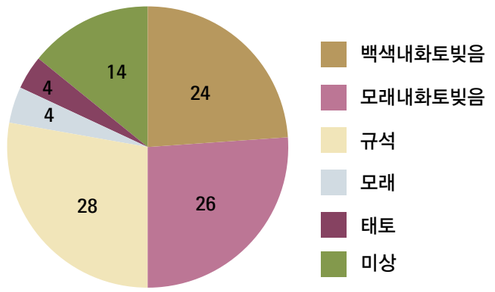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이며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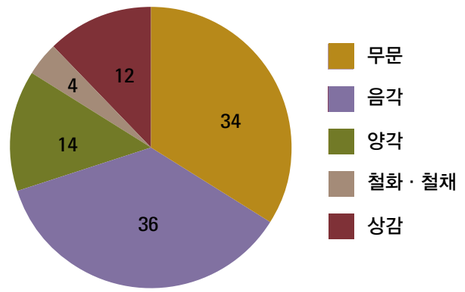
| 3 | 잔盞

잔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모두 확인된다.〈그래프15〉 기측선을 중심으로 구분한 형은 모두 4가지가 확인된다.〈표48〉 '가'구역 출토 청자의 형식 가운데 '잔4~5', '잔9', '잔12', '잔13~14'가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며, '잔18'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잔4~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가 직립한다. 굽은 'V'자 또는 'U'자에 가까운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무문 외에 시문기법은 음각이 있고,〈그래프16〉 문양은 파도문 등이 있다. '잔9'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다소 큰 F형의 다리굽이다. '잔12'와 '잔18'은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는 형태이다. 특히 '잔18'은 '나'구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으로 내면에 번조받침을 받쳐 거꾸로 뒤집어 번조하였다. '잔12'의 굽은 C형이다. 문양은 음각과 상감으로 화문과 연화문 등을 나타냈다. '잔13~14'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B형,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되며, 시문기법은 무문 외에 음각, 양각, 철화가 있고, 문양은 선문, 연판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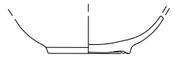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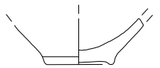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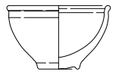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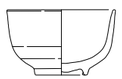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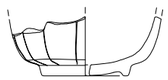
〈그래프15〉 잔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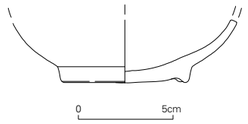


〈그래프16〉 잔 시문기법 비율



〈표48〉 잔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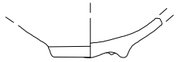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잔 4		Ⅰ-1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	8 (16.0)
		Ⅲ-1②-C	규석	무문		6	
		Ⅵ-1②-C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0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잔 5		Ⅰ-1②-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파도문	3	10 (20.0)
		Ⅱ-1②-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파도문	3	
		Ⅲ-1②-C	규석	음각	파도문	1	
		Ⅵ-1②-C	미상	음각	파도문	3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내면에 파도문을, 외면에 보상화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9cm 정도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잔 9		Ⅵ-4②-F	미상	무문		1	1 (2.0)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크기가 다소 큰 사다리꼴 또는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3.5cm 정도이다.						
잔 12		Ⅰ-6②-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뇌문	2	12 (24.0)
		Ⅱ-6②-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상감	뇌문, 화문	8	
		Ⅳ-6②-C	모래	음각, 상감	뇌문, 선문	2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외면에 뇌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의 다리굽이며 크기는 3.5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잔 13		Ⅰ-7②-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철화	선문, 당초문	5	6 (12.0)
		Ⅱ-7②-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선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접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단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며 크기는 4.5cm 내외이고, 일부 6.0cm 이상의 대형도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잔 14		Ⅲ-7②-C	규석	음각, 양각	연판문	6	7 (14.0)
		Ⅵ-7②-C	미상	양각	연판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 또는 양각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는 5.3cm 내외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잔 18 *		Ⅲ-6②-H	규석	상감	선문	1	4 (8.0)
		Ⅴ-6②-H	태토빛음	상감	당초문	2	
		Ⅵ-6②-H	미상	상감	연판문	1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내 · 외면에 국화 등의 화문을 시문한 예가 많다. 바닥은 평평하게 다졌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태토빛음이 있다.						
기타						2	2 (4.0)
합계						50	100%



891 | 청자잔 青磁盞

잔4 | Ⅰ-1②-C | 잔존높이 3.3cm 저경 6.6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2 | 청자음각파도문잔 青磁陰刻波濤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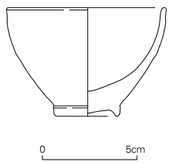
잔5 | Ⅰ-1②-C-가㉮ | 잔존높이 2.2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3 | 청자양각연판문잔 青磁陽刻蓮瓣文盞

잔12 | Ⅰ-6②-C | 높이 5.7cm 저경 3.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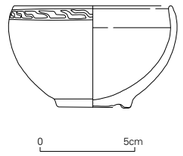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 세 곳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4 | 청자음각뇌문잔 青磁陰刻雷文盞

잔12 | Ⅰ-6②-C-㉮ | 높이 5.5cm 저경 3.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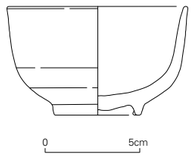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의 구연 아래에 뇌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5 | 청자잔 青磁盞

잔13 | Ⅰ-7②-B | 높이 5.8cm 저경 4.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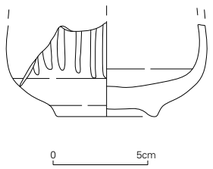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골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6 | 청자음각선문잔 青磁陰刻線文盞

잔13 | Ⅰ-7②-B-㉮ | 잔존높이 5.3cm 저경 4.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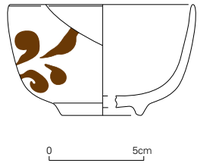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굵고 깊게 음각하여 주름과 같이 표현하였다. 굽은 사다리골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897 | 청자철화당초문잔 青磁鐵畫唐草文盞

잔13 | Ⅰ-7②-B-㉰ | 높이 5.8cm 저경 4.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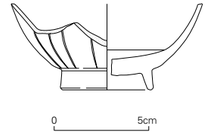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에 산화철 안료로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사다리골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98 | 청자양각연판문잔 青磁陽刻蓮瓣文盞

기타 | 잔존높이 4.5cm 저경 4.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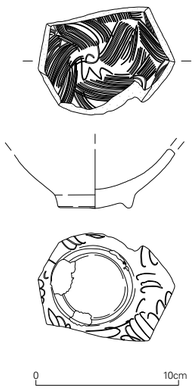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899 | 청자음각파도문잔 青磁陰刻波濤文盞

잔5 | Ⅱ-1②-C-가㉰ | 잔존높이 3.0cm 저경 3.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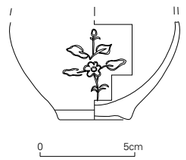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00 | 청자잔 青磁盞

잔12 | Ⅱ-6②-C-㉮ | 잔존높이 5.1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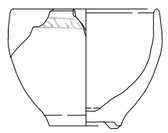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원각은 없다. 외면에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01 | 청자상감뇌문잔 青磁象嵌雷文盞

잔12 | Ⅱ-6②-C-㉯ | 높이 6.2cm 저경 3.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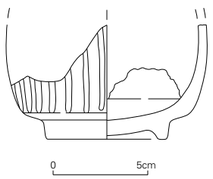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의 구연 아래에 뇌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02 | 청자음각선문잔 青磁陰刻線文盞

잔13 | Ⅱ-7②-B-㉮ | 잔존높이 6.0cm 저경 6.2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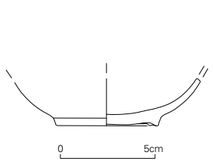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외면에는 세로선을 굵고 깊게 음각하여 주름과 같이 표현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03 | 청자잔 青磁盞

잔4 | Ⅲ-1②-C | 잔존높이 2.6cm 저경 5.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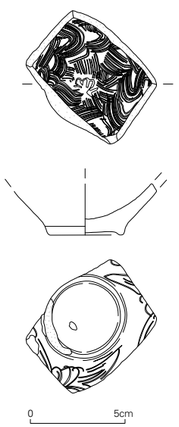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04 | 청자음각파도문잔 青磁陰刻波濤文盞

잔5 | Ⅲ-1②-C-가㉮ | 잔존높이 2.7cm 저경 4.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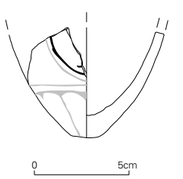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면에는 파도문을, 외면에는 보상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905 | 청자상감화판문잔 青磁象嵌花瓣文盞

잔18 | Ⅲ-6②-H-㉮ | 잔존높이 5.9cm 저경 1.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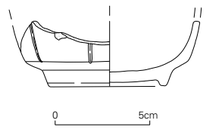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은 'V'자 형태이다. 외면에 화판문을 상감하였다. 바닥은 평평하게 다졌고 내면에 규석을 받친 흔적이 있다.



906 | 청자음각연판문잔 青磁陰刻蓮瓣文盞

잔14 | Ⅲ-7②-C-㉮ | 잔존높이 3.4cm 저경 6.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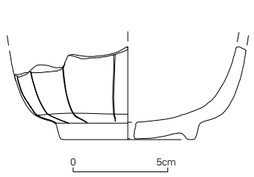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07 | 청자양각연판문잔 青磁陽刻蓮瓣文盞

잔14 | Ⅲ-7②-C-㉯ | 잔존높이 4.7cm | 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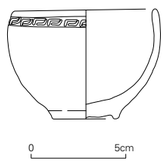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저면에 원각은 없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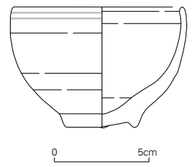


908 | 청자음각뇌문잔 青磁陰刻雷文盞

잔12 | Ⅳ-6②-C-㉮ | 높이 5.8cm 구경 7.6cm 저경 3.4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의 구연 아래에 뇌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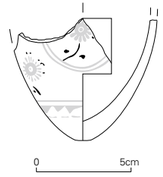




909 | 청자상감선문잔 青磁象嵌線文盞

잔12 | Ⅳ-6②-C-㉮ | 높이 6.4cm 구경 9.0cm 저경 3.7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하며 원각은 없다. 외면의 구연 아래에 선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10 | 청자상감국화문잔 青磁象嵌菊花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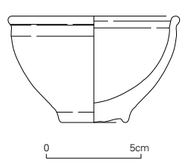
잔18 | V-6②-H-㉮ | 잔존높이 5.7cm 저경 0.6cm | 74가마 출토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면은 'V'자 형태이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바닥은 평평하게 다졌고 내면에 태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1 | 청자잔 青磁盞

잔9 | Ⅵ-4②-F | 높이 5.7cm 저경 3.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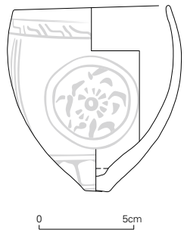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며 원각은 없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912 | 초벌상감국화문잔 初燔象嵌菊花文盞

잔18 | Ⅵ-6②-H-㉮ | 높이 9.8cm, 저경 1.2cm | 74가마 출토

잔의 초벌구이로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기측선이 계란형과 같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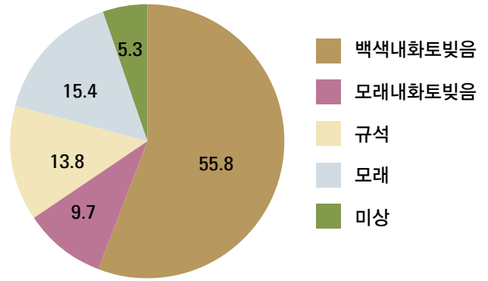


| 4 | 접시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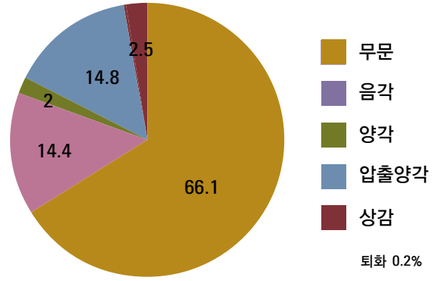
접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그래프17〉 기측선을 중심으로 구분한 형은 모두 14가지이며, 대부분 '가'구역 출토 청자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지만 일부 새로운 형식도 있다.〈표49〉 '접시1~2'와 '접시75'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특히 '접시75'는 '나'구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형식이며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B형의 다리굽,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G형의 안굽, 바닥이 편평한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8'과 '접시76'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외반한다. '접시8'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나'구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접시76'은 원각이 없다. 굽은 모두 B형의 다리굽이다. '접시10~11'은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지만 구연부가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가 많다. 굽은 G형의 안굽과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14'는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H형의 평굽이 있다. '접시20~21'은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확인된다. '접시27'은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살짝 큰 원각이 있고, 굽은 C형의 다리굽이다. '접시34'는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G형의 안굽이다. '접시36'은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 끝은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H형의 평굽이다. '접시38~40'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있다. '접시41~4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B형과 C형의 다리굽이 있다. '나'구역에서 추가된 '접시77~78'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외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굽은 E형의 높은 다리굽과 G형의 안굽이 있다. '접시53'과 '접시58~59'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는 형태이다. '접시53'은 내저면에 저경보다 살짝 큰 원각이 있고, '접시58~59'는 원각이 없으며, 구연부는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한 예가 많다. 굽은 G형의 안굽과 H형의 평굽이 확인된다. '접시6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리거나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의 다리굽이다. '접시66'은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굽은 B형의 다리굽이다.

시문기법은 무문 외에 음각 · 양각 · 압출양각 · 상감 등이 있는데, 음각과 압출양각의 비중이 높다.〈그래프18〉 문양은 국화문 · 모란문 · 연화문 · 앵무문 · 연판문 등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상감기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으며, 문양 소재도 국화나 연화 등의 화문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프17〉 접시 번조받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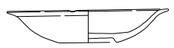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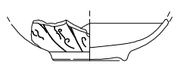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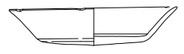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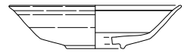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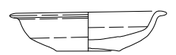
〈그래프18〉 접시 시문기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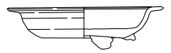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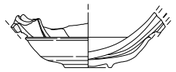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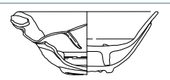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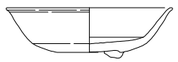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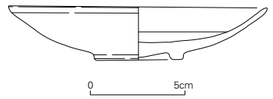
퇴화 0.2%

〈표49〉 접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1		Ⅰ-1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퇴화	선문	70	126 (25.56)
		Ⅱ-1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6	
		Ⅳ-1①-B	모래	무문		29	
		Ⅵ-1①-B	미상	무문		1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구연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리거나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기도 했다. 내저면에 8.0~11.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있는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낮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2		Ⅰ-1①-G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3	3 (0.61)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기도 했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의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접시 8		Ⅰ-2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1	13 (2.64)
		Ⅵ-2①-B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확인되거나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기도 했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접시 10		Ⅰ-3①-G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연화문, 모란문 등	19	19 (3.85)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가 많다. 내저면에 6.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과 모란문을 압출양각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접시 11		Ⅰ-3①-H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연화문, 모란문 등	68	81 (16.44)
		Ⅱ-3①-H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4	
		Ⅳ-3①-H	모래	무문		6	
		Ⅵ-3①-H	미상	무문		3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짧게 꺾여 있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한 예가 많다. 내저면에 4.0~5.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한 예들이 확인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14		Ⅲ-4①-H	규석	무문		4	6 (1.22)
		Ⅳ-4①-H	모래	무문		1	
		Ⅵ-4①-H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가 있다.						
접시 20		Ⅱ-8①-B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연판문	6	7 (1.42)
		Ⅵ-8①-B	미상	양각	연판문	1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11.0~1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빛음이 있다.						
접시 21		Ⅰ-8①-C	백색내화토빛음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3	32 (6.49)
		Ⅱ-8①-C	모래내화토빛음	음각	앵무문	2	
		Ⅲ-8①-C	규석	무문, 음각, 양각	앵무문, 연판문	26	
		Ⅵ-8①-C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1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앵무문을,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27		Ⅰ-9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1	1 (0.20)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5.5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34		Ⅲ-12①-G	규석	상감	국화문	1	1 (0.20)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있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접시 36		Ⅰ-13①-H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선문	4	15 (3.04)
		Ⅲ-13①-H	규석	무문, 압출양각	연화문	10	
		Ⅵ-13①-H	미상	압출양각	연화문	1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4.0~5.0cm 또는 7.0~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평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있다.						
접시 38		Ⅰ-15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5	12 (2.43)
		Ⅱ-15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2	
		Ⅳ-15①-B	모래	무문		5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1.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포개구이 흔적과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는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39		Ⅰ-15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압출양각	모란문, 화엽문 등	43	53 (10.76)
		Ⅱ-15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화엽문	3	
		Ⅳ-15①-B	모래	무문, 음각	화엽문, 국당초문	7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11.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화문을 음각하거나 모란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40		Ⅰ-15①-C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압출양각	모란문, 당초문	5	23 (4.67)
		Ⅱ-15①-C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1	
		Ⅲ-15①-C	규석	무문, 압출양각	모란문	17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낸 예가 많다. 내저면에 11.0~12.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압출양각으로 모란문을 시문하기도 했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있다.						
접시 41		Ⅰ-16①-B	백색내화토빛음	무문, 음각, 상감	선문	5	10 (2.03)
		Ⅱ-16①-B	모래내화토빛음	무문		3	
		Ⅳ-16①-B	모래	상감	선문, 연화문	2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하거나 직립한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이중의 원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있다.						
접시 42		Ⅲ-16①-C	규석	상감	국화문	2	2 (0.40)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접시 53		Ⅳ-18①-H	모래	음각	선문	1	2 (0.40)
		Ⅵ-18①-H	미상	음각	선문	1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내저면에 7.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그 안에 선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접시 58		Ⅰ-18②-G	백색내화토빚음	압출양각	화문	1	2 (0.40)
		Ⅳ-18②-G	모래	압출양각	화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구연은 화형을 이루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내면에 화문 등을 압출양각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고,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가 있다.						
접시 59		Ⅳ-18②-H	모래	압출양각	황촉규문	1	1 (0.20)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바깥으로 꺾여 있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내고, 내저면에 황촉규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있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접시 62		Ⅰ-19①-B	백색내화토빚음	음각		1	2 (0.40)
		Ⅵ-19①-B	미상	무문		1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리거나 외반한다. 내저면에 8.0~9.0cm 내외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선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접시 66		Ⅰ-20①-B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음각	선문	3	10 (2.03)
		Ⅱ-20①-B	모래내화토빚음	음각	선문	1	
		Ⅲ-20①-B	규석	음각	선문	1	
		Ⅳ-20①-B	모래	무문, 음각	선문	3	
		Ⅵ-20①-B	미상	음각	선문	2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8.0~9.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음각선을 두른 예도 있다. 굽은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고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접시 75 *		Ⅳ-1①-H	모래	무문		1	1 (0.20)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9.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있는 예가 많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가 있다.						
접시 76 *		Ⅰ-2②-B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	3 (0.61)
		Ⅵ-2②-B	미상	무문		2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거나 직립한다. 구연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접시 77 *		Ⅰ-17①-E	백색내화토빚음	압출양각	선문	4	4 (0.81)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둥글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8.0~9.0cm 내외의 원각이 있고, 외면은 화판 사이를 세로로 음각하였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접시 78 *		Ⅱ-17①-G	모래내화토빚음	압출양각	화문	1	1 (0.20)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8.0cm 내외의 원각이 있으며, 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이 있다.						
기타						63	63 (12.79)
합계						493	100%



913 | 청자접시 青磁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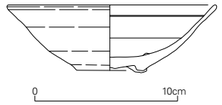
접시1 | Ⅰ-1①-B | 높이 2.8cm 구경 13.6cm 저경 4.6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4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 | Ⅰ-1①-B | 높이 3.7cm 저경 4.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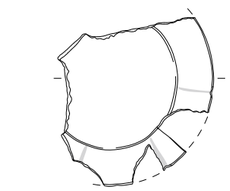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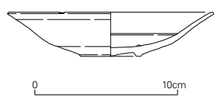


915 | 청자퇴화선문화형접시 青磁堆花線文花形楪匙

접시1 | Ⅰ-1①-B-마 | 높이 3.0cm 저경 4.2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과 포개구이 흔적이 있으며, 퇴화 세로선으로 화판을 나타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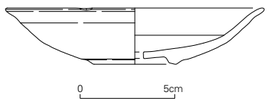




916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1 | Ⅰ-1①-B | 높이 3.2cm 저경 4.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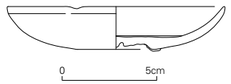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7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2 | Ⅰ-1①-G | 높이 1.9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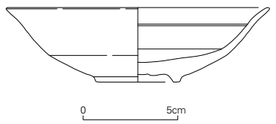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8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8 | Ⅰ-2①-B | 높이 3.9cm 저경 4.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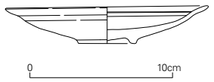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19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76 | Ⅰ-2②-B | 높이 2.6cm 저경 4.3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없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0 | 청자접시 青磁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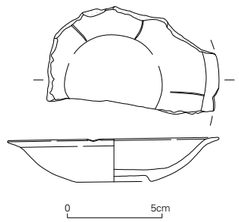
접시10 | Ⅰ-3①-G | 높이 2.2cm 구경 9.9cm 저경 3.3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1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10 | Ⅰ-3①-G-다 | 높이 2.4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고,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나타냈다. 굽은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2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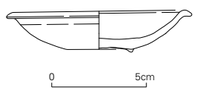
접시10 | Ⅰ-3①-G-다 | 높이 1.7cm 구경 10.0cm 저경 3.6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3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1 | Ⅰ-3①-H | 높이 2.1cm 구경 9.3cm 저경 3.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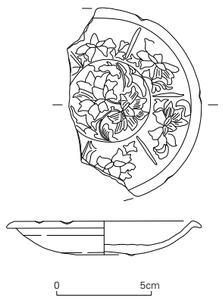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살짝 오목하게 깎아낸 평굽이다. 접지면의 유악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4 | 청자압출양각모란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花形楪匙

접시11 | Ⅰ-3①-H-다 | 높이 1.9cm 구경 10.2cm 저경 2.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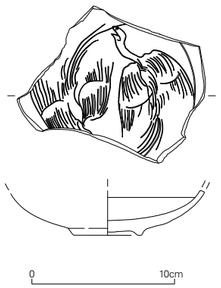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고,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5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青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Ⅰ-8①-C-가 | 잔존높이 3.3cm 저경 4.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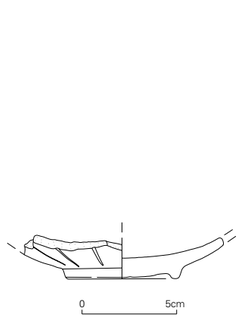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마리의 앵무를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접지면을 살짝 깎아냈다.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6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青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1 | Ⅰ-8①-C-㉮ | 잔존높이 2.0cm 저경 5.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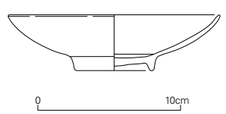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접지면을 살짝 깎아냈다. 접지면의 유악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7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27 | Ⅰ-9①-C | 높이 3.7cm 저경 5.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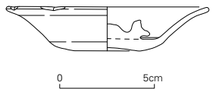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8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36 | Ⅰ-13①-H | 높이 2.3cm 구경 10.8cm 저경 3.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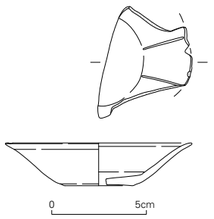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29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36 | Ⅰ-13①-H-다 | 높이 2.2cm 저경 3.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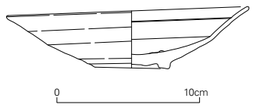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0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38 | Ⅰ-15①-B | 높이 4.8cm 구경 17.0cm 저경 5.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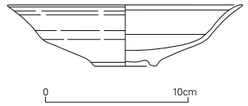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포개구이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1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38 | Ⅰ-15①-B | 높이 4.4cm 저경 4.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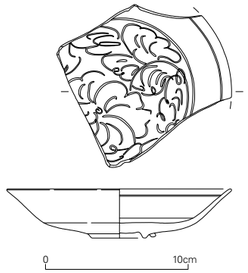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2 | 청자음각화문접시 青磁陰刻花文楪匙

접시39 | Ⅰ-15①-B-가 | 높이 3.1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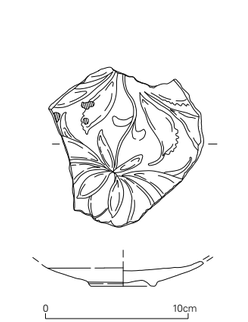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크기가 작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3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접시39 | Ⅰ-15①-B-다 | 잔존높이 1.6cm 저경 4.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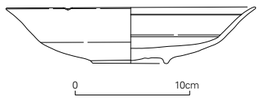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내면에는 커다란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4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40 | Ⅰ-15①-C | 높이 3.7cm 저경 6.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5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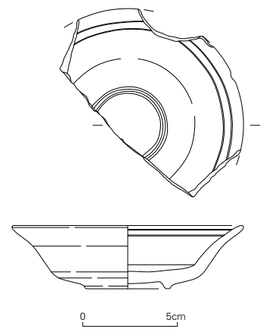
접시40 | Ⅰ-15①-C-다 | 잔존높이 1.7cm 저경 5.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며, 내면에는 커다란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6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41 | Ⅰ-16①-B-가 | 높이 3.3cm 저경 4.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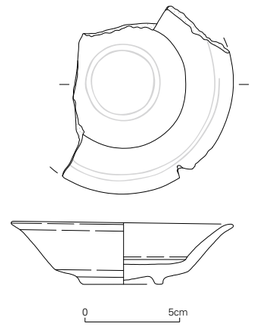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7 | 청자상감선문접시 青磁象嵌線文楪匙

접시41 | Ⅰ-16①-B-사 | 높이 3.1cm 저경 4.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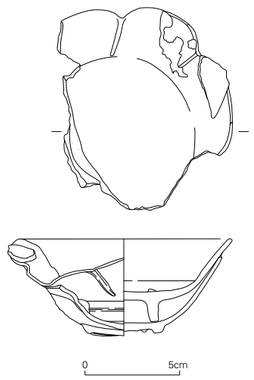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네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8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77 | Ⅰ-17①-E | 전체높이 5.1cm 상부 접시 높이 4.3cm 저경 3.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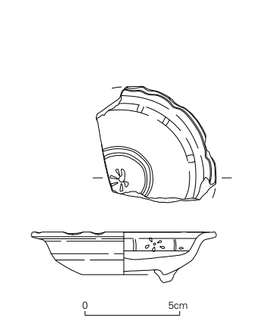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연 끝을 크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39 | 청자압출양각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花形楪匙

접시58 | Ⅰ-18②-G-다 | 높이 2.2cm 저경 4.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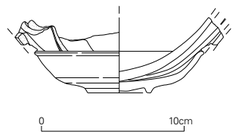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화문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0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2 | Ⅰ-19①-B-가 | 전체높이 6.0cm 하부 접시 높이 2.9cm 저경 4.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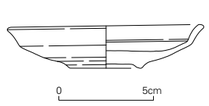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린 형태이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1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66 | Ⅰ-20①-B | 높이 2.6cm 저경 3.7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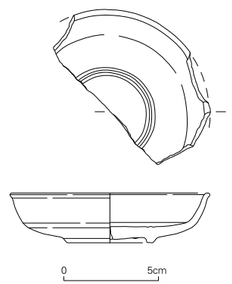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2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6 | Ⅰ-20①-B-가 | 높이 2.6cm 저경 4.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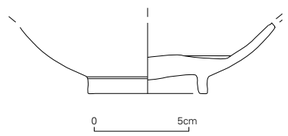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3 | 청자접시 青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3.7cm 저경 6.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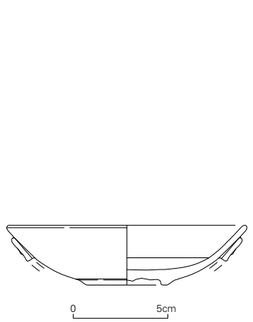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은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4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 | Ⅱ-1①-B | 높이 3.1cm 저경 4.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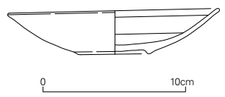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모래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다.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5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 | Ⅱ-1①-B | 높이 3.2cm 저경 5.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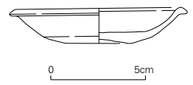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모래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6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11 | Ⅱ-3①-H | 높이 1.8cm 저경 3.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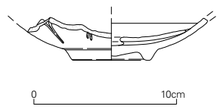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약간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살짝 오목하게 깎아낸 평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7 | 청자음각연판문접시 靑磁陰刻蓮瓣文楪匙

접시20 | Ⅱ-8①-B-㉮ | 잔존높이 3.2cm 저경 5.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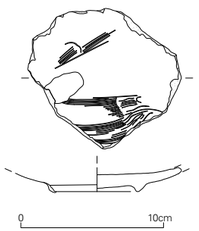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8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Ⅱ-8①-C-가 | 잔존높이 1.6cm 저경 5.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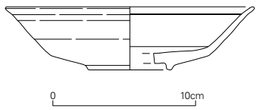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을 살짝 깎아냈다. 접지면 다섯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49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38 | Ⅱ-15①-B | 높이 4.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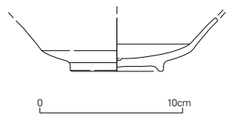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0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40 | Ⅱ-15①-C | 잔존높이 3.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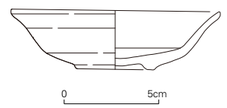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을 살짝 깎아냈다.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1 | 청자접시 靑磁楪匙

접시41 | Ⅱ-16①-B | 높이 3.1cm 저경 4.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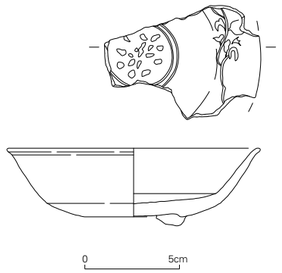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2 | 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青磁壓出陽刻花文楪匙

접시78 | Ⅱ-17①-G-다 | 높이 3.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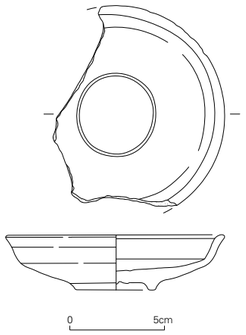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3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6 | Ⅱ-20①-B-가 | 높이 2.8cm 저경 4.0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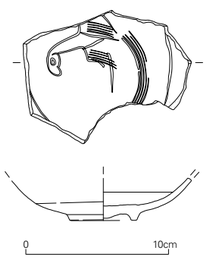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한 줄의 원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4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青磁陰刻鸚鵡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3.0cm 저경 4.7cm | 74가마 출토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쪽에 앵무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높이가 낮다. 접지면 세 곳에 모래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55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4 | Ⅲ-4①-H | 높이 2.1cm 저경 9.6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56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青磁陰刻鸚鵡文楪匙

접시21 | Ⅲ-8①-C-가 | 잔존높이 2.1cm 저경 6.3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마리의 앵무를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을 살짝 깎아냈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57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青磁陽刻蓮瓣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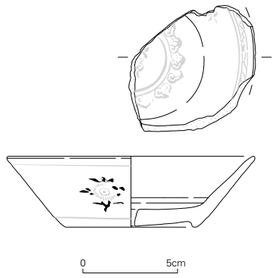
접시21 | Ⅲ-8①-C-㉮ | 잔존높이 4.1cm 저경 6.9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반구형에 가까우며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잎맥에 당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58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34 | Ⅲ-12①-G-사㉮ | 높이 3.7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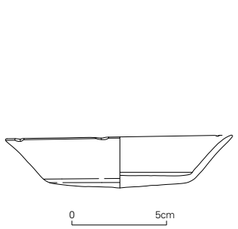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59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접시36 | Ⅲ-13①-H | 높이 2.4cm 구경 11.9cm 저경 7.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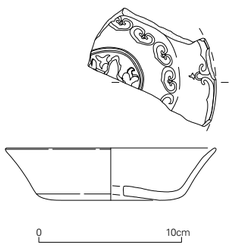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0 | 청자압출양각연화문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楪匙

접시36 | Ⅲ-13①-H-다 | 높이 3.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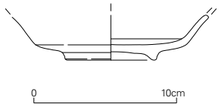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1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40 | Ⅲ-15①-C | 잔존높이 3.1cm 저경 6.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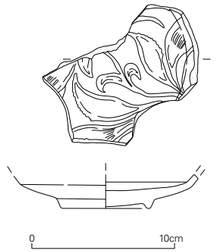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2 |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青磁壓出陽刻牡丹文楪匙

접시40 | Ⅲ-15①-C-다 | 잔존높이 2.4cm 저경 6.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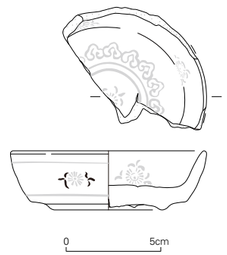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면에는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접지면을 살짝 깎아낸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3 |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青磁象嵌菊花文楪匙

접시42 | Ⅲ-16①-C-사㉮ | 높이 3.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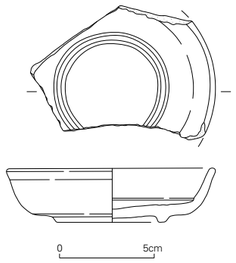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깝고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다소 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4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6 | Ⅲ-19①-B-가 | 높이 2.8cm 저경 5.6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두 줄의 음각선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5 | 청자압출양각국화문접시 青磁壓出陽刻菊花文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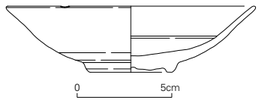
기타 | 잔존높이 1.4cm 저경 5.0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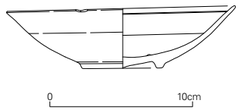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저면에 지름 7.0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국화문과 화판을 시문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966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 | Ⅳ-1①-B | 높이 2.8cm 저경 4.6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작다.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67 |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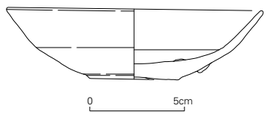
접시1 | Ⅳ-1①-B | 높이 4.0cm 구경 16.1cm 저경 5.6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68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75 | Ⅳ-1①-H | 높이 3.8cm 저경 4.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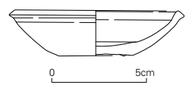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69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1 | Ⅳ-3①-H | 높이 2.4cm 저경 3.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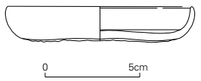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아낸 평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70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14 | Ⅳ-4①-H | 높이 1.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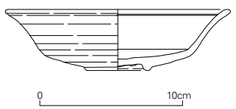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71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38 | Ⅳ-15①-B | 높이 4.3cm 저경 4.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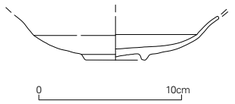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외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2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38 | Ⅳ-15①-B | 잔존높이 3.1cm 저경 4.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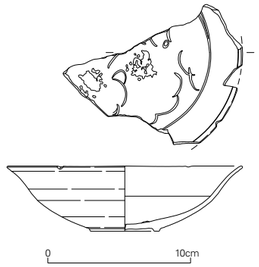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빛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확인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높이가 낮은 다리굽이다.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973 | 청자음각화문화형접시 青磁陰刻花文花形楪匙

접시39 | Ⅳ-15①-B-가 | 높이 4.5cm 저경 4.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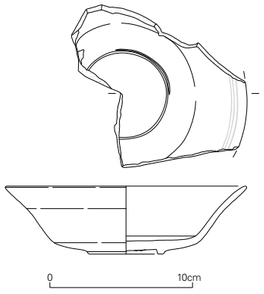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화문을 음각하였다. 백색내화토빛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974 | 청자상감선문접시 青磁象嵌線文楪匙

접시39 | Ⅳ-15①-B-사 | 높이 4.5cm 저경 5.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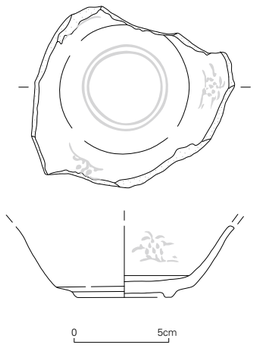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음각하였다. 구연 안쪽에는 세 줄의 선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5 | 청자상감연화문접시 青磁象嵌蓮花文楪匙

접시41 | Ⅳ-16①-B-사 | 잔존높이 3.6cm 저경 3.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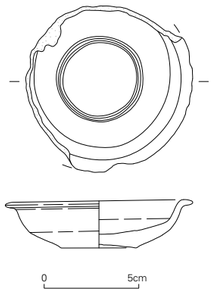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내면에는 이중의 원과 연화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6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53 | Ⅳ-18①-H-가 | 높이 2.5cm 저경 3.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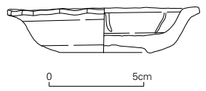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저부에서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7 | 청자압출양각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花形楪匙

접시58 | Ⅳ-18②-G-다 | 높이 2.4cm 저경 4.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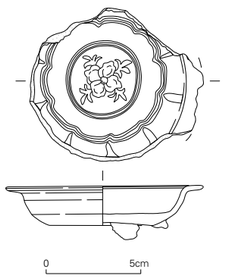
기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히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구연 끝을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고, 내면은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8 | 청자압출양각황촉규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黃蜀葵文花形楪匙

접시59 | Ⅳ-18②-G-다 | 높이 2.1cm 저경 5.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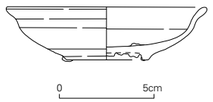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내면에는 도범을 이용하여 화판과 황촉규문을 나타냈다. 굽은 평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79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66 | Ⅳ-20①-B | 높이 2.8cm 저경 4.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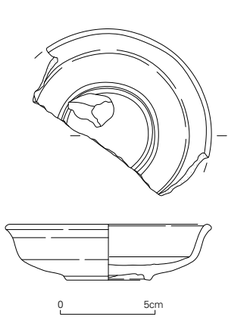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그 안에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80 | 청자음각선문접시 青磁陰刻線文楪匙

접시66 | Ⅳ-20①-B-가 | 높이 2.8cm 저경 4.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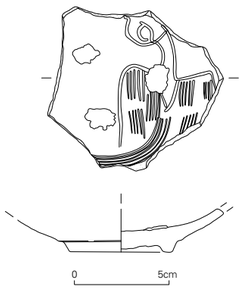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 꺾여 가파르게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이중의 원을 음각하였다.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81 |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青磁陰刻鸚鵡文楪匙

기타 | 잔존높이 1.6cm 저경 5.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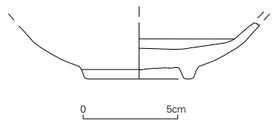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면에 앵무문을 거칠게 음각하였고, 그 위로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치고 포개구이한 흔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크기가 다소 크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82 | 청자접시 青磁楪匙

기타 | 잔존높이 3.1cm 저경 5.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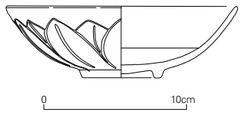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간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고, 백색내화토빚음으로 포개구이 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다소 높은 다리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83 |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青磁陽刻蓮瓣文楪匙

접시20 | Ⅵ-8①-B-㉮ | 높이 4.7cm 저경 5.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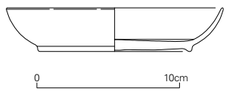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외면에는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984 | 청자접시 青磁楪匙

접시21 | Ⅵ-8①-C | 높이 3.1cm 저경 10.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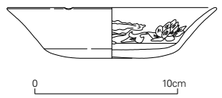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985 |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青磁壓出陽刻蓮花文花形楪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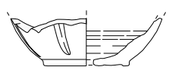
접시36 | Ⅵ-13①-H-다 | 높이 3.6cm 저경 9.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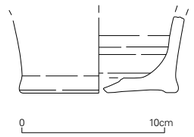
기측선이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얇게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측면에는 연화문을 압출양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매병을 비롯한 특수기는 잔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구역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최대한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병의 형태는 2형과 3형의 두 가지가 확인되며, 번조받침과 문양 소재에서 '가'구역의 매병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표50〉 '매병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모란문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매병3'은 기측선이 'S'자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로, 음각과 상감기법이 확인된다. 매병의 굽은 모두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다. 병은 옥호춘 형태의 '병3'만 확인되는데, 양각이나 상감으로 시문한 예가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과 모래가 있다. 주자는 과형의 '주자1'이 확인되는데,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로 외면을 세로로 눌러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0〉 매병 · 병 · 주자 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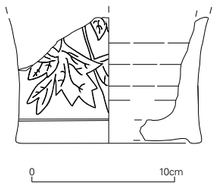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매병 2		Ⅰ-2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3	14 (46.67)
		Ⅱ-2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음각	모란문	5	
		Ⅵ-2	미상			6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진다. 외면에 모란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이 있다.						
매병 3		Ⅰ-3	백색내화토빚음	상감	뇌문	1	10 (33.33)
		Ⅱ-3	모래내화토빚음	음각	운문	3	
		Ⅲ-3	규석	상감	연판문	1	
		Ⅵ-3	미상			5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면에는 운문을 음각하거나 연판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의 안바닥을 파낸 안굽으로,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병 3		Ⅱ-3	모래내화토빚음	무문		1	10 (47.62)
		Ⅲ-3	규석	무문		1	
		Ⅳ-3	모래	양각, 상감	죽절문, 연판문	1	
		Ⅵ-3	미상	무문, 양각, 상감	죽절문, 화문	7	
	옥호춘 형태의 병으로, 외면에는 양각이나 상감으로 죽절문 또는 연판문을 시문한 예가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과 모래가 있다.						
주자 1		Ⅵ-1	미상	무문		3	3 (50.00)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은 세로로 눌러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매병 6(20%)		병 11(52.38%)		주자 3(50%)	
합계		매병 30(100%)		병 21(100%)		주자 6(100%)	



986 | 청자매병 青磁梅甁

매병2 | Ⅱ-2 | 잔존높이 5.3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87 |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青磁陰刻牡丹文梅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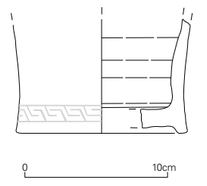
매병2 | Ⅱ-2 | 잔존높이 8.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의 하단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몸체에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88 | 청자상감뇌문매병 青磁象嵌雷文梅甁

매병3 | Ⅰ-3 | 잔존높이 7.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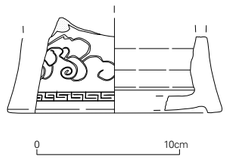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의 하단에 뇌문대를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989 | 청자음각운문매병 青磁陰刻雲文梅甁

매병3 | Ⅱ-3 | 잔존높이 6.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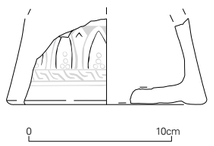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의 하단에 운문과 뇌문대를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990 | 청자상감연판문매병 青磁象嵌蓮瓣文梅甁

매병3 | Ⅲ-3 | 잔존높이 6.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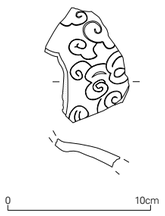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의 하단에 연판문과 뇌문대를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으로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고 번조받침과 요도구를 이격하기 위한 태토빚음이 붙어있다.



991 | 청자음각운문매병 青磁陰刻雲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5.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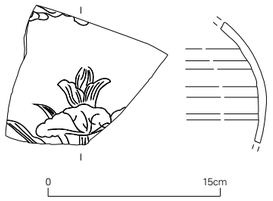
매병의 견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외면에 운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유약이 뭉쳐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992 | 청자음각연화문매병 青磁陰刻蓮花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12.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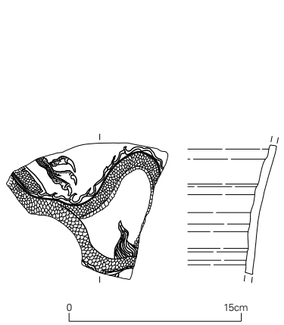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993 | 청자음각용문매병 青磁陰刻龍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12.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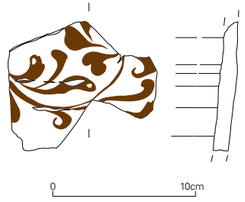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 용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994 | 청자철화당초문매병 青磁鐵畫唐草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9.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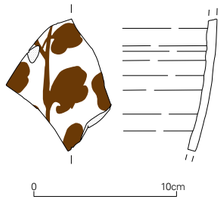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외면에 산화철 안료로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995 | 청자철화당초문매병 青磁鐵畫唐草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9.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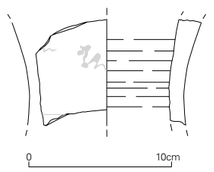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외면에 산화철 안료로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996 | 청자상감운문매병 青磁象嵌雲文梅甁

기타 | 최대길이 7.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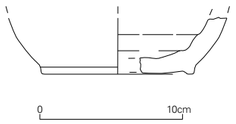
매병의 동체부로 형식은 알 수 없다.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 운문을 상감하였다.



997 | 청자병 青磁甁

병3 | Ⅱ-3 | 잔존높이 4.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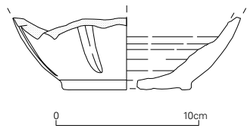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 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998 | 청자상감연판문병 青磁象嵌蓮瓣文甁

병3 | Ⅳ-3 | 잔존높이 5.3cm 저경 9.5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었다. 저부에는 연판문을 상감하였으나 희미하게 나타난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999 | 청자양각죽절문병 青磁陽刻竹節文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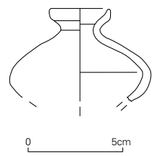
병3 | Ⅵ-3 | 최대길이 12.1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고 죽절문을 음각하였다. 내면에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1000 | 청자유병 青磁油甁

기타 | 잔존높이 4.9cm 구경 3.2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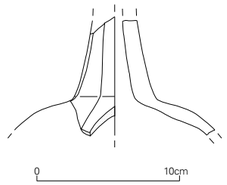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동체부 중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사선으로 좁아드는 마름모꼴 형태의 유병이다. 목은 짧고 구연부는 반구형이다. 저부는 결실되었다.



1001 | 청자각병 青磁角瓶

기타 | 잔존높이 8.8cm | 73가마 출토

형식 미상으로, 외면을 다각형으로 깎아낸 목이 긴 각병이다. 내면에 동체부와 목을 접합한 흔적이 있다.



1002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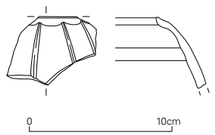
주자1 | Ⅵ-1 | 잔존높이 3.2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얕게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03 | 청자과형주자 青磁瓜形注子

주자1 | Ⅵ-1 | 최대길이 5.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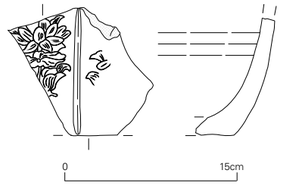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안으로 꺾여서 내만하고 입술이 말려있다.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1004 | 청자음각연화문과형주자 青磁陰刻蓮花文瓜形注子

기타 | 잔존높이 6.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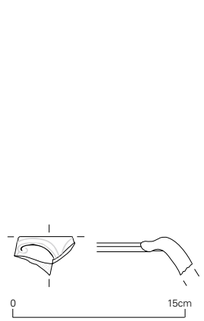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외면에 등간격으로 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으며 각 면에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05 | 청자상감연판문주자 青磁象嵌蓮瓣文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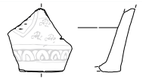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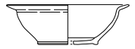
기타 | 최대길이 3.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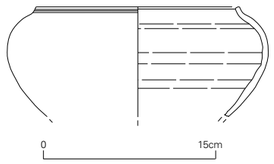
형식은 알 수 없으나 458번 주자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꺾여 내만한다. 외면에 연판문을 상감하였다.



호 · 편호 · 대발 · 발우는 각각 한 가지 형식이 확인된다.〈표51〉 호는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드는 형태로,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편호는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다. 대발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낸 원각이 있다. 발우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합신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1 · 2형이 확인된다.

〈표51〉 호 · 편호 · 대발 · 발우 · 합신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호 1		Ⅵ-1	미상	무문		2	2 (40.00)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든다. 구연부는 바깥으로 말려있다. 굽은 결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편호 3 *		Ⅵ-3	미상	상감	운문 등	1	1 (100.00)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배치하고 바탕에 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발 1		Ⅵ-1	미상	무문		1	1 (33.33)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로 깊게 파낸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우 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	1 (100.00)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 있다.						
합신 1		Ⅵ-1	미상	무문		1	1 (50.00)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구연부의 뚜껑과 맞닿는 면은 유약을 닦아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합신 2		Ⅲ-2	규석	음각	당초문	1	1 (50.00)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외면에는 뇌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기타	호 3(60%)			대발 2(66.67%)			
합계	호 5(100%)	편호 1(100%)		대발 3(100%)	발우 1(100%)	합신 2(100%)	



1006 | 청자호 青磁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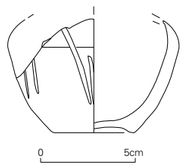
호1 | Ⅵ-1 | 최대길이 9.6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든다. 구연 끝은 바깥으로 말려있다. 몸체 대부분과 저부는 결실되었다.

1007 | 청자음각선문호 青磁陰刻線文壺

기타 | 잔존높이 6.0cm 저경 4.3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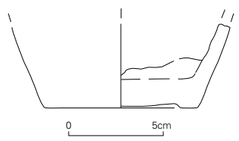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상부에서 꺾여 내만하는 형태의 호이다. 외면에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선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08 | 청자호 青磁壺

기타 | 잔존높이 4.5cm 저경 7.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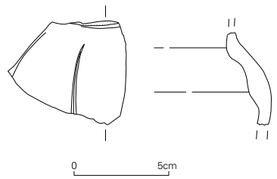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호로 추정된다.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09 | 청자과형호 青磁瓜形壺

기타 | 최대길이 5.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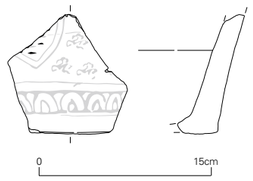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호로 추정된다. 외면에 등간격으로 세로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다.



1010 | 청자상감운문편호 青磁象嵌雲文扁壺

편호3 | Ⅵ-3 | 잔존높이 9.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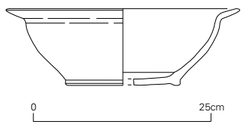
'가'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배치하고 바탕에 운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굽이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11 | 청자대발 青磁大鉢

대발1 | Ⅵ-1 | 잔존높이 9.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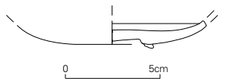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12 | 청자발우 青磁鉢盂

발우1 | Ⅰ-1 | 잔존높이 1.6cm 저경 3.9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편평한 내저면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으로,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3 | 청자합신 青磁盒身

합신1 | Ⅵ-1 | 최대길이 8.8cm | 74가마 출토

기측선이 하단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뚜껑과 맞닿는 부분에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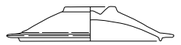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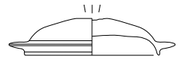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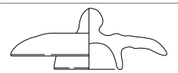
1014 | 청자음각당초문합신 青磁陰刻唐草文盒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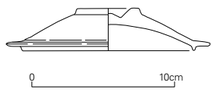
합신2 | Ⅲ-2 | 잔존높이 2.6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간다. 뚜껑과 맞닿는 부분에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뇌문과 당초문을 상감하였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개의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으며,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6가지가 확인된다.〈표52〉 '개1'은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려있다. '개3'은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형태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외면 중앙에 꼭지가 있는 예가 많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음각 화엽문, 철화 당초문 등의 시문기법과 문양소재가 확인된다. '개6'은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내면에 원통형의 촉이 있다. '개11'은 매병의 뚜껑으로,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오는 형태이다. 음각으로 연화문을 시문하였다. '개15'는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르고, '개16'은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된 형태이다. 음각과 상감으로 국화문과 당초문 등을 나타냈다.

〈표52〉 개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개1		Ⅰ-1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16	18 (41.86)
		Ⅵ-1	미상	무문		2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다.						
개3		Ⅰ-3	백색내화토빚음	무문		2	15 (34.88)
		Ⅱ-3	모래내화토빚음	음각+상감	화엽문	1	
		Ⅲ-3	규석	음각	화엽문	5	
		Ⅵ-3	미상	무문, 철화	당초문	7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꼭지가 있는 예가 많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이 있다.						
개6		Ⅰ-6	백색내화토빚음	철화	당초문	1	1 (2.33)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작은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철화기법으로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내면에 원통형의 촉이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이다.						
개11		Ⅲ-11	규석	음각	연화문	1	1 (2.33)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내려오는 형태이다. 음각으로 연화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개15		Ⅵ-15	미상	음각, 상감	화문	2	2 (4.65)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외면에 화문과 뇌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16		Ⅱ-16	모래내화토빚음	음각	당초문	1	4 (9.30)
		Ⅵ-16	미상	음각, 상감	연화문, 국화문	3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 당초문을 음각하거나, 국화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이다.						
기타						2	2 (4.65)
합계						43	100%



1015 | 청자개 靑磁蓋

개1 | Ⅰ-1 | 높이 2.5cm 저경 9.9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사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손잡이의 외면과 몸체 내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6 | 청자개 靑磁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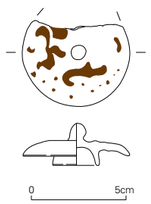
개3 | Ⅰ-3 | 잔존높이 2.3cm 저경 8.4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꼭지가 달렸던 흔적이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다.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7 | 청자철화당초문개 靑磁鐵畵唐草文蓋

개6 | Ⅰ-6 | 높이 2.1cm 저경 2.4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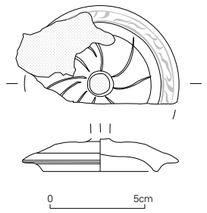
기측선이 수평에 가까운 곡선으로 하단에 이른다. 외면 중앙에 작은 연봉형의 꼭지가 있고, 철화기법으로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내면에 원통형의 촉이 있다.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8 | 청자음각화엽문개 青磁陰刻花葉文蓋

개3 | Ⅱ-3 | 잔존높이 1.4cm 저경 6.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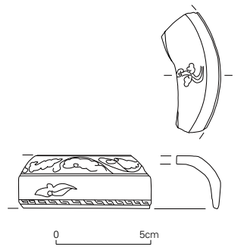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꼭지가 달렸던 흔적이 있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있다. 몸체 외면에 화엽문을 음각하고 가장자리는 뇌문을 상감하였다.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1019 | 청자음각당초문개 青磁陰刻唐草文蓋

개16 | Ⅱ-16 | 높이 6.0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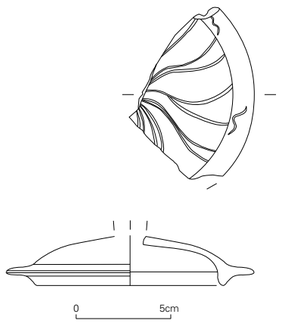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운문, 당초문, 뇌문을 음각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1020 | 청자음각화엽문개 青磁陰刻花葉文蓋

개3 | Ⅲ-3 | 잔존높이 2.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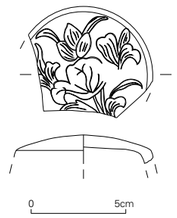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렸다. 몸체 외면에는 화엽문을 음각하였다. 내면 중앙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21 | 청자음각연화문개 青磁陰刻蓮花文蓋

개11 | Ⅲ-11 | 잔존높이 1.5cm 윗면지름 6.8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며 내려오는 형태이다. 윗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고 내면에는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22 | 청자철화당초문개 青磁鐵畫唐草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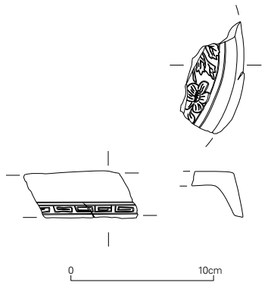
개3 | Ⅵ-3 | 높이 2.5cm 저경 9.9cm | 73가마 출토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토끼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내면에는 촉이 있다. 몸체 외면에 산화철 안료로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 시유하지 않았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23 | 청자음각화문개 青磁陰刻花文蓋

개15 | Ⅵ-15 | 높이 3.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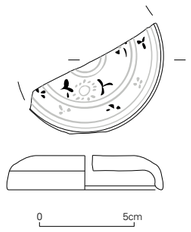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른다. 몸체 외면에 화문과 뇌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24 | **청자상감국화문개** 青磁象嵌菊花文蓋

개16 | Ⅵ-16 | 높이 1.8cm 윗면지름 7.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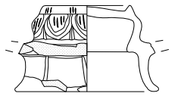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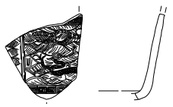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으나,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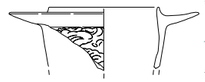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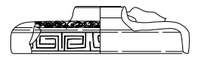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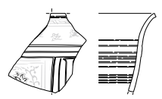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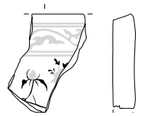


| 8 | 탁托 · 승반承盤 · 향로香爐 · 향로개香爐蓋 · 화분花盆 · 자판磁板 · 기와瓦

탁 · 승반 · 향로개 · 화분 · 자판 · 기와는 '가'구역의 형식 미상의 승반 외 탁3 · 향로개1 · 화분1 · 자판3 · 기와2 등 각각 1가지 형식이 확인된다.〈표53〉 향로는 '가'구역의 향로2 · 향로3 · 향로4 등 모두 3가지 형식이 확인된다. '향로2'는 동체부가 둥근 원정형 향로이며, '향로3'은 방정형 향로이다. '향로4'는 삼족 향로에 해당한다.

〈표53〉 탁 · 승반 · 향로 · 향로개 · 화분 · 자판 · 기와 형식 분류표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탁 3		Ⅲ-3	규석	음각	파도문	3	7 (87.5)
		Ⅵ-3	미상	무문, 음각	연화문	4	
	잔좌가 대좌처럼 돌출된 형태이다.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고 음각으로 파도문이나 연화문을 나타냈다. 굽은 화형의 높은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있다.						
향로 2		Ⅵ-2	미상	압출양각	용문	2	2 (33.33)
	동체부가 둥근 원정형 향로이다.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간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용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향로 3		Ⅵ-3	미상	압출양각	도철문	1	1 (16.67)
	동체부가 방형인 방정형 향로이다. 기측선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단을 이룬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을 나타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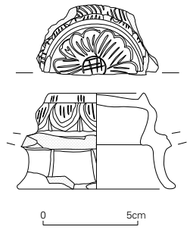
구분	분류형식	분류기호	번조받침	시문기법	문양	합계 수량(점)	합계 비율(%)
향로 4		Ⅵ-4	미상	음각	운문	3	3 (50.00)
	소위 삼족 향로로,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구연 전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향로개 1		Ⅲ-1	규석	무문, 음각	여의두문	2	4 (100.00)
		Ⅵ-1	미상	음각	운문	2	
	상형 장식을 올린 향로의 뚜껑이다.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 또는 수평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윗면에는 상형 장식을 올리고, 그 주변에 운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분 1		Ⅵ-1	미상	상감	연당초문	1	1 (33.33)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동체부 중간의 사각형 틀 안에 연당초문을, 상단에는 운문을 상감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판 3		Ⅵ-3	미상	상감	화문	2	2 (100.00)
	방형으로, 두께는 2.3cm 정도이다. 상감으로 화문과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 2		Ⅵ-2	미상	음각	모란당초문	8	8 (72.73)
	수키와로, 하단부는 오려내어 화형을 이룬다.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내면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탁 1 (12.50%)	승반 1 (100%)			화분 2 (66.67%)		기와 3 (27.27%)
합계	탁 8 (100%)	승반 1 (100%)	향로 6 (100%)	향로개 4 (100%)	화분 3 (100%)	자판 2 (100%)	기와 11 (100%)

1025 | 청자음각파도문탁 青磁陰刻波濤文托

탁3 | Ⅲ-3 | 높이 5.1cm 잔좌경 5.1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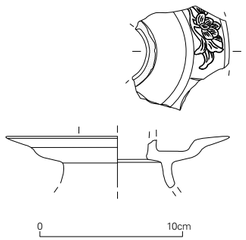
잔좌의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잔좌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고 음각으로 파도문을 나타냈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화형 다리굽이며, 굽 안쪽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26 | 청자음각연화문탁 青磁陰刻蓮花文托

탁3 | Ⅵ-3 | 잔존높이 3.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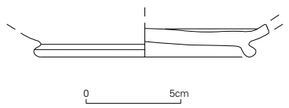
결실된 잔좌의 가장자리에 낮은 턱이 있다. 전은 수평에 가깝게 뻗어있으며, 음각으로 연화문을 나타냈다. 저부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1027 | 청자승반 青磁承盤

기타 | 잔존높이 1.8cm 복원저경 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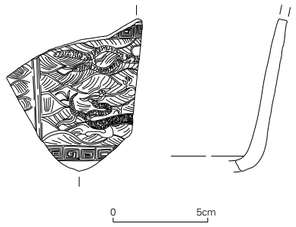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며,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굽은 바깥으로 살짝 말려 외반하는 형태의 다리굽이다.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28 | 청자압출양각용문정형향로 青磁壓出陽刻龍文鼎形香爐

향로2 | Ⅵ-2 | 최대길이 8.0cm | 73가마 출토

원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간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용문과 파도문을 시문하였다.



1029 | 청자압출양각도철문정형향로 青磁壓出陽刻饕餮文鼎形香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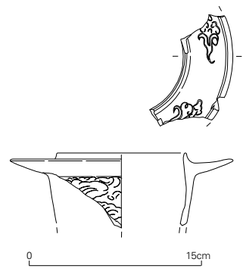
향로3 | Ⅵ-3 | 잔존높이 7.8cm | 73가마 출토

방정형 향로로, 기측선이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단을 이룬다. 외면의 문양은 도범을 이용하여 도철문을 나타냈다.

1030 | 청자음각운문향로 青磁陰刻雲文香爐

향로4 | Ⅵ-4 | 잔존높이 6.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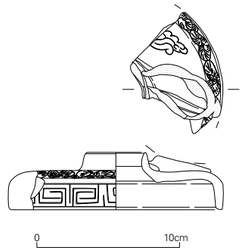
삼족 향로로,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동체부와 구연부 전에는 운문을 음각하였다.



1031 | 청자상형향로개 青磁象形香爐蓋

향로개1 | Ⅵ-1 | 잔존높이 3.8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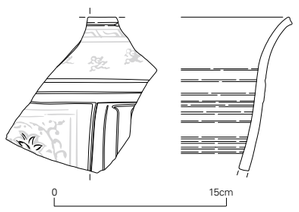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두 번 꺾여 수평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돌려 있다. 윗면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형 장식을 올리고, 그 주변에 운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32 | 청자상감연당초문화분 青磁象嵌蓮唐草文花盆

화분1 | Ⅵ-1 | 최대길이 14.0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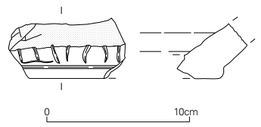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동체부 중간에는 사각형의 틀 안에 연당초문을, 상단에는 운문을 상감하였다.



1033 | 청자음각연판문화분 青磁陰刻蓮瓣文花盆

기타 | 잔존높이 4.3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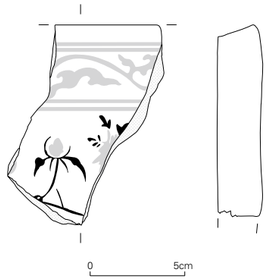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저부가 사선으로 벌어지고, 연판문을 음각하였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034 | 청자상감화문자판 青磁象嵌花文磁板

자판3 | Ⅵ-3 | 최대길이 10.2cm 두께 2.3cm | 73가마 출토

방형으로, 두께는 2.3cm 정도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연화문대를 두르고, 안쪽에는 화문을 상감하였다. 바닥면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35 | 청자음각모란당초문기와 青磁陰刻牡丹唐草文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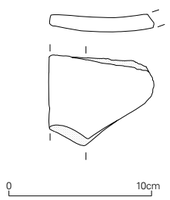
기와2 | Ⅵ-2 | 최대길이 11.4cm 두께 0.8cm | 73가마 출토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고, 하단부에 뇌문대를 배치하였다. 미구의 유무는 알 수 없으며, 하단부를 오려내어 화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시유되지 않은 내면에 물손질 조정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남아있지 않다.

1036 | 청자기와 青磁瓦

기타 | 최대길이 7.2cm 두께 1.1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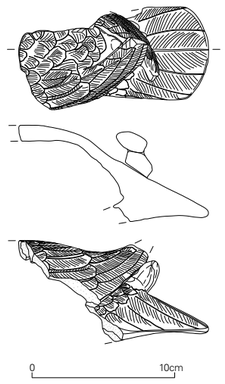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암키와로, 오목한 외면은 시유하고, 시유하지 않은 내면은 물손질하여 조정하였다.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37 | 청자원앙형장식 青磁鴛鴦形裝飾

기타 | 잔존높이 7.4cm 최대길이 12.9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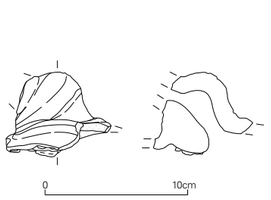
형식 미상의 원앙형 장식으로 추정되며, 꼬리와 날개만 남아있다. 외면은 음각으로 깃털을 세밀하게 나타냈다. 내면은 속파기를 하여 제작하였고, 번조받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1038 | 청자이형기 青磁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5.9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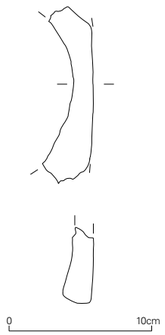
형태가 일그러져있어 기종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표형병의 상박과 하박의 형태와 유사하다. 내부는 뚫려있고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1039 | 초벌이형기 初燔異形器

기타 | 잔존높이 6.6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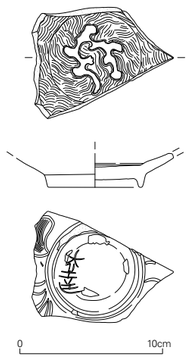
기종 미상의 초벌구이편이며, 한쪽 면은 편평하고 반대쪽 면은 곡선을 이룬다.



1040 | 청자음각파도문'호달'명발 青磁陰刻波濤文夲達銘鉢

기타 | 잔존높이 2.4cm 저경 6.5cm | 73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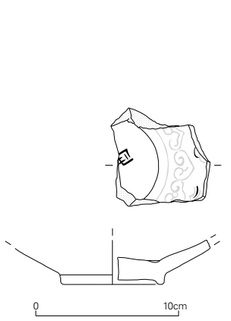
형식 미상으로, 내저면 중앙에 소재를 알 수 없는 문양과 바탕에 파도문을 음각하였다. 외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夲達'자를 음각하였다.



1041 | 청자상감여의두문'유'명발 青磁象嵌如意頭文酉銘鉢

발16 | Ⅲ-7①-F-사㉮ | 잔존높이 3.0cm 저경 6.8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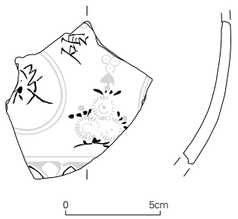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내저면에 '酉'자를 상감하였는데 '奚酉'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며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1042 | 청자상감국화문'석'명병 青磁象嵌菊花文碩銘甁

기타 | 최대길이 8.7cm | 73가마 출토

형식 미상의 병으로 추정되며, 기측선은 가파른 곡선을 이룬다. '碩'자 등의 명문을 국화문과 함께 상감하였다.



2) 요도구窯道具

요도구는 가마의 번조시에 사용되는 갑발과 다양한 형태의 도침이 소량 확인된다.〈표54〉 갑발은 원통형이며, 9.7cm 정도로 높이가 다소 높은 편이다. 도침은 크게 원반형, 원통형, 원추형과 상단과 하단에 각각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삼족형이 있다. 이 외에도 도봉陶棒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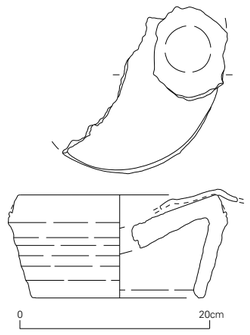
〈표54〉 요도구 출토 현황

구분	갑발	도침				도봉	합계
	小	원반형	원통형	원추형	삼족형		
수량	5	6	6	1	1	1	20
합계	5	14				1	20

1043 | 갑발 匣鉢

높이 9.7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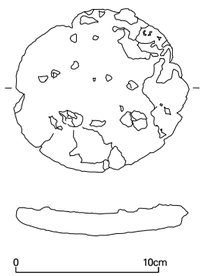
납작한 원통형의 갑발로,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다 꺾이며 'M'자형의 윗면을 이룬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윗면 가장자리에 청자저부편이 붙어있다. 외면은 유리질화되어 광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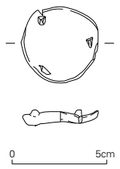


1044 | 도침 陶枕

높이 1.6cm, 저경 11.9cm | 74가마 출토

납작한 원반형의 도침으로 크기가 크다.





1045 | 도침 陶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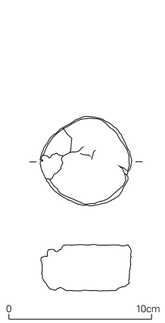
높이 0.8cm 저경 3.9cm | 73가마 출토

납작한 원반형의 도침으로, 한쪽 면에 규석을 받친 흔적이, 반대쪽 면에는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각각 세 곳에 남아있다.

1046 | 도침 陶枕

높이 3.3cm 저경 5.4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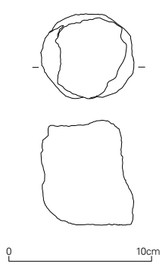
원통형의 도침으로, 윗면이 편평하며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다.



1047 | 도침 陶枕

높이 7.4cm 저경 5.6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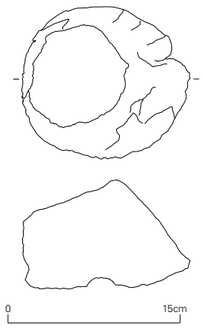
원통형의 도침으로, 몸체 중간이 약간 홀쭉한 형태이다.



1048 | 도침 陶枕

높이 9.5cm, 저경 14.5cm | 74가마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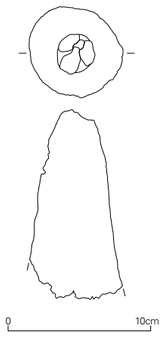
원통형의 도침으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이다. 윗면이 경사져 있고, 측면은 유리질화되어 광택이 있다.



1049 | 도침 陶枕

잔존높이 14.2cm | 74가마 출토

윗면에 이를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원추형의 도침이다. 윗면에 규석을 받친 흔적이 있다.



1050 | 도침 陶枕

잔존높이 4.6cm | 73둔덕 출토

삼족형의 도침으로, 상단과 하단에 각각 세 개의 다리가 달린 형태이다. 6개 중 5개의 다리 끝은 결실되었고, 잔존하는 다리의 끝단에 청자유가 묻어있다.

조사 내용과 출토 유물에 대한 고찰

Ⅳ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알려진 전라남도 강진은 북쪽에 크고 작은 산이 가깝고 남쪽으로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을 통한 도자 운송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자 제작의 주원료인 고령토와 규석, 그리고 물과 연료가 풍부하여, 도자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겸비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고려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강진의 청자는, 도요지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지금까지 한국도자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조사개요

국립중앙박물관은 1964년 봄 전라남도 강진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서 청자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가을부터 1977년까지 9차, 총 154일 동안 그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의 매년 사당리 117 · 127번지 일대('가'구역)를 발굴조사하고, 1973 · 1974 · 1977년에는 조사지와 인접한 127번지 끝자락의 제41호 도요지('나'구역) 발굴조사를 병행하였다.

1964년에 실시한 '가'구역의 117번지 일대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퇴적층과 다량의 청자를 확인하였다. 특히 〈청자압출양각당초문암막새〉를 비롯한 청자기와들이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1965~1966년의 2 · 3차 조사는 1차에 이어 126 · 127번지의 퇴적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표토를 포함한 상부 층위에서 14세기경의 청자가, 그 아래의 퇴적에서는 12~13세기경의 청자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지표면의 부식토층을 걷어내자 간지가 상감된 청자와 초벌편이 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66년의 3차 조사에서 건물지의 초석과 적심이 노출되었다. 1968년에 실시한 4차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확인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는데, 상감기법의 청자 자판磁板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1969~1970년에 실시한 5 · 6차 조사에서는 용도 미상의 부속시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14세기에 제작된 상감청자가 주로 확인되었다.

1973~1974년에 실시한 '나'구역의 7 · 8차 조사는 41호 도요지인 127번지와 104-1번지에 대한 것으로 반지하식 등요登窯 1기를 확인하였다. 1977년의 마지막 9차 조사는 41호 가마의 정리단계로, 가마벽의 보호를 위해 모래부대를 만들어 벽면을 받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상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가'구역에서 수혈竪穴 1기, 유물퇴적층, 석렬石列 1기, 건물지 2동, 출입시설이 확인되었고, '나'구역에서는 청자가마 1기가 조사되어 41호 도요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유구의 특징

조사지역은 현재의 고려청자박물관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을 '가'구역으로, 동쪽 지역을 '나'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가'구역은 다시 3지점으로 세분하였다.

'가'구역 1지점은 1964년의 조사지역으로 사당리 117번지 일대의 가옥 주변이다. 가옥의 앞마당과 뒷담의 동쪽 주변에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T1, T2의 중심 시굴갱을 설치하였다. 지표에서 5~10cm 정도의 깊이에서

발, 잔, 접시, 기와 등의 청자와 갑발이 포함된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청자가 집중되었던 T1의 동쪽, T2의 서쪽을 확장하여 T1ㅌ, T2ㅌ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된 퇴적층과 석렬, 굴광堀壙된 상면이 단단하게 다져진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공방지工房址 등 가마와 관련된 제반시설이 자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가옥의 북쪽 담장 너머에 T3 시굴갱을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곳에서 〈청자상감여의두문지정(至正)명접시〉와 〈청자상감당초문정해(丁亥)명접시〉가 함께 출토되었다. 담장 안팎에 동-서 방향의 시굴갱 T4~T9를 설치하였다. 담장 하부에서 간지명干支銘을 비롯한 14세기경의 상감청자들이 출토되었고, 그 아래의 토층을 걷어내자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을 받친 무문, 음각, 압출양각 기법으로 장식된 12~13세기경의 청자들이 다수 포함된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이후, 담장 일부를 제거하고 그곳에 A, B, C, D, E, F, G, H, I, J의 연장 시굴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북동쪽 담장의 가장자리 부근과 담장 석렬을 따라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퇴적이 담장 석렬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해당 유물포함퇴적층은 담을 조성할 당시에 주변에 산재한 자기를 활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2지점은 1965년의 조사지역인 사당리 126번지 일대이다. 1964년 조사 때, 담장 북쪽으로 유물퇴적층이 연장되는 것이 확인되어 가옥의 북쪽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1T1, 2T1, T2, T3 등 시굴갱 4기를 설정하였는데, 상부 토층에서는 14세기경의 청자가 소량 출토되었다. 그 아래의 퇴적에서는 12~13세기경의 청자가 확인되었다. 1T1에서는 기와와 함께 석렬 1기가 확인되었고, T2에서는 〈대장혜인계묘삼월(大匠惠印癸卯三月)명기와〉가 출토되었다. 조사지역 동쪽의 T4, T3, 2T1, T6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다량의 유물퇴적층이 확인되어, 세부 시굴갱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시굴갱은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A로 시작하여 남쪽까지 알파벳순으로 명명하였다. A 시굴갱부터 시작된 퇴적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퇴적의 폭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퇴적층의 깊이는 A 시굴갱의 경우 표토에서 10cm 내외에서 확인이 되지만, 남쪽으로 깊어져 H에 이르면 85cm 내외로 깊어진다. 퇴적의 단면형태는 넓은 'V'자형이며, 유물의 퇴적은 C, D, E가 가장 깊고 유물의 출토량도 많다.

1966~1970년의 조사지역인 3지점은 사당리 127번지의 서쪽과 126번지의 북쪽으로, 1965년에 조사된 남-북 방향 퇴적이 위치하는 지점의 동쪽과 북쪽 일대이다. 1966년 조사에서는 T1, T2, T3, T4, T5로 명명한 동-서 방향의 시굴갱 5기를 설정하여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T1, T2, T3에서 기단석렬 및 적심 등을 확인하고 이 일대를 확장 조사하여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확인된 건물지는 Building A(이하 B.A)로 명명하였다.

1968년에 이루어진 B.A에 대한 전면조사는 1966년에 확인된 건물지 내부에 격자 토층둑을 남기고 위에서부터 걷어내는 방식의 세부조사로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간지干支가 새겨진 상감청자를 포함하여 다량의 초벌구이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노출되었다. 초벌구이 퇴적층은 건물지의 전면에서 확인되며, 적심이나 기단석렬 등의 유구가 유물퇴적층에 덮여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건물지의 남쪽에서 확인된 아궁이 안에는 재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였던 유물퇴적구를 조사하였다. SM이라 지칭한 유물퇴적구는 주변 경작지에 있던 유물들을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퇴적구의 절개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1969년에는 B.A와 B.A의 동쪽에 대한 전면적인 세부조사가 실시되었다. B.A 상부에 퇴적된 초벌구이 퇴적층을 걷어내자 건물지의 기초 석렬들이 노출되었다. 건물지는 동향이고, 평면은 정면 3칸에 앞 · 뒤 칸에 각각 1칸씩 덧붙여 측면 3칸인 '一'자의 형태이다. 전체 규모는 배연시설을 포함하여 남-북 방향 길이가 약 13.8m, 동-서 방향 길이가 8.8m이었다. 정면의 적심간 거리는 3m이었으며, 측면의 앞 · 뒤 적심간 거리는 1.5m이었다. 건물지의 남쪽에서 'ㄷ'자 형태의 아궁이가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아궁이에서 서북쪽으로 휘어지는 연도煙道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배연부排煙部로 추정되는 방형方形의 시설이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는 기와가 폐기되어 있었다. 건물지의 서측으로는 배수로가 조성되었

다. 기단석 기초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석을 다듬은 석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B.A의 북동쪽에는 동-서 방향의 석렬 등이 확인되어 Building B(이하 B.B)라 칭하고 조사하였다. 동-서 방향의 석렬은 2열로 조성되었으며, 단이 져 있었다. 확인된 동-서 방향 석렬의 길이는 약 12.2m이다. B.B 건물지의 남쪽에서는 폐기와가 넓게 깔린 구간이 확인되어 Building C(이하 B.C)라 칭하고 1969년에서 1970년에 걸쳐 세부조사를 실시하였다. B.C에는 기와파편을 세로로 2줄씩 나란히 세워 '산山'형의 윤곽을 이룬 구간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와 주변에 기와를 넓게 깔아서 보도步度를 마련했던 것이 조사되었다. B.B 남측에서 시작되는 기와열은 B.A의 남쪽 기단열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해당유구는 B.B로 진입하는 출입시설로 추정할 수 있었다.

'나'구역은 41호 도요지로 알려진 곳으로 사당리 127번지의 동쪽과 104-1번지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에 T1, T2, T3의 시굴갱 3기를 설치하여 석렬 및 재층, 소토층燒土層 등을 확인하였다. 확장 시굴갱인 T2에서 가마 유구의 윤곽선이 노출되어 이를 따라 가마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확인된 가마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나지막한 구릉의 종단부에 입지한다. 가마는 아궁이 부분을 굴광하여 축조하고 번조실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굴뚝부에 이를수록 서서히 지상으로 노출되는 반지하식의 등요이다. 가마벽은 갑발을 먼저 포개어 쌓아올려 뼈대구조를 만든 다음, 진흙을 발라 틈새를 메우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잔존하는 가마의 규모는 길이 8m, 폭 110~150cm 내외이다. 시흥 방산동을[7] 비롯한 고려 초기 가마의 길이가 40m 정도의 대형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사당리 가마는 약 8.4m인 강진 용운리 가마와[8] 더불어 비교적 소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마 규모의 변화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청자의 발색 등의 번조기술이 시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안정되는 것과 직결되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마는 아궁이, 번조실, 불기둥 등이 남아있다. 가마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고, 부분적으로 갑발이 확인된다. 당시 조사자는 가마가 5차에 걸쳐 보수된 것으로 보았는데, 개축改築한 1차에서부터 4차까지 가마벽이 차츰 좁아지다가 5차 때에 다시 약간 넓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즉, 1차 벽면의 최대폭은 1m 50cm에서 차츰 좁아들어 2차, 3차를 거쳐 4차 벽면의 최대폭 1m 10cm까지 좁아졌다가 다시 가마바닥을 약 40cm 높이고 3차 벽면까지 약 1m 30cm로 넓어졌다. 1 · 2차 가마의 아궁이 우측에서 각각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폐기장은 가마의 좌우와 연소실 아래에 가마의 주축 방향과 동일하게 조성되었다.

3 출토 유물의 특징

1) '가'구역

'가'구역의 유구는 집터 조성과 농경지 개간 등으로 유구가 훼손되고 층위가 대부분 교란된 상태이다. 순청자를 비롯하여 상감청자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품질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나, 한 가마의 출토품으로 보기에는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제작시기의 폭이 매우 넓다. 유물의 종류와 성격으로 볼 때 '가'구역과 '나'구역의 41호 가마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역은 위치나 유물의 구성에서 인접한 사당리 도요지 8호와 23호 · 27호 · 40호 등의 생산품이 섞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 海剛陶磁美術館 · 京畿道 始興市, 「芳山大窯」(2001).
8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編 · 圖版編(1996 · 1997).

출토 유물은 청자 · 백자 · 흑자로 대별되는데 청자가 83.1%로 압도적이다. 백자는 0.1%, 흑자는 0.7%로, 청자 중심 가마의 퇴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초벌구이편과 요도구, 도기,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자기와는 『고려사高麗史』의 의종毅宗 11년(1157)에 "양이정養怡亭에 청자기와를 덮었다"라는 기록을 입증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전傳 인종仁宗(재위 1122~1146) 장릉長陵 출토 〈청자과형병〉(국보 94호)을 비롯하여 〈청자연화형향로〉와 〈청자음각용문과형매병〉 등 손꼽히는 순청자 명품들과 유사한 파편이 발견되어, 현존하는 전성기 고려청자들의 생산지로서의 강진 사당리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간지명 상감청자가 상당수 출토되어 14세기 사당리 청자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1) 청자

청자의 기종器種은 발 · 완 · 잔 · 접시 · 매병 · 병 · 주자 · 호 · 편호 · 대발 · 발우 · 합신盒身 · 개蓋 · 탁托 · 승반 · 기대器臺 · 투합套盒 · 향완 · 향로 · 향로개 · 자침磁枕 · 촉대 · 연硯 · 타호 · 약연(봉) · 반 · 화분 · 돈敦 · 자판磁板 · 기와 · 막새 · 이형기異形器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발 · 완 · 잔 · 접시 등 일반기를 비롯하여 병 · 주자 등 음식문화와 관련된 기종이 많다. 이 외에도 자침 · 자판 · 기와 · 화분 · 돈 등 생활과 밀접한 기종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다양한 청자문화가 사당리 가마 생산품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종별로 출토 수량을 살펴보면 접시가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발 22.7%, 잔 10.8%, 완 6.6%로 일반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특히 접시는 수량이 많은 만큼 유형과 크기도 다른 기종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매병 · 병 · 주자 · 호 · 탁 · 기대 등 특수기는 총 20.3%의 비율을 차지한다. 전세품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기 어렵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종은 이형기로 분류하였는데, 다양한 이형기가 발견된 것도 '가'구역 출토품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 등 5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규석받침의 비중이 48.4%로 가장 높다. 일반기와 특수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발 · 완 · 잔 · 접시 등 일반기 가운데 순청자에서는 백색내화토빚음과 규석 받침이, 상감청자에서는 모래받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매병 · 병 · 주자 · 호 · 탁 · 기대 등 특수기는 순청자의 경우 백색내화토빚음이나 모래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한 예가 많고, 상감청자의 경우 모래받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굽의 형태는 크게 햇무리굽, 다리굽, 안굽, 평굽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이 가운데 고족배를 포함한 다리굽은 굽과 접지면의 형태, 굽의 높이 등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문양의 장식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투각, 철화 · 철채, 퇴화, 상감 등 모두 7가지가 있다. '가'구역의 유물이 사당리 8호 · 23호 · 27호 · 40호 등의 생산품의 성격을 두루 보여주는 만큼, 상감이 약 22.5%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발 · 완 · 잔 · 접시 · 향로 등 다양한 기종에서 활용되었다. 이 외에 음각은 20.3%, 압출양각은 12.7% 등이다. 음 · 양각기법으로는 연화 · 모란 · 국화 · 보상화 · 황촉규 등과 파어波魚, 앵무, 용, 봉황 등이 있고 상감기법으로는 연화, 모란, 국화, 용, 운학, 포류수금 등이 장식되었다.

또한 음각 · 압인 · 상감 · 철화 기법의 다양한 명문銘文이 나타난다. 특히 상감으로 나타낸 간지명干支銘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외에도 굽바닥에 '+', '○', '⊙', '◎' 등의 음각부호가 상당수 나타난다.

'가'구역 유구 출토품은 12~14세기의 넓은 시기 폭을 보인다. 출토품 가운데 전성기 고려청자의 색色과 형形을 보여주는 예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 특히 음각 · 양각 · 압출양각 기법의 순청자 명품이 주를 이룬다.

발鉢

발은 3,211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22.7%를 차지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모두 확인되는데, 규석이 58.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모래와 백색내화토빛음은 각각 17.6%와 12.1%이다.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7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6가지로 나누었다.

전체 발의 8.7%에 해당하는 '발1'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백색내화토빛음이 41.1%, 모래내화토빛음이 27.9%이며, 무문 외에 음각과 압출양각으로 모란문 등을 장식하였다. 강진 용운리 10호-Ⅱ층 가 · 나유형의 K형과 나유형의 L형, 부안 유천리 7구역의 대접 A · B형을 비롯하여 태안 대섬의 대접Ⅰ-A-2, Ⅱ-A-1, Ⅱ-A-2, Ⅱ-B-1, Ⅱ-B-2, 태안 마도 1호선의 대접Ⅰ(1), 그리고 군산 비안도의 대접 B형과 파주 혜음원지(5차) 출토 대접 등과 비교할 수 있다.[9] '발2'는 전체 발의 17.3%로 '발1'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굽을 'V'자 또는 'U'자형에 가깝게 다듬었고, '발1'에는 나타나지 않는 규석 받침이 71.4%의 점유율을 보여 주목된다. 유천리 12호의 발 1 · 3 · 6 · 7형, 혜음원지(1~4차) 대접 1형 등이 유사하다. 전체 발의 24.5%를 차지하는 '발6'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문양은 내면에 앵무문을 음각하거나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한 것이 주를 이룬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등이며 이 가운데 규석의 비중이 81.3%로 가장 높다. '발6'은 용운리 10호-Ⅱ층 나 · 다유형의 O형, 유천리 12호의 발 2형, 유천리 7구역의 발 B형, 대섬의 대접 Ⅲ-A-1, 혜음원지(1~4차) 대접 2형 등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12세기에 중점적으로 생산 · 유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15'는 전체 발의 22.4%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번조받침은 규석 52.2%, 모래 39.7%이며 대부분 받침의 크기가 크고 거칠다. 유천리 12호의 대접 3형과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대접과 비교할 수 있다. '발16'은 전체 발의 17.0%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에 이른다. 내저에 원각이 있고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각각 55.7%, 36.0%로 주를 이룬다. '발15'와 마찬가지로 도리포 해저 출토 대접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1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13', '발15', '발16'에서는 간지명이 새겨진 예들이 상당량 눈에 띄어, 14세기 사당리 요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완碗

완은 933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6.6%를 차지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되는데, 규석과 백색내화토빛음이 각각 45.8%와 40.9%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6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7가지로 나누었다.

9 사당리 출토품과의 비교자료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圓光大學校 博物館 · 全羅北道 扶安郡,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2001);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寶物船 –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1호선 – 수중발굴조사 보고서」(201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2004);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2010); 국립중앙박물관,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201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본문편, 탑본 · 도면 · 사진편(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2003).

완 가운데 35.3%로 가장 많은 '완4'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로 내면에 파도문 또는 파어문을 음각한 예가 주를 이룬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60.0%로 가장 많고 백색내화토빛음도 33.0%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의 F형, 유천리 12호의 완 4형, 유천리 7구역의 완 D형, 대섬 출토 완 Ⅱ-A-3 등과 유사하다. 완 가운데 8.0%가 확인되는 '완10'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하는 형태로 내면에 운학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유천리 12호의 완 1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을 받쳐 구웠다. '완15'는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로 전체 완 가운데 4.7%가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대부분 백색내화토빛음이며 압출양각으로 황촉규, 국화 등을 장식하였다.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의 C형, 유천리 7구역의 완 A형과 유사하다. '완16'은 '완15'에 비해 기벽이 넓게 벌어지는 형태로 19.7%의 점유율을 보인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주를 이룬다.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의 E형, 유천리 12호의 완 1형, 대섬 출토 완 Ⅱ-A-1, Ⅱ-A-2, Ⅱ-B-2 등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사당리의 완은 12세기경에 중점적으로 생산되어 13세기까지 계속되었으며 14세기경에 제작된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찻그릇의 쓰임이 완에서 점차 다른 기종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잔盞

잔은 1,527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10.8%를 차지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되는데,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 받침이 각각 40.4%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8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17가지로 나누었다.

잔 가운데 29.2%를 차지하는 '잔4'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하거나 연화 · 이룡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많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75.3%로 가장 높다. 유천리 12호의 잔 4-2 · 12 · 13형, 유천리 7구역의 잔 B형, 대섬 해저의 완 Ⅰ-B-1형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잔 가운데 33.4%로 가장 많은 '잔5'는 '잔4'에 비해 더욱 가파른 곡선을 나타내는데, 내면에 파도문과 외면에 보상화문을 음각한 예가 많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87.6%로 주를 이룬다.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의 H형, 유천리 12호의 잔 1 · 5형, 유천리 7구역의 잔 A형 등이 비슷하다. 3.0%를 차지하는 '잔8'은 높은 다리굽을 갖춘 소위 고족배로, 내면에 간지를 새기고 운학문을 상감한 예가 많으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6.2%의 '잔10'은 기측선이 둥근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내면에 간지를 새기고 운학문이나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있다. '잔12'는 4.1%로
계란형에 가까운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내화토빛음이 각각 48.4%와 28.1%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용운리 10호-Ⅱ층 나유형의 H형, 유천리 12호의 잔 2 · 3 · 6 · 7 · 8형, 유천리 7구역의 잔 D형, 마도 1호선의 잔 Ⅲ · Ⅳ, 혜음원지(1~4차)의 잔 5형 등과 유사하다. '잔14'는 잔 가운데 9.3%을 차지하는데,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한 예가 많고, 번조받침은 규석이 73.4%로 주를 이룬다. 용운리 10호-Ⅱ층 나유형의 G형, 유천리 12호와 마도 1호선 등을 비롯하여 인종仁宗(재위 1122~1146)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청자유개통형잔〉 등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10]

10 고려청자 통형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할만하다.
김윤정, 「고려 12세기 靑磁有蓋筒形盞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 양상」, 『해양문화재』 제2호(2009), pp. 105~15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은 발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법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형태가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폭 넓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접시楪匙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 접시는 5,555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39.4%를 차지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모두 확인되는데, 규석이 6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래와 백색내화토빛음은 각각 18.8%와 10.1%로 발과 비슷한 양상이다. 기측선과 내저원각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22형으로 구분하고, 굽의 형태와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74가지로 나누었다.

'접시1'은 4.5%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확인되는데, 백색내화토빛음이 48.4%로 가장 많다. 용운리 10호-Ⅰ층 E형과 10호-Ⅱ층 가 · 나유형의 T-ⓐ형, 유천리 12호의 접시 26형, 유천리 7구역의 접시 Ⅰ형을 비롯하여 마도 1호선의 접시Ⅴ, 2호선의 접시 Ⅱ형(中-ⅱ-ⓐ · ⓑ)과 Ⅲ형(大-1-ⅰ, 大-2-ⅰ · ⅱ), 대섬의 접시 Ⅱ-A-1, Ⅱ-A-2, Ⅱ-B-1, 그리고 비안도의 접시 A형과 혜음원지(5차) 출토 대접 등과 비교할 수 있다. 8.4%의 '접시14'는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형태에 따라 기측선이 직사선을 이루는 형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형으로 세분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용운리 10호-Ⅱ층 다유형의 S-ⓓ형, 유천리 12호의 접시 3형, 유천리 7구역의 접시 K-2형을 비롯하여 대섬의 접시 Ⅳ-A-1, 그리고 혜음원지(1~4차) 접시 5형 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가장 많이 출토된 '접시21'은 14.7%로 기측선이 반구형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면에 앵무문과 접문蝶文을, 외면에 연판문을 장식한 예가 확인되며, 굽은 'V'자 또는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이 각각 21.2%, 0.6%, 71.4%로, 규석 중심의 고급품이 중심을 이룬다. 유천리 7구역의 접시 B형을 비롯하여 대섬의 접시 Ⅰ-A-1, 비안도의 접시 B형, 그리고 혜음원지(1~4차) 접시 13형 등이 비슷하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접시21'과 '발6'의 앵무와 연판은 출토예를 볼 때 12세기를 중심으로 유행한 문양 소재일 가능성이 있다. '접시32'는 3.1%로 기측선이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동체 상단에서 곡선을 그리며 직립하는 구연부에 이르는 형 태이다. 내 ·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운학문, 용문 등을 상감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각각 31.8%, 65.3%이다. 유천리 12호의 접시 25형과 도리포 해저 출토 접시 1형과 비교할 수 있다. '접시34'는 6.0%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다수이며, 내면에 화문과 여의두문을 음각하거나 압출양각한 예도 있다. 굽은 안굽이며,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각각 46.7%, 47.6%, 0.2%이다. 유천리 12호의 접시 32형과 도리포 해저 출토 접시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접시32'와 '접시34'는 간지가 새겨진 예들이 다수 확인되어, 14세기 사당리 요업의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접시36'은 전체 접시의 3.6%로 기측선이 편평한 접지면에서 꺾여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등간격으로 살짝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냈다. 내면에 연화문을 압출양각한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굽은 평굽이고,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용운리 10호-Ⅱ층 가유형의 Q형과 나유형의 W형, 유천리 12호의 접시 4 · 5형, 유천리 7구역의 접시 H-6형을 비롯하여 마도 1호선의 접시Ⅲ-A-2-a, 대섬의 접시 Ⅲ-B-2, 그리고 혜음원지(1~4차) 출토 접시 4 · 15형 등이 비슷하다. '접시40'은 8.8%로 기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동체 중간에서 꺾여 올라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 끝을 얕게 오려내어 화형을 나타내거나 내면에 압출양각 문양을 장식한 예가 많다. 굽은 'V'자 또는 'U'자형 가까운 다리굽이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가운데 규석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용운리 10호-Ⅱ층 추가 U-4형, 유천리 12호의 접시 1 · 2 · 12형, 유천리 7구역의 접시 C · H형을 비롯하여 혜음원지(1~4차) 출토 접시 1형 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접시43'은 5.8%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각각 35.1%와 56.1%의 비율을 보인다. 도리포 해저 출토 접시 가운데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접시47'은 3.6%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끝을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몸체는 팔각을 이룬다.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각각 55.2%, 38.8%, 1.9%가 있다. 유천리 12호의 접시 팔각3형과 유천리 7구역의 접시 D형, 도리포 해저 출토 팔각접시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접시62'는 3.9%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리거나 살짝 외반한다. 내저면에 선문을 음각하거나, 내 · 외면에 국화문을 상감한 예가 많다. 굽은 사다리꼴이나 넓적한 'U'자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소 큰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55.7%, 모래가 38.3%이다. 유천리 12호의 접시 11형과 비슷하다.

접시는 다른 기종에 비해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접시16 · 32 · 34 · 43 · 44 · 47 · 56 · 58 · 60 · 62 · 67'에서 간지를 새긴 예들이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접시는 전체 기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동시에 다양한 번조방식, 장식기법의 변화 등에서 12~14세기에 걸쳐 폭넓게 제작 ·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매병梅甁

매병은 180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1.2%를 차지하며, 기측선을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모래가 확인되는데, 백색내화토빛음이 43.8%로 가장 많다. 굽은 접지면 안쪽을 깎아낸 안굽이 대부분이다. 매병 가운데 가장 많은 '매병2'는 45.0%로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직립하다가 다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동체부 상단에 이르러 곡선을 이룬다. 높이에 비해 저부의 폭이 다소 넓은 모습이다. 외면에 연화문과 용문 등을 음각과 상감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음각으로 용문을 장식한 예는 기형과 문양 구성 등에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청자양각운룡문매병〉(보물 제1385호)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또한 사당리 출토 개蓋와 기대器臺 가운데 매병과 조합을 이루는 예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11]

병甁

병은 252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1.7%에 해당하며,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소량이지만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확인된다. 11.5%를 차지하는 '병1'은 목과 동체부, 저부의 세 부분을 접합한 형태로, 저부는 외반하고 동체부의 기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급격히 오므라들며 기다란 목에 이른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음각으로 연화문을 시문한 예가 있다. 굽은 높은 다리굽이다. 특히 몸체에 등간격으로 세로골을 내어 과형瓜形을 표현한 병은 인종 장릉에서 출토

11 고려청자 매병에 대해 다룬 논문은 이종민, 「고려시대 청자매병 연구」, 『강좌미술사』 27(2006), pp. 157~190.

되었다고 전하는 청자과형병(국보 94호)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병2'는 목 부분과 동체부를 접합하여 제작한 반구장경병盤口長頸甁 형태로 2.7%에 해당한다. 68.1%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는 '병3'은 옥호춘玉壺春 형태의 병으로, 구형의 동체부에 가늘고 긴 목을 갖추고 있다.

사당리 출토 병은 무문에서 음각, 양각, 철화, 상감 등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12~14세기의 시기 폭을 보인다.

주자注子

주자는 청자 전체에서 약 0.5%에 해당하는 73점이 확인되나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형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2.0%에 이른다. 형태는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있다. 주자의 26.0%를 차지하는 '주자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동체부 하단에서 안으로 둥글게 수렴하는 형태이다. 외면에 세로골을 내어 과형을 표현하였으며 굽은 안굽이다.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주자2'는 8.2%를 차지하며, 외면에 세로선을 등간격으로 음각하여 과형을 나타내고, 국화문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굽은 안굽이다.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주자3'은 13.7%로, 양각과 음각 기법으로 외면을 죽순 형태로 표현하였다.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호壺

호는 81점으로 전체의 약 0.5%에 해당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등이 확인된다. 13.1%를 차지하는 '호1'은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다가 견부에서 급격한 곡선을 이루며 오므라드는 형태이다. 구연부가 바깥으로 말려있으며, 외면에 포류수금문을 상감하기도 했다. 굽은 'U'자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2.6%의 '호2'는 기측선이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며 원통형을 이룬다. 구연부가 밖으로 꺾여 있으며, 굽은 평굽이다. '호3'은 3.9%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 견부에서 수평으로 꺾여 구연부에 이른다. 견부에 상형象形 장식이 있고 몸체 외면에는 국화문을 상감하였다.

편호扁壺

편호는 약 0.1%인 25점이 확인되며,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92.0%를 차지하는 '편호1'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살짝 오므라들다가 사선을 이루며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이다. 편평한 면에 능화창을 그린 뒤 초화문과 운문雲文 등을 상감하였으며, 굽은 안굽이다.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편호2'는 외면 능화창에 포류문과 운문 등을 상감하였다.

대발大鉢

대발은 약 0.3%인 44점이 확인되며,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등이 있다. 59.0%를 차지하는 '대발1'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룬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4.5%의 '대발2'는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에 연화문을 음각하였고 굽은 외반한 다리굽이다.

발우鉢盂

발우는 약 0.4%인 61점이 확인되며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각각 47.5%, 44.2%, 3.2%의 비율을 보인다. '발우1'은 55.7%로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구연부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리기도 했으며, 굽은 안굽이다. '발우2'는 18.0%로 기측선이 구형의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부에 이르는 형태이다. 내면에 화당초문을 음각, 외면에 연판문을 양각하였다. 15.2%의 '발우3'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내만한다. 내저원각이 있고 외면에 선문을 음각하기도 했다. 굽은 안굽이다. 특히 '발우3'은 1073년 혹은 1193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계축년'명발〉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주목된다.

합신盒身

합신은 약 0.4%인 59점이 확인되며, 기측선을 중심으로 6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확인되는데, 규석이 27.1%로 가장 많다. '합신1~3'은 총 69.4%로,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기측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가 단을 이루며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 저부 가장자리에 상감 뇌문을 장식하기도 하였고, 굽은 다리굽과 안굽, 평굽 등이 확인된다. 특히 '합신2'는 외면에 촘촘하게 세로골을 낸 것이 특징이다. 1.6%를 차지하는 '합신4'는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으며 외면에는 연화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V'자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10.1%의 '합신5와 '합신6'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굽은 평굽과 다리굽이 있다. '합신6'은 상감으로 국화문과 뇌문 등을 장식하였다.

개蓋

개는 594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4.2%를 차지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확인되는데, 규석이 39.8%로 가장 많다. 기측선을 중심으로 18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전체 개 가운데 42.0%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개3'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고 하단에서 수평으로 꺾여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외면 중앙에 연봉형 또는 납작한 원통형의 꼭지가 달린 예가 많고, 내면의 전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달려 있어 주로 잔과 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화 당초문, 음각 화엽문, 상감 국화문 등 다양한 장식기법과 문양소재가 나타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이 확인되는데, 규석이 61.6%로 가장 많다. 용운리 9호와 10호-Ⅰ·Ⅱ층 개 E형, 유천리 12호의 뚜껑 1·2형, 유천리 7구역의 뚜껑 B형을 비롯하여 마도 1호선의 뚜껑 Ⅰ(무문, 양각선문), 대섬의 뚜껑 Ⅰ(무문, 철화), 그리고 비안도의 뚜껑 B형과 혜음원지(1~4차) 출토 뚜껑 1·3형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개4'는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로, 4.2%를 차지한다. 외면 중앙에 상형象形의 꼭지가 있고 내면에 촉이 달려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규석, 모래가 각각 8.0%, 20.0%, 12.0%의 비율을 보인다. 유천리 7구역의 뚜껑 D형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22.2%의 '개9'는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려오고 하단에서 짧게 꺾여 수직을 이룬다. 외면 중앙에 상형의 꼭지가 달려있고, 안팎에 도식화된 운학문, 연당초문 등을 가득 상감 장식하였다.

매병의 뚜껑인 '개11'은 6.0%로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윗면에 구멍이 있거나 가장자리에 굽 형태의 돌대가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용운리 10호-Ⅱ층 개 G형, 유천리 12호의 뚜껑 4 · 5형 등과 비교할 수 있다. 사이호의 뚜껑인 '개12'는 2.1%를 차지하며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다. 윗면 중앙에 줄기를 형상화한 '+'자형의 꼭지가 달려있다. 용운리 10호-Ⅱ층 개 H형, 유천리 12호의 뚜껑 8형 등이 유사하다. 6.5%의 '개15'는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곡선 또는 직각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 이르는 형태이고, 3.5%의 '개16'은 기측선이 편평한 윗면에서 사선으로 꺾여 내려와 하단에서 수직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개15'와 '개16'은 각각 유천리 7구역의 뚜껑 E형과 F형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탁托

탁은 약 1.1%인 167점이 확인되며, 기측선과 잔좌의 형태를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 태토빛음이 각각 8.9%, 1.7%, 32.3%, 25.7%, 3.5%의 비율을 보여, 규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탁1'은 17.3%로 잔 모양의 잔좌를 갖추며, 잔좌의 내저면은 막혀 있거나 굽까지 뚫려있는 형태가 있다. 굽은 'U'자형 또는 외반하는 높은 굽이며, 전 부분에 이룡문을 음각하거나 가장자리와 세부를 꽃잎처럼 표현한 예가 있다. 22.7%의 '탁2'는 잔좌의 구연부가 낮고 사선을 이루며 좁아드는 형태이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나 일부 직립하기도 하며, 상감 기법으로 화당초문과 운문 등을 장식하였다.

55.6%를 차지하는 '탁3'은 잔좌가 대좌臺座처럼 돌출되어 있다.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으로 음각과 상감으로 화문, 국화문 등을 시문하였는데, 상감 기법의 비중이 높다. 내면이 편평한 접시모양의 '탁4'는 4.1%로 해당하며, 내저면 중앙에 원형의 돌대가 있고 구연부는 꺾여 외반하여 전을 이룬다. 굽은 평굽과 'U'자형의 낮은 다리굽이 있다.

사당리의 탁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나쁘지 않고, 잔탁 혹은 완탁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반承盤

승반은 전체의 약 0.2%인 39점이 확인되며, 기측선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각각 17.9%, 28.2%, 35.8%로, 모래의 비율이 가장 높다. '승반1'은 15.3%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몸체 외면에 세로골을 내어 화형花形을 나타내었다. 굽은 접지면 끝을 오려낸 화형의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66.6%로 가장 많다. 30.7%의 '승반2'는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 초문 등을 상감하였으며 굽은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각각 50.0%, 41.6%이다. 보물 제1033호 청자상감운학국화문표형주자 · 승반의 승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주목된다. 28.2%를 차지하는 '승반3'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를 바깥에서 눌러 화형을 나타냈으며, 굽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리굽이다.

승반은 일반적으로 주자의 하단에 놓이는 것으로, 사당리 출토 주자 가운데 조합을 이루는 예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대器臺

기대는 약 0.7%인 101점이 확인되며,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 1.9%, 모래가 26.7% 확인된다. 0.9%를 차지하는 '기대1'은 원통형의 받침대로, 여의두형 다리를 제외하고 3단의 몸체를 갖추고 있다. 하단 외면에 모란문을 음각하고 돌대로 구획한 중간부분에는 능화형 투공을 내었으며 상단에는 구름형 판 위로 원형의 띠를 얹었다. 72.2%의 '기대2'는 다리가 'S'자형을 이루며 외반하고, 귀면鬼面 장식이 붙어 있는 예가 많다. 몸체 하단에 원반형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였던 기둥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상단은 첨화 내지 투각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12.8%의 '기대3'은 연판문을 양각한 하단에서 사선으로 벌어지다 상단에서 다시 급격하게 안으로 꺾여 올라가는 형태로, 구연부는 외반하여 말려있으며 외면에는 이중선 아래 연주문을 상감 장식하였다.

투합套盒

투합은 12점이 확인되며,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25.0%, 규석이 16.6%이다. 투합 가운데 75.0%를 차지하는 '투합1'은 상단이 방형方形에 가까운 화형으로 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다리는 비교적 높으며 수직을 이룬다. 전 인종 장릉 출토 투합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25.0%의 '투합2'는 상단이 원형圓形에 가까운 화형으로 가장자리에 단이 있으며 별도의 다리는 없는 형태로, 외면에 화당초문을 음각하였다.

투합은 내면이 살짝 오목하게 파이고 가장자리에 단이 있어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개를 포개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의 사용예를 참고하고, 왕릉이나 제사터 등에서 희소하나마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의례 시 진설陳設을 위한 용기로 추정할 수 있다.[12]

향완香垸

향완은 전체의 약 0.1%인 23점이 확인되며,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규석과 모래가 확인된다. 26.0%를 차지하는 '향완1'은 기측선이 저부에서 꺾여 가파른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로, 굽은 살짝 외반하는 높은 다리굽이다. 47.8%의 '향완2'는 기측선이 동체부 하단에서 둥글게 꺾여 직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동체부 하단에 연판문을 굵게 양각하였으며, 굽과 따로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로香爐

향로는 약 0.8%인 126점이 확인되며,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 3.1%, 규석이 32.5%로, 규석이 비율이 높다. 연화형 향로인 '향로1'은 11.1%로, 기측선이 몸체 하단에서 풍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점차 사선으로 좁아들고 구연부는 연꽃잎 모양이다. 곡선을 이루며 바닥에 이르는 저부는 가장자리를 바깥으로 말아서 연잎을 형상화하고, 문양은 네 겹의 이중 연판문과 연잎을 음각과 양각으로 세밀하게 나타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규석이 각각 28.5%, 7.1%이다. 15.8%의 '향로2'는 기측선이 몸체 하단에서 곡선을 그리다 직립해 올라가는 원정형圓鼎形 향로이다. 17.4%의 '향로3'은 기측선이 직립 혹은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가는 방정형方鼎形 향로이다. '향로2와 '향로3'은 몸체 바닥에 3~4개의 다리가 달려 있으며 도범을 이용하여 외면에 도철문, 용문 등을 찍어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소위 삼족三足 향로라 부르는 '향로4'는 29.3%로 몸체 바닥이 편평하고 기측선이 수직으로 올라

12 장남원, 「고려시대 청자 투합의 용도와 조형계통」, 『미술사와 시각문화』 9(2010), pp. 174~201.

가며 구연부에 사선으로 뻗은 넓은 전이 달렸다. 몸체 외면에는 운문이나 뇌문을 음각하였고 바닥에는 3개의 다리를 부착하였으며 일부 4개를 부착한 사족四足 향로도 있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팔각八角 향로로 추정되는 '향로5'는 23.0%로, 각진 몸체의 기측선이 편평한 바닥에서 꺾여 올라가 사선으로 벌어지고 구연부에 넓은 전이 달렸다. 각 면에 초화문을 상감 장식하였으며, 귀면형鬼面形 다리가 달렸다.

향로는 향완과 더불어 고려 왕실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다양한 의례와 고려시대 사찰에서 행한 불교의례 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3]

향로개香爐蓋

향로개는 약 0.1%인 26점이 확인되며, 2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42.3%를 차지하는 '향로개1'은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중앙은 둥글게 뚫려 있다. 이는 연화형향로나 삼족[사족] 향로에 얹혔을 뚜껑으로, 귀룡龜龍이나 오리 등 물새의 상형 장식을 올렸다. 원반 모양 받침의 중앙이 둥글게 뚫려 있고 상형 장식도 내부가 비어 있어, 입을 통해 연기가 나가도록 하는 구조이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3.8%의 '향로개2'는 기측선이 직립하다가 윗면에서 꺾여 수평을 이루는 형태로 윗면을 '만卍'자 모양으로 투각하였다.[14]

자침磁枕

자침은 약 0.1%인 15점이 확인되며,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아 6.6%, 규석이 40.0%로 규석 중심이다. 장방형의 '자침1'은 13.3%로, 투각과 상감 기법으로 새 문양 등을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이다. 80.0%를 차지하는 '자침2'는 기측선이 사각의 베갯모에서 안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휘어들다가 다시 베갯모에 이르는 형태이다. 머리가 닿는 면에는 용문과 파도문을, 양쪽의 베갯모에는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번조받침은 규석이다.

약연藥碾 · 봉奉

약연과 봉은 전체의 약 0.1%인 17점이 확인되며,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는데, 백색내화토빛음이 47.0%로 가장 많다. 58.8%를 차지하는 '약연1'은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도톰하게 말려있다. 외면에만 시유하고 구연부와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굽은 안굽이다. '약연2'는 5.8%로,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며 밖으로 살짝 말려있다. 외면과 내면의 상단에만 시유하였고, 굽은 넓은 사다리꼴의 다리굽이다. '약연3'은 5.8%로, 기측선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곡선으로 꺾여 내만하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에만 시유하였으며, 굽은 넓은 사다리꼴의 다리굽이다. '봉1'은 29.4%로 손잡이 부분을 팔각으로 깎아내었으며 손잡이 중간의 마주보는 두 군데에 투공이 있다. 약연에 닿는 면은 시유하지 않고 손잡이에만 시유하였다.

13 이용진, 「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2006), pp. 153~190.;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향로』(2013).
14 고려청자 상형 향로에 대해 다룬 논문은 전승창, 「청자 조각장식 향로 고찰」, 『고려청자와 종교』(강진청자박물관, 2002), pp. 77~91.

반盤

반은 전체의 약 0.8%인 121점이 확인되며,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내화토빛음, 규석, 모래가 있는데, 규석과 모래가 각각 21.4%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3.3%의 '반1'은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루는 형태이다.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었으며, 굽은 평굽으로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웠다. 내저면에는 운학문을, 내측면과 전에는 각각 연화문과 당초문을 음각 장식하였다. 11.5%의 '반2'는 기측선이 곡선을 그리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루며, 도범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굽은 사다리꼴 형태의 다리굽으로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웠으며, 내저면에는 파어문과 화문 등을 음각하고 내측면과 전에는 국화문과 당초문 등을 상감 장식하였다. 6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3'은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하며 외면 하단에 홈이 파여 있다. 내저면에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고 파어문 · 포류수금문을 상감 장식하였다. 굽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으로 규석과 모래를 받쳐 구웠다. 12.3%의 '반5'는 기측선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며 구연부가 직립한다. 바닥은 편평하며 문양은 없다. 금속기와 같이 기벽이 얇고 간결한 '반5'와 같은 형태는 북송대 여요汝窯 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굽바닥까지 유약을 씌우고 규석을 정교하게 받쳐 굽는 번조 기법 역시 일치하여 주목된다.

화분花盆

화분은 57점으로 전체 청자의 0.4%에 해당한다. 번조받침은 모래이며, 굽은 대부분 평굽이나 일부 사다리꼴에 가까운 다리굽이 나타난다. 화분은 기측선이 'S'자형의 곡선을 그리며 벌어지고 구연부가 외반하는 '화분1'과 기측선이 직선에 가까운 사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화분2'로 구분된다. 특히 '화분1'과 유사한 형태가 부안 유천리 12호 가마에서 출토된 바 있다. 최근 화분의 기형과 문양 등을 분석하여 항아리형(보고서 화분1) 화분을 13세기 초~13세기 3/4분기, 원통형(보고서 화분2) 화분을 13세기 4/4분기~14세기 4/4분기로 편년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15]

돈墩

돈은 40점으로 전체 청자의 0.2%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기측선이 곡선을 이루고 윗면은 편평하며, 번조받침은 모래이다. 몸체 하단에는 음각 연판문을, 중간 부분에는 투각으로 연환문連環文 · 격자문格子文 등을, 상단에는 당초문을 양각한 예가 많다. 윗면에는 음각으로 화당초문 등의 문양을 장식하였다.

투각을 주된 장식기법으로 하고 기벽이 두껍고 둔중한 것이, 청자돈 전세품의 예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판磁板

자판은 151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1.0%를 차지하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모래내화토빛음이 확인된다. 형태는 방형方形 또는 정방형正方形으로 추정되며, 두께는 0.8cm부터 2.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각이나 상감 기법으로 학, 꽃, 파도, 나한羅漢 등을 장식하는 등 문양도 매우 다양하다. 자판은 내면에 유약을 씌우지 않아 편평한 벽면이나 바닥 등에 타일처럼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15 김소영, 「高麗時代 靑磁花盆 硏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있다. 특히 두께 1.0~2.0cm 내외의 '자판2' 가운데 음각으로 화문을 장식한 것은, 근래 강진의 월남사지에서 유사한 예들이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어 주목된다.[16]

기와[瓦] · 막새[瓦當]

기와와 막새는 총 357점으로 전체 청자의 약 2.5%를 차지하며,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 모래내화토빚음과 규석이 확인된다. 기와는 유단식有段式과 무단식無段式의 수키와가 있는데, 일부는 미구 주변의 하단부가 화형을 이루며 외면에 모란당초문을 넓게 음각하였다. 그 외에 암키와, 적새기와, '一'자형과 'ㄱ'자형의 수막새, 장방형과 'ㄱ'자형의 암막새 등이 있다. 수막새의 막새부는 원형을 이루며, 돌출된 가장자리에 모란문을 압출양각하였다. 암막새의 막새부는 암키와의 모양을 따라 살짝 휘어진 직사각형이며, 당초문을 압출양각하였다. 특히 'ㄱ'자형의 막새는 양쪽에 막새부를 갖추고 있어 지붕의 모서리 부분에 올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자기와 가운데 내면에 '… 누서면남樓西面南…', '서루西樓', '일촌오분一寸五分' 등 기와가 놓일 위치를 의미하거나 높이 내지 크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음각된 예가 눈에 띈다. 기와를 제작할 때부터 각각의 위치와 쓰임새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其他

사당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종 외에도 촉대燭臺, 연硯, 타호唾壺, 장고, 기석棋石, 장군의 파편과, 전세품의 동일한 예가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기異形器도 상당수 출토되었다.

또한 음각 · 압인 · 상감 · 철화 기법의 다양한 명문銘文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상감 간지명干支銘이다. 간지명 상감청자는 고려 후기 14세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당리가 이 시기에도 청자 생산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당리의 간지명은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임오壬午', '정해丁亥', '을미乙未' 등 모두 8종류가 확인된다. 현재까지 60간지 중 11개가 알려져 있으며, '기사'(1269)에서 '을미'(1295)까지를 13세기 후반, '정해'를 1347년으로 규정한 견해와 '기사'(1329 · 1389)에서 '을미'(1355)까지를 14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외에도 '성成', '균均'자를 비롯하여 굽바닥에 '+', '○', '⊙', '◎' 등의 음각부호를 새겨넣은 예도 상당수 보인다.[17]

사당리 청자 장식의 주를 이루지는 않으나 철화 기법의 청자는 보상화무늬를 가득 그려 넣은 합의 뚜껑과 전면에 황촉규를 크게 그린 병 등이 있으며, 철화 안료의 발색이 진하고 무늬의 크기가 크고 사실적이며 회화성이 돋보이는 양질의 예들이 눈에 띈다. 철채청자는 무늬의 바탕에 산화철 안료를 칠하고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갈색조를 띤다. 기종은 병 · 호 · 장고 · 화분 등 총 4종이 발견되었는데, 호와 장고의 비율이 높다. 대부분 철채와 더불어 상감 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양각이나 퇴화 장식을 곁들인 경우도 있다.

(2) 백자

'가'구역에서 0.1%에 해당하는 21점이 확인된 백자는 보통 표면이 무른 연질軟質에 아이보리색을 띠며, 일부 푸르스름한 유색의 경질 백자도 눈에 띈다. 고려백자의 형태와 장식문양, 번조 방법 등은 청자와 다르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제작되었다. 사당리에서는 발 · 완 · 잔 · 접시 · 뚜껑 등과 특히 나한상으로 추정되는 편片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현존하는 고려백자 나한상이 거의 없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도자기의 대세大勢는 청자에 있었지만 고려 초기부터 용인 서리 가마에서 백자를 만들고 그 전통이 강진 사당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흑자

흑자는 '가'구역에서 0.7%에 해당하는 127점이 확인된다. 발 · 완 · 잔 · 접시 · 매병 · 병 · 호 · 뚜껑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장고 등 특수기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일부 음각 또는 양각기법으로 장식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태토, 그릇의 형태와 만듦새, 유색 등이 좋은 양질의 예로 주목된다.

사당리에서 흑자는 청자를 주로 하는 가마에서 백자와 더불어 일부 시도된 것으로 보이며, 기형은 청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광택이 있는 흑색의 유색이 특징이다.

2) '나'구역

'나'구역의 사당리 41호 가마 유구 내의 출토 유물은 청자와 초벌구이편, 요도구로 구분되는데, 형식과 장식기법, 문양 등에서 대부분 '가'구역 출토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종류도 단순하고 수량도 현저히 적다.

청자는 전체 출토 유물 가운데 97.5% 이상인 1,025점이 확인된다. 기종별로 출토 수량을 살펴보면 '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접시가 48.1%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 뒤로 발 19.6%, 완 11.4%, 잔 4.8% 등으로 일반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매병 · 병 · 주자 · 호 · 탁 · 향로 등의 특수기는 총 164점으로 16.0%의 비율을 차지한다.

장식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철화 · 철채, 상감 등이 확인된다. 음각 기법이 약 20.9%로 가장 많고, 압출양각은 12.3%, 상감은 5.4% 등이다. '나'구역 출토 청자는 '가'구역 출토 청자에 비해 장식기법의 종류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음각 · 양각 등 순청자의 장식기법이 우세하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빚음을 비롯하여 모래내화토빚음, 규석, 모래, 태토빚음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백색내화토빚음이 43.6%로 상대적으로 많다. 일반기의 포개구이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맨 밑에 모래를 받치고 맨 위의 내저면에는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나'구역 청자는 '가'구역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들과 상당수 일치한다. 12세기를 중심시기로 하고 14세기 생산품이 일부 섞여든 양상이다. '가'구역 유구 출토품에 비해 종류와 수량이 적을뿐더러,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눈에 띄는 고급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16 강진군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17 고려청자에 보이는 명문과 부호에 대해서는 강진청자자료박물관,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 銘文 · 符號 特別展』(2000); 한성욱, 「高麗 陰刻 '○'文과 '⊙'文靑瓷의 硏究」, 『古文化』 70(2007), pp. 133~161.

참고 도판

1
'가'구역
출토 유물
참고 도판

참고 1 청자 무문 · 음각문 발

참고 2 청자 압출양각문 발

참고 3 청자 앵무문 발

참고 4 청자 연판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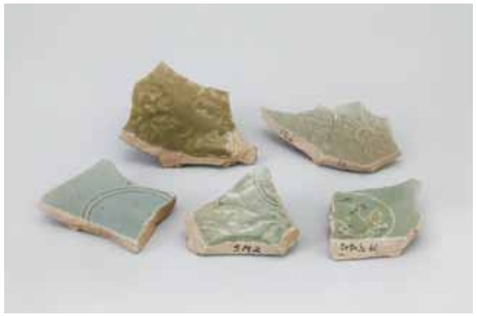
참고 5 청자 음각문 발

참고 6 청자 상감문 발

참고 7 청자 음각 · 상감문 발

참고 8 청자 상감문 발

참고 9 청자 음각 · 압출양각문 발



참고 10 청자 음각 · 압출양각 · 상감문 발

참고 11 청자 음각 · 압출양각 · 상감문 완

참고 12 청자 음각문 완

참고 13 청자 압출양각문 완

참고 14 청자 압출양각문 완

참고 15 청자 상감문 완

참고 16 청자 운학문 완

참고 17 청자 압출양각문 완

참고 18 청자 음각 · 상감문 완

참고 19 청자 음각문 잔

참고 20 청자 압출양각문 잔

참고 21 청자 상감문 잔

참고 22 청자 무문 · 음각 · 양각문 잔

참고 23 청자 음각문 잔

참고 24 청자 상감문 잔

참고 25 청자 화형 접시

참고 26 청자 음각 · 압출양각 · 상감문 접시

참고 27 청자 접시

참고 28 청자 음각문 접시

참고 29 청자 다각 접시

참고 30 청자 음각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31 청자 앵무문 접시

참고 32 청자 연판문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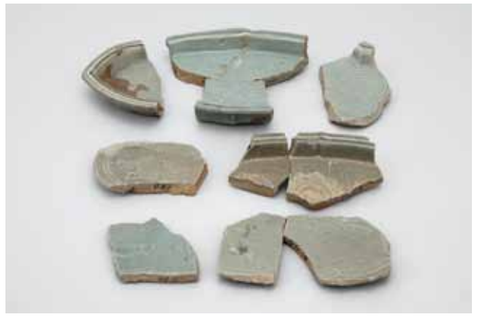
참고 33 청자 음각 · 상감문 접시

참고 34 청자 무문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35 청자 무문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36 청자 음각 · 압출양각 · 상감문 접시

참고 37 청자 팔각 접시



참고 38 청자 압출양각 · 상감문 접시

참고 39 청자 음각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40 청자 무문 · 음각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41 청자 모란문 매병

참고 42 청자 음각문 매병

참고 43 청자 음각문 매병

참고 44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45 청자 운학문 매병

참고 46 청자 운학문 매병

참고 47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48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49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50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51 청자 용문 매병

참고 52 청자 용문 매병

참고 53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54 청자 무문 · 음각문 병

참고 55 청자 상감문 병

참고 56 청자 상감문 병

참고 57 청자 국화문 병

참고 58 청자 음각 · 상감문 병

참고 59 청자 주자(주구注口)

참고 60 청자 주자(손잡이)

참고 61 청자 음각문 주자

참고 62 청자 음각 · 상감문 주자

참고 63 청자 음각 · 상감문 호

참고 64 청자 상감문 호

참고 65 청자 호(귀면 장식)

참고 66 청자 음각 · 상감문 호

참고 67 청자 상감문 편호

참고 68 청자 상감문 편호

참고 69 청자 무문 · 상감문 합

참고 70 청자 무문 · 음각문 합

참고 71 청자 무문 · 상감문 합

참고 72 청자 무문 · 상감문 합

참고 73 청자 음각 · 상감문 합

참고 74 청자 무문 · 상감문 합

참고 75 청자 음각 · 압출양각문 합

참고 76 청자 개

참고 77 청자 음각 · 양각문 개

참고 78 청자 무문 · 상감문 개

참고 79 청자 음각 · 양각 · 상감문 개

참고 80 청자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1 청자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2 청자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3 청자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4 청자 음각문 개

참고 85 청자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6 청자 개(손잡이)

참고 87 청자 무문 ·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88 청자 상감문 개

참고 89 청자 상감문 탁

참고 90 청자 상감문 탁

참고 91 청자 무문 · 음각문 탁

참고 92 청자 무문 · 음각문 탁

참고 93 청자 음각 · 상감문 탁

참고 94 청자 음각문 탁

참고 95 청자 무문 · 음각문 승반

참고 96 청자 무문 · 음각 · 상감문 승반

참고 97 청자 무문 · 음각 · 상감문 승반

참고 98 청자 기대

참고 99 청자 기대

참고 100 청자 기대

참고 101 청자 음각 · 상감문 기대

참고 102 청자 투각문 기대

참고 103 청자 기대(귀면 장식)

참고 104 청자 투합

참고 105 청자 양각 연판문 향완

참고 106 청자 무문 · 상감문 향완

참고 107 청자 연화형 향로

참고 108 청자 압출양각문 향로

참고 109 청자 상감문 향로

참고 110 청자 향로(다리)

참고 111 청자 향로(다리)

참고 112 청자 향로(다리)

참고 113 청자 귀룡형 향로개

참고 114 청자 음각문 향로개

참고 115 청자 음각문 자침

참고 116 청자 음각문 자침

참고 117 청자 상감투각 조문 자침

참고 118 청자 음각 · 상감문 타호

참고 119 청자 음각문 반

참고 120 청자 양각 · 상감문 화분

참고 121 초벌 음각 · 압출양각문 화분

참고 122 청자 상감문 화분

참고 123 청자 압출양각 · 상감문 화분

참고 124 청자 음각문 돈

참고 125 청자 투각문 돈

참고 126 청자 투각문 돈

참고 127 청자 돈

참고 128 청자 상감문 자판

참고 129 청자 상감문 자판

참고 130 청자 상감문 자판

참고 131 청자 상감문 자판

참고 132　청자 기와

참고 133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기와

참고 134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기와

참고 135　청자 기와

참고 133 · 134의 명문

樓西面南口

西樓

西(兩)樓

口西(面)北東

南口

一

二五 / 二五

口三

七口

七五

八

邊六分

天

口口

판독불가

판독불가

참고 136 청자 기와

참고 137 청자 압출양각문 막새

참고 138 청자 상감문 이형기

참고 139 청자 음각문 이형기

참고 140 청자 이형기

참고 141 청자 원앙형 장식

참고 142 청자 오리형 장식

참고 143 청자 상감문 이형기

참고 144 청자 이형기

참고 145 청자 하엽형 장식

참고 146 청자 이형기

참고 147 청자 '기사己巳'명 발 · 접시

참고 148 청자 · 초벌 '경오庚午' · '갑술甲戌' · '임오壬午'명 발 · 접시

참고 149 청자 · 초벌 '임신壬申'명 발 · 잔 · 접시

참고 150 청자 '임신壬申'명 발 · 완 · 잔 · 접시

참고 151 청자 · 초벌 '계유癸酉'명 발 · 접시

참고 152 청자 '정해丁亥'명 발 · 접시

참고 153 청자 · 초벌 '정해丁亥'명 발 · 접시

참고 154 초벌 '정해丁亥'명 발 · 접시

참고 155 청자 · 초벌 '성成' · '정正' · '관官'명 발 · 완 · 잔 · 접시

참고 156 청자 · 초벌 '官'명 발 · 잔 · 접시

참고 157 청자 '官'명 잔

참고 158 청자 'ㅇ'명 발 · 완 · 접시

참고 159 청자 '◎' · '⊙'명 발 · 완 · 잔 · 접시

참고 160 청자 · 초벌 '十'명 접시

참고 161 청자 명문 접시

참고 162 청자 범어문 발 · 접시 등

참고 163 청자 죽절문 접시 · 승반

참고 164 청자 연판문 발 · 잔 등

참고 165 청자 음각문 병 등

참고 166 청자 상象문 매병

참고 167 청자 화문 매병 등

참고 168 청자 퇴화문 접시 등

참고 169 청자 상형 장식

참고 170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171 청자 상감문 병 등

참고 172 청자 음각 · 상감문 병

참고 173 청자 상감문 자판 등

참고 174 청자 음각 · 상감문 자판 등

참고 175 초벌 음각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176 초벌 상감문 접시 등

177 초벌 향로 · 돈 등

참고 178 백자 무문 · 음각 · 양각문 발 · 완 · 개

참고 179 백자 불좌상

참고 180 백자 불좌상

참고 181 흑자 발 · 완 · 잔 · 접시 · 개

참고 182 흑자 무문 · 음각문 호

참고 183 흑자 완 · 매병 등

참고 184 흑자 완 · 병 등

참고 185 흑자 장고

참고 186 철자철채 장고

참고 187 요도구

참고 188 요도구

참고 189 도기

참고 190 도기

참고 191 청자 음각 · 압출양각문 발

참고 192 청자 상감문 발

참고 193 청자 압출양각문 완

참고 194 청자 음각 · 상감문 잔

참고 195 청자 무문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196 청자 무문 · 압출양각문 접시

참고 197 청자 음각 화염문 접시

참고 198 청자 압출양각 화문 접시

참고 199 청자 발 · 완 · 접시

참고 200 청자 음각문 매병

참고 201 청자 음각문 매병

참고 202 청자 상감문 매병

참고 203 청자 철화문 매병

참고 204 청자 무문 · 음각문 병

참고 205 청자 무문 · 음각문 개

참고 206 청자 무문 · 음각 · 상감문 개

참고 207 청자 무문 · 음각문 기와

참고 208 청자 이형기

참고 209 요도구

참고 210 요도구

강진 사당리 청자의 과학적 분석

황현성, 윤은영, 민다솔, 김현숙

Ⅰ
서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 강진 대구면 사당리 가마와 퇴적층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 도편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전라남도 강진 대구면 일대는 사당리 당전마을과 용운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요지가 분포한 곳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여 왕실과 관청 소용의 고급 청자들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강진 사당리 가마터는 고려청자 제작 기술이 세련되어지면서 유색이 아름답고 태토가 매우 뛰어난 양질의 비색청자가 제작된 지역이다.

강진 사당리 지역은 현재까지 조사된 가마터 수는 대구면 용운리 75개소, 사당리 43개소, 기타 지역을 합쳐 총 188개소에 달한다. 강진 사당리에서 확인된 가마터는 용문천 하류에 위치하며 여계산 밑 당전, 미산, 백사마을 일대에 밀집해 있다.[1] 사당리 가마터에서는 청자 매병 조각과 청자 베개, 향로, 목 긴 병, 대접, 접시, 받침대, 잔과 매병 뚜껑, 음각 · 양각 · 상형 · 상감청자 등 여러 형태의 청자가 대량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 원나라 연호인 '지정至正'명, 노국대장공주의 능호인 '정릉正陵'명 청자(1365-1374)가 수습되어 강진 사당리에서 왕실 청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2]

강진 사당리 이외에 인근 용운리 가마터와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 역시 고려 왕실 자기와의 관련성을 말해 주고 있어 당시 비슷한 경향으로 청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와 상호 비교하면 사당리 가마터의 성격을 보다 더 확실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태토 성분이나 유약성분만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비교 연구되어오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새롭게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양상만을 연구방법으로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가마터 출토 도편의 분석에서 그동안 한 번도 번조 받침 방법으로 분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미술부 담당 직원의 제안으로 우선 먼저, 태토 받침의 방법을 중심으로 규석 받침, 백색내화토 받침,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 모래 받침으로 크게 구분한 후, 청자의 상감장식, 도편의 출토 위치인 가마터와 퇴적층, 그리고 유색의 색상으로 양질과 조질로 구분한 도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실험

| 1 | 분석 대상 시료

시료 선정은 미술부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도편은 크게 번조받침 방법, 상감 장식 여부, 출토 위치별로 나누어 모두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별로는 유색의 색상을 중심으로 양질과 조질로 구분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된 도편들에 대한 태토 성분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Group Ⅰ은 가마에서 출토된 규석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Ⅱ는 가마에서 출토된 백색내화토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Ⅲ는 가마에서 출토된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Ⅳ는 퇴적층에서 출토된 규석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Ⅴ는 퇴적층에서 출토된 규석받침이지만, 상감 장식을 한 도편, Group Ⅵ는 퇴적층에서 출토된 백색내화토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Ⅶ는 퇴적층에서 출토된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의 청자 도편, Group Ⅷ는 퇴적층에서 출토된 모래 받침에 상감 장식을 한 도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은 선정된 도편들의 사진들이다.

1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 (2000).
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a) Group Ⅰ(front)
(c) Group Ⅱ(front)
(e) Group Ⅲ(front)
(b) Group Ⅰ(back)
(d) Group Ⅱ(back)
(f) Group Ⅲ(back)
(g) Group Ⅳ(front)
(i) Group Ⅴ(front)
(k) Group Ⅵ(front)
(h) Group Ⅳ(back)
(j) Group Ⅴ(back)
(l) Group Ⅵ(back)
(m) Group Ⅶ(front)
(o) Group Ⅷ(front)
(n) Group Ⅶ(back)
(p) Group Ⅷ(back)

Figure 1. Pictures of some of the sherds analyzed in this study.

Table 1. Body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s of Goryeo Celadon sherds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 Gangjin, Jeollanam-do

Sample			Oxideconcentration(wt.%)[b]											
Number	Texture[a]	Color[a]	SiO_2	Al_2O_3	Fe_2O_3[c]	MgO	CaO	Na_2O	K_2O	TiO_2	MnO	P_2O_5	L.O.I.[d]	Total
Group Ⅰ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SD-1	F	L-GY	78.02	15.80	1.36	0.38	0.29	0.36	2.86	0.72	0.02	0.02	0.08	99.92
SD-2	F	L-GY	79.04	14.93	1.29	0.36	0.30	0.29	2.96	0.66	0.02	0.02	-0.01	99.86
SD-3	F	L-GY	76.94	16.37	1.53	0.48	0.49	0.30	2.87	0.77	0.02	0.03	0.06	99.88
SD-4	MF	BE-GY	78.40	15.04	1.30	0.33	0.30	0.26	2.86	0.66	0.02	0.02	0.66	99.85
SD-5	MF	D-GY	77.47	16.30	1.46	0.46	0.28	0.29	2.82	0.78	0.02	0.02	-0.01	99.90
SD-6	MF	BE-GY	78.00	14.96	1.31	0.37	0.37	0.31	2.87	0.67	0.02	0.03	1.02	99.93
Average			77.98	15.56	1.38	0.40	0.34	0.30	2.87	0.71	0.02	0.02	0.30	99.89
Standard deviation			0.73	0.68	0.10	0.06	0.08	0.03	0.05	0.06	0.00	0.00		
Group Ⅱ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White fire-resistant support).														
SD-7	F	GY	74.61	18.26	2.08	0.55	0.23	0.42	2.87	0.85	0.03	0.02	0.01	99.92
SD-8	F	GY	73.72	18.40	2.50	0.57	0.36	0.40	3.21	0.78	0.04	0.02	-0.15	99.85
SD-9	F	D-GY	74.60	17.47	2.50	0.60	0.42	0.42	3.09	0.86	0.04	0.02	-0.14	99.87
SD-10	MF	D-GY	74.36	17.10	2.46	0.56	0.50	1.05	3.00	0.87	0.03	0.03	-0.08	99.89
SD-11	MF	D-GY	73.42	17.67	2.46	0.57	0.58	0.76	3.41	0.89	0.04	0.04	-0.05	99.78
SD-12	MF	D-GY	74.82	17.77	2.07	0.59	0.49	0.51	2.84	0.89	0.03	0.03	-0.13	99.90
Average			74.26	17.78	2.34	0.57	0.43	0.59	3.07	0.86	0.04	0.03	-0.09	99.87
Standard deviation			0.56	0.48	0.21	0.02	0.12	0.26	0.22	0.04	0.00	0.01		
Group Ⅲ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SD-13	F	L-GY	74.20	17.92	1.98	0.57	0.37	0.66	3.47	0.77	0.02	0.03	-0.08	99.93
SD-14	F	L-GY	73.48	18.35	1.99	0.54	0.37	0.52	3.74	0.81	0.03	0.03	0.06	99.92
SD-15	MF	L-GY	75.69	16.99	1.98	0.60	0.46	0.48	2.74	0.84	0.03	0.03	0.04	99.88
SD-16	F	D-GY	69.56	22.18	2.58	0.65	0.39	0.35	3.22	0.89	0.03	0.04	0.00	99.90
SD-17	MF	D-GY	74.09	18.00	1.76	0.54	0.41	0.95	2.85	0.91	0.03	0.02	0.31	99.87
SD-18	MF	D-GY	75.30	16.61	2.28	0.62	0.66	0.82	2.70	0.91	0.03	0.03	0.02	99.98
Average			73.72	18.34	2.10	0.58	0.45	0.63	3.12	0.86	0.03	0.03	0.06	99.91
Standard deviation			2.20	1.99	0.29	0.04	0.11	0.22	0.43	0.06	0.00	0.00		
Group Ⅳ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SD-19	F	L-GY	72.32	18.27	2.20	0.62	0.44	0.96	4.22	0.93	0.04	0.02	-0.11	99.91
SD-20	F	L-GY	73.69	17.99	1.92	0.56	0.38	0.73	3.41	0.78	0.02	0.03	0.40	99.91
SD-21	F	L-GY	74.99	17.39	1.88	0.49	0.29	0.60	3.27	0.83	0.02	0.01	0.11	99.89
SD-22	MF	D-GY	74.81	17.40	1.75	0.45	0.40	0.73	3.40	0.80	0.02	0.02	0.14	99.92
SD-23	MF	D-GY	73.19	17.91	2.05	0.53	0.44	0.57	3.37	0.84	0.02	0.02	0.91	99.85
SD-24	MF	D-GY	74.79	17.54	1.88	0.53	0.30	0.35	2.82	0.81	0.03	0.02	0.84	99.92
Average			73.97	17.75	1.95	0.53	0.38	0.66	3.42	0.83	0.03	0.02	0.38	99.90
Standard deviation			1.08	0.36	0.15	0.06	0.07	0.21	0.45	0.05	0.01	0.01		

Group Ⅴ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Inlaid design).														
SD-25	F	L-GY	74.20	16.95	2.09	0.63	0.29	0.75	3.61	0.65	0.03	0.02	0.72	99.96
SD-26	MF	L-GY	73.94	16.93	1.99	0.50	0.31	1.40	3.16	0.77	0.02	0.02	0.84	99.90
SD-27	F	L-GY	76.02	15.34	2.03	0.53	0.34	0.66	3.16	0.69	0.03	0.02	1.09	99.91
SD-28	F	L-GY	72.05	19.56	2.63	0.60	0.40	0.81	2.86	0.75	0.03	0.03	0.15	99.89
SD-29	MF	D-GY	70.50	20.05	3.06	0.76	0.59	0.55	3.38	0.85	0.03	0.03	0.12	99.91
SD-30	MF	D-GY	74.59	17.59	2.48	0.61	0.35	0.57	2.50	0.95	0.03	0.03	0.21	99.90
Average			73.55	17.74	2.38	0.60	0.38	0.79	3.11	0.78	0.03	0.03	0.52	99.91
Standard deviation			1.96	1.78	0.42	0.09	0.11	0.32	0.39	0.11	0.00	0.00		
Group Ⅵ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White fire-resistant support).														
SD-31	F	D-GY	75.25	16.06	2.37	0.58	0.65	1.02	3.21	0.71	0.04	0.02	-0.01	99.91
SD-32	F	L-GY	74.62	18.17	1.91	0.55	0.32	0.40	2.86	1.05	0.02	0.02	-0.02	99.91
SD-33	F	L-GY	73.12	18.37	1.81	0.53	0.30	0.73	3.66	0.80	0.02	0.04	0.42	99.82
SD-34	MF	D-GY	72.11	19.58	2.11	0.55	0.31	0.49	3.16	0.82	0.03	0.03	0.69	99.87
SD-35	MF	D-GY	72.61	19.95	1.96	0.56	0.33	0.48	3.08	0.92	0.02	0.02	-0.09	99.84
SD-36	MF	D-GY	70.51	21.01	2.57	0.60	0.54	0.66	2.75	0.97	0.03	0.03	0.17	99.84
Average			73.04	18.86	2.12	0.56	0.41	0.63	3.12	0.88	0.03	0.03	0.19	99.87
Standard deviation			1.72	1.73	0.29	0.02	0.15	0.23	0.32	0.13	0.01	0.01		
Group Ⅶ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SD-37	F	L-GY	72.73	19.24	2.28	0.70	0.58	0.76	2.63	0.98	0.03	0.03	-0.08	99.87
SD-38	F	L-GY	73.83	18.29	1.99	0.56	0.40	0.69	3.26	0.88	0.03	0.03	-0.10	99.86
SD-39	F	L-GY	75.71	17.48	1.66	0.66	0.47	0.46	2.24	1.05	0.02	0.03	0.16	99.94
SD-40	MF	D-GY	72.92	18.71	2.23	0.58	0.46	0.69	3.06	0.84	0.03	0.03	0.31	99.86
SD-41	MF	D-GY	75.32	17.26	2.10	0.54	0.36	0.31	2.65	1.00	0.02	0.02	0.34	99.92
SD-42	MF	D-GY	73.21	18.68	2.07	0.49	0.32	0.54	3.36	0.78	0.03	0.03	0.32	99.84
Average			73.95	18.28	2.06	0.59	0.43	0.57	2.86	0.92	0.03	0.03	0.16	99.88
Standard deviation			1.27	0.76	0.22	0.08	0.09	0.17	0.43	0.10	0.00	0.00		
Group Ⅷ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support, Inlaid design).														
SD-43	F	L-GY	74.31	17.98	2.20	0.56	0.32	0.47	3.20	0.76	0.03	0.02	-0.03	99.82
SD-44	F	L-GY	72.85	18.15	3.71	0.79	0.36	0.60	2.47	0.98	0.03	0.03	-0.13	99.83
SD-45	F	L-GY	71.64	20.18	2.85	0.60	0.48	0.46	2.65	0.99	0.03	0.02	-0.08	99.82
SD-46	MF	D-GY	70.66	19.46	3.54	0.83	0.64	0.84	2.91	0.90	0.03	0.02	-0.02	99.82
SD-47	MF	D-GY	73.49	17.79	2.69	0.55	0.44	0.76	3.21	0.83	0.03	0.03	-0.02	99.81
SD-48	MF	D-GY	74.22	17.52	2.61	0.54	0.47	0.56	2.94	0.83	0.03	0.02	0.11	99.85
Average			72.86	18.51	2.93	0.65	0.45	0.61	2.90	0.88	0.03	0.02	-0.03	99.83
Standard deviation			1.46	1.06	0.58	0.13	0.11	0.15	0.29	0.09	0.00	0.00		

[a] Abbreviation
Texture: F-fine, MF-medium fine, MC-medium coarse, C-coarse texture
Color: BE-beige, BU-Blue, GY-gray, WH-white, BR-brown, GN-green, L-light, D-dark

[b] The powder of only body, whose glaze had been polished off, was mixed with flux, lithium tetraborate.
This mixture was melted in a platinium crucible and made into a bead for XRF measurement.

[c] Fe_2O_3: total Fe

[d] L.O.I.: loss of Ignition

| 2 | 분석방법

2-1. 태토 주성분 분석

태토의 주성분은 X-선 형광 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HIMADZU, XRF-1700,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약을 제거한 태토를 200 mesh 이하의 가루로 만들고 100℃에서 충분히 말려 습기를 제거한 후, 다시 950℃에서 40분 이상 연소시킨다. 이후, 연소된 시료와 용융제(Lithium tetraborate, $Li_2B_4O_7$, Spectromelt A1000, Merck)를 1:5로 혼합하여 백금도가니에 넣고 자동시료제작기(Automatic bead machine)로 약 1200℃에서 완전히 용융시켜 지름 3.5㎝, 두께 0.4㎝ 정도의 원판 형태의 유리 시료(Glass bead)를 만들어 측정한다.

2-2. 미세 조직 분석

에폭시 수지에 정착시킨 도편을 20% 플루오르화수소산 용액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에칭한 후, 표면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Leica Microsystems Wetzler GmbH DM LM,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태토에 존재하는 기공이나 기포, 석영과 장석 등의 결정 크기와 분포 양상을 조사하였다.

시료의 미세 조직 및 성분 분석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3500N, Japan)을 이용하여 반사 전자상(BEI,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을 관찰하였다. 태토와 유약에 존재하는 기공이나 기포, 석영과 장석 등의 결정 크기와 분포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두께와 함께 태토와 유약 사이의 경계면에서 생기는 결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관찰 부위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은 에너지 분산형 분석기(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Kevex Super Dry, USA)로 성분과 상대적 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20kV, 80~100㎂, Working Distance 약 15이며 한 Point 당 100초 간 실시하였다.

2-3. 통계 분석

성분 분석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통계분석을 하여 도편들의 특징과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성분분석법은 다변량통계분석법(Multivariable statistical analysis)의 하나로서 많은 변수 값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선형 결합한 소수의 주성분으로 집약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변수가 묶이는 것을 주성분 1(PC 1, Principal Component 1), 그 다음으로 큰 것을 주성분 2(PC 2, Principal Component 2)의 순으로 나타낸다.

시료 i(i=1, 2,…, n)에 대하여 변수(측정된 산화물 성분) j(j=1, 2, …, m)의 값 xij은 데이터 행렬 X(NXM)를 형성한다. 각 산화물의 값에 대해 같은 가중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Autoscaling)과정을 거쳐 각 데이터를 평균 0, 단위표준편차를 갖는 새로운 변수 zij로 변환시킨다.

시료 i에 대한 k번째 주성분 Pik는 zij와 각 변수에 대한 요인점수계수행렬(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에서 k번째 고유벡터의 j번째 값 vjk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변수인 산화물성분과 요인(Factor)인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들 사이의 상관도는 요인 적재 값(Factor loading score)으로 표현되며, 공통성(Communality)은 주성분 1과 2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한 변수의 분산량으로 각 변수에 담겨진 정보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Ⅲ 결과 및 고찰

| 1 | 태토의 가시적 성질

분석 대상 시료들에 대한 도편 사진과 태토의 가시적 성질과 주성분 분석 결과는 Figure 1, Table 1에 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Group Ⅰ: Silica support)의 도편들은 가마터 내에서 출토된 청자 도편으로 음·양각 기법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특히 고급 청자에서만 보이는 규석 받침이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집단의 도편들은 전부 규석 받침을 하고 있지만, SD-1부터 SD-3 도편은 태토의 소성상태가 매우 뛰어나며 태토의 색도 대체로 밝은 회색조(L-GY)의 태토 색을 띠는 반면에 SD-4부터 SD-6 도편은 규석 받침임에도 불구하고 태토의 조밀성이나 색이 다소 짙은 회색조(D, BE-GY)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실체 현미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나타낸 Figure 2. Group Ⅰ (a)~(f)을 보면 양질로 구분된 SD-1~3 도편은 기공이 고르게 잘 퍼져 있으면서 덜 녹은 석영 입자들이 없거나 매우 작은 반면에, SD-4~6 도편은 소성온도가 낮아 태토의 자화가 덜 된 기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태토 내에도 석영입자들이 덜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태토의 조성 모양을 보면 육안 상으로는 대체로 양질의 태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집단(Group Ⅱ: White fire-resistant support)은 가마터 내에서 출토된 음·양각 청자 도편으로 Group Ⅰ과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규석 받침이 아닌 백색내화토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SD-9부터 SD-12 도편은 태토의 소성상태가 Group Ⅰ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Figure 2. Group Ⅱ (c) (f)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다만, SD-7~8인 Figure 2. Group Ⅱ (a), (b) 도편들은 다른 도편들에 비해 비교적 태토의 자화가 잘 되어 기공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태토의 색도 대체로 회색조(GY)의 태토 색을 띠거나 다소 짙은 회색조(D-GY)임을 알 수 있다. 이는 Group Ⅰ에 비해 Fe_2O_3 성분이 평균적으로 1 wt.% 정도 높은 결과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토 성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 집단(Group Ⅲ: 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은 가마터 내에서 출토된 청자도편으로 음·양각으로 장식한 청자이다. 받침은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Figure 1. Group Ⅲ (e), (f)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D-7~9와 SD-10~12의 도편의 유색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Figure 2. Group Ⅲ (a)~(c)와 (d)~(f)에서도 자화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비교적 양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Group Ⅲ (a)~(c)는 태토의 색이 밝은 회색(L-GY)인 반면에 조질로 구분한 (d)~(f) 도편은 태토의 색도 짙은 회색(D-GY)을 띠고 있으며 태토의 자화 상태도 좋지 않아 덜 녹은 석영 알갱이가 눈에 띠게 보일 정도로 소성온도나 소성분위기가 유난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집단(Group Ⅳ: Silica support)은 퇴적층 내에서 출토된 청자 도편으로 음·양각 기법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특히 고급 청자에서만 보이는 규석 받침이 이 집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양질인 SD-19부터 SD-21 도편은 태토의 소성상태가 매우 뛰어나며 태토의 색도 대체로 밝은 회색조(L-GY)의 태토 색을 띠는 반면에 조질로 구분한 SD-22부터 SD-24 도편은 규석 받침임에도 불구하고 태토의 조밀성이나 색이 다소 짙은 회색조(D-GY)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Group Ⅳ (a)~(c)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성상태는 Group Ⅰ에 비해 태토의 자화가 덜 되어 기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오히려 조질 청자로 구분한 SD-22~24의 현미경 사진인 Figure 2. Group Ⅳ (d)~(f)에서는 기공이나 소성상태가 오히려 좋은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태토의 성분보다는 소성분위기나 번조온도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다섯 번째 집단(Group Ⅴ: Silica support, Inlaid design)은 퇴적층 내에서 흑백상감으로 장식한 청자 도편이다. 앞서 살펴 본 Group Ⅰ과 Group Ⅳ의 규석 받침에 비해 제작 시기는 다소 떨어져 보인다. Figure 1 (i), (j)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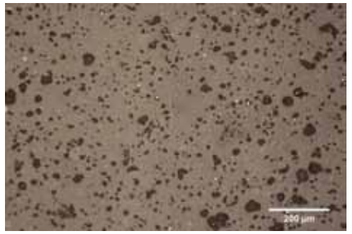
알 수 있듯이 유색의 색감이나 유질이 앞선 집단에 비해 다소 옅어져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태토의 질도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다. Figure 2. Group Ⅴ (a)~(f)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소성상태가 좋지 않았던 듯 기공의 모양이 균질하지 않으며 작은 석영 알갱이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화가 덜 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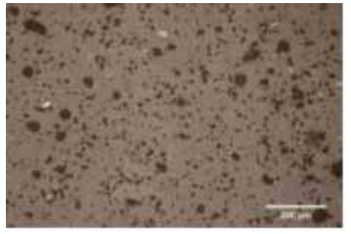
여섯 번째 집단(Group Ⅵ: White fire-resistant support)은 퇴적층에서 출토된 음 · 양각 청자 도편으로 규석 받침이 아닌 백색내화토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조질 도편으로 본 SD-34부터 SD-36 도편에 비해 양질로 구분한 SD-31부터 SD-33 도편은 태토의 소성상태가 전반적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Figure 2. Group Ⅵ (a)~(f)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다만, SD-36인 Figure 2. Group Ⅵ (f) 는 다른 도편들에 비해 태토의 자화가 지나치게 되어 약간 과번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토의 색도 대체로 짙은 회색조(D-GY)의 태토 색을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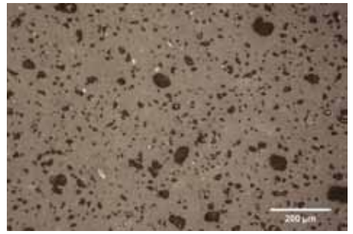
일곱 번째 집단(Group Ⅶ: 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은 퇴적층 내에서 출토된 청자도편으로 음 · 양각으로 장식한 청자이다. 받침은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앞에서 살펴본 규석 받침이나 백색내화토 받침에 비해 Figure 1 (m), (n)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태토의 질이나 정성들인 정도가 살짝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Figure 2. Group Ⅶ (a)~(f)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D-37, 39, 40, 41의 자화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비교적 양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Group Ⅶ (b)와 (f)는 태토의 색이 각각 밝은 회색(L-GY)과 짙은 회색(D-GY)인 반면에 태토의 자화 상태도 좋고 덜 녹은 석영 알갱이도 적게 보이고 있는 특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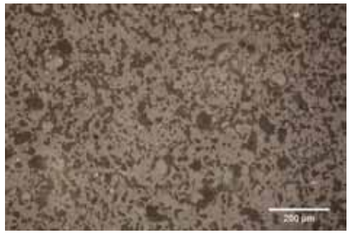
여덟 번째 집단(Group Ⅷ Sand support, Inlaid design)은 퇴적층 내에서 출토된 청자도편으로 흑 · 백 상감으로 장식한 상감청자로 받침은 모래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집단은 앞에서 살펴본 Group Ⅴ의 규석 받침인 상감청자와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Figure 1 (o), (p)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질이나 조질의 상감청자의 태토의 질은 별 차이가 없고 유색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2. Group Ⅷ (a)~(f)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질로 구분한 SD-43~45 도편과 조질로 구분한 SD-46~48의 도편이 자화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비교적 양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Group Ⅷ (a)~(c)는 태토의 색도 밝은 회색(L-GY)이며 자화 정도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조질인 Group Ⅷ (d)~(f) 도편은 태토의 색이 짙은 회색(D-GY)이고 태토의 자화 상태도 좋지 않아 덜 녹은 석영 알갱이도 살짝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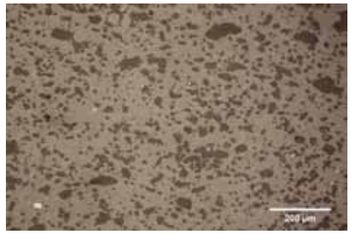
(a)~(f) : Group Ⅰ (Silica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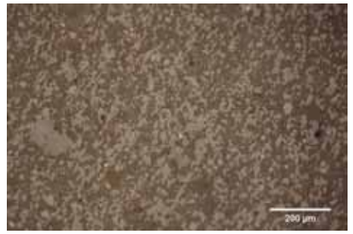

(a) SD-1


(b) S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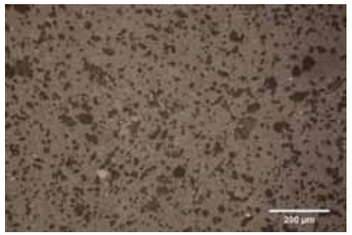

(c) SD-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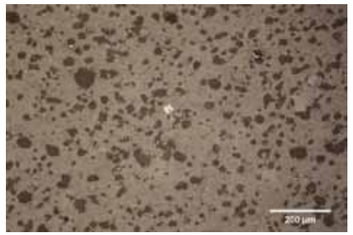

(d) S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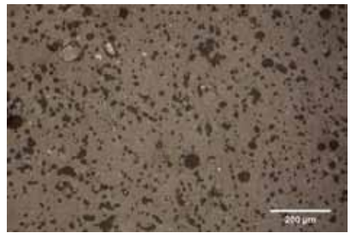

(e) SD-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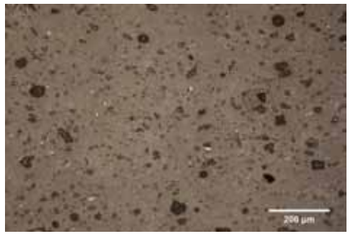

(f) SD-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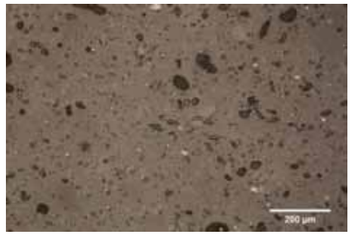
(a)~(f) : Group Ⅱ (White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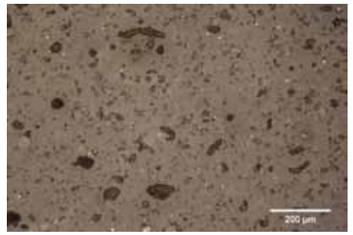

(a) SD-7


(b) SD-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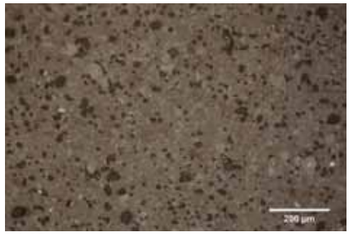

(c) SD-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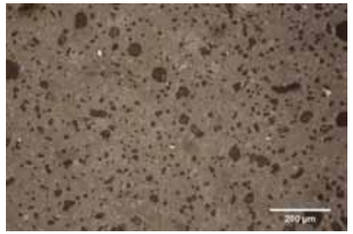

(d) SD-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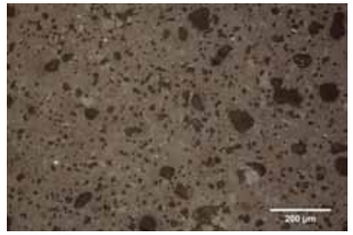

(e) SD-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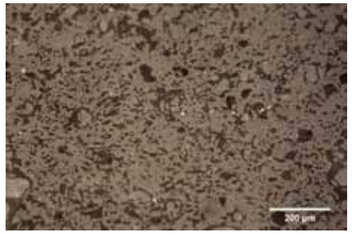

(f) SD-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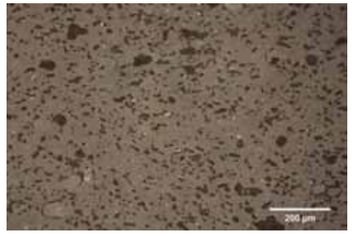
(a)~(f) : Group Ⅲ (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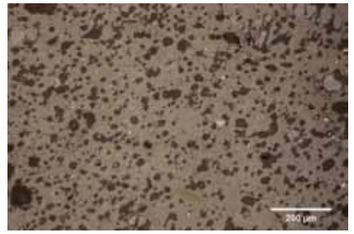

(a) SD-13


(b) SD-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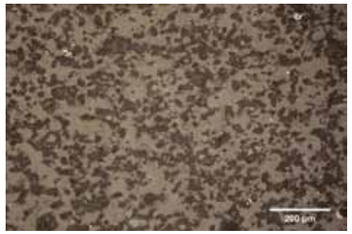

(c) SD-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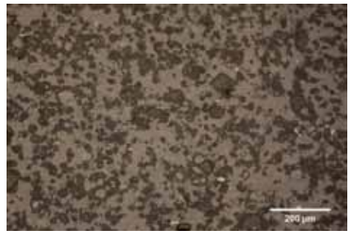

(d) SD-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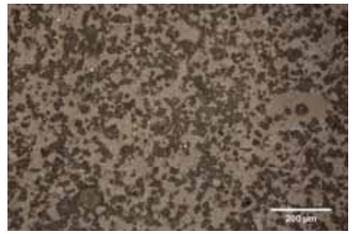

(e) SD-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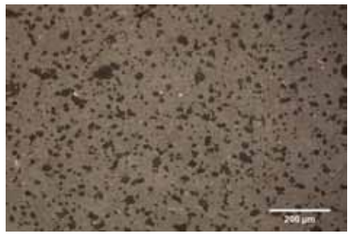

(f) SD-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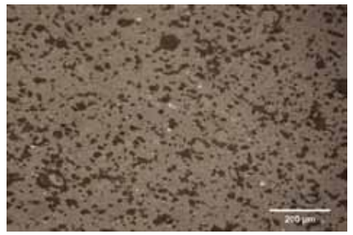
(a)~(f) : Group Ⅳ (Silica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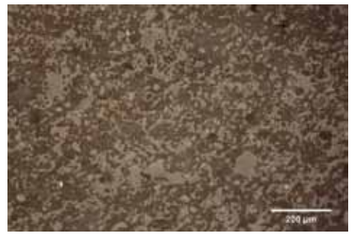

(a) SD-19


(b) SD-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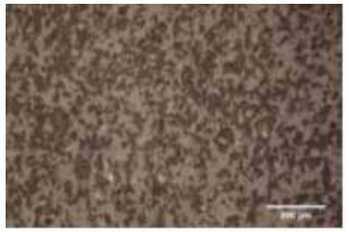

(c) SD-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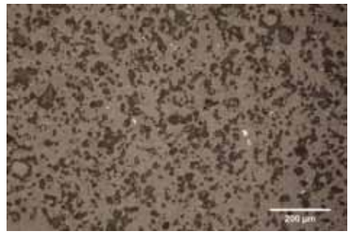

(d) SD-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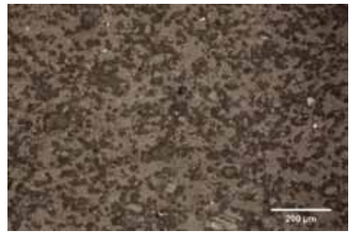

(e) SD-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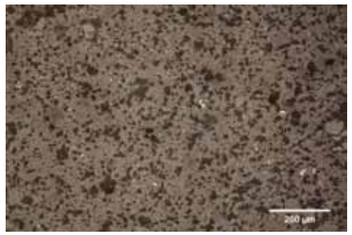

(f) S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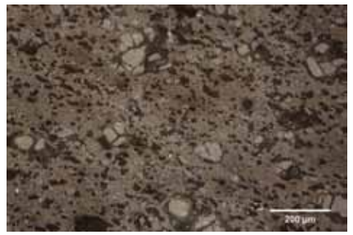
(a)~(f) : Group Ⅴ (Silica support, Inlai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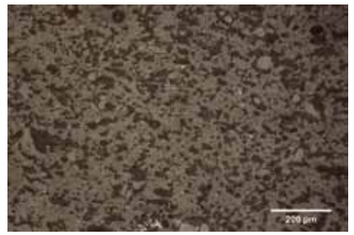

(a) SD-25


(b) S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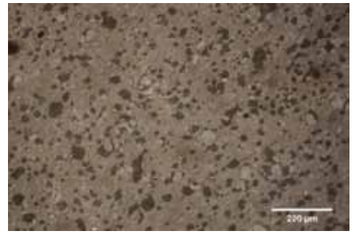

(c) S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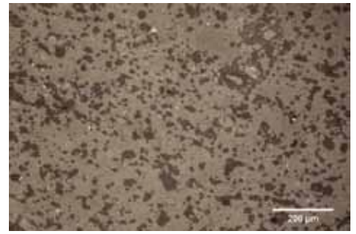

(d) S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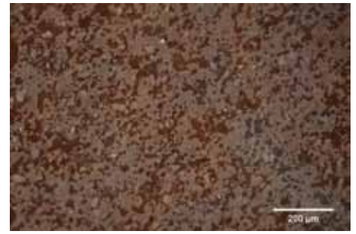

(e) SD-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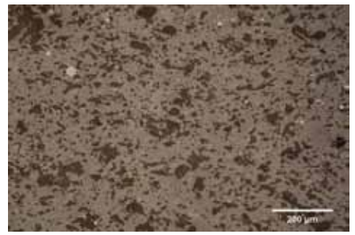

(f) SD-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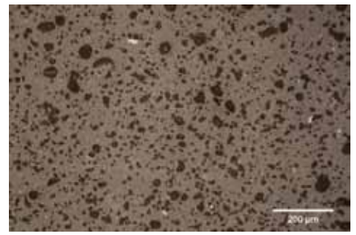
(a)~(f) : Group Ⅵ (White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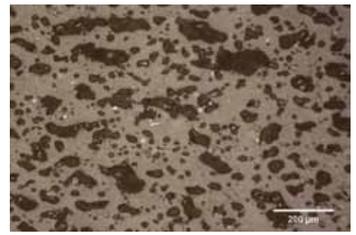

(a) SD-31


(b) SD-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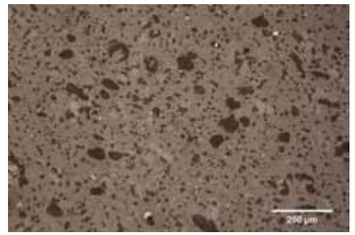

(c) SD-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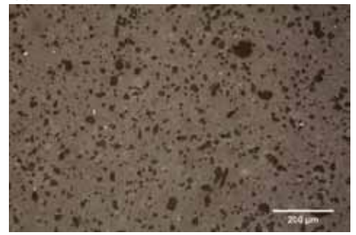

(d) SD-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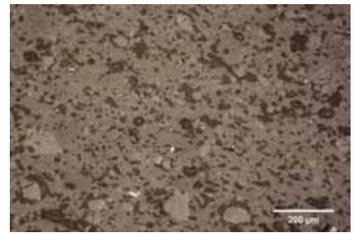

(e) SD-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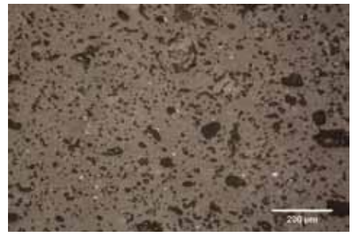

(f) SD-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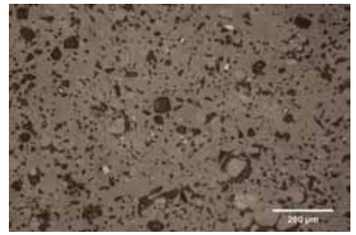
(a)~(f) : Group Ⅶ (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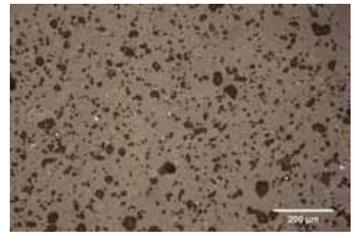

(a) SD-37


(b) SD-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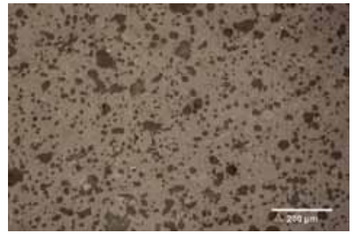

(c) SD-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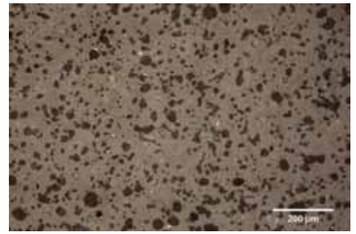

(d) SD-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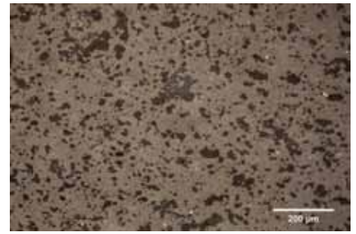

(e) SD-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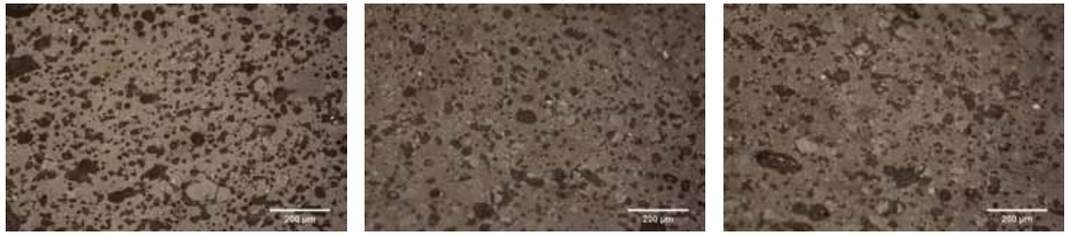

(f) SD-42

(a)~(f) : Group Ⅷ (Sand support, Inlaid design)


(a) SD-43


(b) SD-44


(c) SD-45



(d) SD-46 (e) SD-47 (f) SD-48

Figure 2. Typical microstructures of body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e.

| 2 | 태토의 성분 분석

Table 1과 Figure 3은 모두 여덟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고려청자 집단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와 주성분 분석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Table 1을 보면, 고려청자 집단인 대부분의 분석 시편에서 SiO_2는 약 73~77 wt.%, Al_2O_3는 약 15~18 wt.%를 함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청자 태토는 SiO_2가 70~75 wt.%, Al_2O_3가 17~21 wt.% 정도 포함되어 있다.[3,4] Group Ⅰ 도편은 가마터 내에서 출토된 도편으로 고급청자에서만 사용되는 규석 받침으로 번조한 음 · 양각 청자이다. 이 도편의 태토 조성 성분에서 SiO_2는 다른 집단의 청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에 Al_2O_3는 비교적 낮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성분조성을 한 태토는 다른 집단의 도편들에 비해 고화도로 번조해야 양질의 청자가 나올 수 있는 조성 성분이다. 이러한 성분은 Figure 2. Group Ⅰ(Silica support)를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은 태토와 유색을 중심으로 양질과 조질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Figure 3에서 보듯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양질이나 조질이 서로 두렷한 구분 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서로 뭉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태토의 질로 인해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성 당시 번조 분위기나 번조 온도 때문으로 생긴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Group Ⅱ~Ⅷ 태토의 주성분인 SiO_2와 Al_2O_3성분은 평균적으로 SiO_2가 72.86~74.26 wt.%, Al_2O_3는 17.74~18.86 wt.%으로 Group Ⅰ 도편의 주성분에 비해 SiO_2는 3 wt.% 정도 낮고, Al_2O_3는 2 wt.%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결과, Figure 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다른 도편을 제외하면 크게 한 개의 집단으로 뭉쳐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도편들 가운데 Group Ⅲ의 SD-15, Group Ⅳ SD-21, Group Ⅴ SD-27 도편은 SiO_2가 약 1~2 wt.% 정도 많은 반면에, Group Ⅶ SD-37도편은 Al_2O_3가 약 1~2 wt.%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Figure 3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MgO, CaO, Na_2O, K_2O의 산화물은 태토에서 용융제로 작용하며 태토의 자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여덟 집단의 도편들을 위 네 산화물의 총합으로 상호 비교하면, Group Ⅰ의 규석 받침으로 만든 청자는 평균적으로 3.91 wt.%인 반면, Group Ⅱ~Ⅷ 청자도편들은 대체로 4.46~4.98 wt.% 정도로 대략 1 wt.%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런 성분 범위는 소성 온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태토의 발색에 영향을 끼치는 산화물에는 Fe_2O_3, MgO, TiO_2, MnO이 있는데, 특히 Fe_2O_3는 그 함량이 1 wt.% 정도만 달라져도 태토의 색이 확연하게 변하게 한다. 앞서 다른 도편들과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언급했던 Group Ⅰ 도편의 Fe_2O_3 함량이 또 다른 집단 도편들보다 대략 1 wt.%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시적으로도 비교적 태토의 색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다. 이와 함께 크게 두 개의 집단(Group Ⅰ와 Group Ⅱ~Ⅷ) 으로 구분된 고려청자의 착색 산화물 총합의 평균값은 각각 2.51 wt.%과 3.74 wt.%로 1.2 wt.%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태토

3 C. K. KOH, Y. E. LEE, I. W. SHIM,「Compositional and Microstructural Study of KORYO Celadon and Whiteware Excavated from Sori Kiln in Kyonggi Province」,『Archaeometry』, Vol. 46, issue 2, 2004.

4 김정아,「11~12세기 고려청자의 과학기술적 성분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과학(협동)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의 색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시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Group Ⅷ 도편의 평균 함량은 4.49 wt.%으로 Group Ⅰ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자 도편들은 Group Ⅰ과 다른 집단(Group Ⅱ~Ⅷ)의 청자 도편들과의 약간의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태토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Group Ⅰ과 Group Ⅱ~Ⅷ 청자 도편의 성분이 서로 유사는 하지만, 도자기 받침이나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도편들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와 각각의 성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은 주성분 1과 주성분 2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시료의 성분값 xij를 zij로 표준화한 후 위 식에 대입하여 얻은 주성분값(Principal component score) 1과 2를 Figure 3에 도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성분 1과 2는 변수전체로 설명되는 것의 51.1%, 19.4%를 각각 나타내어 주성분 1과 2에 의한 전체설명도는 70.5%였다. Table 2의 공통성(Communality) 값이 가장 높은 SiO_2, Al_2O_3, Fe_2O_3, MgO, CaO 순으로 분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Figure 3를 연결하여 보면 크게 Group Ⅰ과 Group Ⅱ~Ⅷ 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도편(SD-15, 21, 27, 37)만이 다른 집단에서 떨어진 상태로 분포하여 구분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제작되었던 청자 태토에서 소성온도를 많이 높여주어야만 양질의 청자를 만들 수 있는 Group Ⅰ도편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청자들은 일반적인 청자의 태토 성분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SD-37 도편은 두 개의 집단이 분포하는 범위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도편에 비해 SiO_2의 함량은 낮고 Fe_2O_3의 함량이 높아 이와 같은 결과를 주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SD-15, 21, 27 도편은 SiO_2의 함량은 높고 Fe_2O_3의 함량이 낮아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ure 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major composition in the Goryeo celadon body from the kiln site in Sadang-ri, Gangjin, Jeollana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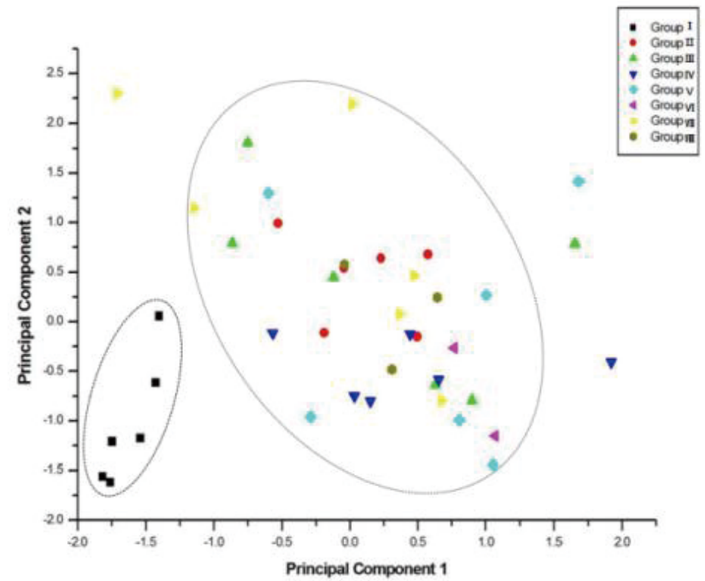


Table 2. Communalitie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igenvalue and proportion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Body)

Communalities

Elements	Communalities	
	Initial	Extraction
SiO_2	1.000	0.940
Al_2O_3	1.000	0.735
Fe_2O_3	1.000	0.744
MgO	1.000	0.845
CaO	1.000	0.549
Na_2O	1.000	0.293
K_2O	1.000	0.802
TiO_2	1.000	0.732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nent	Eigenvalue	Proportion(%)	Cumulative(%)
1	4.088	51.100	51.000
2	1.552	19.406	70.506
3	0.985	12.313	82.818
4	0.534	6.671	89.489
5	0.416	5.198	94.688
6	0.230	2.879	97.567
7	0.180	2.256	99.823
8	0.014	0.177	100.000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3 | 유약의 미세 구조와 성분 분석

초기 청자는 일반적으로 태토 위에 아무런 장식 없이 음 · 양각만을 한 순청자를 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흑 · 백토로 장식한 상감청자와 철화 안료를 화려하게 장식한 후, 유약을 시유하여 제작하게 되는데 이런 청자 도편들의 측면을 잘라내어 여러 종류의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도편에서의 층위의 존재 여부와 특징을 통해 제작 방법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감청자를 비롯하여 철을 함유하고 있는 유약의 경우에는 철 성분과 유약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되는 결정들의 분포 범위와 위치, 그리고 확산 범위에 대한 정보로 소성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 4와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 : A. Group Ⅰ은 음 · 양각 문양에 바닥에는 규석 받침을 한 청자 도편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각 도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제작 방법이나 소성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Figure 4 : Group Ⅰ (a)를 보면, SD-2 도편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소성한 태토 위에 유약을 시유한 도편으로 태토와 유약의 경계면이 매우 깨끗하며 어떠한 결정도 없으며 유약에도 비교적 큰 기포만 있을 뿐 매우 깨끗한 것으로 보여 적정 소성 온도에서 잘 번조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질로 분류한 SD-4 도편은 SD-2 도편에 비해 매우 작은 기포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약 내에는 유약 성분 가운데 덜 녹은 알갱이가 다량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성분을 알기 위하여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4 (b), (c)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번조온도가 높지 않아 유약 내 실리카 성분이 녹지 않고 Matrix에 분포하여 유약이 어둡게 보이고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Figure 4 : B. Group Ⅱ은 음 · 양각 문양에 바닥에는 백색내화토 받침을 한 청자 도편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그중 양질인 SD-7 도편은 태토의 색상이나 유약의 발색으로 보아 매우 잘 소성된 도편인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4 : Group Ⅱ (a)와 이를 확대한 (b)를 살펴보면 Group Ⅰ도편들과 마찬가지로 유약 내에는 매우 깨끗하며 기포도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토와 유약의 경계면에 일부 덜 녹은 알갱이가 보이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일부 녹지 않은 용융제 성분 가운데 하나인 CaO 성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번조가 잘 된 도편이라 생각되어진다.

Figure 4 : C. Group Ⅲ은 음 · 양각 문양에 바닥에는 모래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한 청자 도편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집단의 도편들은 앞서 살펴본 Group Ⅰ~Ⅱ에 비해 조질이나 양질청자 모두 유약 소성상태가 좋지 않음을 유약성분인 Table 3이나 미세구조인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약 성분에서는 앞 선 다른 두 개의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양질이라고 분류한 SD-15 도편과 조질로 구분한 SD-16 유약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4 : C Group Ⅲ (a)와 이를 확대한 (b)를 살펴보면 Group Ⅰ,Ⅱ 도편들과 마찬가지로 유약 내에는 매우 깨끗하며 기포도 매우 적게 분포는 하고 있지만, 유약 내에 일부 덜 녹은 입자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용융제 성분인 CaO와 유약의 주성분인 Al_2O_3 성분이 덜 녹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D-16 유약은 SD-15 도편에 비해 기포도 많고 덜 녹은 알갱이도 매우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한 결과, 유약의 주성분인 Al_2O_3가 녹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성 조건이 좋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Figure 4 : D Group Ⅳ은 음 · 양각 문양에 바닥에는 규석 받침을 한 청자 도편이지만, 가마터가 아닌 퇴적층에서 발굴한 청자도편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집단의 도편들은 앞서 살펴본 Group Ⅰ~Ⅲ에 비해 Table 3이나 미세구조인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질이나 양질청자 모두 유약 소성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4 : D Group Ⅳ (a)~(e)를 살펴보면 Group Ⅰ,Ⅱ 도편들과 마찬가지로 유약 내에는 매우 깨끗하며 기포도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지만, 유약 내에 일부 덜 녹은 입자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양질이나 조질 도편 모두 용융제 성분인 CaO와 유약의 주성분인 Al_2O_3 성분이 덜 녹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과 조질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유색이 아닌 태토의 색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조질에 비해 양질인 SD-19~21 도편은 조질에 비해 태토의 색상이 밝은 회색이기 때문에 양질의 청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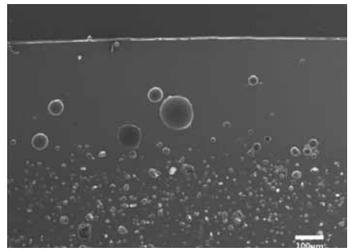
앞선 집단에 비해 시기적으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Figure 4 : E. Group Ⅴ 는 문양에 흑 · 백토로 상감한 청자에 바닥에는 규석 받침을 한 청자 도편이지만, 가마터가 아닌 퇴적층에서 발굴한 도편들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이 집단의 양질 도편인 SD-25와 26도편은 상감을 한 태토에 유약을 시유한 것인데 유약이 매우 깨끗하며 기포도 거의 없는 반면에 조질 청자인 SD-28 도편은 유약 소성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4 : E Group Ⅴ (e)와 이를 확대한 (f)를 살펴보면 유약은 깨끗하며 기포도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태토와 유약 경계면에 일부 덜 녹은 입자들이 길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EM-EDS를 통한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유약의 성분인 알루미나 성분과 용융제 성분이 덜 녹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Group Ⅵ은 음 · 양각 문양에 백색내화토 받침을 한 청자 도편이며 가마터가 아닌 퇴적층에서 발굴된 도편들이다. Figure 4 : F Group Ⅵ (a)~(d)은 이 도편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도편들은 비교적 유약도 깨끗하며 기포도 거의 없을 정도로 소성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는 것은 태토의 색상과 소성 분위기가 양질에 비해 조질 청자가 좋지 않아 생긴 결과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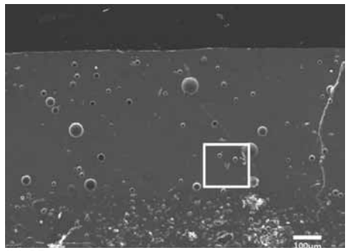
Figure 4 : G. Group Ⅶ은 음 · 양각 문양에 바닥에는 모래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한 청자 도편으로 가마터가 아닌 퇴적층에서 발굴한 청자도편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집단의 도편들은 앞서 살펴본 Group Ⅱ~Ⅵ 도편들과 비교해보면 성분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Table 3과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집단은 양질에 비해 오히려 조질 청자가 유약이 더 깨끗하며 기포도 거의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ure 4 : G Group Ⅶ (c)~(e)를 자세히 보면 양질인 SD-39와 SD-40도편에 비해 용융제 성분이 2~3 wt.% 정도 높다 보니 양질에 비해 소성온도가 낮아도 유약 상태는 좋았던 것이다. 이런 양상은 Figure 4 : G Group Ⅶ (c)와 이를 확대한 (d)를 자세히 보면 유약 중간 중간에 유약의 용융제 성분인 CaO 성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약 면의 혼합 상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결정들이 서로 충분히 반응할 정도로 번조 시간과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 있는 결정들은 유약 내에서 빛을 산란시키거나 반사시켜 가시적으로 보이는 색감과 광택 등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Figure 4 : H. Group Ⅷ은 시기적으로 가장 떨어져 보이는 도편으로 흑 · 백 상각 문양에 바닥에는 모래 받침을 한 청자 도편이다. 받침은 가마터가 아닌 퇴적층에서 발굴된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집단의 유약성분 및 미세조직도 다른 집단의 성분이나 양상에서 큰 차이는 없는 편이었다. 양질로 구분한 도편이나 조질로 구별한 도편도 Group Ⅶ와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으며 미세 조직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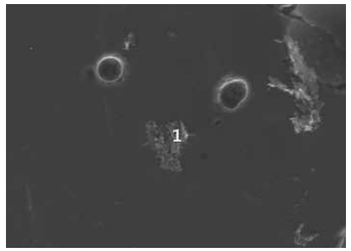
A. Group Ⅰ (Silica support)



(a) S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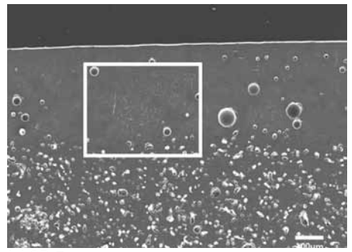


(b) S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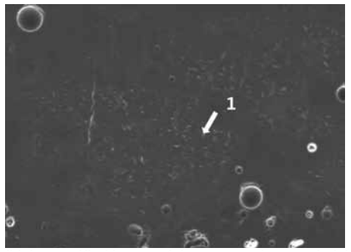


(c)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b)

B. Group Ⅱ (White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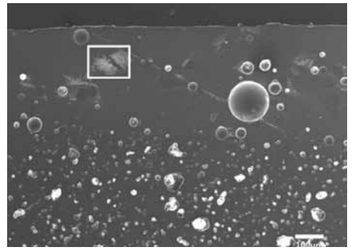


(a) SD-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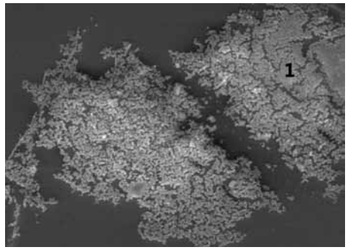


(b)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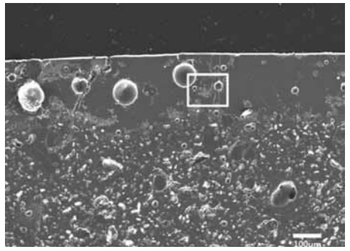
C. Group Ⅲ (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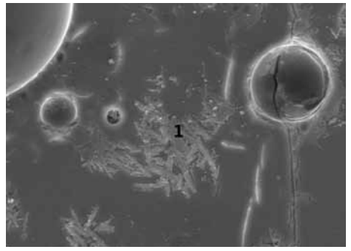
(a) SD-15



(b)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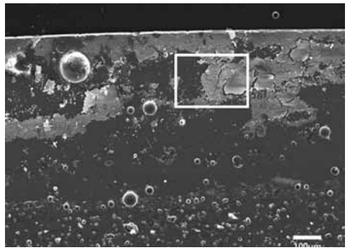


(c) SD-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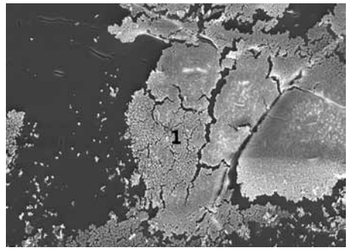


(d)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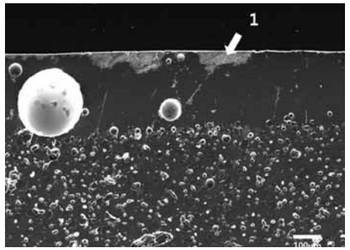
D. Group Ⅳ (Silica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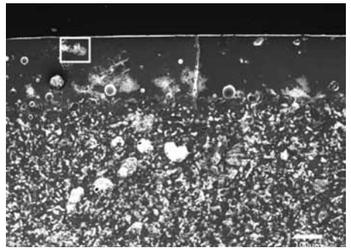
(a) S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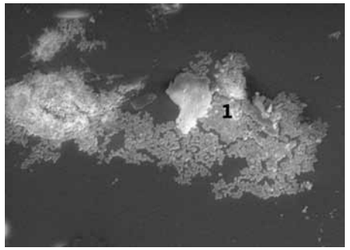
(b)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a)



(c) SD-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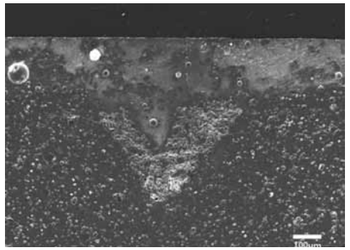


(d) S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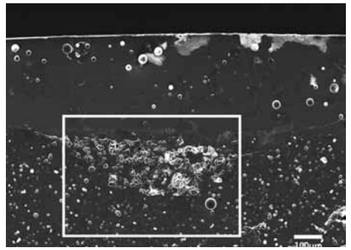


(e)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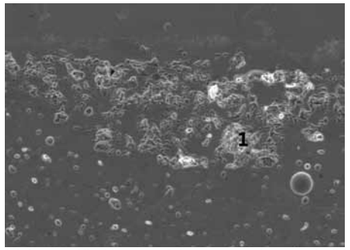
E. Group Ⅴ (Silica support, Inlai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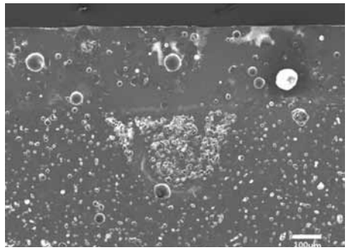
(a) SD-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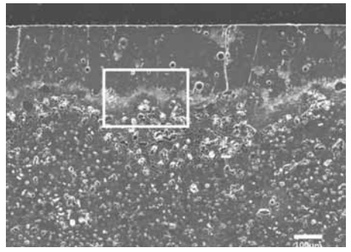
(b) SD-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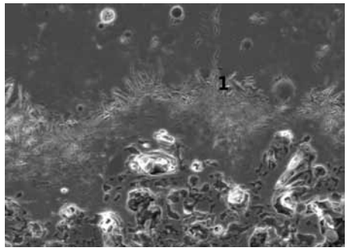
(c)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b)



(d) SD-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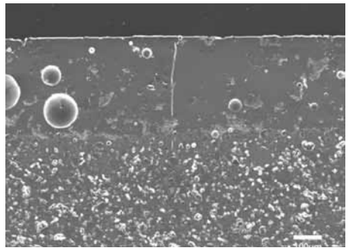


(e) SD-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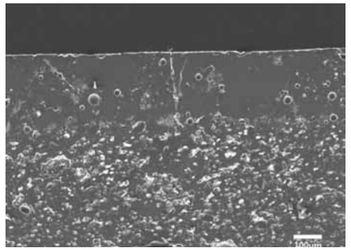


(f)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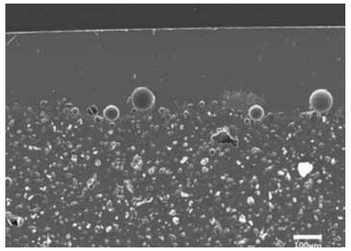
F. Group Ⅵ(White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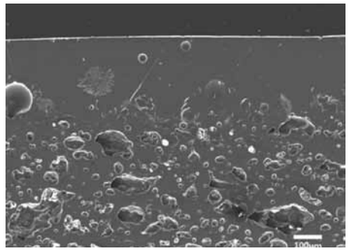
(a) SD-33



(b) SD-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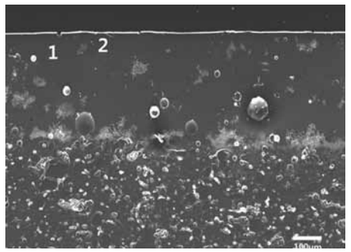


(c) SD-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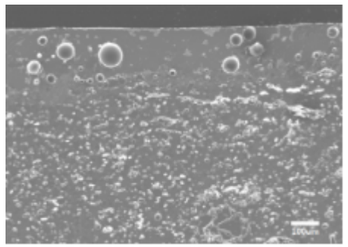


(d) SD-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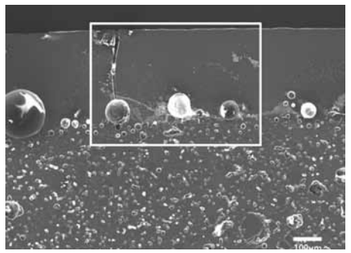
G. Group Ⅶ(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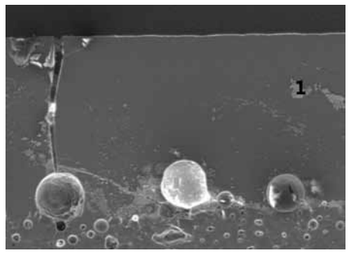
(a) SD-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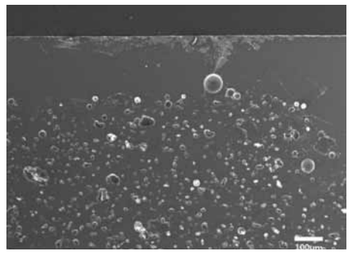
(b) SD-40



(c) SD-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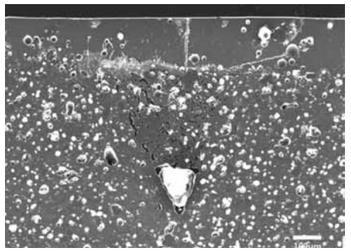


(d)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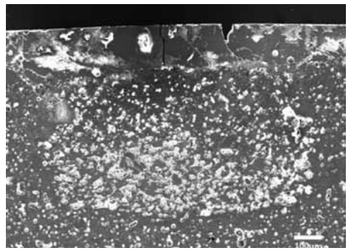


(e) SD-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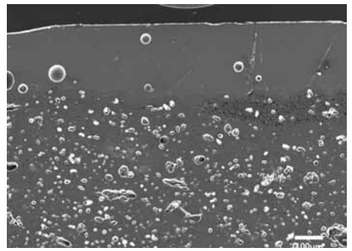
H. Group Ⅷ(Sand support, Inlai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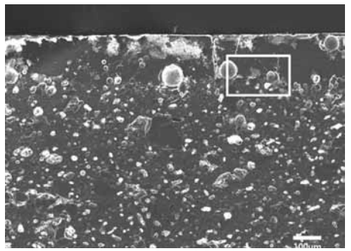
(a) SD-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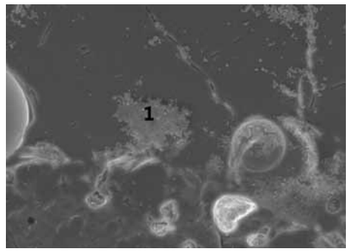
(b) SD-43



(c) SD-45



(d) SD-48



(e) A magnified image of the rectangular area in (d)

Figure 4. SEM images of analyzed sherd in Group Ⅰ~Ⅷ

Table 3. Glaze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s of Goryeo Celadon sherds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 Gangjin, Jeollanam-do

Sample number	Crackled state[a]	Color[b]	Oxideconcentration(wt.%)[c]										
			SiO_2	Al_2O_3	Fe_2O_3[d]	MgO	CaO	Na_2O	K_2O	TiO_2	MnO	P_2O_5	Total
Group Ⅰ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SD-1	△	L-GN	60.20	12.60	1.00	1.73	19.29	0.58	3.21	0.16	0.41	0.83	100.00
SD-2	X	L-GN	60.45	12.87	1.16	1.94	19.16	0.47	2.59	0.18	0.45	0.73	100.00
SD-3	X	L-GN	60.11	12.82	1.08	1.94	19.50	0.37	3.00	0.13	0.37	0.66	100.00
SD-4	○	BR-GN	59.72	13.78	1.27	1.95	18.81	0.34	2.78	0.16	0.41	0.78	100.00
SD-5	△	D-GN	59.13	13.33	1.36	1.82	19.22	0.84	2.89	0.26	0.38	0.77	99.99
SD-6	△	BE-GN	57.78	13.01	1.10	2.19	21.28	0.54	2.48	0.23	0.53	0.86	99.99
Average			59.56	13.07	1.16	1.93	19.54	0.52	2.83	0.19	0.42	0.77	100.00
Standard deviation			0.99	0.42	0.13	0.15	0.88	0.18	0.27	0.05	0.06	0.07	0.00
Group Ⅱ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White fire-resistant support).													
SD-7	X	L-GN	65.92	15.56	0.91	1.24	11.79	0.57	3.21	0.15	0.21	0.43	100.00
SD-8	△	BR-GN	61.95	14.06	1.62	2.05	16.54	0.43	2.06	0.16	0.33	0.81	100.00
SD-9	△	L-GN	58.66	12.87	1.24	2.07	20.91	0.34	1.83	0.13	0.39	1.57	100.01
SD-10	X	BR-GN	59.02	12.71	1.67	2.21	19.42	1.14	2.24	0.28	0.45	0.86	100.01
SD-11	X	BR-GN	60.85	13.44	1.78	2.54	15.54	1.02	2.58	0.39	0.58	1.29	99.99
SD-12	X	BU-GN	58.65	13.40	2.64	2.30	18.91	0.70	1.83	0.42	0.37	0.78	100.00
Average			60.84	13.67	1.64	2.07	17.18	0.70	2.29	0.26	0.39	0.96	100.00
Standard deviation			2.83	1.04	0.58	0.44	3.29	0.32	0.53	0.13	0.12	0.41	0.01
Group Ⅲ : Excavated at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SD-13	△	BE-GN	*61.28*	*13.36*	*1.39*	*1.74*	*17.39*	*0.61*	*2.98*	*0.28*	*0.24*	*0.75*	100.00
SD-14	△	BE-GN	*61.46*	*14.81*	*1.58*	*1.63*	*15.78*	*0.58*	*3.13*	*0.24*	*0.20*	*0.59*	100.00
SD-15	△	BE-GN	*59.38*	*12.49*	*1.46*	*3.03*	*17.68*	*0.63*	*2.95*	*0.23*	*0.55*	*1.59*	100.00
SD-16	△	BR-GN	*56.74*	*14.75*	*2.13*	*2.29*	*19.15*	*0.59*	*2.86*	*0.22*	*0.32*	*0.96*	100.00
SD-17	△	BR-GN	*61.02*	*13.50*	*1.41*	*2.06*	*18.04*	*0.85*	*1.61*	*0.33*	*0.38*	*0.79*	99.99
SD-18	X	BR-GN	*63.46*	*13.26*	*1.98*	*2.96*	*13.65*	*0.83*	*1.88*	*0.31*	*0.53*	*1.08*	99.95
Average			60.55	13.70	1.66	2.29	16.95	0.68	2.57	0.27	0.37	0.96	99.99
Standard deviation			2.28	0.91	0.32	0.60	1.95	0.13	0.65	0.05	0.15	0.35	0.02

Group*Ⅳ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SD-19	△	L-GN	59.14	13.57	1.37	2.27	19.38	0.26	2.29	0.28	0.35	1.10	100.01
SD-20	X	L-GN	60.72	13.56	1.33	2.20	17.78	0.38	2.63	0.12	0.39	0.90	100.01
SD-21	X	L-GN	60.47	13.72	1.15	1.57	19.71	0.59	1.76	0.15	0.28	0.59	99.99
SD-22	△	BR-GN	60.74	13.42	1.20	2.00	18.29	0.65	2.39	0.27	0.38	0.66	99.99
SD-23	△	BR-GN	61.09	13.70	1.23	1.91	17.90	0.59	2.31	0.19	0.29	0.79	100.00
SD-24	△	BR-GN	60.78	13.24	1.23	2.00	19.12	0.40	1.98	0.12	0.35	0.78	100.00
Average			60.49	13.54	1.25	1.99	18.70	0.48	2.23	0.19	0.34	0.80	100.00
Standard deviation			0.69	0.18	0.08	0.25	0.81	0.15	0.31	0.07	0.05	0.18	0.01
Group*Ⅴ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ilica support, Inlaid design).												
SD-25	X	BE-GN	59.25	14.31	1.78	1.67	18.16	0.71	2.99	0.19	0.35	0.60	99.99
SD-26	X	BE-GN	57.13	12.23	1.37	2.53	22.49	0.27	2.23	0.17	0.72	0.85	100.00
SD-27	X	BE-GN	58.39	13.24	1.70	2.49	19.09	0.45	2.70	0.32	0.58	1.01	99.97
SD-28	△	BR-GN	59.69	13.24	1.16	1.73	19.76	0.68	2.60	0.28	0.35	0.49	99.99
SD-29	△	BR-GN	59.55	13.98	1.48	1.78	18.72	0.63	2.75	0.14	0.50	0.47	100.00
SD-30	△	BR-GN	56.35	13.46	1.52	2.38	21.57	0.57	2.52	0.18	0.49	0.94	99.99
Average			58.40	13.41	1.50	2.09	19.97	0.55	2.63	0.21	0.50	0.73	99.99
Standard deviation			1.38	0.72	0.22	0.41	1.71	0.17	0.25	0.07	0.14	0.24	0.01
Group*Ⅵ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White fire-resistant support).												
SD-31	X	D-GN	60.04	13.20	1.51	2.09	18.65	0.52	2.47	0.18	0.29	1.05	100.00
SD-32	△	D-GN	63.15	13.27	1.39	2.06	15.73	0.50	2.75	0.24	0.19	0.73	100.01
SD-33	△	D-GN	59.02	12.63	1.34	2.29	20.56	0.48	1.87	0.22	0.46	1.13	100.00
SD-34	△	BR-GN	57.05	13.82	1.23	2.97	20.33	0.35	2.39	0.18	0.67	1.00	100.00
SD-35	△	BR-GN	59.60	14.30	1.55	2.50	17.87	0.55	2.10	0.24	0.46	0.82	99.99
SD-36	△	BR-GN	62.21	15.69	1.69	1.66	15.18	0.50	1.79	0.31	0.28	0.69	99.99
Average			60.18	13.82	1.45	2.26	18.05	0.48	2.23	0.23	0.39	0.90	100.00
Standard deviation			2.21	1.08	0.16	0.45	2.26	0.07	0.37	0.05	0.17	0.18	0.01
Group*Ⅶ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mixing fire-resistant support).												
SD-37	△	D-GN	56.66	12.05	1.61	3.55	20.90	0.48	1.89	0.25	0.56	1.99	99.94
SD-38	X	D-GN	60.92	13.96	1.41	1.88	17.62	0.63	2.65	0.17	0.17	0.60	100.00
SD-39	△	D-GN	61.45	13.87	1.28	1.72	17.04	0.54	2.96	0.19	0.35	0.61	100.01
SD-40	X	D-GN	58.95	13.13	1.62	2.61	19.28	0.80	2.07	0.24	0.44	0.88	100.00
SD-41	△	BR-GN	54.15	13.14	1.97	2.57	23.97	0.54	1.77	0.45	0.45	0.98	100.00
SD-42	△	BR-GN	60.02	13.97	1.32	1.83	18.42	0.82	2.73	0.20	0.15	0.53	99.99
Average			58.69	13.35	1.54	2.36	19.54	0.64	2.34	0.25	0.35	0.93	99.99
Standard deviation			2.80	0.75	0.26	0.70	2.56	0.14	0.50	0.10	0.16	0.55	0.03
Group*Ⅷ : *Deposited layers around the kiln site in Sadang-ri(Sand support, Inlaid design).												
SD-43	△	L-GN	59.25	13.26	1.43	1.95	19.37	0.50	2.97	0.25	0.35	0.66	100.00
SD-44	△	L-GN	60.37	13.30	1.13	1.75	18.90	0.56	2.84	0.15	0.43	0.56	100.00
SD-45	△	L-GN	57.98	12.96	1.25	1.84	21.59	0.47	2.74	0.27	0.26	0.65	100.00
SD-46	△	BR-GN	57.89	14.46	1.42	1.93	20.20	0.55	2.15	0.22	0.47	0.70	100.00
SD-47	△	BR-GN	58.07	15.36	2.25	2.06	16.74	1.22	2.87	0.36	0.56	0.51	100.00
SD-48	△	BR-GN	57.11	14.07	2.19	2.18	19.94	0.81	2.27	0.28	0.65	0.51	100.00
Average			58.45	13.90	1.61	1.95	19.46	0.68	2.64	0.25	0.45	0.60	100.00
Standard deviation			1.17	0.91	0.48	0.15	1.61	0.29	0.34	0.07	0.14	0.08	0.00

a Abbreviation
Texture: F-fine, MF-medium fine, MC-medium coarse, C-coarse texture
Color: BE-beige, BU-Blue, GY-gray, WH-white, BR-brown, GN-green, L-light, D-dark
b The powder of only body, whose glaze had been polished off, was mixed with flux, lithium tetraborate.
This mixture was melted in a platinium crucible and made into a bead for XRF measurement.
c Fe_2O_3: total Fe
d L.O.I.: loss of Ignition

Table 4. Composition of micro-crystals area in Goryeo celadon glazed measured by EDS

Sample number	Analyzed site	Oxideconcentration(wt.%)[a]										
		SiO_2	Al_2O_3	Fe_2O_3[b]	MgO	CaO	Na_2O	K_2O	TiO_2	MnO	P_2O_5	Total
SD-4	1	63.32	13.61	1.25	1.64	14.84	0.43	3.52	0.24	0.20	0.83	99.88
SD-7	1	63.09	13.99	1.70	2.00	15.03	0.50	2.49	0.21	0.35	0.65	100.01
SD-15	1	52.44	14.15	1.28	3.40	23.13	0.47	2.39	0.16	0.60	1.98	100.00
SD-16	1	53.64	23.50	1.32	1.01	16.30	1.13	2.30	0.10	0.01	0.68	99.99
SD-19	1	41.16	17.58	1.48	1.97	34.05	0.20	1.92	0.12	0.36	1.17	100.01
SD-22	1	60.36	14.14	1.23	1.59	17.64	0.60	3.14	0.20	0.38	0.72	100.00
SD-24	1	51.09	16.09	1.21	1.94	25.40	0.37	1.85	0.08	0.30	1.69	100.02
SD-26	1	42.35	40.08	7.28	0.56	1.05	0.00	7.86	0.00	0.26	0.57	100.01
SD-28	1	53.17	18.22	2.00	1.53	21.42	0.73	1.96	0.09	0.40	0.49	100.01
SD-39	1	60.84	13.79	1.36	1.86	17.63	0.53	2.73	0.24	0.27	0.76	100.01
SD-39	2	68.55	12.4	0.88	1.16	11.26	0.69	4.47	0.12	0.32	0.17	100.02
SD-41	1	43.43	15.7	2	2.07	32.83	0.38	1.74	0.44	0.44	0.82	99.85
SD-48	1	46.83	33.83	0.61	0.84	14.43	1.6	1.56	0.11	0.04	0.14	99.99

[a] The cross-section of sherds mounted in epoxy resin was polished for EDS measurement.
[b] Fe_2O_3 : total Fe

| 4 | 유약의 통계 분석

유약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Group Ⅰ부터 Group Ⅷ 청자 도편의 유약성분이 육안으로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서로 다른 성분으로 조성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비슷한 조성 성분을 하고 있음을 Table 3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도편들의 유약성분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와 각각의 성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은 주성분 1과 주성분 2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각 시료의 성분값 xij를 zij로 표준화한 후 위 식에 대입하여 얻은 주성분값(Principal component score) 1과 2를 Figure 5에 도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성분 1과 2는 변수전체로 설명되는 것의 36.9%, 22.8%를 각각 나타내어 주성분 1과 2에 의한 전체설명도는 59.7%였다. Table 5의 공통성(Communality) 값이 가장 높은 SiO_2, Al_2O_3, Fe_2O_3, MgO, CaO 순으로 분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Figure 5를 연결하여 보면 태토의 양상과는 달리 크게 한 개의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도편(SD-39, 47)만이 집단에서 떨어진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중 Group Ⅶ의 SD- 39 도편과 Group Ⅷ에서의 SD-47 도편은 한 개의 집단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도편에 비해 각각 SiO_2의 함량이 평균보다 2 wt.% 높거나 Al_2O_3의 함량이 평균 2 wt.% 높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태토의 조성성분에 비하면 유약의 조성성분은 서로 유사한 성분임을 알 수가 있다.

Figure 5.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major composition in the Goryeo celadon glaze from the kiln site in Sadang-ri, Gangjin, Jeollana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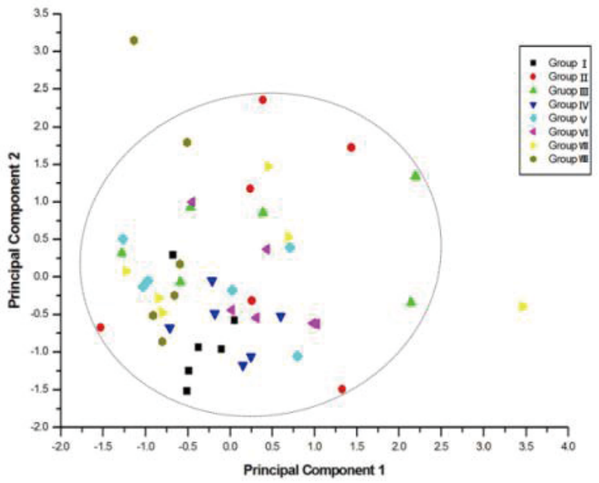


Table 5. Communalitie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igenvalue and proportion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Glaze)

Communalities

Elements	Communalities	
	Initial	Extraction
SiO_2	1.000	0.941
Al_2O_3	1.000	0.616
Fe_2O_3	1.000	0.791
MgO	1.000	0.879
CaO	1.000	0.959
Na_2O	1.000	0.602
K_2O	1.000	0.326
TiO_2	1.000	0.712
MnO	1.000	0.529
P_2O_5	1.000	0.838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nent	Eigenvalue	Proportion(%)	Cumulative(%)
1	3.693	36.927	36.927
2	2.286	22.861	59.787
3	1.214	12.142	71.929
4	0.875	8.754	80.684
5	0.688	6.880	87.564
6	0.543	5.428	92.991
7	0.335	3.348	96.339
8	0.241	2.414	98.753
9	0.125	1.246	100.000
10	0.001	0.000	100.000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Ⅳ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태토와 유약의 성분이나 미세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출토된 도편을 바닥 받침 방법과 도편 출토 위치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다양한 제작 시기와 장식 기법의 차이가 있는 청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마터 출토 도편과 달리 태토와 유약에서 큰 차이가 없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우선, 태토의 가시적 성질과 태토의 성분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도편으로 음 · 양각 기법으로 장식하면서 규석 받침으로 청자 바닥을 마감처리 한 Group Ⅰ인 도편이 가시적으로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분상으로도 또 다른 한 개의 집단으로 뭉쳐 있는 GroupⅡ~Ⅷ 도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Group Ⅰ인 도편은 다른 GroupⅡ~Ⅷ 도편들에 비해 SiO_2의 함량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Al_2O_3의 함량은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성분은 다른 도편들에 비해 소성온도를 매우 높게 해주어야만 양질의 고급청자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이다. 이런 조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질의 청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초기 강진 사당리에서 작업하던 도공의 숙달된 솜씨와 상당한 정성을 들여 제작하였음을 반증하는 자료라 생각된다. 하지만, Group Ⅰ 도편 이외의 집단으로 분류된 GroupⅡ Ⅷ 도편들은 비교적 일반적인 청자의 태토 성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시기가 이른 시기에 제작된 순청자나 음 · 양각 장식에 규석을 받침으로 한 고급 청자의 태토나 상감청자에 모래가 섞여 있는 내화토 받침 또는 모래 받침으로 마감한 늦은 시기 청자태토 모두 태토의 조성 성분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가마터에서 오랜 시간동안 제작되면 부득이 하게 다양한 태토 성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들은 양질이나 조질, 가마터에서 발견된 것이나 퇴적층에서 출토된 것이나 별 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번 분석에서 오히려 큰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유약의 미세구조나 유약 성분에서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당리에서 출토된 청자의 유색을 단지 육안으로 구별하여 각 여덟 개의 집단 내에 각각 양질 3개, 조질 3개의 편으로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태토의 양상에서는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것에 비하면 유약은 전체적으로 한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단지, 청자 도편이 제작 시기나 색이 좋거나 나쁨 등 육안으로 구별은 될지 몰라도 유약 성분으로는 큰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양질과 조질의 구별은 유약 내 소성과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석영이나 알루미나가 덜 녹거나 용융제 성분이 적정한 번조 온도를 받지 못해 유약 내에서 균질하지 않게 분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약의 색이 좋고 나쁨은 우선 태토의 수비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하며 나아가, 아무리 동일한 유약 성분일지라도 소성과정에서 불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잘 받아 구워졌는지, 아니면 소성 온도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냉각 속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변수에 의해 양질과 조질이 탄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전라도 왕실 전용 가마터로 추정되는 인근 가마터나 시기가 약간 늦은 것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분석을 상호 비교해보면 좀 더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 (2000).

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3 김정아, 「11~12세기 고려청자의 과학기술적 성분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 C. K. KOH, Y. E. LEE, I. W. SHIM, 「Compositional and Microstructural Study of KORYO Celadon and Whiteware Excavated from Sori Kiln in Kyonggi Province」, 『Archaeometry』, Vol. 46, issue 2, 2004.

5 Vandiver, P.B., 「Ancient Glaze」, Vol. 4, (Scientific American, 1990).

Abstract

For hundreds of years, the region of Gangjin in South Jeolla Province served as the primary production site of Goryeo celadon. Protected by mountains of various sizes in the north and the Pacific Ocean in the south, Gangjin has many geographic features that make it well-suited for ceram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irst, the area has an abundance of all the major ingredients needed for ceramic production, including clay, quartzite, water, and firewood. Second, with direct access to the sea via the southern coast, the area is ideal for marine transport. With this advantageous environment, along with the overall advancement of ceramic technology, celadon production thrived in Gangjin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with many new innovations being introduced. In 1914, archaeologists first discovered kiln sites in Gangjin, and since that time, the region has been given a place of great prominence in Korean ceramics history. Thus far, Gangjin kiln sites have been found in Yongun-ri, Gyeyul-ri, Sadang-ri, and Sudong-ri of Daegu-myeon and in Samheung-ri of Chillyang-myeon. To be specific, a total of 183 kiln sites have been found in Daegu-myeon, with each site yielding an array of celadon artifacts of different types and time periods, providing valuable insights about the emergence, development, consummation, and spread of Goryeo celadon.

In the spring of 1964, researcher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iscovered celadon roof tiles in Sadang-ri in Daegu-myeon, Gangjin. Following this discovery, the museum carried out nine more excavations from the fall of 1964 through 1977. These excavations were carried out primarily in Zone "Ga" (Sadang-ri 117 and 127 beonji), with the nearby Zone "Na" (kiln site 41, adjacent to 127 beonji) also being excavated in 1973, 1974, and 1977. In the first excavation of 1964, carried out in 117 beonji of Zone "Ga", numerous celadon artifacts and sedimentary layers were found. Notably, the discovered artifacts included various tile shards, including celadon roof-end tiles with a scroll design made by pressing a mold against the vessel. The second and third excavations took place in 126 and 127 beonji in 1965 and 1966. In those excavations, various celadon artifacts dating from the fourteenth century were recovered from the upper sedimentary layers (including the topsoil), while the lower layers yielded an array of objects from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In particular, the 1966 excavation uncovered the foundation stone for a kiln structure and building, surrounded by other supporting stones. The building sites discovered in 1966 were further examined in the fourth excavation, which took place in 1968. Also discovered at this excavation were inlaid celadon planks, which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scholars. During the fifth and sixth excavations, other kiln facilities of unknown purpose were excavated, with most of the discovered artifacts being inlaid celadon wares from the fourteenth century. The seventh and eighth excavations took place in 1973 and 1974 (respectively) at 127 beonji (kiln site 41) and 104-1 beonji of Zone "Na". The primary focus of these two excavations was a partially subterranean multi-chambered climbing kiln. The ninth and final excavation, carried out in 1977, completed the research on kiln site 41 and enacted various measures to preserve the site, including the strategic placement of sandbags to protect and support the walls of the kiln. Today, excavated celadon kilns in Gangjin are preserved with the goal of faithfully maintaining their original state.

In the years following these excavations, due to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cultivation of farmland, the remains of Zone "Ga" were damaged, with the sedimentary layers being disturbed. Numerous and diverse high-quality artifacts, ranging from monochrome celadon to inlaid celadon, have been excavated in the area, but given their wide discrepancies in style, type, and time period, they are not believed to be from a single kiln.

Items excavated from Zone "Ga" include celadon, white porcelain, and black-glazed vessels.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these (83.1%) are celadon, with only a smattering of white porcelain (0.1%) and black-glazed vessels (0.7%). Thu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kiln in Zone "Ga" was used primarily for celadon production. Other excavated items include shards from bisque firing, other kiln equipment, stoneware, and roof tiles.

A total of thirty-three types of celadon objects have been found in Zone "Ga", including bowls, cups, dishes, *maebyeong* vases, jars, ewers, bottles, flattened bottles, lidded cases, cups with a stand, ewers with a basin, vessel stands, incense burners (with lid), headrests, candlesticks, inkstones, spittoons, pharmacist's mortars, trays, flowerpots, chairs, planks, roof tiles, roof-end tiles, and other vessels with unique shapes. Categorized by type, the majority of discovered artifacts have been dishes (39.4%), followed by large bowls (22.7%), cups (10.8%), and smaller bowls (6.6%).

The discovery of such a diverse array of objects indicates that the celadon goods produced in Sadang-ri represented the full spectrum of the celadon culture of Goryeo. But the majority of the artifacts have been objects used in daily life, including various types of vessels related to food or drink (e.g., bowl, cup, dish, jar, ewer, *maebyeong* vase), along with various other household items (e.g., headrest, plank, roof tile, flowerpot) that were part of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of the time. Dishes, being the most abundant type of object, also show much greater diversity, in terms of their form and size, than the other types of object. Vessels used for rituals and other special occasions (e.g., *maebyeong* vase, jar, ewer, bottle, cup with stand, vessel stand, incense burner) account for 20.2% of the total objects. The so-called "uniquely shaped vessels" are objects with a shape unlike that of any other extant artifact or with an undetermined function. In fact, Zone "Ga" is particularly known for the diversity of uniquely shaped vessels that have been found there.

Ceramic vessels may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ape and style of their foot, generally falling into one of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haemurigup*, with a halo-shaped footring; *darigup*, a separate foot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vessel; *angup*, with a shallow indentation carved in the bottom of the vessel; and *pyeonggup*, with a flat bottom. Another method of classification refers to the type of clay or stone supports that were placed around the base of vessels when they were being placed inside the kiln for firing. Such supports come in five types, depending on the material from which they were made: quartzite, sand, white fire-resistant clay, a combination of fire-resistant clay and sand, and ceramic clay (i.e., the same material that the vessels themselves were made from). In Gangjin, the most common overall type of support was quartzite. However, most inlaid celadon vessels, including vessels for both daily and special use, were fired

with sand supports. Monochrome celadon vessels for daily use were usually supported with either quartzite or white fire-resistant clay, while monochrome vessels for special use were usually supported by either white fire-resistant clay or the combination of fire-resistant clay and sand.

A total of seven decoration techniques have been identified among Gangjin celadon vessels: incising, embossing, pressing with a mold, openwork, iron-brown underglaze, slip-paint, and inlay. The technique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among extant artifacts is incising, which was used on about 20.3% of the total of decorated vessels. This method was used for various types of vessels, including bowls, cups, dishes, and incense burners. The second most common technique is pressing with a mold (12.7%), followed by inlay (22.5%). In terms of the motifs, the incised and embossed designs include flowers (e.g., lotus, peony, aibika, *bosanghwa*, chrysanthemum), floral scrolls, waves with fish, parrots, dragons, and phoenix. Inlaid designs include flowers (e.g., lotus, peony, chrysanthemum), dragons, cranes with clouds, and waterside landscape. Various inscriptions have been identified on the extant vessels, made by incising, embossing, inlay, or painting with iron-brown underglaze. The most common type of inscription are inlaid *ganji* (cyclical characters indicating a year from the traditional sexagenary cycle). Also, many vessels have symbols (e.g., '+', '◯', '⊙' and '◎') incised on the bottom.

Excavated artifacts from Zone "Ga" range chronologically from the twelfth through the fourteenth century. The excavated artifacts include multiple examples of objects with the superior color and shape that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the peak of Goryeo celadon in the twelfth century. These masterpieces also demonstrate exceptional use of various decoration techniques, including incising, embossing, and pressing with a mold.

Artifacts excavated from kiln site 41 in Zone "Na" include celadon vessels, shards from bisque firing, and other kiln equipment. Most of the objects from kiln site 41 are vessels for daily use (e.g., bowls and dishes) with white fire-resistant clay supports attached for firing. Notably, many of these objects seem to have been stacked or piled with multiple vessels during firing, rather than placed in the kiln and fired individually. In terms of the forms, decoration techniques, and decorative patterns, these artifac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arlier (i.e., twelfth-century) artifacts from Zone "Ga". Nonetheless, as compared to Zone "Ga", far fewer objects have been found in kiln site 41 and fewer types of object have been identified. Most of the other artifacts excavated from Zone "Na" (i.e., from sites other than kiln site 41) are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twelfth century, although there are some that date from the fourteenth century. Again, as compared to Zone "Ga", far fewer objects and fewer object types have been found in other areas of Zone "Na". Also, the overall quality of the objects is considerably lower, with no major masterpieces having been found.

Based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artifacts, it is estimated that the kiln sites of Zone "Ga" and kiln site 41 of Zone "Na" have no direct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Based on the location and composition of the artifacts, the kiln sites in Zone "Ga" were likely one of a number of similar kilns operating around Sadang-ri, including those found at kiln sites 8, 23, 27, and 40.

Among the artifacts excavated from Zone "Ga", the celadon roof tile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they provide evidence in support of a historical record found in *Goryeosa* (高麗史, *History of Goryeo*). Written in 1157, eleventh year of King Uijong (r. 1146-1170), the record states that Yangijeong Pavilion (養怡亭) had roof tiles made of celadon. Furthermore, celadon shards from Zone "Ga" resemble renowned masterpieces of monochrome celadon found at other sites in Korea, including a celadon lotus-shaped incense burner and a celadon lobed *maebyeong* with incised dragon design. The shards also share some key characteristics with a celadon lobed vase (National Treasure 94) that is said to have been found in Jangneung (長陵), the royal tomb of King Injong (r. 1122-1146). The fine quality of these shards strongly supports the assertion that the kilns at Sadang-ri in Gangjin were producing celadon objects during the peak period of Goryeo celadon in the twelfth century. In addition, the Gangjin sites have yielded numerous inlaid celadon vessels with *ganji* inscriptions dating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ereby enhancing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fourteenth-century celadon from Sadang-ri.

번역 박명숙
감수 Phillip Maher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Excavation Report of the Kiln Sites of Sadang-ri, Gangjin

기획
강대규 장성욱

편집
황지현 장성욱

원고
장성욱 박미화 최예슬
황현성 윤은영 민다솔 김현숙(과학적 분석)

진행
장성욱 박미화 최예슬 송미형(자료 정리)
박미화 박재화 이화란 양현석 송미형 송호인 하재령
이진주 안채은 정세민(도면 제도)

사진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한정엽

북디자인
그라픽네트 송인혜 곽누리 여의주

원색분해
그라픽네트

인쇄
조은피앤피

발행일
2015년 12월 21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2077-9000 F. 02-2077-9928 www.museum.go.kr

비매품

9 788981 641436 93910

ISBN 978-89-8164-143-6 93910

ⓒ 2015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15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